

# 서울대학교백서

2002 ~ 2003



서울대학교

## 대학백서 작성 위원회

위원장	조신섭(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집필위원	서경호(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조흥식(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이재홍(공과대학 전기컴퓨터공학부)
	박은우(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공학부)
	조용환(사범대학 교육학과)
	이왕재(의과대학 의학과)
간 사	성삼제(기획실 기획담당관)

## 서 문

우리 대학에서는 대학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이를 통해 대학운영에 대한 학내외의 비판과 평가를 수용하며 대학발전에 대한 교직원 및 학생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87년부터 매년 대학백서를 발간하여 왔으며 1998년부터는 격년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 백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필위원들이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그 동안의 변화를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평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우리 서울대학교가 세계 일류대학으로 발전하는데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백서에 수록된 자료는 서울대학교가 추구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 할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및 행정수단을 마련하는 등 학내의 각종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 디딤돌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교육과 연구에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대학백서 집필에 참여해 주신 대학백서 집필위원 여러분과 이번 백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수집하느라 애쓰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4년 12월

서울대학교 총장 정 운 찬

# 목 차

I. 개 요	1
1. 2002~2003년의 개관	3
1) 교육	4
2) 연구	5
3) 교수	7
4) 대학생활 및 학생활동	10
5) 공간 및 시설	12
6) 행정 및 재정	16
2. 주요연혁	18
3. 조직	33
II. 현 황	37
1. 교 육	39
1.1 학사과정	39
1) 입학	39
2) 교육과정	51
3) 학생교류	66
4) 졸업 및 학위	68
1.2 대학원과정	71
1) 입학	71
2) 교육과정	71
3) 졸업 및 학위	76
2. 연 구	79
2.1 부속연구소(원) 및 국가지원연구센터(단)	79
1) 본부직할 연구시설	79
2) 국가지원연구센터(단) 및 국가지정연구실	81
2.2 연구인력	84

2.3 연구비 .....	87
2.4 연구기자재 확충 .....	92
2.5 연구지원행정 .....	95
1) 연구처 조직과 담당업무 .....	95
2) 연구비 관리 .....	96
3) 교내연구사업 지원 .....	97
4) 학술활동지원 .....	99
5) 기타 학술활동지원사업 .....	99
6) 본부직할 연구소(원) 평가 .....	101
2.6 연구실적 .....	101
2.7 연구처 중점 추진사업 .....	105
1)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설립 .....	106
2)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 설립 .....	106
3) Bio-Max Project .....	107
4) 두뇌한국 21(BK21)사업 .....	108
3. 교수 .....	109
3.1 교수 현황 .....	109
3.2 인사 .....	110
1) 전임교수 임용 .....	110
2) 기금교수의 채용 .....	112
3) 석좌교수제도의 도입 .....	114
4) 초빙교수 .....	114
5) 승진 및 정년보장 .....	115
6) 정년퇴임 및 명예교수 보임 .....	116
7) 보직임용 .....	117
3.3 처우 .....	118
1) 보수 .....	118
2) 성과급 지급 .....	118
3) 후생복지 .....	119
3.4 교수확보 .....	119
1) 전임교수 .....	119

2) 교수 학위소지 현황 .....	120
3) 교수보조인력 .....	120
3.5 교수의 대내외적 위상 .....	121
1) 교수윤리위원회 .....	121
2) 교수협의회 활동 .....	122
3) 사회봉사활동 .....	122
4) 교내 행정참여 활동 .....	123
5) 정부기관에서의 봉사활동 .....	124
6)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서의 봉사활동 .....	125
7) 기타 봉사활동 .....	125
3.6 국제교류 및 학술행사 .....	126
1) 해외 파견교수 .....	126
2) 국제 학술행사 교내 개최 .....	126
3) 국제 학술행사 참가 .....	127
4. 대학생활과 학생활동 .....	129
4.1 학생활동 .....	129
1) 학생 자치활동 .....	129
2) 학생 과외활동 .....	131
3) 학생 생활지도 및 지원 .....	136
4) 학생의 국제교류 .....	140
4.2 대학의 개방화 .....	143
1) 대학정보의 일반 제공 .....	143
2) 공개강좌 및 사회교육과정 운영 등 .....	147
3) 서울대 견학(Campus Tour) 사업 .....	151
4.3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	152
1) 생활협동조합 .....	152
2) 학생의료공제회 .....	154
3) 장애학생지원센터 .....	155
4) 진로·취업센터 .....	156
5) 입학관련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 .....	156
5. 지원기구 .....	157

5.1지원시설 .....	157
1) 도서관 .....	157
2) 정보화본부 .....	161
5.2 부속시설 .....	163
1) 규장각 .....	163
2) 박물관 .....	166
3) 교수학습개발센터 .....	168
4) 기초과학교육연구공동기기원 .....	169
5) 보건진료소 .....	171
6) 실험동물사육장 .....	172
7) 언어교육원 .....	173
8) 환경안전원 .....	176
5.3 부설학교 .....	177
1) 부설초등학교 .....	178
2) 부설중등학교 .....	178
5.4 법인 및 기타기구 .....	180
1) 출판부 .....	180
2) 생활협동조합 .....	182
6. 공간 및 시설 .....	183
6.1 공간 .....	183
1) 보유 공간 .....	183
2) 공간의 변화 .....	187
6.2 시설 .....	190
1) 보유 시설 .....	190
2) 시설의 변화 .....	207
7. 행정 및 재정 .....	210
7.1 행정 .....	210
1) 세계수준의 종합연구대학 추진 .....	210
2) 대학행정 제도개선 .....	219
3) 대학행정의 정보화 추진 .....	222
4) 서울대학교기록관 운영 .....	225

5)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선정 .....	226
6)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관련 대책 .....	226
7.2 재정 .....	227
1) 대학재정의 개관 .....	227
2) 일반회계 .....	229
3) 기성회 회계 .....	231
4) 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	233
5) 예산운용 .....	237
<b>III. 종합·평가</b> .....	241
1. 교육 .....	243
2. 연구 .....	247
3. 교수 .....	251
4. 대학생활 및 학생활동 .....	253
5. 공간 및 시설 .....	257
6. 행정 및 재정 .....	260
<b>부 록</b> .....	265
1. 부 표 .....	267
2. 2002년 주요 일지 .....	281
3. 2003년 주요 일지 .....	283
4. 서울대학교설치령 .....	285
5. 서울대학교학칙 .....	289



# I. 개 요

1. 2002~2003년의 개관

2. 주요연혁

3. 조직

# 1. 2002~2003년의 개관

세계수준의 종합 연구대학을 지향하는 서울대학교는 지성, 덕성, 감성을 고루 갖춘 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격변하는 외부환경 하에서 대학교육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교 구성원들의 노력은 2002~2003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기간 동안의 변화로는 기초교육원과 국제대학원의 설립, 평의원회의 강화, 입학정원의 조정 등을 들 수 있다.

대학입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고교평준화에 따른 공교육의 부실은 본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초래하여 이로 인한 대학교육의 부실이 심화되었다. 따라서 신입생의 기초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초교육원이 설립되었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국어 분야에서는 말하기, 글쓰기 교실의 개설을 통해 신입생들의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영어교육의 강화를 위해 대학 영어를 독립시켰다. 이공계에서는 수학 II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적분학 등의 능력이 부족한 학생을 위해 기초수학을 수강한 후 계절학기에 일반수학 및 연습 I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대학원 교육에 있어서는 국제통상, 국제협력, 주요지역에 대한 연구수행과 선진국 진입을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국제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 국제대학원이 2003년 3월 1일에 신설되었으며, 치과대학을 정원 90명의 치의학대학원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2002년 3월 5일 확정되어 200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학의 연구기능강화 및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학사과정 및 대학원 과정의 입학정원 조정은 2002~2003년에도 계속되었다. 특히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세계 수준의 대학원 교육 실현과 외형적 성장에 따른 교육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학원 정원을 축소하였다. 또한 석·박사 통합과정을 통해 수업연한을 1년 단축함으로써 3년에 수료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BK계약교수와 외국인 교수의 신규 임용의 증가가 특기할만하다 하겠다.

대외적으로는 학술교류를 통한 대학발전 및 국제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경주

되었다. 이를 위해 '옥스퍼드 Round Table' 참가를 통해 세계수준의 우수대학으로 진입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환태평양대학연합(APRU)'과의 국제교류, '동아시아 연구대학협의회(AEARU) 워크숍' 참가 등을 통해 일본, 중국 및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의 여러 대학들과의 협력을 통한 학문의 공동발전을 추구하였다. 외국인 연구원 전용숙소인 BK국제관의 개관으로 우수인력 유치의 걸림돌이 되었던 주택 및 복지후생의 문제가 해결되어, 외국인을 전임교수 또는 계약교수로 채용할 수 있는 초빙교수제도의 개선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 및 행정상의 변화로는 심의기구였던 평의원회를 2003년 11월에 국내 대학 중에서는 최초로 심의 및 의결기구로 승격시킴으로써 권한과 기능을 강화한 것을 들 수 있다. 평의원회는 교내인사 52명, 교외인사 13명 등 전부 6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총장후보 추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한편 2003년 7~8월에는 30개 부속시설에 대한 평가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C등급을 받은 기관은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대학문화의 발전을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숙원 사업으로 남아 있던 미술관 설립이 2003년 1월 1일 확정되어 학내 문화 공간 확충을 통한 학생들의 정서순화와 21세기 문화경쟁 시대에 요구되는 창조력 계발의 산실을 마련하였다.

2002~2003년의 서울대학교 백서는 I. 교육, II. 연구, III. 교수, IV. 대학생활 및 학생활동, V. 지원기구, VI. 공간 및 시설, VII. 행정 및 재정으로 나누어, 이 기간 동안의 변화를 개관하고 종합 및 평가를 기록한다.

## 1) 교육

2002~2003년에 교육 분야에서 일어난 두드러진 변화는 입시제도, 모집단위, 기초교육 등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입시제도에 있어서는 1998년부터 시행되어 온 '고교장 추천입학 전형제도'를 폐지하고,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을 병행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모집단위는 1999년 2학기부터 시작된 「두뇌한국 21」 사업에 따라 이미 광역화가 시작된 바 있다. 2002년에는 모집단위 광역화가 더 많은 단과대학에서 시행되었으며, 이미

모집단위 광역화가 시행된 대학에서는 부분적인 조정이 이루어졌다. 또 모집단위가 광역화됨에 따라 일부 학과에 전공예약제를 적용하였다.

기초교육의 강화를 위해서 기초교육원이 설립되었고, 이를 통해 교양과목이 「학문의 기초」, 「핵심교양」, 「일반교양」의 세 종류로 체계화되었다. 대학국어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종래의 읽기 위주의 강의를 지양하고 글쓰기 교육을 강화시켰다. 영어 교육의 강화를 위해서는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에서 주관하던 대학영어를 기초교육원 주관과목으로 독립시켰으며, 전임대우강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다수의 원어민 강사가 임용되어 영어 교육의 수준을 제고시켰다.

대학원 교육에서는 그리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지원학생 숫자가 정원에 미달하는 일부 대학에서 입학정원을 축소하여 대학원 교육의 내실화를 기한 점이 두드러진 변화라 할 수 있다.

## 2) 연구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반, 연구인력, 연구비가 그 대학의 연구역량을 결정하는 3대 요소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이 3대 요소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연구지원행정이 이루어질 때 우수한 연구 성과를 이룩할 수 있다. 대학의 연구기반은 크게 연구조직과 보유 시설 및 장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교의 연구조직으로는 2002~2003년에 신설된 2개 본부직할 연구소(원)와 11개 국가지원연구센터를 포함하여, 2003년 말 현재 총 61개의 본부직할 연구소(원)와 24개 국가지원연구센터가 있다. 연구시설(연구실험실, 대학원연구실, 연구소)의 연면적은 약 740,000㎡이고, 연구 장비는 국고 및 기성회 실험실습기자재확충사업비 203억원이 2002~2003년에 추가되었다. 특히 전국단위 공동실험실습관인 「기초과학교육연구공동기기원」과 「농업과학공동기기센터」는 각각 140억원과 200억원 규모의 고가 첨단연구기자재를 보유하고 있다.

2003년 2학기 현재 본교에는 1,603명의 전임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334명의 박사후 연구원, 9,908명의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40명의 기타 연구원이 방대한 연구조직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교수 1인당 평균 약 7명의 대학원생 또는 연구원들이 한 팀

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본교의 연구 인력에 관한 제도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2002년 4월에 제정된 '서울대학교연구원임용규정'에 준하여 석·박사급 연구자들을 연구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장이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으로 임용하고 신분증을 발급함으로써, 전임연구원의 신분을 정립시켰다. 2003년 현재 총 310명의 박사급 전임연구원(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본부직할 연구소(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학술연구비는 꾸준히 증가추세를 유지하여 2003년에는 2,410억원 규모에 이르렀다. 특히 2001년 이후 약 600억원이 증가된 것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예산규모가 커진 이유도 있겠지만 본교 교수들의 연구경쟁력이 강화된 증거로 볼 수도 있다. 교수 1인당 연구비는 2001년에 약 1억원이었으나, 2003년에는 약 1.3억원으로 30% 가까이 증가하였다. 분야별로 볼 때 공학 분야를 비롯한 자연계열 분야의 연구비가 많았으나, 2002~2003년 동안에는 인문사회분야와 예술분야의 연구비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반적인 연구비의 증가 추세는 본교가 종합연구대학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효율적인 연구지원행정은 연구기반을 확대하고 내실화하며, 연구 인력의 연구 활동을 촉진시키고,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적극적인 연구지원행정은 대규모 외부연구지원사업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연구비의 확대재생산에 기여할 수 있다. 간접연구경비는 이러한 연구지원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중요한 재원이다. 본교에서는 그 동안 연구비관리용 전산프로그램 개발과 연구비중앙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을 크게 높여왔다. 2003년에는 319억원 규모의 간접연구경비가 확보되었으며, 그 중 약 253억원이 교수들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연구처는 간접연구경비를 이용한 연구 활동과 학술활동 지원사업 이외에 부속 연구소(원) 평가와 학내 연구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기획사업을 추진하였다. 2003년에는 61개 본부직할 연구소(원)를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를 처음으로 활용하여 운영 실적이 우수한 36개 연구소(원)에 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예산을 차등 지원하였고, 매우 저조한 1개 연구소를 폐지시킨 바 있다. 주요 기획사업으로는 추진된 「서울대학교연구공원」 조성과 「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 설립은 산학협동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특히 출원과 관리 등의 업

무를 수행함으로써 교수들의 연구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3년 현재 교수 1인당 연구업적 발표실적은 교수 1인당 평균 10.66건이었다. 자료를 제출한 교수만을 대상으로 집계하였을 때의 발표실적은 교수 1인당 12.83건이었다. 한편 SCI(E) 등재 정기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수가 증가된 것으로 보아 연구업적의 질적인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교는 2003년에 총 3,189편의 SCI(E) 논문을 발표하여 세계의 대학 중에서 35위를 차지하였다. 자연계열 학문분야에 비하여 인문사회계열과 예술계열 학문분야는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간행물이나 발표방법이 훨씬 더 다양하여 연구업적을 일관되게 집계하고,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2001년 이후 인문사회계열과 예술계열 학문분야의 연구비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 분야의 연구업적을 객관적으로 집계하여 양적·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 3) 교수

1999년 1월의 '교육공무원법' 개정과 1999년 9월의 '교육공무원임용령'의 개정은 전임교수 임용에 몇 가지 변화를 초래했다. 우선 외국인의 교육공무원 임용이 가능해졌고, 신규임용 과정에서 특정대학 학사학위소지자의 임용비율이 제한되었으며(2/3 초과금지), 계약임용제(2000년1월1일부터 시행)와 단계별 심사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 외에도 정보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창조적인 지식 창출이 대학의 경쟁력 강화의 측면에서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부각됨에 따라 교수의 연구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승진임용제도 및 교수업적관리제도의 정비 및 강화가 요구되었다. 본교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2002년 6월 20일 '서울대학교전임교수및조교 임용규정'을 개정하였다.

2002~2003년에 교수로 신규 임용된 259명(기금교수포함)의 학력 및 경력을 분석해 보면, 50% 이상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본교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98명이었다. 또 석사학위가 최종학위인 경우도 18명이 있었다. 신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을 보면 국내 타교 교수나 연구원 등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많은데, 이는 박사학

위 취득 후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본교에 임용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으며, 외국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경력을 쌓은 사람이 임용된 경우도 있었다.

본교는 1994년 11월 '서울대학교기금교수운영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이 규정에 의해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18명과 12명의 기금교수를 신규 채용했다. 기금교수는 외부 기관이나 개인의 기탁금, 부담금 또는 이를 바탕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있으며, 처우는 교육공무원법이 정하는 대학교원 직급구분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기금교수의 임용 및 기타 사항의 세부 규정을 위해 '서울대학교기금교수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을 두고 있다. 기금교수와는 별도로 「두뇌한국 21」 사업으로 2000년부터 BK계약교수가 채용되었다. 2002년에는 35명, 2003년에는 44명 등 모두 79명이 채용되어 교육과 연구에 참여했다.

1997년 4월 8일에는 우수한 교외 인사의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석좌교수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석좌교수는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를 교내·외에서 선임하여 교육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용된 사람을 말하며, 노벨상이나 그에 준하는 국제 학술상을 수상한 사람, 인류사회 발전을 위한 업적이 뛰어나 국제기구 등에서 수여하는 상을 수상한 사람, 특정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하면서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이룩하고 인격과 덕망이 높은 사람,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 및 연구경력이 20년 이상이고 연구업적이 뛰어난 사람, 기타 석좌교수 자격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석좌교수제도의 운영경비는 외부기관 및 개인의 기탁으로 조성한 석좌교수 기금의 과실금이나 기탁금으로 충당된다. 그러나 1997년에 이 제도가 도입된 후 석좌교수로 임용된 사례는 아직 없다.

명예교수에 관한 세칙은 1997년 12월 5일에 개정된 바 있는데, 2002년에는 정년퇴임교수 40명보다 많은 44명의 명예교수가 추대되었다. 이것은 규정상 정년 전에 조기 퇴임하더라도 20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다는 조항을 활용해서 과거에 추대 대상에서 누락된 사람들을 추가로 추대했기 때문이다. 2002년에 새롭게 명예교수로 추대된 사람 중에는 고병익 전 총장도 있었다. 현행 명예교수의 선정은 형식적이며, 명예교수를 위한 신분관리와 처우가 미흡한 현실이다. 그러므로 재직기간이라는 일정요건만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추대되는 현재 관행에서 탈피해, 학문적

기여도, 사회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추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교 명예교수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연구 활동이 가능하도록 처우개선도 필요할 것이다.

초빙교수는 국가기관, 연구기관, 공공단체 또는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거나, 외국인으로서 본교와의 계약에 의해 기간제 신분보장을 받는 교수를 말한다. 초빙교수는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임용되며, 교수 및 연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가 제공된다. 현재 초빙교수는 주로 과학기술분야와 대학영어 및 그 외의 외국어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 해외의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현재는 시간강사 채용을 위한 예산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재정을 확보하는 실정이어서, 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유치하기보다는 가용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을 유치하고 데에 그치고 있다. 또한 초빙교수를 위한 주택제공이나 복지후생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우수인력의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두뇌한국 21」 사업 지원금으로 외국인교수 전용숙소가 건설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더욱이 법령의 개정에 따라 외국인을 전임교수 또는 계약교수로 채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초빙교수제도의 획기적 개선이 기대된다.

1995년 이후 연구보조비의 일부를 성과급의 형태로 지급해야 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결정에 따라, 성과급 연구비를 단과대학 별로 대학본부의 지침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 연구비는 직급별로 정해진 연간 연구보조비의 250%까지 차등 지급할 수 있는데, 2002년과 2003년에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차등 지급하였고 그 차이도 커졌다. 대학당국에서는 지급액의 표준편차가 큰 학과(부)에 대해서는 전체지급액을 늘려줌으로써 성과급 차등지급의 확대를 유도하였다. 교수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성과급 차등 지급에 대해 찬성 44%, 반대 54%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평가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탁월한 업적이 명백한 소수에게 상금형태의 성과급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이 제시되었다. 또 성과급과는 별도로 「두뇌한국 21」 사업 지원금으로 우수교수를 뽑아 특별연구 장려금을 지급하였다. 전체 전임교수의 약 1/3 을 업적우수교수로 선정하여 500만원씩 지급하였다. 2002년에 576명이 연구 장려금을 받았으나, 2003년에는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하여 지원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취소되었다. 앞으로 업적이 우수한 교수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교수들의 봉사활동은 매우 광범위하여 대학본부 및 소속대학의 각종 직책 수행을 통한 활동과 정부기관의 각종 자문위원회, 공공 및 민간단체와 국제단체에서의 활동 등을 꼽을 수 있다. 전문학술단체에서의 활동 및 공개강좌 등도 넓은 의미의 봉사활동이라 할 수 있다. 교내의 직책 담당 및 위원회 활동은 2002년에 1,092명이 참여한 데 비해 2003년에는 506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연구소를 비롯한 교내 기구의 축소와 통폐합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과대학별로는 간호대학(86%), 약학대학(77%), 치과대학(72%), 국제대학원(67%) 순으로 직책 수행 및 위원회 활동 비율이 높았다. 실제로는 겸직할 경우도 많아서 교수들이 교내 행정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2002년과 2003년에 연 인원 669명, 473명의 교수들이 정부기관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공공기관에서의 봉사활동은 주로 정부출연기관, 학원재단, 그리고 공익단체의 단체장, 이사 혹은 위원으로서의 활동을 가리키는데, 2002년과 2003년의 활동 비율은 비슷했다. 또 상당수의 교수들이 기업체, 협회, 협의회, 재단법인, 장학단체 및 동창회 등의 단체장 혹은 이사 등으로 활동하였다.

#### 4) 대학생활 및 학생활동

1993년 이후 학생회 활동의 중심이 정치사회적 관심사로부터 교내 교육 행정·환경·복지 문제 등으로 옮겨졌으며, 2002~2003년에도 그러한 경향은 지속되었다. 학생회와 학생들은 대학운영의 학생참여, 교통·식당·기숙사 문제, 등록금 및 장애학생 지원 문제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큰 행사로는 5월과 10월에 두 번 개최되는 '대동제'와 학년 초의 신입생 환영제, 4·19 마라톤 대회 등이 있다. 동시에 총학생회는 단과대학 학생회 및 외부단체와 연계하여 매년 수차례의 기타 행사를 주관하고 있으며, 학내 및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행사를 기획·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학생들의 참여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다.

학생들의 동아리는 학생처에 등록된 동아리와 단과대학에 등록된 동아리, 그리고 미등록 동아리 등으로 구분되며, 활동의 성격에 따라 학술, 매체, 사회, 취미교양, 예술, 종교, 무예, 체육 등으로 분류된다. 2003년에 학생처에 등록된 동아리 중에서 체

육동아리를 제외한 약 60개의 동아리가 학생회관 내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공간부족으로 1개의 방을 여러 동아리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두레문예관의 개관으로 연습실 부족으로 인한 동아리들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학생생활지도의 활성화를 위해 2001년에 확대 개편된 「대학생활문화원」은 개인상담과 대인관계능력개발, 집단상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의 고민해소와 역량 배양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2000년에 설립된 「성희롱·성폭력상담소」는 개인상담, 사건의 조사처리 및 학내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국제교류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도 증가하고 있다. 외국대학에서의 취득 학점을 인정하는 국외수학 허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대학이 지원하는 학생의 해외연수에 있어서도 단기와 장기 연수 모두 참여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다.

대학신문은 2002년 창간 50주년을 맞아 편집 및 기사의 내실화, '인터넷 대학신문'의 강화 및 디지털 데이터의 구축, 자문위원의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체제 및 내용의 보완과 개편을 통하여 서울대학교 공식 언론으로서의 위상 및 한국 대학지성인을 대표하는 신문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노력해왔다. 본교 홈페이지는 2002년에 방문자의 성향 분석을 바탕으로 이용자를 고려한 콘텐츠의 구성과 배치, 정보제공 방식 및 검색기능의 강화 등을 통해 한글 홈페이지를 대폭 개선하였고, 관리·운영을 위한 담당부서 지정과 단위기관별 웹 모니터링 요원의 지정으로 콘텐츠의 현시성이 상당히 개선되었다. 대학의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홍보영화, 대학백서, 국문요람, 통계연보, 기타 홍보 책자 등의 다양한 홍보물이 제작되었다. 공개강좌의 일환으로 외국 석학을 초청하는 '서남 초청강좌'가 지속되고 있으며, 문화관에서도 영화 상영을 중심으로 하는 기획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중에 제한이 없는 박물관의 '수요교양강좌'는 개설 이후 청중의 관심과 참여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며, 자연과학대학의 '자연과학 공개강연'도 매회 천명 이상의 일반인과 고등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단과대학(원) 및 기관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회교육과정도 과정의 수와 수강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또 중·고등학생, 학부모 및 일반 방문객들에게 캠퍼스를 직접 보여주는 '서울대 견학 프로그램'은 매일 2회, 주 6일 운영되고 있다.

2001년에 개편 설치된 생활협동조합에는 학생들도 운영주체로 참여하고 있다. 생활

협동조합은 최근 홈페이지 쇼핑몰을 개시하였으며, 식당과 서점 등의 환경을 개선하고, 식당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장애학생의 보다 나은 대학생활을 위하여 2003년 개소된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 전용 지원차량을 운행하는 동시에 장애학생의 교내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의 증설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 면담 및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이나 병사(兵事) 등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 5) 공간 및 시설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공간은 토지와 교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 토지는 본교 소유의 측량된 공간 전체를 말하며, 교지는 학교 시설에 직접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을 가리킨다. 2003년 4월 1일 현재 본교 보유 토지의 총면적은 관악, 연건, 수원 캠퍼스와 동승동 및 종암동의 부설학교, 전국 각지의 연습림, 수목원, 약초원 등을 총괄하여 약 192km<sup>2</sup>에 달한다. 그러나 보유토지의 96.9%가 연습림이고, 교지와 체육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면적은 약 1.5km<sup>2</sup>로서 전체 보유면적의 0.81%에 불과하다.

관악캠퍼스의 전체 면적은 4,638,816m<sup>2</sup>이다. 이 중에서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은 교지 982,015m<sup>2</sup>와 체육장 72,751m<sup>2</sup>를 합친 1,054,766m<sup>2</sup>에 불과하며, 여기에는 급경사지역과 버들골을 비롯한 녹지가 포함되어 있다. 관악캠퍼스의 사용 가능한 토지면적을 2003년 1학기의 관악캠퍼스 등록 학생수(29,410명 : 농업생명과학대학, 수의대 포함)와 대비할 때 학생 1인당 교지면적은 35.9m<sup>2</sup>가 된다. 이 수치는 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적 기준인 학생 정원 1인당 시설기준면적 31.6m<sup>2</sup>는 충족시키지만, '서울대학교 2000년대 미래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생 정원 1인당 시설소요면적인 120m<sup>2</sup>에 비해서는 크게 부족하다.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학생 1인당 교지면적이 131m<sup>2</sup>에 달하며, 미국 위스컨신대학교(UW-Madison)의 경우에도 그 수치가 110m<sup>2</sup>에 이르고 있다. '서울대학교 발전위원회 2차보고서'에서 제2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학생 정원(35,000명)과 '서울대학교 2000년대 미래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생정원 1인당 시설기준면적 120m<sup>2</sup>를 감안하면 2020년 기준으로 본교가 향후 확보해야 할 최소 교지면적은 약 4.2km<sup>2</sup>에 이른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 3.1km<sup>2</sup>의 교지면적 추가 소요가 있는 셈이다.

지난 몇 년 사이에 관악캠퍼스 내의 소통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는 전반적인 공간 활용의 효율성 문제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교내 교통 및 주차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관악캠퍼스에 확보된 주차장 공간은 3,451면에 불과한데, 정기권 발급 차량 9,360대를 고려하면 확보율이 37%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대책으로는 주차공간의 절대적 확충과 아울러 주차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2004년 2학기 석사과정 신입생부터 석사과정 학생들에 대한 정기권 발급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캠퍼스의 수용인구 증가에 따른 공간 및 시설의 절대 부족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포화 상태에 도달한 상황에서 시설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관성 없이 시설이 확장되고 있어서 교지 이용의 체계성이 약화되는 동시에 녹지 축소 및 훼손, 교통 주차 문제 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2캠퍼스 건립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관악캠퍼스의 정문 앞과 낙성대 지역으로 교지를 확충하는 방안이 검토 또는 추진되고 있다.

한편 부설학교를 관악캠퍼스로 이전하여 그 기능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최근에 와서 결실을 맺게 되었다. 부설 중학교(남·여중 통합)와 고등학교를 관악구 낙성대 인근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2001년 11월에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다. 2002년에는 이전계획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연구를 한국교육개발원에 위촉하면서 부설학교 이전사업은 구체적인 추진단계에 접어들었고, 현재는 이전 예정 부지의 추가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전할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이고 그 용적률이 50%로 제한됨을 고려할 때 최소한 85,686㎡ 이상의 부지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동시에 1997년에 착수한 농업생명과학대학과 수의과학의 관악캠퍼스 이전사업이 2004년에 완성될 예정으로 있어 두 대학은 물론 관련 대학들의 교육·연구 환경 개선에 큰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을 위한 예산은 수원캠퍼스의 교지 일부를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국고에서 차용하였으며, 따라서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이전 재원의 상황을 위한 수원캠퍼스의 부지매각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수원캠퍼스 교지면적 85,509평 가운데 71,534평을 매각할 예정이며, 행정관 주변의 13,975평은 보존하여 「농업사박물관」, 「실습장관리본부」, 「동물병원」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본교의 시설은 교육기본시설, 연구시설, 지원시설, 부속시설, 후생복지시설, 체육시

설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교육기본시설은 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행정실로 세분할 수 있다. 연구시설은 연구용 실험실, 대학원 연구실, 연구소 등을 포함한다. 지원시설은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설로서 중앙도서관, 교수학습개발센터, 언어교육원, 정보화본부, 대학출판부, 학생회관, 두레문예관 등이 포함된다. 부속시설은 대학의 사회교육적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본교에는 규장각, 박물관, 미술관, 부설학교 등이 있다. 후생복지시설은 학내 구성원들의 건강하고 안락한 캠퍼스 생활을 위한 각종 시설을 말하며 보건진료소, 학생기숙사, 교직원 및 방문객 주거 시설, 식당, 생활협동조합, 기타 편의시설이 여기에 포함된다. 체육시설에는 운동장, 실내체육관, 서울대/포스코스포츠센터 등이 있다.

2003년 4월 1일 현재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의 전체 규모는 동수로 391동, 건축면적으로 284,498㎡, 연면적으로 939,807㎡에 달한다. 주요 용도별로 나누어 보면 교육을 위한 기본시설 및 지원시설이 각각 323,386㎡와 145,716㎡이며, 연구시설이 252,143㎡, 기숙시설이 92,606㎡이다.

본교는 지난 몇 년에 걸쳐서 강의실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그 예로 2003년부터 강의실 수강용 책걸상을 전면 교체하고 있으며, 각 강의실에 컴퓨터, VTR, 실물화상기, 빔 프로젝트, 동시통역설비, LCD 등 최신 설비를 갖추는 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두뇌한국 21」 사업 재원으로 인문사회계 멀티미디어 강의동을 건립하여 2003년 여름 계절학기부터 수업공간을 배당하기 시작하였다.

‘서울대학교 캠퍼스부문 장기계획 2002~2006’에서는 대학원 연구실의 기준면적을 대학원생 1인당 5㎡씩 모든 단과대학에 걸쳐 균등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거하여 볼 때, 2003년 4월 1일 현재 대학원 연구실 면적의 현재 평균은 5.3㎡로서 시설기준 5㎡를 약간 상회하는 편이다. 그러나 아직 시설면적의 부족을 호소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와 충족 방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관악캠퍼스에는 관악사가 있고, 연건캠퍼스에는 연건기숙사, 함춘사, 국제회관 등 3개 기숙사가 있다. 이들 기숙사의 총 수용능력은 3,655명으로서 2003년 1학기 등록학생수(32,376명)의 11.3%에 해당되지만, 대학원생은 시설 부족으로 입사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2003년에 「두뇌한국 21」 사업의 일환으로

관악캠퍼스에 대학원 기숙사 1개동 18,538㎡와 BK국제관 숙소 17,509㎡를 건립하여 약 1,400명을 1차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연건 캠퍼스에도 162명을 수용하는 기숙사를 지상 9층 규모로 신축하였다.

교직원의 주거 안정은 고급 인력 확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학교 발전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취지 하에 종전의 교수아파트와 총장공관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교수 및 직원을 위한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우선 총장공관 부지와 교수아파트 부지를 각각 1단계(2004~2005)와 2단계(2005~2006)로 나누어 추진될 예정이며, 1단계 공사로 2003년 말 총장공관을 철거하였다. 교직원숙소는 공동주택(숙소) 254세대(1단계 88세대, 2단계 166세대), 연면적 32,640㎡(9,874평)으로 계획되어 있다.

관악캠퍼스는 종합운동장을 비롯하여 6개의 운동장을 갖추고 있으며, 수원캠퍼스와 연건캠퍼스에 각 1개의 운동장이 있다. 이 운동장들의 총면적은 89,477㎡로서 2003년 1학기 등록생(32,376명)을 기준으로 할 때 학생 1인당 2.67㎡에 해당한다. 이 면적 자체가 그리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축, 증축, 개축되는 건물들로 인해 그나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대학교 캠퍼스부문 장기계획(2002~2006)’을 기준으로 각 단과대학(원)별 교육연구시설 소요를 추정하고 2003년 9월 1일 현재 기준으로 그 달성률을 분석해 보았을 때 단과대학(원)별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영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미술대학, 법과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은 100%의 달성률을 보이는 반면에, 사범대학과 환경대학원은 지극히 저조한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2002~2003년 사이에 관악캠퍼스와 연건캠퍼스에 새로 준공된 건물은 건수로 16건, 연면적으로 약 128,306㎡, 건축면적으로 약 24,628㎡ 규모이다. 관악캠퍼스에는 기존 건물 연면적 713,319㎡의 약 16%에 달하는 115,000㎡가 2002~2003년 동안 새로 건축되었으며, 연건캠퍼스에도 기존 건물 연면적 107,733㎡의 약 12%인 13,305㎡ 규모의 건물이 개발되었다.

전반적으로 본교의 시설은 양적 측면에서 눈에 띄게 나아지고 있다. 그러나 질적 체계성, 균형성, 효율성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 6) 행정 및 재정

2002년 7월에 본교 제23대 총장으로 취임한 정운찬 총장은 지식기반사회의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본교의 구체적 목표로 '세계수준의 종합연구대학'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다. 2002년에는 전임 총장의 임기에 마련되었던 계획안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제3차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2002~2011)'을 공포하였으며,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학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심의·의결기구로 그 기능이 강화된 평의회에서 총장후보 추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2003년 말 현재 본교는 교육조직으로 1개 일반대학원, 16개 단과대학, 4개 전문대학원을 두고 있으며, 행정조직으로 교무처, 학생처, 연구처, 기획실, 사무국, 시설관리국 등의 3처 1실 2국, 지원기관으로 입학관리본부, 대외협력본부, 정보화본부, 중앙도서관 및 기초교육원 등을 두고 있다. 심의기구였던 평의회가 국내 최초로 심의·의결기구로 승격되었으며, 심의기구로는 학장회, 기획위원회, 재정위원회, 대학원위원회, 대학인사위원회, 기초교육위원회, 학사운영위원회, 연구위원회, 정보화위원회 등이 있다. 행정조직의 세부 단위로 16개 과(課)와 15개의 단과대학 행정실이 있으며, 과중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2003년 3월부터 연구부처장 및 기획부실장 직위를 다시 설치하였다.

행정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부속시설을 평가하여 C 등급을 받은 4개 기관을 등재 삭제하거나 등재 삭제 검토 중이다. 청소 및 경비업무와 같은 단순 업무는 계속 민간 기업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해 국내 민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전체 직원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장단기 해외연수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직원들의 사기를 제고하기 위해서 개인별 다면평가제와 조직단위별 평가를 통해서 우수 직원 및 부서를 선발 포상하였다. 대학행정의 정보화 추진을 위해 신기술 반영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서울대학교 포털 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하여 2003년말부터 학내 구성원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아울러 통합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키오스크 형태의 단말기로 이용하던 것을 새로운 방식인 CNS(Campus Network Solution)의 인터넷 검색용 일체형 PC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산

학협동차원에서 2003년 2월부터 무료로 장비를 제공받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8개 기관에 PC 총 16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장애학생들을 위한 인터넷 검색대 6대를 중앙전산원 1층 로비에 설치하여 편리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학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1년 5월에 기록관이 설립된 이후 2002년에 제2회 대학역사전, 2003년에 제3회 대학역사전 개최 등을 실시했지만 아직 활동이 왕성하지 못한 형편이다. 「두뇌한국 21」 교육개혁 지원사업과 대학원전용시설 구축사업이 계속 이루어져 왔으며, 교육·연구 및 행정발전 여건 마련을 위해 교직원숙소를 건립하겠다는 정운찬 총장의 공약이행에 따라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이밖에도 12회, 13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선정사업이 이루어졌고, ‘세계일류 종합연구대학’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대학의 발전상을 적극 홍보할 뿐만 아니라 대학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다양한 홍보물들을 발간하였다. 그리고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관련 대책을 꾸준히 모색해오고 있다.

본교의 재정을 보면, 총예산은 2001년에 처음으로 3,000억원을 넘어선 이후 2003년에는 3,711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중에서 국고지원액은 약 1,908억원으로 전체의 51.4%를 차지하였다. 국고지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입예산 구조를 보면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의 구성비가 2002년 59.3 : 40.7, 2003년 56.8 : 43.2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0년 61.8 : 38.2나 2001년 61.4 : 38.6에 비해 최근 들면서 일반회계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기성회회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본교의 재원은 국고회계와 기성회회계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재원은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매년 일정 수준이상으로 증액되기 어렵다. 따라서 재정 확충을 위해 학교발전기금, 대학발전기금, 기부금에 의한 시설확충, 연구비 간접경비 징수, 체계적인 투자계획 등 다양한 자구노력을 하고 있지만, 세계수준의 종합연구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재정 수입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2. 주요연혁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걸어온 길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46. 8.22.       국립서울대학교신설에 관한 법령 공포로 본교 설치
- '49. 12.31.      교육법 공포로 교명을 「서울대학교」로 개칭
- '50. 9.30.        사립 서울약학대학을 본교 약학대학으로 편입
- '52. 1.15.        대학신문사 신설
- '53. 4.20.        국립학교설치령 제정 공포로 농과대학 수의학부는 수의과대학,  
예술대학의 미술부와 음악부는 각각 미술대학과 음악대학으로  
승격 개편
- '57. 5. 1.        보건진료소 신설
- '59. 1.13.        행정대학원 및 보건대학원 신설
- '59. 4. 1.        치과대학 6년제로 개편(치의예과 신설)
- '61. 2.27.        상과대학에 한국경제연구소 신설
- '62. 2. 1.        수의과대학을 농과대학에 병합
- '62. 2.17.        사범대학원, 학생지도연구소 신설
- '63. 1. 1.        어학연구소 신설
- '63. 4.12.        교육대학원 신설
- '65. 11.24.      경영대학원 신설
- '67. 1. 1.        법학연구소 신설
- '67. 12.24.      신문대학원 및 교양과정부 신설
- '68. 7.19.        종합화 10개년 계획을 위한 서울대학교 시설확충 특별회계법  
제정 및 시행령 공포
- '68. 10.17.      사범대학 부속여자중학교 신설
- '68. 12.24.      가정대학 신설
- '70. 4. 8.        서울대학교설치령이 제정 공포되어 종합화 10개년 계획의 추진 기구  
로 건설본부 신설

- '70. 6.23. 재외국민교육연구소 신설
- '71. 6.10. 사법대학원 폐지
- '72. 3. 9. 부설 한국방송통신대학 신설
- '73. 1.25. 환경대학원 신설
- '74. 1. 4. 수의과대학 신설
- '75. 2.28. 서울대학교 설치령 개정
  -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신문대학원 폐지
  - 문리과대학, 상과대학 및 교양과정부를 폐지하고,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및 경영대학으로 개편
  - 전자계산소, 교육매체제작소, 실험동물사육장 신설
- '75. 3. 1. 관악캠퍼스로 1단계 이전  
(본부, 대학원,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가정대학, 경영대학, 법과대학, 사범대학, 행정대학원, 환경대학원, 도서관, 박물관, 보건진료소, 전자계산소, 교육매체제작소, 어학연구소, 학생생활연구소, 경제연구소, 법학연구소, 실험동물사육장, 학생기숙사)
- '75. 8.30. 약학대학 관악캠퍼스로 이전
- '76. 2.28. 미술대학 및 음악대학 관악캠퍼스로 이전
- '76. 8.30. 미국학연구소 신설
- '77. 2.28. 사회과학연구소 신설, 재외국민교육연구소 폐지, 건설본부 폐지
- '77. 3.18. 재외국민교육원 신설
- '78. 8.16. 의과대학 부속병원, 치과대학 부속병원을 개편하여 특수법인 서울대학교병원으로 발족
- '79. 7.13. 한국문화연구소 신설
- '79. 12.31. 공과대학 관악캠퍼스로 이전
- '81. 2.28. 자연과학종합연구소 신설
- '82. 2.15. 부설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 개정으로 본교에서 분리독립
- '82. 6. 4. 환경안전관리소 신설
- '85. 7. 5. 기획실, 유전공학연구소, 반도체공동연구소 신설
- '87. 8. 3. 연구처 비법정기구로 설치
- '88. 6.17. 신소재공동연구소 신설

- '88. 10.22. 자동화시스템공동연구소 신설
- '89. 9.27. 호주시드니대학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 '89. 10.28. 연구처의 법정화, 기획실에 기획담당관 신설
- '90. 1.25. 헝가리 부다페스트공대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 '90. 4.19. 미국 UCLA 대학과 위성통신강의 개설
- '90. 8. 2. 소련 레닌그라드한림원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 '90. 8. 3.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 '90. 8.17. 일본 동경대학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 '90. 9.11. 규장각 준공
- '90. 12. 6. 천문관측소 개관
- '91. 3.20. 과학·공학연구센터 신설
- '91. 6.22. 유전공학연구소 신설
- '91. 11.18. 서울대학교 운영 보라매병원 개원
- '91. 11.27. 호주 국립대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 '91. 12. 6. 서울대-호주 그리피스 대학간 위성통신망 개통
- '92. 3. 6. 서울대학교 설치령 개정
  - 간호학과를 간호대학으로 승격
  - 농과대학을 농업생명과학대학으로 명칭변경
  - 기초과학교육연구공동기기원, 신소재공동연구소, 지동화시스템공동연구소, 지역종합연구소, 인문과학연구소를 본교 부속기관으로법정화
- '92. 4. 6. 의학박물관 개관
- '92. 4.17. 약학연구관 개관
- '92. 9.16. 컴퓨터신기술공동연구소 신설
- '92. 9.17. 교내기구로 발전기금조성위원회 및 발전기금조성추진위원회 설치
- '93. 2.16.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착공
- '93. 10. 8. 개교 50주년 기념 사업위원회 구성
- '94. 2.28. 서울대학교 설치령 개정
  - 신문연구소를 언론정보연구소로 명칭 변경
  - 인구의학연구소를 의학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 인문과학연구소를 인문학연구소로 명칭 변경

- '94. 3.29.        고등교육개혁심포지엄 개최
- '94. 5.21.        임해해양연구센터 기공식
- '94. 6. 1.         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소 착공
- '94. 6.27.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 착공
- '94. 7.19.        영국 옥스포드대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 '94. 8. 8.         기혼자용 대학원생 기숙사 기공식
- '94. 8.30.        관악사 각 사생실 전화 개통식
- '94. 10.24.       인제대와 학술 교류 협정 체결
- '94. 11.21.       대학종합(현지방문)평가 실시
- '94. 11.24.       서울대학교 2,000년대 미래상 및 관악 캠퍼스 발전관리기본계획 공  
청회 개최
- '94. 12.15.       자동제어특화연구센터 개소식
- '95. 2.21.        도서관 『학술정보시스템』 가동식
- '95. 2.28.        서울대학교 설치령 개정으로 각 단과대학(원) 학장보 제도 폐지, 행  
정실장제 신설
- '95. 11.16.       개교 50주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구성
- '96. 2.22.        정밀기계공동연구소, 농업과학공동기기센터, 암연구소 및 간연구소신설
- '96. 2.23.        제 21대 선우중호 총장 취임식
- '96. 3. 1.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시설로 "농업생물신소재연구소"를 신설
- '96. 5.23.        교내기구로 "국제교류센터"를 설치
- '96. 12. 4.       공과대학 부속시설로 "초미세소자기술연구소" 및 "화학공정신  
기술연구소" 신설
- '97. 2.27.        설치령 중 개정으로
  1. 단과대학중 명칭변경 - "가정대학"을 "생활과학대학"으로
  2. 부속연구시설중 명칭변경
    - "사회과학연구소"를 "사회과학연구원"으로
    - "자연과학종합연구소"를 "기초과학연구원"으로
    - "지역종합연구소"를 "국제지역원"으로
    - "정밀기계공동연구소"를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로
  3. 부속연구시설 신설

- 컴퓨터신기술공동연구소
- 교육종합연구원
- 4. 단과대학 및 전문대학원에 부속시설 신설
  - 약학대학에 "부속종합약학연구소"
  - 자연과학대학에 "부속이론물리학연구소" 및 "부속미생물연구소"
  - 치과대학에 "부속치학연구소"
  - 환경대학원에 "부속환경계획연구소"
- 5. 단과대학부속시설중 명칭변경
  - "의과대학간연구소"를 "의과대학부속간연구소"로
  - "의과대학암연구소"를 "의과대학부속암연구소"로
- 6. 단과대학 부속시설중 "사범대학부속과학교육연구소"를 폐지
- '97. 5.30. "지진공학연구센터" 및 "수중음향특화연구센터"를 신설
- '97. 6.20. 농업생명과학대학 "녹원사와 상록사"를 "상록사"로 통합
- '97. 10.27. 멕시코 과달라하라 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체결
- '97. 11.14. 생활과학대학부속 어린이집 규정 공포
- '97. 11.19.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체결
- '97. 12. 4. 독일 본 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체결
- '98. 1.31. "서울대학교 종합정보화 기본계획" 확정 발표
- '98. 2. 3. 서울대학교교수윤리위원회규정 제정
- '98. 3.24. 캐나다 사이몬프레이저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체결
- '98. 4. 8.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체결
- '98. 4.14. 대학기록관리실 설치
- '98. 6.10. 프랑스 소로몬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체결
- '98. 6.24. 대만 국립대만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체결
- '98. 6.25. 태국 출라롱콘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체결
- '98. 6.25. 일본 와세다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체결
- '98. 7. 8. 일본 동북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체결
- '98. 8. 3.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을 위한 「서울대학교 개혁안」 발표
- '98. 9.10. 학칙 개정
- 수의예과 설치

- 자연과학대학의 학과, 학과군을 자연과학부로 변경
  - 공과대학의 기계·기계설계·항공우주공학과군을 기계항공공학부로, 응용화학부와 섬유고분자공학과로 변경
  - 미술대학 공예과, 산업디자인과를 디자인학부로 변경
  -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가족학과군을 소비자아동학부로 변경
  - 대학원 소비자아동학과 소비자학 전공을 소비자학과로, 아동가족학 전공을 아동가족학과로 변경
- '98. 10.14. 서울대학교 상징조형물 제막
- '98. 11.24. 제22대 이기준 총장 취임식
- '98. 12. 4. 서울대-디지털조선일보 TEPS 독점시행계약
- '99. 5.25. 학칙 개정
- 대학원 공예과 및 산업디자인과를 디자인학부로 변경
- '99. 9. 1. 두뇌한국21사업협약체결
- 과학기술분야 : 12개 사업단
  - 핵심분야 : 18팀
- '99. 9. 1. 전자결재제도 전기관 운영
- '99. 10.25. 두뇌한국21사업단에관한규정 제정
- '99. 11.24. 학술정보원 설치
- '99. 11.27. 서울대학교두뇌한국21사업단소속계약제교수운영지침 제정
- '99. 12. 9. 두뇌한국21사업협약체결(인문사회분야 3개 사업단)
- '99. 12.31. 미국 워싱턴주립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체결
- '00. 1. 1. 위임전결사항에관한규정 개정
- '00. 2. 3. 학칙 개정
-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를 컴퓨터공학부로
  - 대학원 수학과는 수리과학부로
  - 대학원 생물학과, 분자생물학과, 미생물학과는 생명과학부로
  - 대학원 천문학과, 대기과학과, 지질과학과, 해양학과는 환경과학부로
  - 대학원 물리학과는 물리학부로
  - 대학원 화학과는 화학부로

- 대학원 석사과정 재료공학부, 섬유고분자공학과는 재료공학부로, 대학원 박사과정 금속공학과, 섬유고분자공학과, 무기재료공학과는 재료공학부로
  - 대학원 전기공학부, 컴퓨터공학과 및 전산과학과는 전기·컴퓨터공학부로
  - 대학원 석사과정 기계공학부, 항공우주공학과는 기계항공공학부로 대학원 박사과정 기계공학과, 기계설계학과, 항공우주공학과는 기계항공공학부로
  - 대학원 자원공학과, 토목공학과(토목공학전공, 도시공학전공)는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로
  - 대학원 동물자원학과, 농화학과, 농생물학과(기초농생물학전공, 식물병리학전공, 곤충학전공), 식품공학과는 농생명공학부로
  - 대학원 의학과, 치의학과, 약학과는 인간생명과학부로 변경
- '00. 2. 3. 전임교수 및 조교임용규정 개정
- '00. 3. 7. 학생증발급규정 개정, 연구비관리규정 개정, 두뇌한국21사업단에 관한 규정 개정
- '00. 4. 4. 외국대학과의공동학위수여에관한규정 제정, 학위수여규정 개정
- '00. 5. 3. 계열수업운영에관한규정 개정, 정보화조정위원회규정 개정
- '00. 6.30. 성희롱·성폭력에방과처리에관한규정 제정
- '00. 7.31. 입학관리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정, 중앙도서관규정 개정
- '00. 9. 8. 학생지원센터 설치
- '00. 9.28. 장학금규정 개정, 기숙사규정 개정, 과학·공학연구센터설치및운영에 관한통칙 개정, 창업지원에관한규정 제정
- '00. 12.11. 석사·박사통합과정운영에관한규정 제정, 학위수여규정 개정  
전임교수및조교임용규정 개정
- '00. 12.29. 입학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개정, 대외교류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개정, 사무분장규정 개정
- '01. 2. 1. 학칙중 개정, 학사과정유급규정개정, 계약직시설공사감독원운영규정제정
- '01. 3. 2. 서울대학교설치령 개정
- 교육조직과 행정조직 등을 총수 범위내에서 학칙에 규정

- 부속시설의 자율적 설치와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폐여부 결정
  -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등 세부사항을 학칙에 규정
  - 부속시설의 장은 관련대학(원), 학과(부)의 장이 겸보 원칙
  - 행정실을 15개 범위내에서 설치하되, 통합행정실 설치 가능
- '01. 3. 8. 교수학습개발센터 설치
- '01. 3.23. 포스코IB운영규정 제정
- '01. 4. 6. 규정 개정
- 기초과학연구원, 수의과대학부속수의과학연구소, 한국문화연구소, 사범대학부설교육연구소, 보건대학원부설국민보건연구소, 컴퓨터신기술연구소, 신소재공동연구소, 농업생명과학대학부속수목원, 공학연구소, 농업생명과학대학부속농업과학공동기기센터연구소, 학생증발급규정
- '01. 4.21. 명예교수에관한세칙중개정세칙 개정
- '01. 5.24. 규정 개정
- 연합전공이수규정, 의과대학부속의학교육연수원규정, 한국문화연구소 규정, 유전공학연구소규정, 기초과학연구원규정, 기록관규정 제정
- '01. 7. 6. 규정 개정
- 공개강좌규정, 복수전공이수규정, 교수업적관리·평가에관한규정 규정 제정
  - 강사료지급규정, 대외교류위원회규정
- '01. 8.31. 과학·공학연구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통칙 개정
- '01. 9. 1. 학칙 개정(전면 개정)
- 학칙의 기본구조를 장·절로 전면 개편(기존 16장 → 6장 16절)
  - 부속시설 및 협동과정의 운영실적을 2년마다 평가하여 존·폐 여부 결정
  - 전임교수는 대학(원)의 학과(부)에 소속하며, 학생은 모집단위 또는 교육조직에 소속
  - 지원시설로 입학관리본부, 대외협력본부를 신설하고, 16개과또는 담당관을 둠
  - 교양교육위원회와 교과과정위원회의 명칭을 기초교육위원회와 학사운영위원회로 각각 변경하여 기능 강화



- 조기졸업 사정승인제(24학점까지 취득)를 폐지하고 학기당 취득학점을 직전 2학기 평점평균이 3.3이상인 경우 21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석·박사학위 수여요건 강화 및 계절학기 이수학점을 9학점까지 상향 조정

- '01. 9. 8. 사무분장규정 개정, 대학(원)및부속기관업무처리규정 개정
- '01. 10.30. 학생징계절차등에관한규정 제정, 캠퍼스이용규정 제정, 학생회및학생단체지도규정 개정
- '01. 11.21. 규정(학칙) 개정
  - 두뇌한국21사업단에관한규정, 연수연구원규정, 농업생명과학대학부속연습림규정, 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학칙, 언어교육원규정, 대학생활문화원규정
- '02. 1. 7 위임전결규정 개정
  - 학과배정규정 개정
  - 전과(부)규정 개정
  - 부전공이수규정 개정
  - 복수전공이수규정 개정
  - 계절수업운영에관한규정 개정
  - 학업성적처리규정 개정
  - 외국대학과의학생교류수학및학점인정에관한규정 개정
  - 국내대학과의학생교류수학및학점인정에관한규정 개정
  - 학력증명서발급규정 개정
  - 학생증발급규정 개정
  - 학생포상에관한규정 개정
  - 성희롱·성폭력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 개정
  - 기획위원회규정 개정.
- '02. 2. 21 학칙 개정
  - 별표2 「학사과정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변경.
  - 별표3 「대학원과정의 학과(부)·전공 및 2002학년도 입학정원」 변경.
  - 별표5 「부속시설」 변경.

경시대회업무처리규정 제정, 교수학습개발센터규정 개정, 정년보장임용시사위원회규정 개정, 교수업적관리·평가에관한규정 개정, 겸임교수규정 개정, 명예교수에관한세칙 개정, 각대학(원)인사위원회규정 개정, 박물관규정 개정, 사범대학부설교육행정연수원규정 개정, 사범대학부설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규정 개정, 의과대학부속의학교육연수원규정 개정, 치과대학부속치의학교육연수원규정 개정, 대학원위원회 상임위원회에대한규정 개정, 기금교수운영에관한시행세칙규정 개정, 중앙도서관규정 개정, 수의과대학동물병원규정 개정, 사범대학부설중등교육연수원규정 개정, 약학대학부속약학교육연수원규정 개정, 농업생명과학대학부설중등교육연수원규정 개정

'02. 2. 26

인문학연구원규정 제정, 여성연구소규정 제정, 사회발전연구소규정 제정, 국토문제연구소규정 제정, 농업생명과학연구원규정 제정, 국어교육연구소규정 제정, 정보화위원회규정 개정, 사회과학연구원규정 개정, 교육종합연구원규정 개정, 공학연구소규정 개정, 간호과학연구소규정 개정, 경영연구소규정 개정, 경영정보연구소규정 개정, 경제연구소규정 개정, 국제문제연구소규정 개정, 노사관계연구소규정 개정, 농산물신소재연구소규정 개정, 미국학연구소규정 개정, 미생물연구소규정 개정, 반도체공동연구소규정 개정, 생활과학연구소규정 개정, 수의과학연구소규정 개정, 수학연구소규정 개정, 신소재공동연구소규정 개정, 심리과학연구소규정 개정, 암연구소규정 개정, 언론정보연구소규정 개정,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규정 개정, 유전공학연구소규정 개정, 의학연구원규정 개정, 이론물리학연구소규정 개정, 인지과학연구소규정 개정, 자동화시스템공동연구소규정 개정, 정보통신행정연구소규정 개정, 종합약학연구소규정 개정, 천연물과학연구소규정 개정, 철학사상연구소규정 개정, 초미세소자기술연구소규정 개정, 치학연구소규정 개정, 컴퓨터신기술연구소규정 개정, 한국문화연구소규정 개정, 항공우주신기술연구소규정 개정,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규정 개정, 환경계획연구소규정 개정, 간연구소규정 개정, 금융·증권연구소규정 개정, 국·공립대학및전문강사료지급규정서울대학교시행세칙 폐지, 재입학에관한특례규정 폐지.

- '02. 3. 21 중앙교육연구전사원규정 개정, 학위수여규정 개정, 기초과학연구원규정 개정,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규정 개정, 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소규정 개정, 미술대학부설조형연구소규정 개정, 사범대학부설교육연구소규정 개정, 사범대학부설체육연구소규정 개정, 음악대학부설동양음악연구소규정 개정, 음악대학부설서양음악연구소규정 개정, 음악대학부설오페라연구소규정 개정, 보건대학원부설보건환경연구소규정 개정, 행정대학원부속한국행정연구소규정 개정, 보안업무처리규정 개정, 당직근무규정 개정.
- '02. 4. 23 연구원임용규정 제정, 공과대학부속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규정 개정, 법학연구소규정 개정  
농업생명과학대학부속농업과학공동기기센터규정 개정, 기초과학교육연구공동기기원규정 개정.
- '02. 5. 9 교직원주택운영규정 제정, 의과대학의학교육연수원규정 개정, 교직원주택·호암교수회관운영규정 개정, 후생복지시설운영위원회규정 폐지.
- '02. 6. 7 학칙 개정
- 제19조(부속시설) 변경
  - 별표4 「연구시설」 변경
  - 제23조의2(기초교육원) 신설
  - 제38조(기초교육위원회) 변경
- 기초교육원규정 제정, 대학원연구생규정 개정, 약학대학부속약초원규정 개정, 생활과학대학부속어린이집규정 개정, 기숙사규정 개정, 시간강사에관한규정 개정, 대학원학사위원회규정 개정, 석사·박사통합과정운영에관한규정 개정, 연합전공이수규정 개정, 어학연구소언어능력측정규정 개정, 어학연구소어학교육및훈련규정 개정, 국제지역원규정 개정, 조기졸업규정 개정, 공개강좌규정 개정, 외국인및재외국민학생수학에관한규정 개정, 외국대학과의공동학위수영관한규정 개정, 특별수강생수학에관한규정 개정, 농업생명과학대학부속농장규정 개정, 농업생명과학대학부속실험목장규정 개정, 문화시설운영규정 개정, 장학금규정 개정, 보건진료소규정 개정, 연구공원조성에관한규정 개정, 창업지원에관한규정 개정, 실험동물사육장규정 개정, 연구비이

자의관리및운영규정 개정, 공과대학부속연구지원소규정 개정, 재정위원회규정 개정, 관악캠퍼스교통관리규정 개정, 환경안전관리규정 개정, 환경안전연구소규정 개정, 입학고사관리위원회규정 개정, 입학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개정, 대외교류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개정, 대외교류위원회규정 개정.

'02. 6. 20 연구조교운영규정 제정, 전임교수및조교임용규정 개정, 초빙교원에관한규정 개정, 교수학습개발센터규정 개정, 규장각규정 개정.

'02. 10. 25 학칙 개정

- 제46조(수업연한·재학연한) 변경
- 별표4 「연구시설」 변경
- 별표5 「부속시설」 변경

환경안전원규정 제정, 석사·박사통합과정운영규정 개정, 공학연구소규정 개정, 과학·공학연구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통칙 개정, 포스코IB 운영규정 개정.

'03. 1. 1 학칙 개정

- 제21조(대외협력본부) 제2항
- 제22조(학술정보원) 제4항 및 제5항
- 제26조(교무처) 제2항
- 제28조(연구처) 제2항 및 제3항
- 제33조(학장회) 제2항
- 제34조(기획위원회) 제2항
- 제36조(대학원위원회) 제2항
- 제37조(대학인사위원회) 제2항
- 제40조(연구위원회) 제5항
- 제41조(정보화위원회) 제5항
- 별표 4(연구시설)
- 별표 5(부속시설)

입학관리본부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개정, 대외협력본부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개정, 학술정보원규정 제정, 미술관규정 제정, 생명공학공동연구원규정 제정.

- '03. 2. 3 전임교수및조교임용규정 개정, 지적재산권규정 제정.
- '03. 2. 25 학칙 개정
- 제12조(대학·대학원) 제2항
  - 별표 1[대학별 설치학과(부)·전공 현황]
  - 별표 2(2003학년도 학사과정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 별표 3[대학원과정의 학과(부)·전공 및 2003학년도 입학정원]
  - 별표 4(연구시설)
  - 별표 5(부속시설)
- 역사연구소규정 제정.
- '03. 3. 25 환경안전관리규정 개정,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정.
- '03. 6. 11 학칙 개정
- 제19조(부속시설) 제1항
  - 제22조(정보화관리본부)
  - 제41조(정보화위원회) 제2항
  - 제52조(대학원 과정 지원학부 또는 학과의 허용범위) 제1항 및 제2항
  - 제54조(편입학)
  - 제55조(정원외 입학)
  - 제68조(전공이수)
  - 제74조(취득학점의 인정) 제2항
  - 제81조(학위수여) 제2항
  - 제85조(위탁생) 제2항
  - 제99조(학사경고) 제2항
  - 제99조의2(유급) 신설
  - 제100조(학사제명·유급제명) 제3항
  - 별표 4(연구시설)
- 기금교수운영규정 개정, 정보화위원회규정 개정, 학술정보원규정 개정, 중앙교육연구전산소규정 개정, 컴퓨터신기술공동연구소규정 개정, 체육연구소규정 개정, 의학연구원규정 개정, 법학연구소규정 개정, 공학연구소규정 개정, 과학·공학연구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개정, 인문학연구원규정 개정, 농업생명과학연구원규정 개정, 사무분장규정 개정, 위임전결규정 개정, 대학(원)및부속기관업무처리규정 개정, 기획위원회규정 개정, 정년보장임용심사위원회규정 개정, 교수업적관리·평가에관한규정 개정  
기금교수운영에관한세칙 폐지.

'03. 7. 28 국내대학과의학생교류수학및학점인정에관한규정 개정, 외국대학과의학생교류수학및학점인정에관한규정 개정, 대학생활문화원규정 개정, 서울대/포스코스포츠센터규정 개정, 사무분장규정 개정.

'03. 8. 23 학칙 개정  
· 제11조의 2(총장) 신설  
· 제11조의 3(부총장) 신설  
· 제34조(기획위원회) 제2항  
· 제35조(재정위원회) 제2항  
· 제42조(평의원회) 전문개정  
총장후보추천에관한규정개정, 총장후보추천에관한규정시행세칙개정, 학위수여규정개정.

'03. 9. 23 농업생명과학대학 관악캠퍼스 이전

'03. 11. 1 평의원회를 의결기구화하여 설치

'04. 1. 16 학칙 개정  
· 제37조(대학인사위원회) 제2항, 제5항 및 제6항  
· 제42조(평의원회) 제11항  
· 별표1 「대학별 설치학과(부)· 전공현황」  
· 별표2 「학사과정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 별표3 「대학원과정의 학과(부)· 전공 및 2004학년도 입학정원」  
교육연구소규정 개정, 사회과학연구원규정 개정, 공학연구소규정 개정, 스포츠과학연구소규정 개정, 공과대학연구지원소규정 개정, 법학연구소규정 개정, 대외교류위원회규정 개정, 기획위원회규정 개정, 재정위원회규정 개정, 사무분장규정 개정, 위임전결규정 개정.

'04. 2. 24 학칙 개정  
· 제19조(부속시설) 제2항

- 제26조(교무처) 제2항
- 별표 4(연구시설)
- 별표 5(부속시설)

사무분장규정 개정, 위임전결규정 개정, 대학(원)및부속시설업무처리  
규정 개정, 계약제전임대우강사에관한규정 제정, 교수학습개발센터규  
정 개정, BK국제관운영규정 제정, 국제학연구소규정 제정, 국가지원  
연구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통칙 개정, 초미세소자기술연구소규정 폐  
지.

### 3. 조직

서울대학교 조직은 2004년 2월 29일현재 다음과 같다.

심의·의결기구 1개, 심의 및 자문기구는 9개, 교육기구가 16개의 대학, 1개의 일반대학원, 4개의 전문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다. 행정기구로서 3처, 1실, 2국, 13과(담당관)가 있고, 지원시설 5개 기관, 연구시설 61개 기관, 국가지원연구센터 31개, 부속시설 30개 기관이 있다. 그밖에 4개의 부설학교와 9개의 법인 및 기타기관이 있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총 장**

심의·의결기구 ◦ 평의원회

**부 총 장**

심의·자문기구 ◦ 학장회, 기획위원회, 재정위원회, 대학원위원회, 대학인사위원회, 기초교육위원회, 학사운영위원회, 연구위원회, 정보화위원회

교육기구	대학	◦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간호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미술대학, 법과대학, 사범대학, 생활과학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음악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16개)
	일반대학원	◦ 대학원
	전문대학원	◦ 보건대학원, 행정대학원, 환경대학원, 국제대학원(4개)
행정기구	교무처	◦ 교무과, 학사과
	학생처	◦ 학생과, 복지과
	연구처	◦ 연구진흥과, 연구지원과
	기획실	◦ 기획담당관
	사무국	◦ 총무과, 재무과, 예산담당관
	시설관리국	◦ 관리과, 시설과, 기술과
	지원시설	입학관리본부
대외협력본부		◦ 대외협력팀
정보화본부		◦ 정보화기획팀, 중앙전산원
중앙도서관		◦ 수서정리과, 정보관리과, 행정지원팀, 분관(사회과학, 경영, 농학, 법학, 의학, 치의학)
기초교육원		◦ 행정지원팀
연구시설	◦ 연구소/연구원(61), 국가지원연구센터(31)	
부속시설	◦ 30개 기관	
부설학교	◦ 부설고등학교, 부설중학교, 부설여자중학교, 부설초등학교	
법인·기타기	◦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사)서울대학교출판부, 대학신문사, 서울대학교생활협동조합, 호암교수회관, 서울대/포스코스포츠센터, (재)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 (재)산학협력재단, (특)서울대학교병원	

\* 교육기구, 연구시설, 부속시설의 세부조직은 뒷페이지 참조

교육기구

- 대학원 — 석사과정 : 5계열 71개 학과(부) 27협동과정  
박사과정 : 5계열 71개 학과(부) 26협동과정
- 인문대학 —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노어노문학과, 서어서문학과, 언어학과, 국사학과,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철학과, 종교학과, 미학과, 고고미술사학과(15개 학과)
- 사회과학대학 — 정치학과, 외교학과, 경제학부, 사회학과, 인류학과, 심리학과, 지리학과, 사회복지학과, 언론정보학과(1개 학부, 8개 학과)
- 자연과학대학 — 수리과학부, 통계학과, 물리학부, 화학부, 생명과학부, 지구환경과학부, 의예과, 치의예과, 수의예과(5개 학부, 1개 학과, 3개 예과)
- 간호대학 — 간호학과(1개 학과)
- 경영대학 — 경영학과(1개 학과)
- 공과대학 — 기계항공공학부, 응용화학부, 재료공학부, 전기공학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컴퓨터공학부, 건축학과(건축학전공, 건축공학전공), 산업공학과, 원자핵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6개 학부, 4개 학과)
- 농업생명과학대학 — 식물생산과학부, 생물자원공학부, 응용생물화학부, 산림과학부, 동물자원과학과, 식품공학과, 조경학과, 농경제사회학부, 농산업교육과(5개 학부, 4개 학과)
- 미술대학 — 동양화과, 서양화과, 조소과, 디자인학부(1개 학부, 3개 학과)
- 법과대학 — 법학부(1개 학부)
- 사범대학 —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불어교육과, 독어교육과, 사회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국민윤리교육과, 수학교육과,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체육교육과(15개 학과)
- 생활과학대학 — 소비자운동학부,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1개 학부, 2개 학과)
- 수의과대학 — 수의학과(1개 학과)
- 약학대학 — 약학과, 제약학과(2개 학과)
- 음악대학 — 성악과, 작곡과(작곡전공, 이론전공), 기악과(피아노전공, 현악전공, 관악전공), 국악과(4개 학과, 5개 전공)
- 의과대학 — 의학과(1개 학과)
- 치과대학 — 치의학과(1개 학과)
- 보건대학원 — 보건학과(보건학전공, 보건정책관리학전공), 환경보건학과(2개 학과, 2개 전공)
-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정책학전공)(1개 학과, 2개 전공)
- 환경대학원 — 환경계획학과, 환경조경학과(2개 학과)
- 국제대학원 — 국제학과(국제통상전공, 국제협력전공, 국제지역학전공, 한국학전공)(1개 학과, 4개 전공)

## 연구시설 : 주관대학(원)

- 인문대학 : 인문학연구원, 한국문화연구원, 미국학연구소, 인지과학연구소, 철학사상연구소, 역사연구소
- 사회과학대학 : 사회과학연구원, 경제연구소, 언론정보연구소, 국제문제연구소, 심리과학연구소, 사회발전연구소, 국토문제연구소, 여성연구소
- 자연과학대학 : 기초과학연구원, 유전공학연구소, 해양연구소, 이론물리학연구소, 미생물연구소, 수학연구소, 생명공학공동연구원
- 간호대학 : 간호과학연구소
- 경영대학 : 경영연구소, 노사관계연구소, 경영정보연구소, 증권·금융연구소
- 공과대학 : 반도체공동연구소, 공학연구소, 신소재공동연구소, 자동화시스템공학연구소, 컴퓨터연구소,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소,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 초미세소자기술연구소,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 항공우주신기술연구소
- 농업생명과학대학 : 농업생명과학연구원, 농업생물신소재연구소
- 미술대학 : 조형연구소
- 법과대학 : 법학연구소
- 사범대학 : 교육융합연구원, 교육연구소, 스포츠과학연구소, 국어교육연구소
- 생활과학대학 : 생활과학연구소
- 수의과대학 : 수의과학연구소
- 약학대학 : 천연물과학연구소, 종합약학연구소
- 음악대학 : 동양음악연구소, 서양음악연구소, 오페라연구소
- 의과대학 : 의학연구원, 암연구소, 간연구소
- 치과대학 : 치학연구소
- 보건대학원 : 보건환경연구소
- 행정대학원 : 한국행정연구소, 정보통신행정연구소
- 환경대학원 : 환경계획연구소

## 국가지원연구센터

분자미생물학연구센터, 이론물리학연구센터, 신소재박막가공 및 결정성장연구센터, 대역해석학연구센터, 세포분화연구센터, 제어계측신기술연구센터, 터보·동력기계연구센터, 농업생물신소재연구센터, 신의약품개발연구센터, 암연구소, 분자촉매연구센터, 자동제어특화연구센터, 지진공학연구센터, 수중음향특화연구센터, 복합다체계물성연구센터, 식물분자유전육종연구센터, 고차구조형유기산업재료연구센터, 복잡계통계연구센터, 기후환경시스템연구센터, 지능형생체계면공학연구센터, 초미세생체전자시스템연구센터, 마이크로열시스템연구센터, 생체계측신기술연구센터, 노화및세포사멸연구센터, 에너지변환저장연구센터, 핵변환에너지연구센터, e-비즈니스기술연구센터, 한국디자인산업연구센터, 중앙면역의과학연구소, 피부감염세균유전체연구센터, 임플란트용기능성의료용신소재개발연구센터, 나노응용시스템연구센터, 패션신소재연구센터, 차세대무선통신연구센터, 교량설계핵심기술연구단

## 부속시설

- 공통 : 박물관, 미술관, 규장각, 학생기숙사
- 본부직할 : 보건진료소, 교수학습개발센터, 실험동물사육장, 기초과학교육연구공동기원, 언어교육원, 대학생활문화원, 성희롱·성폭력상담소, 기록관, 환경안전원, 국제지역원
- 공과대학 : 연구지원소
- 농업생명과학대학 : 농장, 연습림, 실험목장, 수목원, 농업과학공동기기센터, 중등교원연수원
- 사범대학 : 교육행정연수원, 중등교원연수원,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
- 생활과학대학 : 어린이집
- 수의과대학 : 동물병원
- 약학대학 : 약초원, 약학교육연수원
- 의과대학 : 의학교육연수원
- 치과대학 : 치의학교육연수원
- 보건대학원 : 보건사업소

## II. 현 황

1. 교육
2. 연구
3. 교수
4. 대학생활과 학생활동
5. 지원기구
6. 공간 및 시설
7. 행정 및 재정

# 1. 교 육

2002~2003년에 교육 분야에서 일어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입시제도, 모집단위, 기초교육 등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입시제도에 있어서는 1998년부터 시행되어 온 고등학교장 추천입학 전형제도를 폐지하고,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을 병행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모집단위는 1999년 2학기부터 시작된 「두뇌한국 21」 사업에 따라 이미 광역화가 시작된 바 있다. 2002학년에는 모집단위 광역화가 더 많은 단과대학에서 시행되었으며, 모집단위 광역화가 시행된 대학에서도 부분적인 조정이 일어났다. 또 모집단위가 광역화됨에 따라 일부 학과에 전공예약제를 적용하였다. 기초교육의 강화를 위해서 기초교육원이 설립되었고, 이를 통해 교양과목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었다. 국어 분야에서는 말하기, 글쓰기 교실의 개설을 통해 신입생들의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켰다. 영어 교육의 강화를 위해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에서 주관하던 대학영어를 독립시켰으며, 전임대우강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다수의 원어민 강사가 임용되어 영어 교육의 수준을 제고시켰다.

대학원 교육에서는 그리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지원학생 숫자가 정원에 미달하는 일부 대학에서 입학정원을 축소하여 대학원 교육의 내실화를 기한 점이 두드러진 변화라 할 수 있다.

## 1.1 학사과정

### 1) 입학

#### (1) 입학제도

##### ① 모집단위의 변화

1999년부터 시작된 「두뇌한국21」 사업은 모집단위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2002년에

도 모집단위의 변화가 지속되었다. 인문대학과 사회과학대학은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광역화모집을 시행한 반면에 광역화모집을 시행하여 온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등에서는 2003년에 모집단위의 부분적인 조정이 이루어졌다. 다른 단과대학들도 종래의 학과별 모집이 아닌 계열, 학부, 학과를 병행하는 모집단위를 통해 학생을 모집하였다. 각 단과대학 별 모집단위의 변화는 <표 1.1>에 나타나 있다. (단일모집단위로 남아 있는 의예과, 치의예과, 간호대학, 경영대학, 법과대학, 약학대학은 포함하지 않았음.)

<표 1.1> 단과대학별 모집단위

단과대학	2002학년도 모집단위	2003학년도 모집단위
인 문 대 학	인문대학(광역모집)	인문대학(광역모집)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광역모집)	사회과학대학(광역모집)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광역모집)	수학통계학계열, 물리학부, 화학부, 생명과학부, 지구환경과학계열
공 과 대 학	공과대학(광역모집)	기계항공공학부, 응용화학부, 전기컴퓨터공학부, 재료공학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공학계열, 건축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	인문계, 자연계, 사범계	인문계, 자연계, 사범계
미 술 대 학	디자인학부, 동양화과, 서양화과, 조소과	디자인학부, 동양화과, 서양화과, 조소과
사 범 대 학	어문교육계, 인문사회교육계, 수학과학교육계, 체육교육과	어문교육계, 인문사회교육계, 수학과학교육계, 체육교육과
생활과학대학	인문계, 자연계	인문계, 자연계
음 악 대 학	성악과, 작곡과, 기악과, 국악과	성악과, 작곡과, 기악과, 국악과

## ②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실시

신입생 모집에서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을 병행한 것은 수험생의 응시기회를 다양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기준을 통해 입학생을 선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제도는 2002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전형 기준은 연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2002년 수시모집에서는 본교에서 정한 사정원칙에 따라 모집 정원의 30% 내외를 선발하였다. 수시모집의 전형과 선발은 2단계 사정을 통해 진행되었는데, 1단계 사정

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교과영역과 비교과영역의 성적을 평가하여 모집인원의 일정배수를 선발하였다. 2단계 사정에서는 1단계에서 선발된 수험생을 대상으로 면접 등의 평가과정을 거쳐 예비합격생을 선발한 후 본교에서 정한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여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이내에서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였다. 최적학력기준은 2002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2등급 이내로 결정하였다. 다만 사범대학 체육교육계는 최저학력기준을 3등급으로 설정하였으며, 음악대학은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1단계 사정은 교과영역평가와 비교과영역평가로 이루어졌다. 교과영역의 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성적을 평가하고 특정 과목에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를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비교과영역의 평가는 본교에서 설정한 중요 평가항목을 추천서,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근거하여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1) 논리력, 봉사성, 지도성, 공동체 의식, 생활태도 등과 (2) 학업관련 수상경력 등의 특수재능 보유 여부 (3) 선행상, 효행상, 모범상 등의 학업 이외의 수상경력 여부 등이 중요 평가대상이 되었다. 2단계 사정의 평가는 면접 및 구술고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사범대학에서는 교직적성 인성검사를, 음악대학과 미술대학에서는 실기고사를 병행하였다.

2002년 정시모집에서는 모집정원의 70% 내외를 선발하였다. 정시모집도 2단계 전형으로 이루어졌다. 1단계 사정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와 추천서,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한 비교과영역의 평가를 종합하여 모집인원의 일정배수를 선발하였다. 2단계 사정에서는 1단계에서 선발된 수험생을 대상으로 학생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한 교과영역 및 비교과영역의 평가, 면접 및 구술고사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였다. 사범대학에서는 교과적성 인성검사를, 음악대학과 미술대학에서는 실기고사 점수를 병행하였다.

2003년의 신입생 선발방식은 2002년과 거의 같다고 해도 무방하다. 차이점으로는 수시모집의 최저학력기준이 200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계열별 5개 영역 종합등급 2등급 이내로 조정되었으며, 정시모집의 2단계 사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별 가중치가 부여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미술대학은 수시모집과정에서 2단계 선발과정을 거치지 않고 교과영역, 비교과영역, 면접 및 구술고사, 실기고사의 점수를 통합하여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한편 2002년과 2003년의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 인원 및 비율을 보면 2002년에는 전체 모집인원의 29.5%를 수시모집으로, 70.5%를 정시모집으로 선발하였다. 2003년에는 수시모집의 비율이 28.5%로 약간 낮아지는 대신 정시모집의 비율이 71.5%로 높아졌다. 모집단위별 수시모집 비율을 보면 대부분의 모집단위가 28%~31%의 수시모집 비율을 보였다. 2002년에는 사범대학 체육교육과가 전체 모집인원의 16.6%인 8명을 수시모집을 통해 선발하여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사범대학 인문사회교육계가 35.5%로 가장 높은 수시모집 비율을 나타냈다. 2003년에는 음악대학 성악과가 수시모집을 전혀 시행하지 않았으며, 사범대학 체육교육과가 여전히 가장 낮은 비율의 수시모집을 실시였다. 가장 비율이 높은 모집단위는 공과대학 공학계열로 37%를 수시모집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 ③ 전공예약제의 실시

광역화 모집이 「두뇌한국 21」 사업에 참여한 대학 이외의 대학으로 확대됨에 따라 2002년부터 전공예약제가 도입되었다. 광역화 모집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은 일정한 기간에 걸쳐 기초교육을 받은 후에 전공학과를 선택하여 진입하게 된다. 그러나 상당수의 학생들이 이른바 인기학과에 쏠리는 반면에 일부 학과에는 지원자가 없어서 학과의 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전공예약제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다. 이 제도는 보호해야 할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입학 당시부터 전공을 확정하여 선발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여 학문 후속 세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학과가 조기에 전공학생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벌일 우려가 있어서 전공예약제의 인원은 각 모집단위의 수시모집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되었다. 이에 따라 2002년에는 33개 학과에서 320명을, 2003년에는 29개 학과에서 290명을 전공예약제를 통해 선발하였으며, 사범대학이 가장 많은 학과에서 전공예약제를 시행하였다. 2002년과 2003년에 전공예약제를 실시한 학과와 전공예약 인원은 <표 1.2>와 같다.



<표 1.2> 전공예약제 시행 분야 및 인원(2002~2003년)

대학	구분	전공예약분야	2002	2003
인문대학		불어불문학	10	10
		독어독문학	10	10
		노어노문학	8	8
		서어서문학	8	8
		언어학	8	8
		종교학		8
	계	44	52	
사회과학대학		인류학	10	10
		심리학	10	10
		지리학	10	10
		사회복지학	10	10
	계	40	40	
자연과학대학		천문학	10	
		대기과학	10	
		지구시스템과학	10	
		해양학	10	
	계	40		
공과대학		건축공학	10	10
		산업공학	15	15
		원자핵공학	15	15
		조선해양공학	20	20
	계	60	60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	16	16
		산림자원학	10	10
		동물자원과학	10	10
		천연섬유학	10	10
	계	46	46	
사범대학		독어교육	10	10
		불어교육	10	10
		교육학	6	6
		사회교육	8	8
		역사교육	8	8
		지리교육	8	8
		국민윤리교육	8	8
		물리교육	8	8
		화학교육	8	8
		생물교육	8	8
	지구과학교육	8	10	
계	90	92		
계		320	290	

## (2) 입학현황

### ① 입학정원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수립되어 온 장기발전계획과 1998년부터 시작된 「두뇌한국 21」 사업과 관련하여 본교는 2000년부터 학부정원 감축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01년에는 학부정원이 4,526명으로 줄었는데 이것은 1998~1999년의 4,910명에 비하면 대폭적인 감축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02년에도 정원은 3,960명으로 감축되었고 2003년에는 3,900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2003년 입시공고에 나타난 모집인원은 4,017명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2002년에 167명의 미등록생이 발생하여 그 인원이 2003년 모집정원으로 이월된 결과였다. 이것이 정원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정원 감축은 2004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표 1.3> 참조)

<표 1.3> 학사과정 대학별 입학정원 현황(2002~2004년)  
(단위 : 명)

학년도 대 학	2002	2003	2004
인문대학	335	335	335
사회과학대학	430	430	430
자연과학대학	280	280	280
의 예 과	150	150	135
치의예과	90		
수의예과	45	45	45
간호대학	70	70	70
경영대학	200	200	200
공과대학	950	950	950
농업생명과학대학	370	370	370
미술대학	120	120	120
법과대학	205	205	205
사범대학	380	380	380
생활과학대학	125	125	125
약학대학	70	70	70
음악대학	170	170	170
계	3,990	3,900	3,885

출처: 서울대학교 학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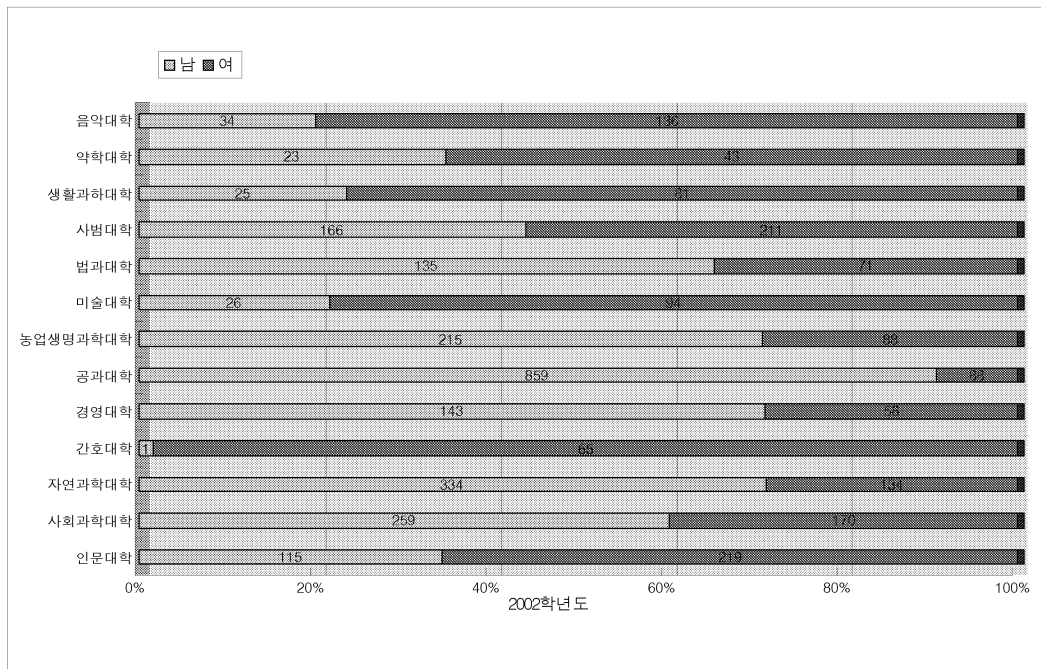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의 지원자 수와 지원율은 모집단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수시모집의 지원율이 정시모집보다 높았으며, 수시모집의 지원율은 모집단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정시모집의 지원율은 상대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또 2002년에 비해서 2003년에는 모집단위별로 수시모집의 지원율이 대폭 높아졌다. 2002년의 수시모집에서는 미술대학 서양화과와 음악대학 성악과가 가장 높은 지원율을 보였으며, 2003년 수시모집에서는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와 의예과가 가장 높은 지원율을 기록했다. 정시모집의 지원율을 보면 2년에 걸쳐 생활과학대학 인문계와 음악대학 성악과가 가장 높은 지원율을 나타냈다.

## ② 입학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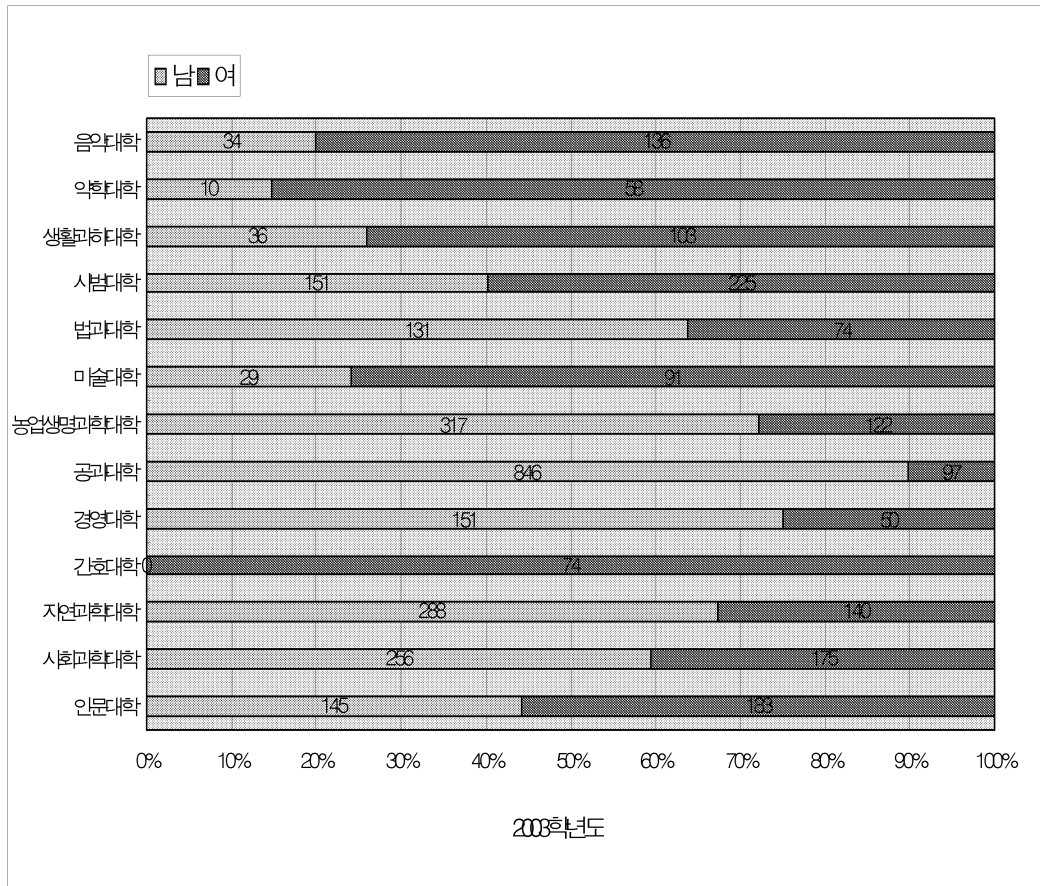
2002년에는 3,793명의 학생이 입학하였으며, 2003년에는 3,921명이 입학하였다.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71명과 60명의 미등록자가 발생하여 본교의 위상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이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 된 바 있는데, 2002~2003년에도 이러한 현상은 계속되었다. 2002년에는 입학정원의 4%를 넘는 167명의 미등록자가 발생했다. 농업생명과학대학의 미등록자가 가장 많아서 91명에 이르렀는데 이는 모집단위 정원의 23.1%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었다. 그 외에도 생활과학대학에서 16.%%인 21명의 미등록자가 발생했으며, 공과대학에서도 11명이 등록을 포기하였다. 그러나 2003년에는 미등록자의 숫자가 96명으로 줄어들었다. 2003년에는 약학대학과 간호대학의 미등록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공과대학의 미등록 인원도 전년도인 11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났다. 농업생명과학대학과 생활과학대학의 미등록 비율이 크게 줄어든 반면에 인문대학의 미등록 인원이 2002년의 2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다. (<표 1.4> 참조) 이 기간의 입학생을 남녀별로 구분해 보면 여학생의 증가 추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2000년에 36%, 2001년에 37%의 비율을 보인 여학생 비율은 2002년에 38.5%, 2003년에는 39%로 높아졌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여학생의 비율이 소폭의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인문대학에서는 여학생 비율이 2002년의 65.6%에서 2003학년에는 55.8%로 줄어든 반면에 사회과학대학에서는 2002년의 39.7%에서 2003년에는 60.6%로 높아졌다. 약학대학에서도 여학생의 비율이 2002년의 65.1%에서 2003년에는 85.3%로 높아졌다. (<그림 1.1>, <그림 1.2> 참조)

<표 1.4> 대학 별 미등록자의 수와 비율(2002~2003년)

대학	구분	2002			2003		
		모집정원(명)	미등록자(명)	비율(%)	모집정원(명)	미등록자(명)	비율(%)
인문대학		336	2	0.6	337	9	2.67
사회과학대학		434	5	1.15	435	4	0.92
자연과학대학		285	8	2.81	288	11	3.82
의예과		100	0	0	100	0	0
치의예과		51	0	0	0	0	0
수의예과		46	6	13.04	51	1	1.96
간호대학		75	9	12	79	5	6.33
경영대학		203	2	0.98	202	1	0.49
공과대학		958	11	1.15	961	18	1.87
농업생명과학대학		394	91	23.1	461	22	4.77
미술대학		120	0	0	120	0	0
법과대학		206	0	0	205	0	0
사범대학		384	7	1.82	387	11	2.84
생활과학대학		127	21	16.5	146	7	4.79
약학대학		71	5	7.04	75	7	9.33
음악대학		170	0	0	170	0	0
계		3,960	167	4.22	4,017	96	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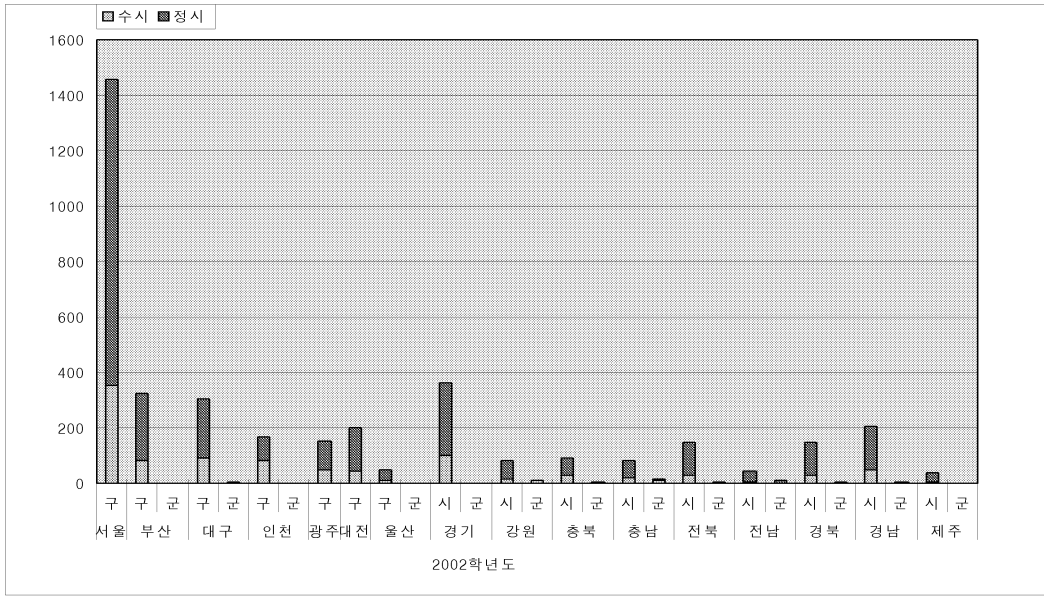


<그림 1.1> 단과대학별 신입생의 성별 비율(200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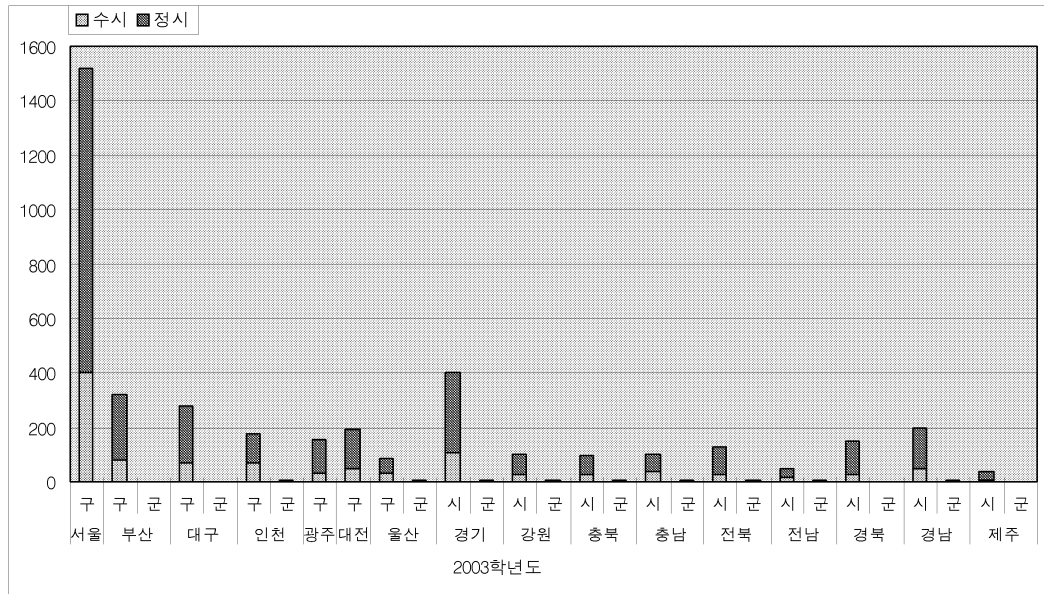


<그림 1.2> 단과대학별 신입생의 성별 비율(20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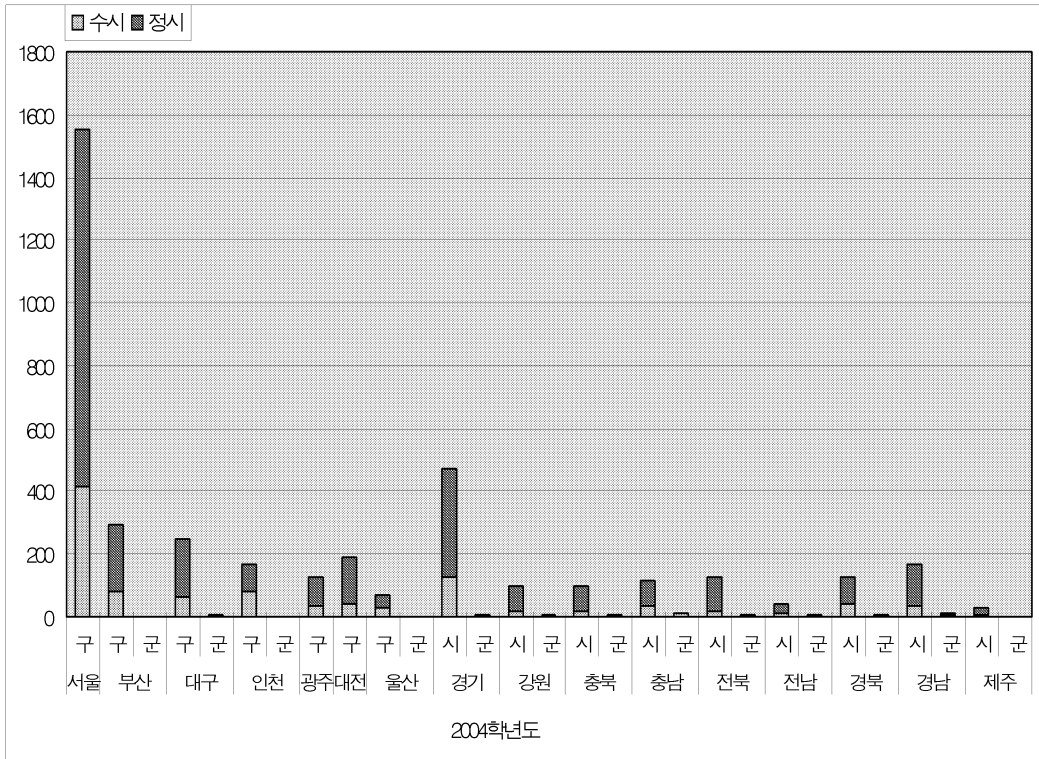
지역별로 관찰하면 서울 출신 입학생의 비율이 서서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서울 출신 입학생이 2000년에 40%, 2002년에 41%를 차지했던 데에 비해 2002년에는 37.3%, 2003년에는 37.6%에 그쳤다. 그 다음으로는 경기도 출신 입학생이 2002년과 2003년에 9.4%와 10.1%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 숫자도 2000년과 2001년의 11%보다는 약간 낮아진 것이다. (<그림 1.3>, <그림 1.4> 참조) 이러한 경향이 본교 입학생이 전국 각지에 고르게 분포되어 가는 지속적 현상의 시작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



<그림 1.3> 입학생의 지역별 분포(2002년)



<그림 1.4> 입학생의 지역별 분포(2003년)



<그림 1.5> 입학생의 지역별 분포(2004년)

2002~2003년에는 재수생과 검정고시 합격자의 비율이 2000~2001년에 비해 소폭 줄어들었다. 재수생의 비율이 2000년에 26.23%, 2001년에 29.93%였는데, 2002년에는 30%로 약간 늘어났다가 2003년에는 25.4%로 줄어들었다. 검정고시 합격자의 비율도 2000년에 6.24%, 2001년에 5.69%였는데, 2002년의 2.5%, 2003년의 1.6%로 줄어들었다. 대학별로 관찰하면 2002년에는 간호대학의 재수생 비율이 47%로 가장 높았고, 2003년에는 약학대학이 46.5%로 가장 높았다. (<표 1.5>, <표 1.6>참조)

<표 1.5> 2002년 대학 신입생 고교졸업 현황

대학	구분	당해졸업자	재수자	검정고시	계
인문대학		230(68.9)	90(26.9)	14(4.2)	334
사회과학대학		287(66.9)	132(30.8)	10(2.3)	429
자연과학대학		314(67.1)	143(30.6)	11(2.4)	468
간호대학		33(50.0)	31(47.0)	2(3.0)	66
경영대학		128(63.7)	69(34.3)	4(2.0)	201
공과대학		628(66.3)	289(30.5)	30(3.2)	947
농업생명과학대학		230(75.9)	69(22.8)	4(1.3)	303
미술대학		85(70.8)	33(27.5)	2(1.7)	120
법과대학		122(59.2)	79(38.3)	5(2.4)	206
사범대학		263(69.8)	108(28.6)	6(1.6)	377
생활과학대학		70(66.0)	35(33.0)	1(0.9)	106
약학대학		34(51.5)	27(40.9)	5(7.6)	66
음악대학		138(81.2)	32(18.8)	0(0.0)	170
계		2,562(67.5)	1,137(30.0)	94(2.5)	3793

<표 1.6> 2003년 대학 신입생 고교졸업 현황

대학	구분	당해졸업자	재수생	검정고시	계
인문대학		257(78.4)	63(19.2)	8(2.4)	328
사회과학대학		328(76.1)	97(22.5)	6(1.4)	431
자연과학대학		322(75.2)	98(22.9)	8(1.9)	428
간호대학		51(68.9)	21(28.4)	2(2.7)	74
경영대학		140(69.7)	59(29.4)	2(1.0)	201
공과대학		704(74.7)	219(23.2)	20(2.1)	943
농업생명과학대학		298(67.9)	134(30.5)	7(1.6)	439
미술대학		83(69.2)	37(30.8)	0(0.0)	120
법과대학		138(67.3)	66(32.2)	1(0.5)	205
사범대학		295(78.5)	77(20.5)	4(1.1)	376
생활과학대학		78(56.1)	56(40.3)	5(3.6)	139
약학대학		37(54.4)	31(45.6)	0(0.0)	68
음악대학		131(77.1)	38(22.4)	1(0.6)	170
계		2,862(73.0)	996(25.4)	64(1.6)	3,922

### ③ 정원 외 입학생 현황

2002년의 정원 외 입학생은 273명으로 2000년의 205명, 2001년의 251명에 비해 약



간 늘어났다. 그러나 2003년에는 정원 외 입학생이 223명으로 줄어들었다. 2002년의 정원의 입학생 중에서는 학사편입생이 1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외국민과 외국인 학생이 그 뒤를 이었다. 2003년에도 학사편입생이 96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군위탁자는 2000년의 23명, 2001년의 13명에서 2002년에는 8명, 2003년에는 11명으로 줄어들었다. 학사과정의 외국인 학생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00년에 23명, 2001년에 45명이던 외국인 학생이 2002년에는 72명으로 증가하였다. 2003년에는 48명의 외국인 학생이 입학하였다. (<표 1.7> 참조)

<표 1.7> 대학 정원 외 입학생 현황(2000~2003년)

구분	2000		2001		2002		2003	
	지원자	합격자	지원자	합격자	지원자	합격자	지원자	합격자
학사편입학	159	79	238	80	427	112	577	96
외교관자녀	*307	*30	*285	*30	38	4	24	4
**재외국민	182	57	211	83	201	77	184	64
군 위탁자	16	16	13	13	9	8	11	11
외국인	53	23	108	45	158	72	177	48
계	717	205	855	251	833	273	973	223

\* 2000년과 2001년은 부모의 직업이 조사되지 않았음. 숫자는 군무자자녀로 대신함.

\*\* 재외국민은 영주자 자녀와 12년 전 과정(초,중,고) 해외 수학자를 포함함.

## 2) 교육과정

### (1) 학생현황

2002~2003년의 전체 등록생 수는 2000~2001년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입학정원의 단계적 감축에도 불구하고 등록생 수는 일정한 수준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1.8>을 보면 1학기의 등록생 수가 2학기의 등록생 수보다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많은 학생들이 2학기에 군 입대, 해외연수 등으로 휴학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입학정원의 감축에도 불구하고 등록생 수가 크게 줄지 않는 데에는 9학기 혹은 그 이상 등록하는 학생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점

에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뒤에 졸업생 현황에서 다시 다루게 될 것이다. 2002년 학사과정 등록생의 단과대학별 구성비를 보면 공과대학이 24.1%로 가장 높고 수의과대학이 0.6%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구성비는 2003년에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표 1.8> 학사과정 등록생 현황(2002~2003년)

구 분	2002		2003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인문대학	1,866 ( 8.3)	1,695 ( 8.0)	1,824 ( 8.2)	1,705 ( 8.3)
사회과학대학	2,475 (11.0)	2,318 (10.9)	2,477 (11.1)	2,306 (11.2)
자연과학대학	2,191 (9.7)	2,084 (9.8)	1,987 (8.9)	1,828 (8.9)
간호대학	270 ( 1.2)	241 ( 1.1)	275 ( 1.2)	258 ( 1.3)
경영대학	1,229 ( 5.4)	1,199 ( 5.7)	1,250 ( 5.6)	1,177 ( 5.7)
공과대학	5,601 (24.8)	5,235 (24.7)	5,350 (24.1)	4,773 (23.2)
농업생명과학대학	1,769 ( 7.8)	1,641 ( 7.8)	1,798 ( 8.1)	1,610 ( 7.8)
미술대학	612 ( 2.7)	594 ( 2.8)	641 ( 2.9)	610 ( 3.0)
법과대학	1,465 ( 6.5)	1,375 ( 6.4)	1,464 ( 6.6)	1,389 ( 6.8)
사범대학	2,016 ( 8.9)	1,837 ( 8.7)	2,009 ( 9.0)	1,893 ( 9.0)
생활과학대학	588 ( 2.6)	530 ( 2.5)	593 ( 2.7)	542 ( 2.6)
수의과대학	127 ( 0.6)	121 ( 0.6)	182 ( 0.8)	169 ( 0.8)
약학대학	335 ( 1.5)	330 ( 1.6)	334 ( 1.5)	330 ( 1.6)
음악대학	787 ( 3.5)	756 ( 3.6)	788 ( 3.5)	746 ( 3.6)
의과대학	822 ( 3.6)	809 ( 3.8)	821 ( 3.7)	813 ( 4.0)
치과대학	428 ( 1.9)	426 ( 2.0)	444 ( 2.0)	438 ( 2.1)
계	22,581 (100.0)	21,173 (100.0)	22,237 (100.0)	20,533 (100.0)

주 : 괄호 안은 %임.

2002년과 2003년에는 각각 722명과 886명의 외국인 유학생 및 재외국민 수학생이 등록하였다. (<표 1.9> 참조, 대학원생을 포함한 숫자임) 1999년 378명, 2000년 494명, 2001년 660명이었던 점을 본다면 외국인 유학생 및 재외국민 수학생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본교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2002~2003년에 본교에 유학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은 각각 515명과 59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01년의 440명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인 학생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일본 학생이 많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인 유학생의 숫자는 2000~2001년에 비해 거의 늘어나지 않은 반면에 중국인 유학생의 수는 2000년 142명, 2001년 232명에서 2002년 287명, 2003년 339명으로 증가했다. 결국 2002-2003년에 외국인 학생의 수가 늘어난 것은 바

꺼 말하면 중국인 유학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유학생의 출신국가가 다변화하고 있음은 분명하나 중국인 유학생의 비율이 너무 높은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중국인 유학생이 일부 단과대학에 집중되는 현상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본다.

<표 1.9> 외국인 유학생 및 재외국민 수학생 현황 (대학원생 포함)

국 가		2002	2003
외국인 유학생	일본	68	70
	미국	25	30
	말레이시아	1	4
	중국	277	318
	러시아	23	17
	캐나다	5	5
	호주	5	2
	기타	101	123
	소 계	515	590
재외국민 수학생		207	296
계		722	886

재외국민 수학생도 2000년의 176명, 2001년의 220명에 비해 2003년에는 296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재외국민 수학생 중에는 본교 입학에 대해 특정 국가의 한국인이 경영하는 외국인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다수 섞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입학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편법으로 본교에 입학하는 방편으로 재외국민 수학생의 입학 기회가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02~2003년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은 휴학생과 자퇴, 제적생의 증가라는 점이다. 통계에 의하면 매년 등록생의 20% 이상이 휴학원을 제출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날로 심화되는 취업난으로 인해 학생들이 장래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휴학하는 학생들 중 군입대자를 제외한 상당수가 어학연수, 취직 시험 준비 등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공계 기피라는 현상이 본교에서도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공과대학에서는 2002년과 2003년에 등록생의 32%와 34.5에 해당되는 학생이 휴학하였다. 자연과학대학의 휴학생 비율도 2002년

에 19%, 2003년에 22%로 늘어났으며, 공과대학의 자퇴 및 제적생이 2002년의 58명에서 2003년의 128명으로 늘어났다는 점을 통해서도 상황의 심각함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표 1.10> 참조)

<표 1.10> 휴학생, 자퇴 및 제적생 현황(2002~2003년)

학년도 대학	2002		2003	
	휴학생	자퇴 및 제적생	휴학생	자퇴 및 제적생
인문대학	408	20	392	33
사회과학대학	650	11	634	17
자연과학대학	427	24	446	37
간호대학	10	11	17	18
경영대학	337	1	309	4
공과대학	1,795	54	1,846	128
농업생명과학대학	605	51	595	48
미술대학	149	5	135	2
법과대학	206	4	240	3
사범대학	350	25	356	30
생활과학대학	77	12	89	14
수의과대학	19	1	21	1
약학대학	29	2	21	2
음악대학	90	8	83	3
의과대학	11	0	9	2
치과대학	11	1	5	0
계	5174	230	5198	342

주: 4월 1일 기준

## (2) 교육과정 운영

### ① 강의과목

2002년과 2003년에 개설된 교과목은 각각 3,775과목과 3,858과목이었으며, 그 중 82% 내외가 전공과정 교과목이었다. 이 숫자와 비율은 2000~2001년과 비교할 때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1999년의 개설 과목수가 3,903개였던 데에 비하면 2000년부터 시도된 개설과목의 축소방침이 2002~2003년에도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11> 참조)

<표 1.11> 개설 과목 수(2002~2003년)

연도별 \ 구분	구분	총계	기초과정	전공과정
2002	소계	3,775	670	3,105
	1학기	1,893	331	1,562
	2학기	1,882	339	1,543
2003	소계	3,858	675	3,183
	1학기	1,940	334	1,606
	2학기	1,918	341	1,577

2002년과 2003년에는 각각 10,503강좌와 10,665강좌가 개설되었다. 이 중에서 대형 강좌가 2002년에 3.4%, 2003년에 3.3%를 차지하였다. 대형 강좌의 비율이 2000년에 6.1%, 2001년에 6.6%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대형 강좌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강좌별 인원수를 줄이려는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대학별로 볼 때에 2000~2001년에는 의과대학에 가장 대형 강좌가 많았으나 2002년에는 법과대학이 대형 강좌가 가장 많은 대학으로 드러났으며 경영대학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 법과대학은 2000년의 30.6%, 2001년의 28.6%에서 2002년의 18.5%, 2003년의 17.6%로 대형 강좌의 비율이 상당히 줄었으며, 경영대학도 2001년의 26.4%에서 2002년의 17.5%, 2003년의 15.5%로 줄어들었다. 의과대학은 대형 강좌가 2000년 47.3%, 2001년 46.6%에서 2002년에는 10.4%로 대폭 줄어들었다. 간호대학, 수의과대학, 치과대학에서는 대형 강좌가 전혀 개설되지 않았다. (<표 1.12> 참조, 2002년 자료는 부록 <표 A.1> 참조)

2002년부터 기초과정의 과목은 「학문의 기초」, 「핵심교양」, 「일반교양」으로 분류되었다. 학문의 기초는 전부 109과목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98과목을 인문대학과 자연과학대학이 제공하였다. 2002~2003년에 학기별로 평균 75과목, 424강좌가 개설되었으며, 학기별 평균 수강생 수는 14,486명이었다. 자연과학대학은 39과목을 편성하였지만 매 학기 19과목을 개설하였으며 5개 과목을 편성한 법과대학은 2학기에만 강좌를 개설하였다.

<표 1.12> 2003년 수강인원별 강좌 수

구분	개설강좌수			대형강좌수								B+C/A(%)
	계 (A)	1 학기	2 학기	1학기				2학기				
				계 (B)	121- 200명	201- 250명	251명 이상	계 (C)	121- 200명	201- 250명	251명 이상	
인문대	2,072	1,039	1,033	25	23	1	1	20	18	2		2.2%
사회대	712	351	361	28	24	3	1	26	23	2	1	7.6%
자연대	1,197	615	582	26	23		3	20	16	2	2	3.8%
간호대	124	63	61	0				1	1			0.8%
경영대	251	125	126	21	18	2	1	18	17	1		15.5%
공 대	1,694	845	849	14	13		1	7	7			1.2%
농생대	721	363	358	5	3	2		1	1			0.8%
미 대	407	201	206	1	1			3	2	1		1.0%
법 대	245	113	132	27	19	6	2	16	14	2		17.6%
사 대	1,210	623	587	3	1	1	1	1			1	0.3%
생활대	225	120	105	2	1	1		1		1		1.3%
수의대	124	61	63	0				0				0.0%
약 대	259	121	138	1			1	1		1		0.8%
음 대	453	231	222	9	7	1	1	8	7	1		3.8%
의 대	673	334	339	19	12	7		51	31	20		10.4%
치 대	298	152	146	0				0				0.0%
계	10,665	5,357	5,308	181	145	24	12	174	137	33	4	3.3%

핵심교양은 모두 82과목이 편성되었는데, 그 중에서 40과목을 인문대학이 제공하였고, 사회과학대학과 자연과학대학이 각각 14과목, 15과목을 제공하였다. 2002~2003년에는 학기별로 평균 55과목, 62강좌가 개설되었으며, 학기별 평균 수강생 수는 4,407명으로 집계되었다. 핵심교양은 1학기에 수강생이 많은 반면에 2학기에는 수강생이 줄어드는 특징을 보여 주었다.

일반교양은 236과목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인문대학이 123과목, 사범대학이 45과목을 제공하였다. 2002~2003년에는 학기별로 평균 193과목, 456강좌가 개설되었으며, 학기별 평균 수강생 수는 25,566명으로 집계되었다. (부록 <표 A.2> 참조)

최근에 주목할 만한 현상 중의 하나가 학생들의 과목별 중도포기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02년 1학기에 학문의 기초를 수강한 학생은 모두 14,880명인데 그 중에서 중도에 수강을 포기한 학생이 2,966명으로 전체 수강신청자의 19.9%에 해당된다. 같은 학기의 핵심교양 과목 중도 포기율은 7.4%, 일반교양 과목의 포기율은 5.47%로 나타났으며 전공과목의 중도 포기율은 7.43%였다. 이러한 수치를 감안할 때에 학과목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② 강의시간

2002~2003년에도 2000~2001년과 마찬가지로 주당 총 강의 시간은 점진적으로 늘어났다. 2001년의 주당 강의시간이 18,167시간이었으나, 2002년에는 18,463시간, 2003년에는 18,857시간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전임교수가 담당한 강의시간은 각각 8.6, 8.5시간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의 8.5, 2001년의 8.6시간과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개정된 학칙에 의하면 본교 전임 교원의 주당 책임 강의 담당시간은 9.0시간이며 대부분의 전임교수는 학칙에 정해진 책임시간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보직교수는 규정에 의하여 일부 강의를 면제받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대학원 논문연구 등 개별적인 지도과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적 부담은 약간 줄어든 것이다. 대학별로 볼 때 간호대학과 음악대학의 전임교수의 강의 시간이 가장 많았으며, 미술대학은 2002년의 9.6시간에서 2003년에는 11.1시간으로, 수의과대학이 2002년의 9.8시간에서 2003년에는 11.5시간으로 전임교수의 강의 시간이 비교적 급격히 많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한편 일부 대학에서 시간강사 의존도가 급격히 증가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비전임 교원의 강의 시간이 가장 많은 대학은 인문대학, 사범대학, 음악대학, 미술대학으로 나타났다. 인문대학은 2000, 2001년의 비전임 교수 강의시간이 30%, 34%에 불과했으나, 2002, 2003년에는 63%, 59%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사범대학도 25%, 32%에서 51%, 53%로 비전임 교원 강의담당 비율이 증가했으며, 음악대학은 23%, 25%에서 63%, 64%로, 미술대학은 26%, 27%에서 57%, 50%로 증가했다. 이렇게 시간강사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강의 수준이 저하되거나 학점 관리가 부실해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시간강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표 1.13>, 부록 <표 A.3>, <표 A.4>, <표 A.5> 참조)

교양교과목, 전공교과목 및 대학원 교과목 가운데 실험교과목을 제외한 강의교과목에 대한 전임교원과 시간강사의 강의담당 현황은 부록의 <표 A.6>과 같다. 이 표를 보면 시간강사의 증가는 교양강의와 대학원과목에서 일어나고 있다. 대학원 과목에서 시간강사 채용이 늘어나는 현상은 대학원 과목의 세분화에 따라 타 대학 전공교수나 전문가 초청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전임교수 확보 및 전임교수가 대학원과목을 잘 대비하여 가르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교양강의는 여전히 시간강사가 가르치는 비율이 높는데, 이는 많은 교양과목을 전공교수가 가르치기 어렵다는 불가피한 현실 때문이다. 각 대학별로 형편에 따라 중진교수가 교양과목에 대한 책임을 맡고 시간강사의 교수방법, 교육내용, 학점부여 등에 대해 관리하거나, 표준화된 교과내용, 교재 등을 개발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강의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박사과정 학생 등에게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강의방법을 훈련받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 전임교수가 담당하는 비율을 높이거나 강사료를 인상하여 우수 강사를 확보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다만 현행 강사료 수준은 지나치게 낮아 우수한 인력이 학문후속세대로 진입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수강학생수에 따라 강사료를 차등 인상하거나 각 학과별로 우수강사로 추천할 만한 사람을 선택하여 2~3과목이상 가르치게 하고 상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만하다.

### ③ 계절수업

1984년에 시작된 계절수업은 개설과목과 강좌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03년에도 2001년에 비해 개설과목 수는 20% 이상, 강좌 수는 10% 남짓 늘어났다. 그러나 2002, 2003년에는 수강학생이 2001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다. (<표 1.14> 참조)



<표 1.13> 2003년 교원 강의 담당 현황 (대학원 포함)

구분	주당강의시간			전임 교원수 (A)	비전임 교원수 (B)	담당강의 시간비 (A:B)	전임교원의 주당강의시간
	1학기	2학기	평균				
인문대	2,987	2,837	2,912	152	420	41:59	7.8
사회대	1,042	1,077	1,059.5	108	70	78:22	7.6
자연대	1,817	1,703	1,760	177	92	83:17	8.2
간호대	337	274	305.5	19	10	80:20	12.9
경영대	384	374	379	36	35	71:29	7.5
공 대	2,455	2,494	2,474.5	272	87	88:12	8.0
농생대	1,014	994	1,004	107	29	91:9	8.5
미 대	700	726	713	32	100	50:50	11.1
법 대	339	387	363	34	29	75:25	8.0
사 대	1,612	1,551	1,581.5	99	216	49:51	7.8
생활대	337	304	320.5	25	36	66:34	8.4
수의대	372	459	415.5	36	0	100:0	11.5
약 대	386	381	383.5	40	14	92:8	8.8
음 대	1,435	1,319	1,377	41	216	36:64	12.0
의 대	3,060	3,057	3,58.5	254	109	72:28	8.7
치 대	742	759	750.5	83	6	93:7	8.4
계	19,019	18,696	18,857.5	1,515	1,469	68:32	8.5

- 1) 주당강의시간 : 체육교육과, 음악대학, 미술대학의 경우 실험실습시간은 강의시간으로 100% 인정하며, 나머지대학의 경우는 50%만 인정함
- 2) 전임교원수 : 휴직교수, 교환교수, 보직교수 등이 포함된 수치임

<표 1.14> 연도별 계절수업 현황

구 분	1984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과 목 수	30	91	114	120	117	127	137	166	168
강 좌 수	34	235	275	296	264	309	331	344	375
수강학생수 (명)	943	9,474	10,064	9,737	8,001	12,713	17,378	15,520	15,901

### (3) 장학금과 포상(2002~2003)

#### ① 장학금

2003년에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학기당 평균 10,003명으로, 평균 등록생 수 21,436명을 기준으로 볼 때 장학금 수혜율은 46.7%였다. 이는 2002년 장학금 수혜율 42.3%

나 2001년의 39.2%에 비해 각각 4.4%와 7.5%가 증가한 것이다. 지급된 장학금 총액은 2003년에 176억원으로 2002년보다는 약 45억원이, 2001년보다는 65.3억원 증가하였다. 또 장학생 1인당 수혜액은 2001년보다 50만원이, 2002년보다 34만원 정도가 증가한 176만원이었다. 장학금 수혜율은 약간 증가추세를 보이고 1인당 수혜액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등록금 인상액과 장학금 총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003년 장학금은 장학금 총액의 57.4%가 교내장학금으로 충당되고 있는데, 2002년까지 없던 이공계국가장학금이 2003년부터 지원되면서 교내 장학금의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교외장학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계속하여 외부장학금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한 장학금 수혜율과 지급액의 대폭적인 증대 노력이 더욱 더 요청된다. (<표 1.15> 참조)

<표 1.15> 연간 장학금 지급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등록생수 (A)	21,653	22,435	21, 913	21,436
장학금수혜인원 (B)	8,913	8,789	9,260	10,003
장학금지급총액 (C)	10,832,958	11,070,028	13,120,112	17,606,338
- 교내장학금 (D)	7,802,149	7,865,375	9,262,168	10,108,407
- 교외장학금	3,030,809	3,204,653	3,857,944	7,497,931
B/A (%)	41.6	39.2	42.3	46.7
C/B (원)	1,215,410	1,259,530	1,416,860	1,760,100
D/C (%)	72.0	71.1	70.6	57.4

주 : 등록생 수 및 수혜인원은 1,2학기 평균학생수임.

## ② 근로봉사장학생 제도

근로봉사장학생 제도는 학생이 실험실, 도서관, 연구소 등에서 월 30시간 이상의 사무보조, 도서 및 기기 정리 등의 근로봉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월 12만원의 장학금을 지급 받는 장학제도이다. 1996년 2학기에 월 30시간 12만원으로 조건이 개선된 이래 지금까지 그 수준이 유지되어 오고 있으며, 인원은 1987년에 500명 수준에서 점차 감소하여 1992년에 200명 수준이 된 이래 2003년에는 390명으로 증가하였다.

### ③ 포상

2002년 졸업자 중 성적우수자에 대한 포상현황을 보면, 총 졸업자 4,125명중에서 평점이 3.9이상인 최우등 졸업자가 173명, 3.6이상인 우등 졸업자가 602명으로 총 775명이 우등졸업생으로 표상을 받았다. 2003년에는 최우등이 209명, 우등이 687명으로 2002년에 비하여 최우등은 0.8%, 우등은 1.9% 증가했다. (<표 1.16> 참조)

<표 1.16> 우등졸업생 현황

(단위 : 명, %)

구 분	계	최우등	우 등
2000	771(16.7)	137	634
2001	710(20.3)	132	578
2002	775(18.7)	173	602
2003	896(21.4)	209	687

주 : ( )는 졸업생 대비 우등생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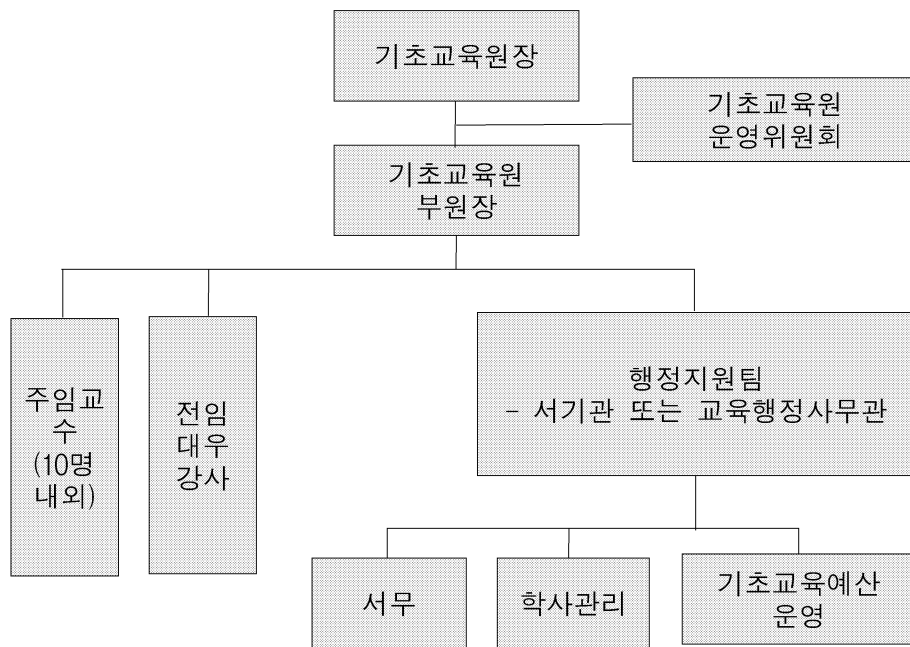
## (4) 교육과정의 변화

### ① 기초교육의 강화

본교에서는 기초교육의 강화를 위해 2001년에 교양과목을 학문의 기초, 핵심교양, 일반교양의 세 영역으로 분류함으로써 체제를 정비한 바 있다. 학문의 기초는 학문 연구의 수행을 위해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필수적이면서도 기본적인 과목을 가리키며, 대학국어, 영어 및 제2외국어, 기초과학 분야의 과목으로 이루어졌다. 핵심교양은 현대사회에서 지식인으로서 공유해야 할 지식의 기본적 틀을 다양한 관점에서 교육하기 위한 문학과 예술, 역사와 철학, 사회와 이념, 자연의 이해라는 네 가지 세부영역으로 나누어진, 포괄적이고 연계적인 주제를 다루는 교과목들로 구성되었다. 일반교양은 개론과목 등 강의식으로 수행될 수 있는 성격의 과목이나 대단위로 운영되어도 충분한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과목들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성격상 학문의 기초나 핵심교양에 속하지 않는 과목들로 구성되었다. 2002년에는 교무부처장을 원장으로 하는 기초교육원이 설립되어 기초교육과정에 포함되는 모든 과목을 개발하고 운영하

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2002년에 설립된 기초교육원은 기초교육 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과도기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아직 그 체제가 완전히 정비된 것은 아니었다. 교무부처장이 원장 직을 겸임하는 기초교육원에는 국어, 영어, 수학,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응용학문 분야를 각각 관장하는 주임 교수 각 1명이 위촉되었으며, 행정지원팀으로 3명의 사무직원이 배치되었다. 본교에서 기초교육원을 설립할 때에 구상한 최종적 편제는 <그림 1.6>과 같다.



<그림 1.6> 기초교육원 조직도

기초교육원에서는 2002~2003년에 매 학기 평균 940여 강좌를 개설하였으며, 수강 인원은 매 학기 평균 44,500명에 이르고 있다. 또 핵심교양과목의 개발에도 노력하여 2003학년 2학기 현재 65개 과목이 개발되어 있으며, 2004년 개설을 목표로 더 많은 과목을 개발하고 있다.

## ② 대학국어의 변화

2001년부터 국어 교육의 분야에서도 「국어작문」 과목이 「대학국어」로 변경되고, 학점구조도 3학점 4시간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쓰기·읽기·말하기·한자를 포괄하는 전 영역에 걸쳐 학생들의 이해력과 표현력 및 발표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교재개편이 이루어졌다. 기초교육원에서는 대학국어에도 대학영어와 같이 전임대우강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2003학년 하반기에 공개채용 형식으로 10명의 전임대우강사를 채용하였다. 2002~2003년에는 전임교수와 시간강사가 강의를 맡아 왔으나 2004학년부서는 대우전임강사가 대학국어의 상당 부분을 맡게 될 전망이다. 또 강좌 당 수강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함으로써 밀도 있는 수업이 가능해졌다. 대학국어의 강좌 당 수강인원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다수의 강의전담조교가 배치되어 수강생들의 글쓰기와 말하기의 실습을 진행하였다.

## ③ 영어 교육의 강화

2000년부터 국제적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 영어 교육의 강화를 위한 각종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이런 움직임은 2002~2003년에도 지속되었다. 이전에 읽기 위주로 교육되던 영어 과목이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의 영어의 네 영역을 통합적으로 운영되었으며, TEPS 점수를 기준으로 대학영어와 고급영어로 구분하여 학생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고급영어는 주제별로 6개의 영역으로 특성화하여 높은 수준의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멀티미디어 시설이 16개의 대학영어 전용 강의실에서 진행되었다. 평가는 1:1 인터뷰 형식의 구두시험과 영어 글쓰기 평가로 진행되었다. 대학영어와 고급영어 모두 수강정원을 20명으로 제한하였으며, 10명의 원어민 강사를 전임대우강사로 채용하여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영어 강의에 대한 거부감이 대폭 줄었으며,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으나 영어 능력의 전반적인 제고가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 ④ 성적관리의 개선

본교에서는 엄정한 학사관리를 위해 1999년 1학기에 학업성적처리규정을 개정하였

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2학기에 개정하였다. 학사과정교과목에 대해서 A 20~30%, B 30~40%, C이하 30~50%를 참고하여 담당교수가 성적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재수강한 경우에는 나중에 취득한 성적을 인정하되 성적표에 재수강 과목임을 표시하도록 해서 재수강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업 주 수 3분의 1이 지난 후에는 수강취소를 할 수 없도록 수강취소 가능기간을 축소 조정하였다.

또한 엄정한 학업성적 관리로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사과정 학생으로서 한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1.7에 미달되거나 3교과목 이상 또는 6학점 이상이 F인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하고 있으며, 1999년 신입생부터 학사경고를 4회 이상 받으면 제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2001년 1학기부터는 학사지도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학사제명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사제명을 유보 받은 학생이 다시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에는 더 이상의 유보를 허용하지 않고 제명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에 23명, 2003년에 21명의 학생이 학사제명 조치를 받았다. 한편 2003년 현재 1회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1,753명이며, 2회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707명에 이르므로 이 학생들에게 보다 세심한 지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⑤ 복수전공 및 전과(부) 기회의 확대

본교는 학생이 소질과 적성에 따라 다양한 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전공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복수전공제, 부전공제, 전과(부)를 확대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복수전공제도는 학사과정 학생의 교과목 선택의 폭을 넓히고 넓은 학문적 시야를 갖추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그 동안 실시해온 부전공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문간 교류를 보다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부전공 및 복수전공제도는 학생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리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복수전공 및 부전공 희망자는 학년별 정원의 10%를 밑돌 뿐 아니라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동시에 해가 갈수록 희망자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사범대학과 음악대학에서는 2002~2003년에 복수전공 및 부전공 희망자

가 전혀 없었다. 앞으로 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에 걸친 보완 조치가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1.17> 참조)

<표 1.17> 복수전공 현황

(단위 : 명)

대학	2000	2001	2002	2003
인문대학	39	41	65	47
사회과학대학	80	91	105	106
자연과학대학	21	45	43	36
경영대학	90	140	117	119
공과대학	23	50	44	33
농업생명과학대학	2	2	5	2
미술대학	13	14	14	15
사범대학	10	16	36	45
생활과학대학	1	2	2	2
계	279	401	431	405

지금까지 전과(부)는 학과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여 왔으나 1999년에는 전과(부) 허용범위를 확대하여 모집단위별 정원의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여석 조항을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부터 전과 및 전학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전입과 전출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곳은 공과대학으로 해마다 40명 내외의 학생이 전입하고 비슷한 숫자의 학생이 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입학생은 경영대학과 법과대학이 가장 많으며, 인문대학이 가장 많은 전출 비율을 나타냈다. 반면에 사범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에서는 전출이나 전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표 1.18> 참조)

<표 1.18> 전과, 전학 현황

(단위 : 명)

대학	2001		2002		2003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인문대학	7	30	4	41	6	43
사회과학대학	19	14	24	21	28	20
자연과학대학	5	10	11	8	3	8
간호대학		1		2		1
경영대학	18	1	20	3	15	2
공과대학	43	35	41	47	47	45
농업생명과학대학		17		21		19
미술대학				1	1	
법과대학	26		50		50	
생활과학대학	1	11	2	8		10
음악대학			1	1	1	3
계	119	119	153	153	151	151

### 3) 학생교류

본교는 1986년부터 국내 대학 및 외국 대학과의 학생교환을 위한 협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2000년에 대외협력본부가 기획실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인 활동을 벌이면서 학생교류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학생교류 현황을 국제학술교류와 국내학술교류의 두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로 한다.

#### (1) 국제학술교류

본교에서는 2001년까지 모두 49개의 외국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2002~2003년에는 조지워싱턴 대학, 멜버른 대학, 후단대학(復旦大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상해교통대학(上海交通大學), 몽골국립대학, 앨버타대학 등 7개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이 추가로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2002년에는 35명을 파견하고 32명을 유치하였으며, 2003년에는 50명을 파견하고 42명을 유치하였다. (부록 <표 A.9> 참조)

동시에 국외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국외취득학점 인정은 반드시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된 대학이 아니라도 학생이 미리 신청한 대학에서 일정 기간 수학한 후 인정학점을 단과대학 학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이수학점으



로 통산하는 제도이다. 2002년에는 118명, 2003년에는 111명이 국외에서 수학하여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았다. 국외취득학점의 인정은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부록 <표 A.7> 참조)

## (2) 국내 학술교류

국내학술교류를 위해 본교는 1994년부터 30개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여 왔으며, 그 중 15개 대학과 학점을 상호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본교 학칙 제61조 2(타대학 학점인정)과 제106조(특별생 수학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이래 본교생의 타교 수강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00년의 타교 수강생이 459명이었던 것이 2002년에는 608명, 2003년에는 761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타교 수강이 계절학기에 몰려 있다. 특히 본교에서 계절수업이 개설되지 않는 겨울방학에 타교 수강의 상당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정규학기의 타교 수강은 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타교생의 본교 수강은 2000~2001년에 비해 2002~2003년에는 절반 정도 줄어들었다. 타교생의 본교 수강도 대부분이 여름 계절학기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보아 국내 대학간 학술교류는 아직 본래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국내 대학간 학술교류는 아직 학생들의 모자라는 학점을 보충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더 강한 반면에 학술적, 인적 교류는 아직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 1.19>, <표 1.20>, 부록 <표 A.8> 참조)

<표 1.19> 국내 대학간 학술교류 실적

		(단위 : 명)	
수	강 구 분	본교생 타교 수강	타교생 본교 수강
2000	1학기	5	44
	2학기	6	60
	여름계절학기	19	543
	겨울계절학기	429	-
	소계	459	647
2001	1학기	33	119
	2학기	3	79
	여름계절학기	98	759
	겨울계절학기	487	-
	소계	622	957
계		1,081	1,604

<표 1.20> 국내 대학간 학술교류 실적

(단위 : 명)

수강구분		본교생 타교 수강	타교생 본교수강
2002	1학기	4	145
	2학기	7	111
	여름계절학기	132	78
	겨울계절학기	465	-
	소계	608	334
2003	1학기	5	144
	2학기	7	145
	여름계절학기	125	51
	겨울계절학기	624	-
	소계	761	340
계		1369	674

#### 4) 졸업 및 학위

##### (1) 졸업현황

2002년에 본교는 4,240명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였으며, 2003년에는 4,334명의 학사를 배출하였다. (<표 1.21> 참조) 한편 1983년에 수업연한단축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으로써 시작된 이래 수업연한 8학기를 채우지 않고 졸업하는 학생이 늘어났다. 2002년에는 110명, 2003년에는 130명이 이 제도를 통해 졸업하였는데, 이는 2000년의 19명, 2001년의 30명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한 것이다.

반면에 졸업상황에 관한 자료를 보면 기본연한 8학기 이상을 등록하여 졸업하는 학생의 숫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2002년에는 4,240명의 졸업생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2,014명이, 2003년에는 4,334명의 졸업생 중에서 2,134명이 9학기 이상 등록하여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더 많은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하려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02~2003년의 졸업생이 취득한 학점을 관찰하면 평균치가 조금씩 높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부록 <표 A.10>, <표 A.11> 참조)

<표 1.21> 졸업 현황(2002~2003년)

(단위 : 명)

구 분	2002	2003
인문대학	333	338
사회과학대학	480	482
자연과학대학	241	300
간호대학	59	51
경영대학	259	231
공과대학	997	1,117
농업생명과학대학	356	409
미술대학	126	123
법과대학	269	260
사범대학	439	391
생활과학대학	114	98
수의과대학	38	4
약학대학	82	81
음악대학	165	177
의과대학	188	173
치과대학	94	99
계	4,240	4,334

(2) 졸업 후의 진로

2002~2003년 졸업생의 취업률은 2000~2001년에 이어 하락세를 보였다. 파악된 취업자 중에서 군입대자와 대학원 진학생을 제외한 순수취업률은 2000년의 54.1%, 2001년의 50.9%에서 2002년에는 46.5%로, 2003년에는 45.1%로 낮아졌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간호대학,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의 취업률이 가장 높은 반면에 법과대학, 미술대학, 음악대학의 취업률이 가장 낮았다. 또 대학원 진학률도 소폭 감소했다. 2000년에 32.7%, 2001년에 27.5%이던 대학원 진학률은 2002년에 26.5%, 2003년에는 24.8%로 낮아졌다. (<표 1.22>, <표 1.23> 참조)

<표 1.22> 2002년 학사과정 졸업생 진로현황

(단위 : 명, %)

대학	졸업생수	취업자 현황				취업률 <sup>1)</sup>	순수취업률 <sup>2)</sup>
		계	취업	진학	군입대		
인문대학	347	199	104	76	19	57.3	41.3
사회과학대학	468	284	164	90	30	60.7	47.1
자연과학대학	287	194	42	128	24	67.6	31.1
간호대학	51	51	50		1	100.0	100.0
경영대학	174	106	87	14	5	60.9	56.1
공과대학	1,050	646	247	347	52	61.5	37.9
농업생명과학대학	362	245	118	96	31	67.7	50.2
미술대학	120	59	24	35		49.2	28.2
법과대학	240	141	25	109	7	58.8	20.2
사범대학	366	209	111	69	29	57.1	41.4
생활과학대학	91	64	41	23		70.3	60.3
수의과대학	4	4	2	1	1	100.0	100.0
약학대학	82	70	32	35	3	85.4	72.7
음악대학	175	86	25	60	1	49.1	21.9
의과대학	173	158	144	1	13	91.3	90.6
치과대학	99	95	70		25	96.0	94.6
합 계	4,089	2,611	1,286	1,084	241	63.9	46.5

주 : 1) 취업률(%) = (취업자수+진학자수+군입대자수) / 졸업생수 × 100

2) 순수취업률(%) = 취업자수 / (졸업생수-(진학자수+군입대자수)) × 100

<표 1.23> 2003년 학사과정 졸업생 진로현황

(단위 : 명, %)

구 분	졸업생수	취업자 현황				취업률 <sup>1)</sup>	순수취업률 <sup>2)</sup>
		계	취업	진학	군입대		
인문대학	332	175	80	74	21	52.7	33.8
사회과학대학	431	255	132	86	37	59.2	42.9
자연과학대학	315	195	26	147	22	61.9	17.8
간호대학	65	63	62	0	1	96.9	96.9
경영대학	219	147	93	39	15	67.1	56.4
공과대학	1,100	719	281	349	89	65.4	42.4
농업생명과학대학	363	214	109	66	39	59.0	42.2
미술대학	119	63	26	35	2	52.9	31.7
법과대학	312	171	49	111	11	54.8	25.8
사범대학	435	240	133	75	32	55.2	40.5
생활과학대학	112	80	48	27	5	71.4	60.0
수의과대학	36	30	8	4	18	83.3	57.1
약학대학	86	76	41	32	3	88.4	80.4
음악대학	162	63	19	39	5	38.9	16.1
의과대학	181	176	158	1	17	97.2	96.9
치과대학	94	90	54	0	36	95.7	93.1
합 계	4,362	2,757	1,319	1,085	353	63.2	45.1

주 : 1) 취업률(%) = (취업자수+진학자수+군입대자수) / 졸업생수 × 100

2) 순수취업률(%) = 취업자수 / (졸업생수-(진학자수+군입대자수)) × 100

## 1.2 대학원과정

### 1) 입학

대학원 입학정원은 2000년에 4,578명, 2001년에 4,622명이던 것이 2002~2003년에는 5,332명으로 증가하였다. 2002년에는 석사과정에 3,826명, 박사과정에 1,196명, 전체 5,022명이 입학했으며, 2003년에는 석사과정에 3,898명, 박사과정에 1,099명, 전체 4,997명이 입학하였다. 전체 입학생 중에서 대학원생의 비율은 2000년의 48.4%, 2001년의 49.8%보다 더욱 높아져서 2002년에는 56.9%, 2003년에는 56%를 차지했다.

대학원 신입생에서 타 대학 출신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2001년에 비해 높아졌다. 석사과정에서는 타 대학 출신 학생의 비율이 2000년 38%, 2001년 46.4%에 비해 2002년에 51.6%, 2003년에는 54%에 이르렀으며, 이는 1999년의 30.4%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다. 박사과정에서도 2000년의 13.3%, 2001년 13%에 비해 2002년에 21.5%, 2003년에는 30.1%에 이르렀다. 이 비율을 1999년의 9.7%와 비교하면 타 대학 출신 대학원생의 증가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앞으로 타 대학 출신자의 비중은 더욱 증가하여 석사과정에서는 단과대학에 따라서 50%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는 「두뇌한국 21」 사업에 참여하면서 본교가 지향하는 대학원중심대학을 위한 제도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 2) 교육과정

#### (1) 학생현황

2002년 1학기의 대학원 등록학생 수는 석사과정 6,838명, 박사과정 2,639명으로 전체 대학원 등록학생 수는 9,477명이었다. 2학기에는 등록학생 수가 9,629명으로 늘어났다. 2003년에는 박사과정 등록학생 수가 소폭 변화를 보인 반면에 석사과정 등록학생이 대폭 증가하여 전체 등록학생 수가 1학기에 10,139명, 2학기에 9,908명으로 늘어났다. 대학별로 보면 공과대학 등록학생이 가장 많고 자연과학대학, 사범대학, 경영대학이 그 뒤를 이었다. 2003년에는 지역연구원에서 개편된 국제대학원에 처음으로 1학

기와 2학기에 72명과 183명의 학생이 등록하였다. 반면에 협동과정의 등록학생 수는 2002년 1학과 2학기에 각각 251명과 243명이던 것이 2003학년에는 135명과 16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표 1.24> 참조)

## (2) 장학금 지원

2002년에는 대학원 등록학생 19,189명 중에서 50.2%에 해당되는 9,627명이 장학금을 지급받았으며, 2003년에는 20,173명 중에서 51.8%에 해당되는 10,447명이 장학금을 지급받았다. 장학금 수혜율은 2000년의 49.15%와 2001년의 50.15%에 비추어볼 때 소폭의 상승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장학금 총액과 1인당 수혜액은 2000~20001년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다. 장학금의 1인당 수혜액은 2000년에 583,660원, 2001년에 633,450원이었으나 2002년에는 687,520원, 2003년에는 727,940원으로 증가하였다.

<표 1.24> 대학원과정 등록생수(2002~2003년)

(단위 : 명, %)

대학(원)	2002년						2003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석사	박사	소계	석사	박사	소계	석사	박사	소계	석사	박사	소계
인문대	386	213	599	372	208	580	396	221	617	359	190	549
사회대	347	100	447	334	97	431	402	111	513	402	109	511
자연대	683	342	1,025	717	343	1,060	773	293	1,066	781	293	1,074
간호대	100	42	142	90	48	138	98	50	148	85	41	126
경영대	549	47	596	556	41	597	622	43	665	583	49	632
공 대	1,566	730	2,296	1,672	748	2,420	1,733	692	2,425	1,769	670	2,439
농생대	323	196	519	339	195	534	357	185	542	349	177	526
미 대	125	0	125	133	0	133	153	0	153	149	0	149
법 대	328	75	403	294	77	371	333	85	418	298	79	377
사범대	478	199	677	473	208	681	541	208	749	525	207	732
생활대	127	52	179	119	57	176	126	65	191	126	70	196
수의대	94	47	141	102	53	155	86	63	149	86	62	148
약 대	133	51	184	139	58	197	170	59	229	175	50	225
음 대	110	11	121	108	12	120	117	10	127	100	9	109
의 대	347	279	626	388	311	699	395	333	728	389	329	718
치 대	122	113	235	128	112	240	136	114	250	137	107	244
협동과정	234	10	244	217	10	227	131	4	135	13	3	16
보건대학원	238	54	292	218	46	264	237	63	300	226	59	285
행정대학원	338	37	375	327	36	363	382	42	424	373	47	420
환경대학원	210	41	251	195	48	243	186	52	238	199	50	249
국제대학원							72		72	183		183
계	6,838	2,639	9,477	6,921	2,708	9,629	7,446	2,693	10,139	7,307	2,601	9,908

2002년에 지급된 장학금의 구성비를 보면 교내장학금이 85.47%를 차지하고 교외장학금은 14.53%에 지나지 않는다. 2003년에는 교내장학금의 비율이 83.14%로 약간 줄어드는 대신 교외장학금이 16.86%로 늘어났다. 교내장학금의 구성비를 보면 면제장학금과 조수급여가 소폭 늘어난 반면에 서울대발전기금 장학금이 1/4 수준으로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다. (<표 1.25> 참조)

<표 1.25> 대학원 장학금지급 및 학비감면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 분	2002	2003
학생수(A)	19,189	20,173
장학금수혜인원(B)	9,627	10,447
장학금지급총액(C)	6,618,827	7,604,817
B/A(%)	50.2	51.8
C/B(원)	687,520	727,940
장학금구성비(%)		
교내장학금	85.47	83.14
면제장학금	59.5	61.1
조수급여	18.9	20.3
대여학자금	-	-
서울대발전기금	7.07	1.74
교외장학금	14.53	16.86

한편 1999년부터 시작된 「두뇌한국 21」 사업을 통해 상당수의 대학원생이 장학금을 받았다. 이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2004년 2월을 기준으로 할 때에 장학금 수혜자는 석사과정 1,599명, 박사과정 1,363명으로 전체 2,962명에 이른다. 2003년 현재 본교에서는 두뇌한국21 사업에 참여하는 13개 사업단 및 교육연구단, 19개 핵심분야 사업팀, 6개 신규분야 사업팀이 활동하고 있다. (<표 1.26> 참조)

### (3) 대학원과정의 신설 및 변경

2002~2003년의 대학원 과정의 변화는 주로 협동과정의 신설을 통해 이루어졌다. 2002년에는 석박사 연계과정인 「뇌과학전공」과 「임상약리학전공」의 협동과정이 신설되었다. 석사과정에서는 「기록관리학전공」이, 박사과정에서는 「도시설계학전공」, 「음악교육전공」, 「미술교육전공」이 역시 협동과정으로 신설되었다.

2003년에는 석사과정에서 「공연예술학전공」이 협동과정으로 신설되었다. 반면 협

동과정 「천연과학물전공」은 약학대학 제약학과로 흡수 통합되었다. 한편 2003년에는 국제지역원이 국제대학원으로 개편됨에 따라 국제학과 관련된 협동과정이 모두 국제대학원에 신설된 국제학과로 흡수되어 운영되었다.

<표 1.26> 「두뇌한국21」 사업 인건비지급 대학원생 현황 (2004년 2월 기준)

사업단 및 사업팀명	석사	박사	계
정보기술 사업단	331	286	617
인간생명과학 연구단	192	157	349
농생명공학 사업단	120	76	196
생명과학 인력양성 사업단	110	86	196
기계분야 연구인력양성 사업단	171	128	299
재료연구 인력양성 사업단	83	140	223
화공분야 연구인력양성 사업단	139	90	229
물리연구단	82	96	178
화학·분자공학 연구단	88	82	170
수리과학 사업단	40	35	75
지구환경과학부 연합사업단	72	62	134
사회기반 및 건설기술 인력양성사업단	97	77	174
21C 세계속의 한국법 발전 교육연구단	41	25	66
6개 신규분야 사업팀	33	23	56
계	1,599	1,363	2,962

#### (4) 강의과목

2002년 대학원 강의시간은 총 15,943시간이었으며, 2003년에는 16,168시간이었다. 이는 2000년의 15,290시간, 2001년의 14,883시간에 비해 약간 늘어난 것이다. 2002년과 2003년에는 전임교수의 강의 담당 비율이 각각 84.9%, 86%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부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비전임교수의 강의 담당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2000년과 2001년의 전임교수 담당 비율이 89%와 87%였다는 점을 보면 대학원 과정에서도 비전임교수의 담당 비율이 늘어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표 1.27> 참조)



<표 1.27> 대학원과정 대학별 강의시간 현황

(단위 : 시간)

구 분 대학별	2002						2003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계	전임	비전 임	계	전임	비전 임	계	전임	비전 임	계	전임	비전 임
인문대	885	717	168	887	711	176	873	672	201	783	672	111
사회대	483	414	69	525	462	63	498	438	60	544	466	78
자연대	765	708	57	756	702	54	778	727	51	745	694	51
간호대	168	168		178	178		172	172		140	140	
경영대	219	154	65	239	157	82	216	159	57	237	176	61
공 대	1,329	1,223	106	1,332	1,211	121	1,416	1,302	114	1,492	1,377	115
농생대	544	516	28	555	522	33	572	536	36	571	551	20
미 대	194	114	80	230	162	68	236	160	76	257	174	83
법 대	180	156	24	192	174	18	171	144	27	186	159	27
사 대	627	450	177	587	421	166	614	441	173	584	420	164
생활대	159	129	30	152	122	30	186	144	42	170	119	51
수의대	183	183		180	180		181	181		179	179	
약 대	196	190	6	249	239	10	257	248	9	254	245	9
음 대	149	90	59	129	78	51	152	95	57	114	47	67
의 대	1,151	954	197	672	570	102	801	597	204	834	744	90
치 대	279	277	2	282	281	1	279	276	3	271	269	2
보대원	159	147	12	159	149	10	184	176	8	190	184	6
행대원	146	106	40	165	125	40	165	130	35	169	142	27
환대원	190	165	25	159	120	39	180	158	22	165	135	30
국대원	161	34	127	148	73	75	177	139	38	175	122	53
합계	8,167	6,895	1,272	7,776	6,637	1,139	8,108	6,895	1,213	8,060	7,015	1,045

대학원의 강의개설 현황을 보면 2002년 1학기에 1,425과목, 2학기에 1,404과목이 개설되었으며, 2003년에는 1학기에 1,454과목, 2학기에 1,433과목이 각각 개설되었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공과대학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인문대학, 사범대학, 자연과학대학의 순서로 되어 있다. (<표 1.28> 참조)

<표 1.28> 대학원과정 대학별 개설과목 현황

(단위 : 개)

학년도 대 학	2002		2003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인문대학	166	161	165	162
사회과학대학	92	95	94	104
자연과학대학	125	127	133	132
간호대학	27	27	29	25
경영대학	50	54	49	49
공과대학	236	217	236	239
농업생명과학대학	104	107	109	108
미술대학	49	45	54	47
법과대학	34	36	36	37
사범대학	132	132	137	133
생활과학대학	38	35	45	38
수의과대학	30	30	29	30
약학대학	35	34	34	40
음악대학	33	32	36	30
의과대학	55	56	66	63
치과대학	43	43	42	40
보건대학원	25	30	35	35
행정대학원	38	39	32	36
환경대학원	52	43	51	41
국제대학원	61	61	42	44
합 계	1,425	1,404	1,454	1,433

### 3) 졸업 및 학위

#### (1) 학위 취득 현황

2002년 석사학위 취득자 수는 2,387명이며,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781명이었다. 2002~2003년에 수여된 학위는 모두 32종으로 집계되었다. 가장 다양한 학위를 수여

하는 대학은 사회과학대학으로, 모두 9종의 학위를 수여하였다. 단과대학 별로 수여된 학위의 종류도 과거와 같이 일률적이지 않아서 인문대학에서 이학석사와 공학박사 및 의학박사가 배출되는가 하면 공과대학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가, 음악대학에서 문학석사가 배출되기도 하였다. 이런 현상은 대학원 교육이 학제간 접근을 통해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2) 취업 현황

2002~2003년 대학원 졸업생의 취업률은 2001년에 비해 낮아졌다. 2002년의 석사과정 졸업자 2,116명 중에서 취업자는 77.4%인 1,638명이었는데 이 비율은 2000년의 80.2%, 2001년의 82.5%보다 낮아진 것이며, 2003년에는 76.8%로 더 낮아졌다. 2002년에는 전체 졸업자의 53.2%인 1,126명이 교육기관, 언론기관, 기업체 등에 실질 취업을 했고, 21.6%인 458명이 진학을 했으며 2.5%인 54명이 군에 입대하였다. 2003년과 2001년을 비교해 보면 순수취업률은 53.9%에서 55.3%로 증가하였고 진학률은 23.8%에서 18.6%로 감소하였다. 2003년 박사과정 졸업자의 취업현황을 보면 졸업자 800명 중 705명이 취업하여 88.1%의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취업자는 주로 교육기관, 기업체, 연구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9> 참조)

<표 1.29> 졸업자의 진로현황(대학원과정)

(단위 : 명)

구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2002	2003	2002	2003
졸업자(A)	2,116	2,405	795	800
취업자(B)	1,638	1,846	691	705
<u>취업률(B/A)</u>	<u>77.4</u>	<u>76.8</u>	<u>86.9</u>	<u>88.1</u>
취업상황				
<u>취업</u>	<u>53.2</u>	<u>55.3</u>	<u>86.9</u>	<u>84.5</u>
소계	1,126	1,330	691	676
교육기관	111	122	234	219
공무원	97	109	24	26
언론기관	17	9		1
기업체	505	575	109	144
금융기관	64	68	4	4
예능분야	8	10	162	0
벤처기업	32	43	25	17
의약분야	117	183	111	107
연구기관	142	134	162	141
자영업	5	5	1	0
기타	29	72	15	17
<u>진학</u>				
소계	458	448	5	28
국내	391	404		18
국외	64	44	5	10
<u>군입대</u>				
소계	54	68	0	1
장교	43	48	0	1
사병	11	20	0	0

주 : 1) 밑줄 친 부분은 %

2) 취업자(B) = 취업 + 진학 + 군입대

## 2. 연구

지식산업이 더욱 강조되는 현실 속에서 대학은 우수한 인력양성과 가치 있는 지식을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본교는 '세계수준의 종합연구대학'을 지향하면서 대학원 교육을 중심으로 첨단 연구를 통한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본교의 지난 2년 간 본교에서 수행된 연구 활동과 관련된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 2.1 부속연구소(원) 및 국가지원연구센터(단)

우리나라의 대학부설 연구소는 대학의 연구지원행정이 제자리를 잡기 전에 주로 연구지원 행정, 특히 학문분야별 연구비 확보의 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설립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이르러 대학부속 연구소들은 점차 대학의 연구기반으로서 그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1980년대 말부터 학문의 세분화 현상과 함께 학문분야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학제간 또는 산·학·연·관간의 공동 연구와 학술활동이 강조되면서, 이를 위한 공동 활동의 장으로서 대학부설 연구소의 기능이 활성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3년 현재 본교에는 학칙에 명시된 61개 본부직할 연구소(원)와, 학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국가기관의 지원으로 설립된 24개 국가지원연구센터가 설립되어 있다. 또한 전국적인 경쟁을 통하여 70개 국가지정연구실(National Research Lab: NRL)을 유치하고 있다. 본부직할 연구소(원) 현황에 대한 연구소(원)별 통계자료는 '2003년판 서울대학교 통계연보'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 1) 본부직할 연구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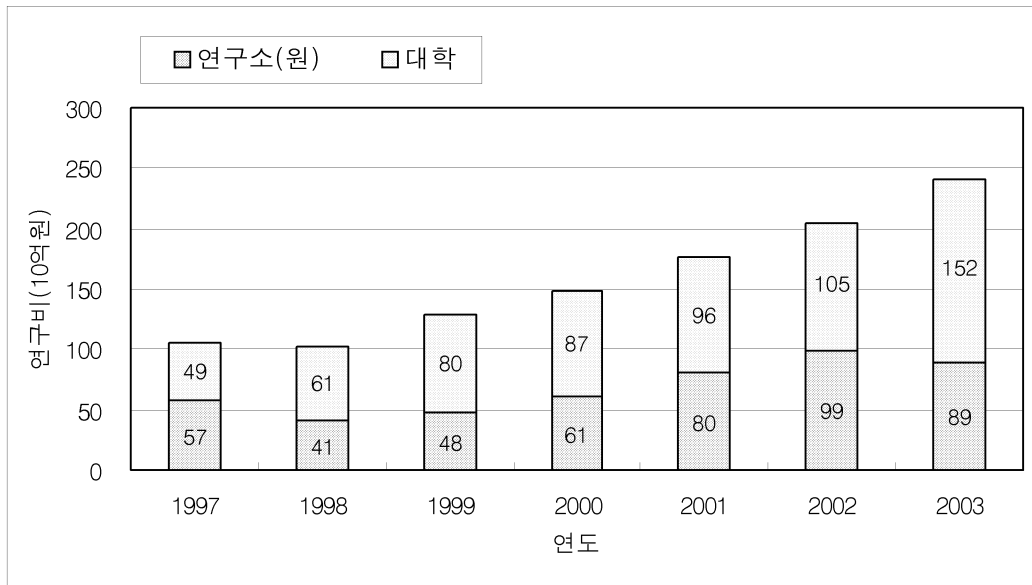
2003년 12월 현재 6개 통합연구원과 55개 연구소가 본부직할 연구시설로서 주관대

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학칙에 따라 매 2년마다 연구처가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될 수 있다. 통합연구원 중 2003년에 설립된 생명과학공동연구원을 제외한 통합연구원들은 각각 산하에 세분화된 연구소들을 두고 있다. (<표 2.1> 참조) 산하 연구소로는 인문학연구원에 4개 (한국문학연구소, 중국어문학연구소, 언어연구소, 문화유산연구소), 의학연구원에 2개 (장기이식연구소, 원자력영향역학연구소)가 2002~2003년에 신설되었다. 한편 본부직할 연구시설 중 초미세소자기술연구소는 지난 4년간의 연구소 실적이 미비하여 2003년에 실시된 평가결과에 따라 폐쇄하기로 결정되었고, 생명공학공동연구원은 전국적으로 생명공학연구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목표로 2003년에 설립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인문사회과학분야에서는 사회발전연구소, 국토문제연구소, 여성연구소, 국어교육연구소가 2001년에 설립되어 2002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고, 역사연구소가 2003년에 설립되었으며, 국제대학원이 주관하는 국제학연구소가 2004년 2월에 공식적으로 출범한다. 또한 한국학의 발전과 한국학 관련 교수들의 연구역량 발전을 위하여 2001년부터 시작된 한국학연구지원사업에 힘입어 한국문화연구소가 비교적 큰 규모의 연구소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인문사회분야의 연구소 활성화를 통하여 본교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최근 사회적·정치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우리글과 역사, 통일대비 및 여성관련 연구에 필요한 연구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표 2.1> 통합연구원 소속 연구소 현황

통합연구원	산하 연구소
인문학연구원	동아문화연구소, 영문화권연구소, 불어문화권연구소, 독일어문화권연구소, 러시아연구소, 스페인중남미연구소, 종교문제연구소, 예술문화연구소
사회과학연구원	비교문화연구소, 한국정치연구소, 사회복지연구소, 세계경제연구소, 중국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통계연구소, 물성과학연구소, 분자과학연구소, 지질환경연구소, 대기환경연구소, 분자세포생물학연구소, 과학문화연구소, 학술정보센터
농생명과학연구원	농업생산기술훈련연구소, 식물환경과학연구소, 임업과학연구소, 축산과학기술연구소, 북한해외농업연구소, 지역개발조정연구소, 농생명과학정보연구소, 농업과학기술센터
교육종합연구원	외국어교육연구소, 사회교육연구소, 과학교육연구소, 특수교육연구부, 과학영재교육센터
의학연구원	인구의학연구소, 폐연구소, 감염병연구소, 체력과학노화연구소, 신경과학연구소, 의용생체공학연구소, 환경의학연구소, 심장연구소, 내분비대사영양연구소, 방사선의학연구소, 유전자이식연구소, 알레르기·임상면역연구소, 장이식연구소, 원자력영향역학연구소
생명공학공동연구원	-
총 7개 연구원	총 41개 산하 연구소 및 4개 센터

1997년 이후 본부직할 연구소(원)에서 집행한 연구비 총액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 왔으나, 2003년에는 약 889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간 감소하였다. (<그림 2.1> 참조) 매년 본부직할 연구시설의 연구비는 본교 전체 연구비의 약 40% 내외를 차지하였다. 각 연구소(원)에서 수행되는 연구가 주로 민간기업체가 요청하는 용역연구인 점을 고려할 때 본교에서 수행하는 연구의 60-70%는 학술성을 추구하는 연구이며, 30-40%는 기업체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로 추정된다.



<그림 2.1> 연도별 본부직할 연구소(원)와 대학본부 또는 단과대학이 관리하는 연구비

## 2) 국가지원연구센터(단) 및 국가지정연구실

본부직할 연구소(원) 이외에 본교에는 많은 국가지원연구센터(단)와 국가지정연구실(National Research Lab: NRL)이 있다. 이들은 국가가 운영예산과 연구비를 지원하여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연구 집단으로서 전국적인 경쟁을 통하여 관련분야 교수들이 교내에 유치한 것이다. 2002~2003년 동안 신설된 11개 연구센터(노화및세포사멸연구센터, 나노응용시스템연구센터, e-비즈니스기술연구센터, 임플

란트용기능성의료용신소재연구센터, 중앙면역의과학연구센터, 피부감염세균유전체연구센터, 한국디자인산업연구센터, 에너지변환/저장연구센터, 핵변환에너지연구센터, 교량설계핵심기술연구단, 패션신소재연구센터)를 포함하여 2003년 현재 총 24개 국가지원연구센터(단)가 관련 정부기관의 연구비지원을 받고 있다. 현재 수행되고 있는 총 147개 연구 과제의 연구비 총액은 약 220억원 규모에 이른다. (<표 2.2> 참조) 교량설계핵심기술연구단은 2003년 말에 설립되어 2004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또한 이미 정부기관의 지원이 끝난 14개 국가지원연구센터도 여전히 관련 분야의 우수 연구 집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가지원연구센터(단)는 본교 교수들이 주축이 되고, 타 대학 등 교외 기관의 우수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지정연구실은 국가경쟁력의 요체가 될 핵심기술 분야의 우수연구실을 발굴·육성하여, 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기술을 효과적으로 유지·발전시키고,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의 과학기술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연구실이다. 지난 1999년부터 과학기술부의 심사과정을 거쳐서 2003년 현재 총 70개(1999년에 21개, 2000년에 16개, 2001년에 22개, 2002년에 5개, 2003년에 6개) 연구실이 국가지정연구실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선정된 연구실은 연간 3억원 내외의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선정 2년 후 단계평가를 거쳐 최장 5년간 안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표 2.2> 국가지원연구센터(단) 현황

연구센터	설립연도	보유장비 금액규모 (백만원)	운영예산(천원)		연구과제(건)		연구비(천원)		지원기관
			2002	2003	2002	2003	2002	2003	
지진공학연구센터	1997	900	108,850	115,000	1	1	990,000	1,000,000	한국과학재단
복합다체계물성연구센터	1999	808	152,080	146,219	4	4	1,337,000	1,271,000	한국과학재단
고차구조형유기산업재료 연구센터	1999	824	142,600	134,780	18	18	1,275,850	1,172,000	한국과학재단
식물분자유전육종연구센터	1999	820	104,000	100,490	16	16	930,000	961,000	한국과학재단
기후환경시스템 연구센터	2000	543	62,300	56,700	1	1	890,000	810,000	한국과학재단
지능형생체계면공학 연구센터	2000	574	69,300	65,100	1	1	990,000	930,000	한국과학재단
복잡계통계연구센터	2000	-	109,687	108,209	2	2	790,000	850,000	한국과학재단
노화및세포사멸연구센터	2002	176	99,240	128,971	15	16	700,000	1,050,000	한국과학재단
초미세생체전자시스템 연구센터	2000	1,534	119,600	122,015	14	13	920,400	938,985	한국과학재단
마이크로열시스템연구센터	2001	247	54,318	52,954	1	1	1,125,052	1,030,000	한국과학재단
생체측정기술연구센터	2001	457	53,250	45,217	1	1	1,075,806	1,000,000	한국과학재단
나노응용시스템연구센터	2003	1,695	-	292,500	-	6	-	2,250,000	한국과학재단
수중음향특화연구센터	1997	188	40,537	43,191	14	13	858,434	942,800	국방과학연구소
e-비즈니스기술연구센터	2002	115	30,000	50,031	5	7	500,000	900,000	정보통신연구 진흥원
임플란트용기능성 의료용신소재연구센터	2002	1,410	40,727	41,177	5	5	1,183,000	1,075,000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자동제어특화연구센터	1994	427	16,908	62,671	13	13	970,394	958,743	국방과학연구소
종양면역의과학연구센터	2002	264	16,550	15,650	4	4	420,000	600,000	한국과학재단
피부감염세균유전체 연구센터	2002	210	2,600	2,600	4	4	1,543,000	1,072,000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한국디자인산업연구센터	2002	409	310,400	202,520	1	1	700,000	691,000	산업자원부
에너지변환/저장연구센터	2002	-	96,315	129,586	15	15	750,000	750,000	산업자원부
핵변환에너지연구센터	2002	35.4	-	-	8	8	568,944	593,550	한국전력연구원
교량설계핵심기술연구단*	2003	112	-	-	-	-	-	-	한국건설교통 기술평가원
패션신소재연구센터	2003	602	-	7,000	-	4	-	1,062,000	산업자원부
차세대무선통신연구센터	2000	389	0	50,000	1	1	420,000	870,000	정보통신연구 진흥원
합계		11,839.4	1,520,412	1,857,581	143	154	17,947,880	21,778,078	

\* 교량설계핵심기술연구단은 2003년 말에 설립되었음.

## 2.2 연구인력

연구 활동의 주체인 연구 인력은 교수를 중심으로 석·박사과정 대학원생과 박사후연구원(post-doctor), 기타 연구원(석사급 또는 학사급)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각 교수들의 실험실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박사후연구원과 기타 연구원은 학내의 관련 부속연구소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 본교 내의 연구 인력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2001년까지는 부속연구시설(연구소(원), 연구센터, 연구지원기관 등)의 연구 인력을 연구원(전임강사 이상의 교내 전임교수), 특별연구원(석사급 연구원), 연구보조원(조교, 조수)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2002년 4월에 제정된 '서울대학교연구원임용규정'에 따라 각 연구소(원)가 자체재원으로 인건비를 부담할 경우 책임연구원(부교수급 이상 자격자), 선임연구원(전임강사급 이상 자격자), 연구원(석사급 이상 자격자)으로 구분되는 전임연구원을 총장이 임명하여 개인 신분증을 발급함으로써 교내 전임교수가 아닌 석·박사급 전임 연구 인력의 신분상 위상을 강화시켰다. 이 전임연구원들은 대체로 1~2년 단위의 고용계약에 의거해 임용된다. 따라서 연구인건비 등의 재원이 유지되는 동안은 연봉제 연구 인력으로서 위상이 확보되고, 이에 따른 사회보장성 4대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확립된 것이다. 이번 백서에서는 본교 전체의 연구 인력을 각 단과대학과 부속연구소(원)의 연구 인력을 구분하여 집계하였으나 연구소의 전임 연구 인력과 단과대학의 연구 인력이 중복 집계된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2003년 2학기 현재 총 1,603명의 전임교수를 중심으로 334명의 박사후연구원, 9,908명의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40명의 기타 연구원이 있다. 따라서 교수 1인당 평균 약 7명의 연구원들이 한 팀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독립적인 연구를 주도하는 교수를 중심으로 볼 때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사범대학, 의과대학에 100개 이상의 연구팀이 있고, 경영대학, 법과대학, 보건대학원, 행정대학원, 환경대학원, 국제대학원은 연구팀당 10~21명의 연구원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표 2.3> 참조)

<표 2.3> 단과대학(원)별 교수, 박사후연구원, 석박사 대학원생 현황 (2003학년 2학기 기준)

구분 대학	교수 수 (명)	연구원 수 (명)					교수 1인당 연구원
		박사후 연구원	박사과정 대학원생	석사과정 대학원생	기타 연구원	총연구원	
인문대학	152	92	190	359	0	641	4.2
사회과학대학	111	46	109	402	0	557	5.0
자연과학대학	180	26	293	781	5	1,105	6.1
간호대학	19	5	41	85	0	131	6.9
경영대학	37	1	49	583	0	633	17.1
공과대학	274	32	670	1,769	0	2,471	9.0
농업생명과학대학	107	11	177	349	28	565	5.3
미술대학	31	0	0	149	0	149	4.8
법과대학	36	7	79	298	0	384	10.7
사범대학	102	36	207	525	0	768	7.5
생활과학대학	25	20	70	126	0	216	8.6
수의과대학	36	3	62	86	6	157	4.4
약학대학	40	25	50	175	0	250	6.3
음악대학	40	1	9	100	1	111	2.8
의과대학	257	23	329	389	0	741	2.9
치과대학	85	0	107	137	0	244	2.9
협동과정	0	0	3	13	0	16	-
보건대학원	21	1	59	226	0	286	13.6
행정대학원	21	0	47	373	0	420	20.0
환경대학원	17	0	50	199	0	249	14.6
국제대학원	12	5	0	183	0	188	15.7
계	1,603	334	2,601	7,307	40	10,282	6.4

2002년 하반기부터 교내 전임교수들이 부속연구소(원)의 겸임연구원으로 임명되었으며, 일부 부속연구소(원)들이 자체 인건비를 확보하여 석·박사급 전임연구원을 채용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현황은 부록의 <표 A.15>에 제시되어 있다. '2003년 서울대학교 통계연보'에서는 연구 인력을 예전과 같이 연구원, 특별연구원, 보조연구원으로 구분하였는데 통계연보의 연구원은 교내 전임교원으로서 <표 A.15>의 겸임연구원을 뜻하며, 특별연구원은 <표 A.15>의 전임연구원인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을 포함하는 인력을 나타내고, 보조연구원은 <표 A.15>의 보조연구원과 동일한 인력이다. 2002년 연구원임용규정 개정 전과 후의 연구원 구분 방법과 집계시점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통계연보와 <표 A.15>의 집계 숫자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한편 객원연구원은 부속연구소(원)가 교내외 연구자들의 협력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타 대학 등에 소속된 인사를 총장이 위촉한 것으로, 규모가 큰 연구소(원)일수록 많은 교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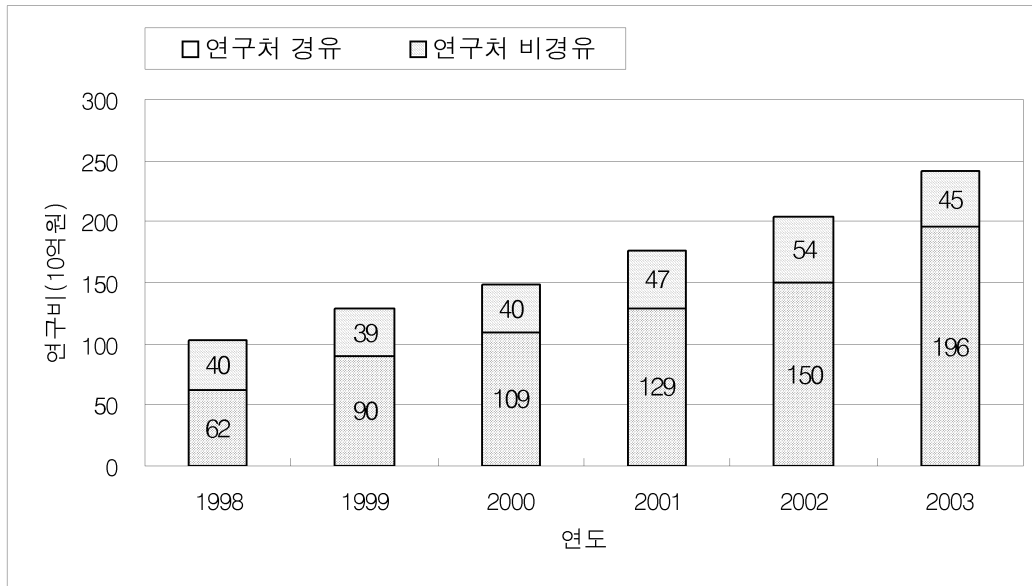
연구자들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부속연구소(원)의 자체 인건비의 주요 재원은 연구소(원)에서 확보한 연구비와 교내외 지원기관 또는 기업체가 지원하는 특정 목적사업비이다. 전임연구원 중 책임연구원과 선임연구원 310명은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고급 연구 인력으로 전임교수와 함께 핵심 연구 인력으로 볼 수 있다. 연구원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보조연구원은 석사과정 대학원생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전임연구원들은 대체로 1~2년 단위의 고용계약에 의거하여 채용되고 있는데 이들의 연봉수준은 책임연구원은 1,800만~3,600만원, 선임연구원은 1,800만~3,000만원, 연구원은 720만~1,200만원, 보조연구원은 360만~960만원으로 학문분야와 연구소 또는 개인 간 차이가 크다.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은 「두뇌한국 21」 인건비로 2003년에 총 2,962명이 석사과정 40만원, 박사과정 60만원씩 지급받았다.

부록의 <표 A.15>에 나타난 본부직할 연구소(원)별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아직 대부분의 연구소(원)들이 적절한 행정인력과 전임 연구 인력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극히 소수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2003년 서울대학교 통계연보'에 나타난 현황자료를 볼 때 많은 연구소(원)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위한 기본운영예산과 시설이 매우 빈약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많은 부속연구소(원)들이 독자적인 연구기관으로서 위상이 충분히 확립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세계 우수 대학 내에 설립된 연구소의 경우 학내 교수들이 연구소의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독자적인 연구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건물시설과 운영예산은 물론 전임 행정인력과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본교의 많은 부속연구소(원)는 독자적인 연구기관이라기 보다는 민간기업체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수주·관리하고, 학내 교수들이 채용하는 박사후 연구원 등 전임연구원들을 임용하는 기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장차 본교의 부속연구소(원)를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우수한 전임인력과 운영예산 및 연구비가 충분히 확보되고, 적절한 연구소(원) 운영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본부, 주관대학, 부속연구소(원)의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 2.3 연구비

연구비는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과 민간재단으로부터 지원되고 있다. 특히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재단은 대학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으로서, 이들이 지원하는 연구는 대부분 연구제안자의 학문적 탐구심에 기초를 둔 학술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민간기업으로부터 제공되는 연구비의 대부분은 지원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목적지향적인 특징을 지닌 용역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구비는 인건비, 직접연구경비, 간접연구경비로 이루어진다. 인건비는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로 구분되는데, 내부인건비는 실제 계상되지 않고, 박사후연구원, 대학원생, 기타 연구원들의 인건비가 외부인건비로 계상된다. 직접연구경비는 국내외 여비, 재료비, 전산처리비, 연구기자재구입 및 임차료, 시작품 제작비, 수용비, 전문가 초청비, 기술정보활동비 등과 같이 연구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가리킨다. 간접연구경비는 연구수행기관의 연구지원 경비를 말하며, 교내 연구비관리기관이 집행한다. 그 밖에 본교 교수가 총괄책임자로서 외부기관 소속의 연구자와 함께 공동연구 과제를 수행할 때 외부기관의 공동연구자가 집행해야 할 연구비가 위탁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때에는 교내 연구비 관리기관이 공동연구자가 소속된 외부기관에 위탁연구비를 직접 이관시키고 있다. 한편 연구처를 비롯한 학내 연구비관리기관이 징수한 간접연구경비는 연구지원행정에 필요한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운영유지비 등과 교수를 비롯한 대학구성원들의 학술활동지원비 및 교내연구비 재원으로 활용된다.

최근 수년간 연구비의 연도별 변화를 연구처 경유와 연구처 비경유로 나누어 살펴보면 1998년 이후 매년 전년 대비 15%이상의 증가가 계속되어 왔으며, 2003년에는 총연구비가 약 2,410억원 규모에 달하였다. (<그림 2.2> 참조) 연구비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교에는 연구처를 비롯하여 모두 102개의 연구비관리기관이 있다. 연구비 중앙관리가 시작된 이후 초기에는 단과대학이나 부속연구소(원) 등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연구비의 비중이 컸지만 점차 연구처를 경유하여 연구비를 확보하는 규모가 증가되어 2003년에는 전체 연구비의 81.3%를 연구처에서 관리하였다.



<그림 2.2> 연구비의 연도별 변화 (연구처경유, 연구처비경유 구분)

2003년 연구비 중 정부 부처 및 출연기관, 민간기업 및 재단, 외국기관 등의 기타 재원으로부터 확보된 외부연구비가 약 2,312억원으로 전체 연구비의 96%를 차지하고 있고, 서울대학교발전기금과 간접연구경비 등의 내부 재원으로 확보된 연구비는 전체 연구비의 4% 수준인 96억원 정도였다. (<표 2.4>, <표 2.5> 참조) 외부연구비의 대부분은 정부 부처와 출연기관에서 제공된 것이고, 2002~2003년에 민간기업과 재단의 연구비는 약 10% 수준에 그쳤다. 내부연구비는 1999년까지는 발전기금의 비중이 100%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부터 간접연구경비와 단과대학 연구비 등의 기타 재원이 활용되기 시작하여 2003년에는 발전기금의 비중이 약 50%로 줄어들었다.

연간 2,300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규모의 연구비가 확보되고 있는 동시에 그 규모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는 점은 본교가 연구중심대학으로 자리 잡아 나가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선진국의 우수 대학에 비하여 볼 때에 본교의 연구비는 아직 현저히 적은 규모에 불과하다. 따라서 세계수준의 대학에 걸 맞는 연구 활동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연구비를 대폭 증액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내 연구기반을 대폭 강화시키고 연구지원행정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차원의 노

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교수들은 해당 분야에서 수월성을 확보하여 개개인의 연구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2.4> 외부연구비 재원별 구성

(단위 : 천원)

재원 \ 년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정부부처	72,026,767 (72.4%)	102,092,084 (81.6%)	106,993,111 (74.5%)	137,292,849 (80.5%)	158,621,245 (79.8%)	199,419,721 (86.3%)
출연기관	10,827,756 (10.9%)	6,306,518 (5.0%)	10,540,107 (7.3%)	8,780,522 (5.2%)	16,643,313 (8.4%)	8,471,157 (3.7%)
민간기업 및 재단	15,261,929 (15.4%)	15,808,926 (12.6%)	23,809,960 (16.6%)	22,155,821 (13.0%)	21,330,403 (10.7%)	22,672,079 (9.8%)
기타	1,327,140 (1.3%)	852,724 (0.7%)	2,317,922 (1.6%)	2,280,743 (1.3%)	2,184,537 (1.1%)	652,756 (0.3%)
합계	99,443,592 (100.0%)	125,060,252 (100.0%)	143,661,100 (100.0%)	170,509,935 (100.0%)	198,779,498 (100.0%)	231,215,713 (100.0%)
전년대비 증가율		25.8%	14.9%	18.7%	16.6%	16.3%

\* 괄호 속은 연도별 각 재원의 구성비(%)

<표 2.5> 내부연구비 재원별 구성

(단위 : 천원)

재원 \ 년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2,988,396 (100.0%)	3,388,758 (100.0%)	3,400,746 (69.9%)	3,581,081 (62.9%)	3,945,118 (71.8%)	4,880,981 (50.6%)
기타			1,465,657 (30.1%)	2,110,049 (37.1%)	1,546,898 (28.2%)	4,766,922 (49.4%)
합계	2,988,396 (100.0%)	3,388,758 (100.0%)	4,866,403 (100.0%)	5,691,130 (100.0%)	5,492,016 (100.0%)	9,647,903 (100.0%)
전년대비 증가율		13.4%	43.6%	17.0%	-3.5%	75.7%

\* 기타 연구비는 간접연구경비, 단과대학연구비 등을 포함

\* 괄호 속은 연도별 각 재원의 구성비(%)

분야별 특성에 따라 연구비의 규모는 단과대학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직접 연구경비가 많이 요구되는 이공계와 농생명·의약계 대학들의 연구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으로 컸다.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의 2003년 연구비 총액이 100억원 규모를 넘었으며, 특히 공과대학의 경우 1,000억원에 근접하고 있으며 본교 총 연구비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2001년 대비 2003년의 경영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미술대학의 연구비 증가율이 매우 높은 것을 볼 때, 이 분야의 연구비 규모가 2001년 이후 증가 추세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겠다. (<표 2.6> 참조)

<표 2.6> 단과대학별 연구비 현황

(단위 : 천원)

대학(원)	2001		2002		2003		증감 <sup>a</sup>	
	연구비	구성비 (%)	연구비	구성비 (%)	연구비	구성비 (%)	연구비	증감율 (%)
인문대	2,383,380	1.4	6,535,649	3.2	8,285,315	3.4	5,901,935	247.6
사회대	1,921,004	1.1	4,277,689	2.1	4,893,770	2.0	2,972,765	154.8
자연대	33,897,611	19.2	41,649,900	20.4	45,932,705	19.1	12,035,094	35.5
간호대	459,673	0.3	299,000	0.1	324,661	0.1	△ 135,012	△ 29.4
경영대	430,786	0.2	2,171,160	1.1	3,569,284	1.5	3,138,498	728.6
공 대	73,344,665	41.6	78,034,162	38.2	93,449,495	38.8	20,104,831	27.4
농생대	17,836,993	10.1	17,395,105	8.5	19,713,071	8.2	1,876,078	10.5
미 대	292,457	0.2	1,153,376	0.6	1,186,934	0.5	894,477	305.8
법 대	1,135,398	0.6	1,325,764	0.6	2,065,992	0.9	930,594	82.0
사 대	2,485,441	1.4	2,462,923	1.2	2,445,433	1.0	△ 40,008	△ 1.6
생활대	1,129,418	0.6	663,900	0.3	1,678,664	0.7	549,246	48.6
수의대	5,680,459	3.2	4,732,778	2.3	6,170,243	2.6	489,784	8.6
약 대	8,041,651	4.6	8,907,155	4.4	10,380,101	4.3	2,338,450	29.1
음 대	124,000	0.1	60,000	0.0	40,000	0.0	△ 84,000	△ 67.7
의 대	21,685,998	12.3	27,057,807	13.2	34,104,569	14.2	12,418,572	57.3
치 대	3,080,882	1.7	2,796,673	1.4	4,440,263	1.8	1,359,381	44.1
보건대학원	1,032,318	0.6	1,393,956	0.7	150,016	0.1	△ 882,302	△ 85.5
행정대학원	985,007	0.6	1,560,552	0.8	182,557	0.1	△ 802,450	△ 81.5
환경대학원	180,000	0.1	1,446,666	0.7	1,305,730	0.5	1,125,730	625.4
국제대학원	73,925	0.0	347,300	0.2	544,811	0.2	470,886	637.0
총계	176,201,066		204,271,514		240,863,616		64,662,550	

a) 증감: 2001년도 대비 2003년도의 연구비 증감

<표 2.7>은 교수 1인당 연구비의 증감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2003년의 교수 1인당 연간 연구비는 약 1.3억원 규모로 2001년 이후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의 경우 교수



1인당 1억원 이상의 연간 연구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공과대학이 가장 규모가 커서 약 3억원에 육박하였다. 학문분야의 성격상 인문·사회·예술계 단과대학은 교수 1인당 연구비가 낮았으나, 2001년에 비교하여 볼 때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미술대학, 환경대학원, 국제대학원 등에서는 대폭적인 연구비 증액이 이루어졌다. 반면 간호대학, 사범대학, 수의과대학, 음악대학, 보건대학원, 행정대학원 등에서는 교수 1인당 연간 연구비가 감소하였다.

<표 2.7> 단과대학별 교수 1인당 연구비

(단위 : 천원)

대학(원)	2001			2002			2003		
	연구비	교수 수	1인당 연구비	연구비	교수 수	1인당 연구비	연구비	교수 수	1인당 연구비
인문대	2,383,380	156	15,278	6,535,649	152	42,998	8,285,315	165	50,214
사회대	1,921,004	102	18,833	4,277,689	108	39,608	4,893,770	112	43,694
자연대	33,897,611	216	156,933	41,649,900	198	210,353	45,932,705	216	212,651
간호대	459,673	18	25,537	299,000	19	15,737	324,661	19	17,087
경영대	430,786	37	11,643	2,171,160	36	60,310	3,569,284	37	96,467
공 대	73,344,665	290	252,913	78,034,162	299	260,984	93,449,495	316	295,726
농생대	17,836,993	104	171,510	17,395,105	108	161,066	19,713,071	113	174,452
미 대	292,457	30	9,749	1,153,376	32	36,043	1,186,934	31	38,288
법 대	1,135,398	37	30,686	1,325,764	34	38,993	2,065,992	42	49,190
사 대	2,485,441	96	25,890	2,462,923	101	24,385	2,445,433	102	23,975
생활대	1,129,418	25	45,177	663,900	24	27,663	1,678,664	26	64,564
수의대	5,680,459	32	177,514	4,732,778	35	135,222	6,170,243	37	166,763
약 대	8,041,651	42	191,468	8,907,155	39	228,389	10,380,101	40	259,503
음 대	124,000	41	3,024	60,000	39	1,538	40,000	40	1,000
의 대	21,685,998	378	57,370	27,057,807	378	71,581	34,104,569	381	89,513
치 대	3,080,882	69	44,650	2,796,673	76	36,798	4,440,263	91	48,794
보건대학원	1,032,318	17	60,725	1,393,956	19	73,366	150,016	21	7,144
행정대학원	985,007	19	51,842	1,560,552	20	78,028	182,557	21	8,693
환경대학원	180,000	16	11,250	1,446,666	15	96,444	1,305,730	17	76,808
국제대학원	73,925	8	9,241	347,300	11	31,573	544,811	12	45,401
합계	176,201,066	1,733	101,674	204,271,514	1,743	117,195	240,863,616	1,839	130,975

\* 교수 수는 기금교수 및 계약제교수를 포함

## 2.4 연구기자재 확충

본교는 교육차관사업과 실험실습기자재확충사업을 통하여 연구기자재를 주로 확충하였다. 그밖에 교수들의 연구사업 또는 외부로부터의 특정목적사업에 포함된 연구기자재 구매예산을 활용하여 연구기자재를 확보한 경우도 있으나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종합적인 집계는 쉽지 않다. 연구기자재의 수명을 10년이라고 가정하고 현재 가동 가능한 연구기자재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지난 10년 동안의 교육차관사업과 실험실습기자재확충사업 실적을 집계하였다.

교육차관사업에 의한 연구기자재 도입은 제 11차 IBRD 차관을 끝으로 2000년에 종료되었다. 1994~2000년 동안 본교에는 대략 334억원 규모의 교육차관이 배정되었으며, 이 자금은 대부분 연구기자재 구입에 활용되었다. 이 기간 동안 추진된 교육차관사업의 연도별 집행금액과 교내 수혜기관을 <표 2.8>에 제시하였다. 차관기자재는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약학대학, 사범대학, 수의과대학, 환경대학원, 사회과학대학 등의 단과대학(원) 뿐만 아니라 기초과학연구교육공동기지원, 농업과학공동기기센터, 유전공학연구소, 컴퓨터연구소, 자동화연구소, 신소재연구소 등의 부속연구소와 연구지원기관에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농업과학공동기기센터는 1996-1999년 동안 제 10차와 11차 IBRD차관사업으로 총 1,320만불 상당의 고가 첨단 연구기자재를 확보하여 생명공학과 환경과학 분야의 연구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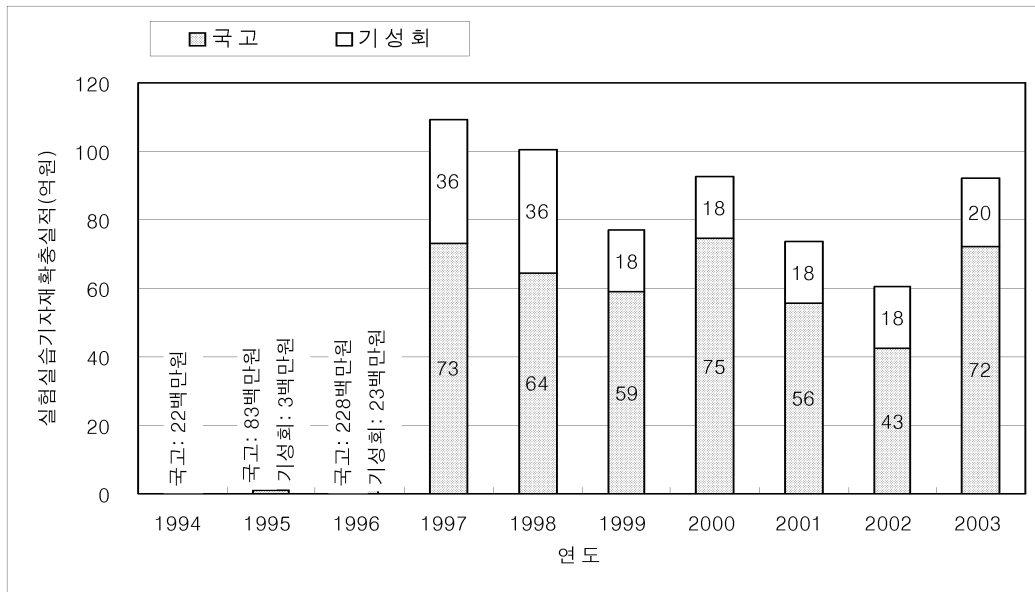
국고와 기성회 예산으로 추진되는 실험실습기자재확충사업의 연도별 집행실적은 <그림 2.3>과 같다.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학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시킨 것은 1997년부터로 볼 수 있으나, 그 후 국가경제 위기상황의 영향으로 2002년까지 지원규모가 감소추세에 있다가 2003년에 국고지원 규모가 늘어났으나 여전히 1997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지난 10년간 실험실습기자재확충사업비 총액은 약 661억원 규모다. 그 중 국고예산이 73%를, 기성회예산이 27%를 차지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단위 공동실험실습관으로 지정한 기초과학교육연구공동기지원과 농업과학공동기기센터는 2000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각각 매년

11~12억원 규모의 국고예산을 별도로 지원 받아 고가의 첨단과학 연구기자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였다. (<표 2.9> 참조)

<표 2.8> 교육차관기자재 구매실적

(단위 : 천원)

차관사업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합계	
IBRD 5차	-	4,625	-	-	-	-	-	4,625	
IBRD 7차	1,450,425	576,354	111,916	-	-	-	-	2,138,695	
IBRD 9차	148,385	159,297	467,686	634,618	134,716	60,372	-	1,605,074	
IBRD 10차	-	-	3,477,134	5,858,091	5,386,096	-	-	14,721,321	
IBRD 11차	-	52,178	2,933,486	2,138,651	5,458,154	4,091,350	224,036	14,897,855	
합계	1,598,810	792,454	6,990,222	8,631,360	10,978,966	4,151,722	224,036	33,367,570	
수혜 대학 및 연구소	자연대, 공대, 사대, 유전공학(연), 컴퓨터(연), 해양(연)	자연대, 공대, 사대, 환대원, 사대, 유전공학(연), 컴퓨터(연)	자연대, 공대, 농생대, 수의대, 약대, 기초과학(기), 농업과학(기), 유전공학(연), 자동화(연)	자연대, 공대, 농생대, 수의대, 약대, 기초과학(기), 농업과학(기)	자연대, 공대, 농생대, 수의대, 약대, 기초과학(기), 농업과학(기)	자연대, 공대, 농생대, 수의대, 약대, 기초과학(기), 농업과학(기)	자연대, 공대, 약대, 기초과학(기), 농업과학(기)	공대	



<그림 2.3> 연도별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예산(국고, 기성회) 변화

**<표 2.9> 공동실험실습관의 실험실습기자재확충사업비 국고예산 지원실적**  
(단위 : 천원)

기관명	2000	2001	2002	2003	합계
기초과학교육연구 공동기기원	1,156,100	1,186,278	1,250,000	1,250,000	4,842,378
농업과학공동기기센터	1,207,760	1,112,934	1,250,000	1,250,000	4,820,694
합계	2,363,860	2,299,212	2,500,000	2,500,000	9,663,072

기초과학교육연구공동기기원과 농업과학공동기기센터는 최첨단 고가 연구기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본교의 핵심 연구기반으로서 교내는 물론 전국의 연구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운영하고 있다. 두 기관은 본교를 비롯한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능력을 첨단화시키고, 실험실습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체의 고가 연구기자재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2003년 현재 기초과학교육연구공동기기원과 농업과학공동기기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기는 각각 약 140억원과 200억원 규모이며, 30명 이상의 운영요원이 기기관리와 사용자를 위한 분석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운영예산은 연간 11~15억원 규모인데, 두 기관 모두 운영예산의 50~60%를 기기사용료 수입에서 발생하는 기성회수입대체경비로 충당하고 있다. (<표 2.10> 참조) 두 기관의 연간 기기사용건수는 2003년에 10,000여건에 달했으며, 약 40%가 본교 이외의 기관에 속한 연구자들이 활용한 것이었다. 매년 전국적으로 분포한 200여개 대학, 연구소 및 민간기업체에서 두 기관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 참조)

**<표 2.10> 공동실험실습관 현황**

기관명	연도	보유장비 금액규모 (백만원)	운영요원 (명)			운영예산 (천원)		
			전임	비전임	계	국고	기성회*	계
기초과학교육연구 공동기기원	2003	14,440	28	7	35	595,675	906,178	1,501,853
농업과학 공동기기센터	2003	20,759	29	4	33	521,508	845,900	1,367,408

\* 기기사용료 수입을 기성회수입대체경비로 활용한 것임

<표 2.11> 공동실험실습관 운영실적

기관명	연도	기기사용료 수입 (천원)	사용건수				사용자 소속기관 수			
			교내	교외	계	외부 이용율	학교	연구소	기업 체	계
기초과학교육연구 공동기기원	2002	536,562	4,313	1,968	6,281	31.3%	76	68	66	210
	2003	847,163	5,882	3,187	6,281	35.1%	76	68	64	210
농업과학 공동기기센터	2002	549,960	5,321	3,953	9,274	42.6%	50	24	110	184
	2003	700,000	6,224	4,012	9,274	39.2%	63	24	83	184

## 2.5 연구지원행정

본교는 연구지원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연구처를 중심으로 20개 단과대학(원), 11개 연구지원 기관, 20개 본부직할 연구소(원), 37개 전·현 국가지원연구센터, 13개 「두뇌한국 21」 사업단 등 총 102개 기관이 연구비 중앙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분산형 중앙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각 연구비관리 기관마다 소속 교수들의 원활한 연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학술활동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구처는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각종 학술활동 지원 뿐만 아니라 연구진흥 정책 수립, 교수의 업적관리와 평가, 연구지원 업무 전산화, 연구비의 중앙관리, 연구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정비 및 연구소(원) 평가와 운영지원, 교내 학술연구 및 정책연구를 위한 연구비 지원, 학술연구용품 수입대행 등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서에는 대표적인 연구지원행정기관인 연구처의 지난 2년간 활동에 대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 1) 연구처 조직과 담당업무

연구처에는 1990년부터 정규 조직으로서 연구진흥과와 연구지원과가 설치되어 연구지원 업무를 분담하여 왔다. 2001년에 대학의 행정조직 감축에 따라 두 과가 연구지원과로 통합되었다가 학내 연구사업의 규모가 대폭적으로 증가되면서 연구지원 조직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3년에 다시 연구지원과와 연구진흥과로 확대개편되었다.

## 2) 연구비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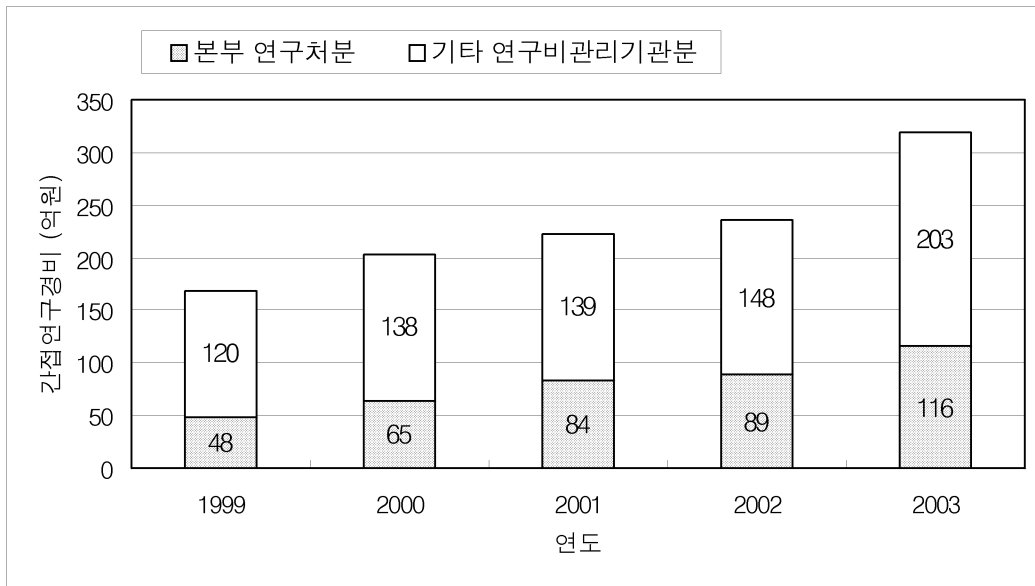
본교는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연구비 중앙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분산형 중앙관리시스템이 정착되었다. 또한 연구비관리용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외부기관 및 민간기업체 등으로부터 지원되는 많은 연구과제의 연구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비카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연구비관리용 전산프로그램 상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2002~2003년 동안 연구비관리프로그램을 대폭적으로 개선하였다. 연구비 중앙관리시스템의 정착에 따라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이 강화되었으며, 연구비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연구비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의 신뢰성이 높아졌다. 현재 교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연구과제의 비목별 연구비 집행상황을 인터넷의 서울대학교 정보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연구비 중앙관리시스템이 확립됨으로써 모든 연구과제에 대한 간접연구경비의 징수가 쉬워졌다. 간접연구경비 세입액은 199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3년에는 약 320억원 규모가 확보되었는데, 이 중 연구처에서 징수한 금액이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그림 2.4> 참조) 간접연구경비는 교내연구비, 교수들의 학술활동지원비, 대응자금, 연구소(센터)지원비, 공공요금, 행정보조인건비 등으로 사용되었는데, 교내연구비와 학술활동지원비가 전체 집행액의 50~60% 정도를 차지하였다. (<표 2.12>, <표 2.13> 참조)

<표 2.12> 연구처 간접연구경비 사용실적

용 도	사 업 내 용	2002		2003	
		결산액 (천원)	구성비 (%)	결산액 (천원)	구성비 (%)
연구비	한국학, 학제간, 정책연구과제 연구비 등	1,904,124	27.7	2,562,459	22.6
학술활동지원	국제학술회의참가경비, 포럼 등	2,503,564	36.4	3,926,967	34.7
대응자금	국가핵심대응자금, 국가지정연구실사업 등	555,750	8.1	366,075	3.2
연구소(센터)지원	우수연구센터운영비, 우수연구소사업비 등	538,404	7.8	944,244	8.3
공공요금	독립건물연구소, 공공요금 부담금 등	911,065	13.3	1,481,291	13.2
기타	Web of Science구독료, 행정보조직 지원 등	463,497	6.7	2,039,169	18.0
합계		6,876,404	100	11,320,205	100

<표 2.13> 연구처 제외 기타 연구비관리기관의 간접연구경비 사용실적

용 도	사 업 내 용	2002		2003	
		결산액 (천원)	구성비 (%)	결산액 (천원)	구성비 (%)
연구비	연구개발비 등	2,274,812	22.0	3,221,018	23.0
학술활동지원	국제학술회의 참가비 등	3,619,018	35.0	4,341,373	31.0
대응자금	각 관리기관 대응자금	723,803	7.0	980,301	7.0
연구소(센터)지원	각 관리기관 센터 지원사업	1,344,211	13.0	980,321	7.0
공공요금	공공요금 부담금 등	1,344,205	13.0	1,540,486	11.0
기타	시설비 및 경직성 경비 등	1,034,005	10.0	2,940,930	21.0
합계		10,340,054	100	14,004,429	100



<그림 2.4> 연도별 간접연구경비의 구성

### 3) 교내연구사업 지원

연구처는 간접연구경비와 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연구여건 강화와 특정학문분야 육성 및 특정정책개발을 위한 교내연구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정정책연구사업 이외의

모든 연구사업은 교수를 대상으로 연구계획서를 공모한 후 채택된 과제에 한하여 연구비를 지원하였다. 2002년에 시행한 일반학술연구사업은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출연예산으로 신입교수연구비(37과제)와 일반학술연구비(51과제)로 구분하여 지원되었으나, 2003년에는 일반학술연구비는 지원을 중단하고, 신입교수의 조기 정착을 위한 연구비로만 편성하여 지원하였다. 학제간협력연구사업은 학제적 협력연구의 활성화와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부속연구소(원)의 학제적 연구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2002년에 인문사회 및 예체능분야의 12과제와 이공 및 의학 분야, 치의학 분야 12과제를 지원하였다. 특정정책연구사업은 보직 경험을 통해 축적된 각종 정보와 지식 및 활동사항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대학 운영의 합리성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교육연구사회봉사 활동을 진작시키며, 아울러 후임 보직자의 업무추진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한국학연구사업은 한국학의 발전과 관련 교수의 연구역량을 발전시키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 정치, 사회 등을 아우르는 한국학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본교를 '한국학의 메카'로 육성시키는 것을 목표로 2001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하여 한국문화연구소의 활동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통일학연구사업은 남북간에 6.15 남북정상회담과 민간교류사업의 활성화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통일 이후에 야기될 문제와 과제들을 예상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본교가 국제적으로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2003년에 지원된 연구비에는 통일포럼 지원금 2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표 2.14> 참조)

<표 2.14> 교내연구사업 지원 실적

사업명	2002년		2003년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일반학술연구사업	88	660,000	-	-
학제간협동연구사업	24	830,000	-	-
특정정책연구사업	4	60,000	3	50,000
한국학연구사업	66	920,000	33	853,850
통일학연구사업	-	-	22	978,000
계	182	2,470,000	58	1,881,850



#### 4) 학술활동지원

연구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연구 활동 이외에도 학술대회 개최, 국제학술대회 참가,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저명 외국연구자 초청, 해외연수 등의 다양한 학술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 본교에서는 간접연구경비를 재원으로 하여 이러한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학술활동지원비는 연구비와 비교할 때 규모로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지만 그 기능면에서 본교를 '세계 수준의 종합연구대학'으로 만드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02~2003년 동안 연구처가 지원한 학술활동지원실적은 <표 2.15>와 같다.

<표 2.15> 학술활동 지원 실적

사업명	2002년		2003년	
	건수	금액(백만원)	건수	금액(백만원)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459	628	500	848
국제학술회의 개최경비	41	200	51	345
외국인저명학자 초청경비	60	70	52	85
집담회 개최 경비	60	120	82	164
외국학술지 논문게재료	128	74	160	162
인문사회계열교수 해외연수	36	360	38	390
계	784	1,452	883	1,994

#### 5) 기타 학술활동지원사업

##### ① 학술지 발간경비 지원사업

기성회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대학 내에서 자체 발간하는 우수학술지 발간경비를 지원하여 본교를 대표할 수 있는 수준의 학술지로 육성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2002년과 2003년에는 부속연구소(원) 평가결과 우수 연구소와 통합연구원의 대표학술지 18종과 국제수준의 우수 영문저널 5종의 발간을 위해 지원하였으며 각각 91,700,000원과 85,051,000원을 지원하였다.

## ② 신입교수연구정착금 지원사업

신입교수가 조기에 정착하여 연구역량을 극대화시키고 국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발전기금과 교육개혁지원비를 재원으로 해서 2002년에는 일반학술연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신입교수 1인당 1,000만원씩 총 37과제를 지원하였으나, 2003년부터는 규모를 확대하여 과제당 1,000만원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실험실습기자재구입비로 5백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하여 총 194과제에 약 25억원이 집행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규모도 여전히 신입교수의 초기 연구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자금(seed money)으로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수한 교수인력을 유치하여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③ 학술연구용품 수입업무 대행

연구처는 외국산 시약과 연구기자재 등을 구입할 때 복잡한 수입 업무를 대행하는 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외자구매와 통관관세 면제를 통한 비용절감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시약의 수입대행 실적은 2001년을 정점으로 2002년에 대폭 감소하였으나 2003년에 다시 증가하였으며, 기자재 수입대행 실적은 2001년에 비해 2002년에 증가하다 2003년에 감소하였다. (<표 2.16> 참조) 교수들이 연구를 수행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이 서비스가 좀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연구처의 학술연구용품 수입대행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표 2.16> 학술연구용품 수입 업무 대행 실적

구 분		시약	기기	합계	전년대비증가율
2001	건수	152	318	470	-20.2%
	금액	136	6,213	6,349	31.5%
2002	건수	44	375	419	-10.9%
	금액	80	5,616	5,696	-10.3%
2003	건수	63	316	379	-10.6%
	금액	250	4,881	5,131	-9.9%

## 6) 본부직할 연구소(원) 평가

서울대학교설치령 제 9조 4항 및 학칙 제 19조 6항에 의하면 연구처는 매 2년마다 연구시설에 대하여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부속연구소(원)의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을 차등화시켜 우수 연구소(원)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2003년에 평가대상 연구소(원) 59개를 학문분야별로 인문사회계, 이공계, 예술체육계로 구분하여 연구소의 조직과 운영, 연구여건, 연구소 활동,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하여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 최우수 그룹에 속한 8개 연구소에 1,000만원, 우수 그룹에 속한 22개 연구소에 500만원의 운영비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였다. 6개 통합연구원은 1순위 연구원 2개, 2순위 연구원 2개, 3순위 연구원 2개로 구분하여 각각 4,000만원, 3,500만원, 2,500만원의 운영비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였다. 한편 초미세소자기술연구소는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폐지기로 결정하였다.

## 2.6 연구실적

본교는 세계수준의 종합연구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최근 들어 본교의 국제인증학술지(SCI(E) 등재 학술지) 게재논문 수가 괄목할 만한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은 교수들의 연구역량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증거이며, 또한 각 단과대학별로 교수 임용과 승진 기준에 일정 수의 SCI급 학술지 게재 논문을 요구하는 제도의 도입이 연구의 질적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교에서는 논문, 단행본, 기타업적(특허, 연구보고서, 예·체능계 작품발표 및 연구, 기타 즉 종설, 해설, 서평, 학술회의 초록집에 발표된 논문 등)을 연구업적물로 인정하고 있다. 논문은 다시 정기학술지 게재논문, 학술회의논문집 게재논문 및 기타 논문집 게재논문으로 분류한다. 학술회의 논문초록집 게재논문은 기타 항목으로 집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분야에 따라서는 이를 가치 있는 업적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치는 정기학술지 게재논문 업적을 중요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단행본과 정기학술지 게재논문 위주로 연구업적을 정리하였다. <표 2.17>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본교 교수들의 연구업적에 대한 총괄적인 자료이다. 2003년 현재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할 때 연구업적 발표실적은 교수 1인당 10.66건이며, 자료를 제출한 교수에 국한시킬 때에는 1인당 12.83건이다. 한편 SCI(E) 등재 정기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수가 증가된 것으로 보아 연구업적의 질적 수준은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 2003년에 특허건수가 대폭 증가된 점이 특이하다. 이것은 대학의 연구 성과가 특허기술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술이전촉진법'이 2001년에 제정되고, 2003년에 「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이 출범하여 운영된 효과라 볼 수 있다.

<표 2.17> 본교 교수의 연구업적 총괄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전체 교수수(명)	1,615	1,627	1,616	1,656	1,786
자료제출 교수수(명)	1,479	1,511	1,530	1,513	1,484
단행본(편)	920	988	1,057	832	644
논문(편)	8,983	8,778	8,560	9,397	9,108
특허(건)	1	6	12	19	90
중설 및 기타 업적(편) <sup>a)</sup>	8,617	9,090	9,959	9,814	8,907
예술창작발표(회)	569	529	523	540	376
연구업적 총계(건)	19,089	19,385	20,099	20,583	19,035
전체교수 1인당 발표(건)	11.82	11.91	12.44	12.43	10.66
자료제출 교수 1인당발표(건)	12.91	12.83	13.14	13.60	12.83

a) 연구보고서, 지적재산권, 전시발표 및 창작, 학술회의초청강연 등을 포함한것임

<표 2.18>에는 각 단과대학(원)별 연구업적(단행본 및 정기학술지 게재논문)의 변화 추이가, <그림 2.5>에는 단과대학(원)별 교수 1인당 정기학술지 게재논문의 변화 추이가 나타나 있다. 대학 전체의 정기학술지 논문 발표는 2001년에 6,313편이었으나 2003년에는 6,540편으로 3.6% 증가하였고, SCI논문 발표는 2001년에는 3,017편이었으나 2003년에는 3,224편으로 6.9% 증가하였다. 주요 대학별로는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의과대학이 매년 대학 전체 SCI논문의 약 75% 가량을 차지하였다. (<그림 2.6> 참조) 또 농업생명과학대학, 약학대학, 치과대학은 2001년 대비 각각 49.6%, 36.5%, 40.6%의 증가추세를 보였다. 전체 정기학술지 게재 논문 중 SCI논문의 비율은 자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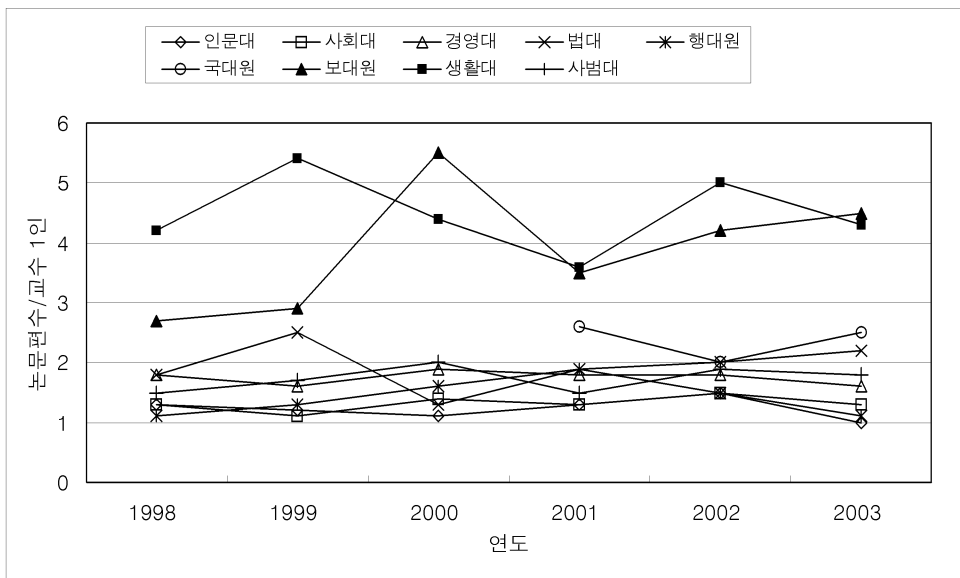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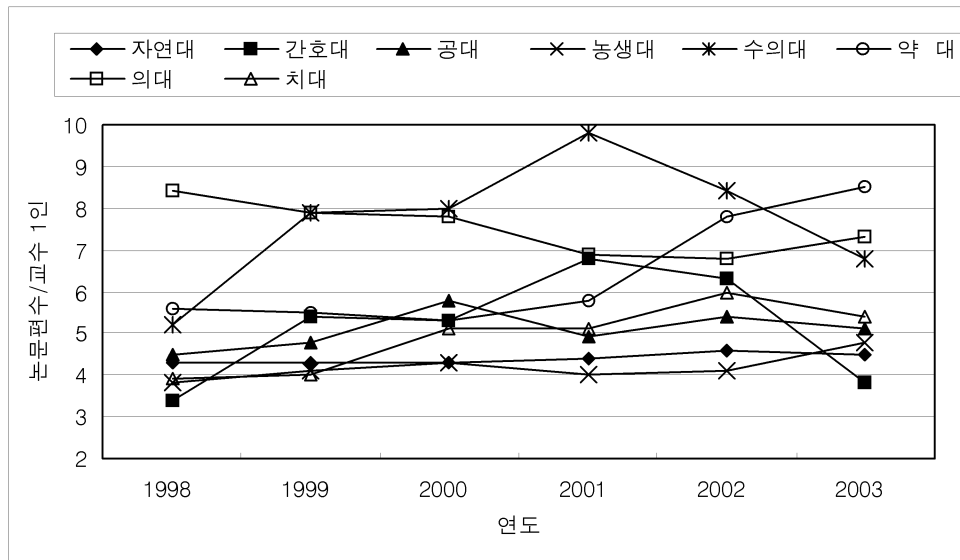
학대학이 81.3%, 약학대학이 71.7%, 공과대학이 59.2%, 수의과대학이 53.2%, 의과대학이 47.6%, 농업생명과학대학이 44.9%, 치과대학이 33.9%로 나타났다. (<표 2.18>, <그림 2.6> 참조) 본교의 이러한 SCI논문 발표 숫자는 세계의 대학 중에서 35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2001년의 40위에서 5단계 오른 것이다. 참고로 2003년에 발표된 대학별 SCI논문 발표 순위를 보면 하버드대가 9,717편으로 1위, 도쿄대가 7,284편으로 2위, UCLA가 3위(5,918), 교토대가 7위(5,069편), 스탠포드대가 9위(4,835편), MIT가 31위(3,266편), 본교가 35위(3,062편) 등이다. 국내 다른 대학으로는 한국과학기술원이 178위(1,237편), 포항공대가 263위(881편), 연세대가 152위(1,405편), 고려대가 260위(893편)이었다.

<표 2.18> 단과대학별 연구업적 발표량 변화(1998-2003년)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자료계 출교수	단행본	정기 학술지 논문	자료계 출교수	단행본	정기 학술지 논문	자료계 출교수	단행본	정기 학술지 논문	자료계 출교수	단행본	정기 학술지 논문	자료계 출교수	단행본	정기 학술지 논문
인문대학	135	100	160	146	102	160	147	127	193	133	94	198	131	95	129
사회과학대학	88	74	100	84	96	120	95	108	123	92	103	136	81	78	109
자연과학대학	173	88	746	170	48	737	175	47	764	163	49	744	166	24	750
간호대학	18	33	97	18	47	95	18	56	122	19	22	120	16	16	60
경영대학	35	49	56	34	38	64	32	35	59	28	27	49	27	19	42
공과대학	218	50	1,044	253	55	1,475	254	62	1,235	257	50	1,380	264	32	1,357
농업생명과학대학	96	83	392	91	80	395	95	57	384	100	84	406	94	45	450
미술대학	28	6	2	23	2	1	25	6	-	29	14	0	25	5	2
법과대학	31	34	78	30	54	40	34	45	65	31	44	63	30	27	67
사범대학	78	81	134	82	139	168	87	177	127	92	155	174	91	114	164
생활과학대학	24	30	130	23	35	101	25	48	89	24	22	119	22	20	95
수의과대학	28	5	220	30	26	239	32	10	313	35	11	293	37	19	252
약학대학	27	10	149	31	16	163	42	9	245	35	12	272	40	20	339
음악대학	40	6	3	39	13	1	37	9	2	36	7	1	33	3	1
의과대학	325	169	2562	320	128	2,490	308	175	2,119	312	73	2,108	298	88	2,178
치과대학	65	44	259	69	35	351	68	36	346	74	23	442	78	14	419
보건대학원	18	18	52	18	19	99	15	16	53	18	12	75	16	4	72
행정대학원	19	25	25	16	31	25	18	22	34	16	17	24	15	10	17
환경대학원	15	8	25	15	13	19	15	8	19	13	7	26	14	7	22
국제대학원 (기타)	18	7	73	19	11	82	8	4	21	6	6	12	6	4	15
전체	1,479	920	6,307	1,511	988	6,825	1,530	1,057	6,313	1,513	832	6,642	1,484	644	6,5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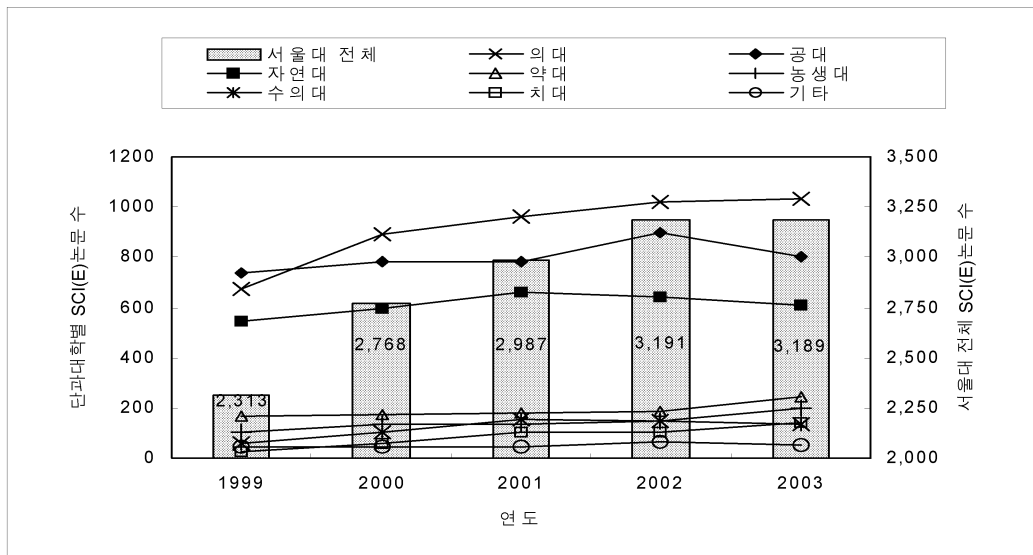
주) 1998-2000년까지는 국제대학원이 별도 집계되지 않고, 천연물과학연구소, 의학연구원, 국제지역원이 기타로 통합집계 되었음

단행본 발간은 2001년에 1,057권에서 2003년에 644권으로 39.2%가 감소하였다. 자료를 제출한 교수 1인당 단행본 출간건수를 살펴보면 사범대학만이 2003년에 교수 1인당 1권 이상의 단행본을 출간하였고,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법과대학, 보건대학원, 행정대학원 등은 1권 이하로 감소하였다.



<그림 2.5> 단과대학별 교수 1인당 정기학술지 게재논문의 변화추이

자연과학분야의 SCI와 같은 역할로 사회과학분야에서는 SSCI, 인문과학분야에서는 A&HCI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인문사회과학분야에서는 언어와 사회문화에 대한 차이 때문에 SCI처럼 객관적 비교기준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세계 대학과의 비교를 위해서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다른 기관과의 비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지정하는 '전국규모학술지'에 게재되는 연구성과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6> 서울대 전체 및 단과대학별 SCI(E) 등재된 정기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수

## 2.7 연구처 중점 추진사업

연구처는 본교의 연구기반을 강화시키고, 교수들의 연구 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2002~2003년 동안 연구처가 학내 연구기반 강화를 위하여 중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으로는 「서울대학교연구공원 설립」, 「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 설립, 「Bio-Max Project」와 「두뇌한국 21」 사업의 관리 등을 들 수 있다.

## 1)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설립

서울대학교연구공원은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정보자원 등의 연구개발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산학협동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시키고, 학내 신기술 및 기술집약적 벤처기업의 창업보육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중소기업 활성화 및 산학협력 모델 확립을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2002년 6월에 개정된 '서울대학교연구공원조성에관한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주요 성과로는 공동지원시설인 창업보육센터 건물을 신축하여 2001년에 개관하였고, LG전자 디지털TV서울대연구소와 SK텔레콤 서울대연구동이 2002년에 개관하였다.

## 2)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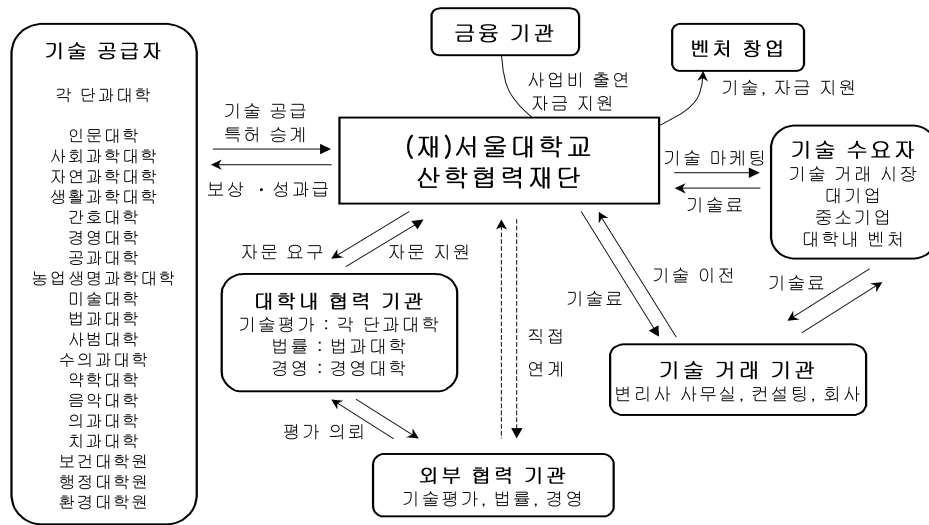
재단법인 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은 본교가 보유한 지식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회에 확산시켜 국가 발전에 참여하고, 미래첨단기술을 개발하여 우리나라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산학협력재단은 대학의 문턱을 낮추어 대학과 사회가 서로 다가설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그동안 국·공립대학에서는 지적재산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어 대학의 산학협동과 기술이전이 활성화되지 못하였는데, 2001년 12월에 산업자원부에서 기술이전 촉진법을 개정하여, 대학이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설립하여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를 승계할 수 있게 되었다. 산학협력재단은 대학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총장이 이사장을 겸임하고, 단장(상임이사)을 두며, 사무운영본부, 기술사업본부, 창업지원본부 등 3개 본부와 운영위원회, 법률경영위원회, 기술평가위원회, 창업지원운영위원회 등 4개 위원회로 구성되었다. 법률지원을 위하여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내 법과기술센터를 설치하여 외부와 연결망(liaison office) 역할을 수행토록 하였다.

산학협력재단에서는 대학의 기초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실용화될 수 있도록 응용분야의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고수익이 예상되는 원천기술 확보를 위하여 기초연구 지원에 많은 투자를 할 계획이다. 응용 및 개발 연구결과가 상품화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 시작단계부터 기술동향 및 시장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학제간 연구를



통한 복합기술 생산을 위하여 연구채널 (Research channel)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림 2.7> 참조)



<그림 2.7>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의 연구채널

### 3) Bio-Max Project

연구처는 2001년에 발족한 「BT정책연구단」이 제출한 'BT정책연구단 최종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Korea Bio-Max Project'를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교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생명공학분야 연구의 중심 허브(hub)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생명공학공동연구원이 2003년 1월에 설립되었다. 생명공학연구원은 생명공학(BT) 관련 10개 단과대학의 참여를 바탕으로 Bioscience, Biomedicine, Bioengineering, Bioagriculture가 융합된 다학제간 통합 연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과의 접목으로 새로운 연구 영역을 개척하는 것을 설립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앞으로 외국인을 포함한 국제적 경쟁력을 지닌 최정상급 전문 인력을 유치할 예정이며, 최적의 환경 하에서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뿐 아니라 동아시아 BT연구의 중심축으로서 기능하고자 한다. 또한 생명공학공동연구원 내에 BT 분야의 특성화된 연구센터들을 설립, 지원하며 이를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국내 대학 및 연

구소에 산재해 있는 관련연구자들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이를 극대화시킬 계획이다.

#### 4) 두뇌한국 21(BK21)사업

연구처에서는 1999년부터 대학원생들의 연구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대학원교육프로그램지원사업인 「두뇌한국 21」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두뇌한국 21」 사업단과 핵심분야 사업팀 현황에 관한 자료는 부록 <표 A12>, <표 A.13>, <표 A.14> 및 제2장 6절 (시설공간 분야)을 참조하기 바란다. 대학원생의 연구여건과 관련하여 인건비 지급(석사과정 40만원/월, 박사과정 60만원/월), 국제학술회의 참가비용 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과 대학원생 전용시설(대학원 기숙사 및 주거 시설, 대학원교육연구동, 정보화사업, 산학공동연구시설, 멀티미디어 강의동 등)이 캠퍼스 곳곳에 건립 중에 있다.

### 3. 교 수

21세기 지식사회를 주도해 나가야 할 시대적 사명을 지니고 있는 본교가 종합연구 대학으로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교육, 연구, 사회봉사 등의 대학본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교수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교수의 역할은 우수 학생을 교육하여 고급인력을 배출하고, 전문지식을 탐구하여 세계수준의 지적경쟁에서 탁월성을 확보하며,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들을 선도적 위치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도덕적·윤리적 규범을 지켜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수개인의 능력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지만 교수활동과 관련된 대학의 시스템이 뒷받침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지난 2년 동안 교수신분체계에 따른 신규 임용, 재계약 임용, 승진 임용, 정년 보장 임용 등에 관한 개선 또는 변경 사항과 교수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교수처우와 복지후생제도에 대하여 다룬다.

#### 3.1 교수 현황

2003년 현재 본교에는 모두 1,564명의 전임교수가 재직하고 있다. 이 숫자는 2000년의 1,483명에 비해 81명이 늘어난 것이다. 직급별로 볼 때 교수 62%, 부교수 24.7%, 조교수 10.7%, 그리고 전임강사가 2.1%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기금교수는 2001년의 152명에서 2003년에는 119명으로 줄어들었다. (<표 3.1> 참조)

<표 3.1> 교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년도		전 임 교 원					기 타 교 원						계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 강사	소계	명예 교수	기금 교수	시간 강사	조교	계약제 (「두뇌한국 21」)교수	소계	
2000	남	878	276	203	23	1,380	376	117	771	295	5	1,564	2,944
	여	68	16	14	5	103	14	15	381	115		525	628
	소계	946	292	217	28	1,483	390	132	1,152	410	5	2,089	3,572
2001	남	876	302	174	17	1,372	401	135	728	287	42	1,593	2,965
	여	66	20	14	2	102	16	17	558	130	21	742	844
	소계	942	325	188	19	1,474	417	152	1,286	417	63	2,335	3,809
2002	남	901	322	130	14	1,367	468	123	1,282	272	69	2,214	3,581
	여	69	21	13	4	107	19	17	614	141	29	820	927
	소계	970	343	143	18	1,474	487	140	1,896	413	98	3,034	4,508
2003	남	907	361	146	26	1,440	539	102	834	270	54	1,799	3,239
	여	69	26	23	7	125	27	17	551	146	26	767	892
	소계	976	387	169	33	1,565	566	119	1,385	416	80	2,566	4,131

### 3.2 인사

#### 1) 전임교수 임용

1999년 1월의 교육공무원법 개정과 1999년 9월의 교육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외국인 교원의 교육공무원 임용이 허용되었고, 신규임용 과정에서 특정대학 학사학위소지자의 채용비율이 제한되었으며(2/3 초과금지), 계약임용제(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와 단계별 심사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 외에도, 정보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창조적인 지식 창출이 대학의 경쟁력 강화의 측면에서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부각됨에 따라 교수의 연구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승진임용제도 및 교수업적관리제도의 정비 및 강화가 요구되었다. 이에 본교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2002년 6월 20일 ‘서울대학교전임교수및조교임용규정’을 개정하였다.

2002~2003년에는 모두 229명이 신규 임용되었으며, 의과대학, 치과대학, 공과대학의 신규임용이 가장 많았다. (<표 3.2> 참조)

<표 3.2> 대학별 신규임용 전임교수 현황

(단위 : 명)

대 학	2000	2001	2002	2003	'02 - '03 계
인문대학	2	5	3	22	25
사회과학대학	3	7	8	8	16
자연과학대학	3	7	2	21	23
간호대학			1		1
경영대학	1	2	3	3	6
공과대학	4	9	4	23	27
농업생명과학대학	2	5	4	6	10
미술대학		2	2	3	5
법과대학		2		7	7
사범대학	3	6	8	9	17
생활과학대학		1		2	2
수의과대학	2	1	3	2	5
약학대학	1	1	1	2	3
음악대학	1	2	1	5	6
의과대학	7	5	9	18	27
치과대학	3	1	4	25	29
보건대학원	2	1	3	2	5
행정대학원		1	1	2	3
환경대학원				3	3
국제대학원	2		4	5	9
합 계	36	58	61	168	229

2002년과 2003년에 신규 임용된 교수의 학력 및 경력을 분석해보면 <표 3.3>과 같다. 학위취득 대학을 보면 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본교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98명이었다. 임용된 교수 259명(전임교수 229명, 기금교수 30명) 중 석사학위가 최종학위인 경우는 18명이었다. 신규 임용되기 전의 직전 경력을 보면 국내 타교 교수나 연구원 등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박사학위 후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본교에 진입한다는 점에서 좋은 점이라 하겠으며, 외국대학 부교수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본교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표 3.3> 신규임용교수의 학력 및 경력(기금교수 포함)

(단위 : 명)

① 2002~2003년 학위 종류별, 학위 취득 국가별 분포

구 분	국내		해외					계
	본교	기타	북미	유럽	일본	호주	기타	
박 사	33/65	3/9	30/72	3/16	2/7	0	0/1	71/170
석 사	3/1	2/2	2/6	1/1	0	0	0	8/10
계	36/66	5/11	32/78	4/17	2/7	0	0/1	79/180

② 2002~2003년 신규임용직급 및 직전경력

구 분	외국대학수	외국전문직 연구원	국내 교수	국내전문직 연구원	본 교 기금교수	기타	계
교 수	2/0	0	0/2	0	0	0/1	2/3
부교수	2/3	0	4/26	2/1	7/12	1/2	16/44
조교수	3/8	4/8	9/24	3/10	4/15	7/27	30/92
전임강사	0	2/5	3/5	2/4	0/1	6/14	13/29
기금조교수	0	4/0	3/2	1/0	0	9/0	17/2
기금전임강사	0	0	0/3	0/1	0	1/6	1/10
계	7/11	10/13	19/62	8/16	11/28	24	79/180

2) 기금교수의 채용

본교는 1994년 11월 새로운 교수임용 제도로써 '서울대학교기금교수운영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이 규정에 의해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18명과 12명의 기금교수를 신규 임용하였다. (<표 3.4> 참조) 기금교수는 외부기관이나 개인의 기탁금, 부담금 또는 이를 바탕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있으며, 처우는 교육공무원법이 정하는 대학교원 직급구분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기금교수의 임용 및 기타 사항의 세부 규정을 위해 '서울대학교기금교수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을 두고 있다.

기금교수와 별도로 「두뇌한국21」사업의 지원으로 BK 계약제교수가 2000년부터 임용되었다. 2002년에 35명, 2003년에 44명 중 모두 79명이 임용되어 교육과 연구에 참여하였다. (<표 3.5> 참조)

<표 3.4> 기금교수 임용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0	2001	2002	2003	'02-'03 계
사회과학대학				1	1
경영대학		1			0
공과대학	1	1	3	3	6
생활과학대학		1	1		1
의과대학	18	15	10	7	17
치과대학	1	2	4	1	5
합 계	20	20	18	12	30

<표 3.5> BK 계약제교수 임용현황

사 업 단 명	2002	2003	계
21C 세계속의한국법발전연구단	1	3	4
기계분야연구인력양성사업단	5		5
농생명공학사업단	3	2	5
물리연구단	6	2	8
사회기반및건설기술인력양성사업단		7	7
생명과학인력양성사업단	2	6	8
수리과학사업단	2	2	4
인간생명과학연구단	5	9	14
재료연구인력양성사업단	3	3	6
정보기술사업단	1	2	3
지구환경과학부사업단	3	2	5
화공분야연구인력양성사업단	2	3	5
화학분자공학연구단	2	3	5
계	35	44	79
연도말 기준 현원	85	76	

기금교수제도는 본교 자체의 노력으로 부족한 교수를 충원하는데 의의가 있으나, 아직 임용이 특정분야에 편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제도의 운영이 각 대학마다 서로 달라 이의 개선이 요구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두뇌한국 21」 사업 지원금으로 임용된 교수는 그 역할이나 처우가 기금교수와 유사하나 BK 계약제교수로 분류되어 있어 교수신분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3) 석좌교수제도의 도입

1997년 4월 8일에 우수한 경력인사의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대학교석좌교수에 관한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석좌교수라 함은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를 교내·외에서 선임하여 교육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용된 사람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1) 노벨상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 학술상을 수상한 사람
- (2) 인류사회 발전을 위한 업적이 뛰어나 국제기구 등에서 수여하는 상을 수상한 사람
- (3) 특정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이룩하고 인격과 덕망이 높은 사람
- (4)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 및 연구경력이 20년 이상이고 연구업적이 뛰어난 사람
- (5) 기타 석좌교수 자격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사람

석좌교수제도의 운영경비는 외부기관 및 개인의 기탁으로 조성한 석좌교수 기금의 과실 또는 기탁금으로 충당된다. 그러나 1997년에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이 제도에 의해 석좌교수로 임용된 사례는 아직 없다.

### 4) 초빙교수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초빙교수는 국가기관, 연구기관, 공공단체 또는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거나 외국인으로서, 본교와의 계약에 의해 기간제 신분보장을 받는 교수를 말한다. 초빙교수는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임용되며, 교수 및 연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가 제공된다. 현재 초빙교수는 과학기술분야와 대학영어 및 그 외의 외국어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

국내외의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현재는 시간강사의 채용을 위한 예산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재정을 확보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유치하기보다는 가용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을 유치할 수밖에 없다. 또한 초빙인력에 대한 주택제공 등의 복지후생제도와 미흡하기 때문에 우수인력의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 「두뇌한국 21」 사업 지원금으



로 외국인교수 전용숙소가 건설되고 있으며, 외국인을 전임교수 또는 계약교수로 채용할 수 있음에 따라 초빙교수제도의 획기적 개선이 기대된다.

### 5) 승진 및 정년보장

2002년과 2003년에 전임 교수 가운데 직급의 승진이 이루어진 경우와 정년보장 재임용의 절차를 거친 경우는 각각 <표 3.6>, <표 3.7>과 같다.

<표 3.6> 승진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0	2001	2002	2003	'02-'03계
부	교수 → 교수	54	60	59	46	105
조	교수 → 부교수	45	92	64	36	100
	전임강사 → 조교수	9	19	5	11	16
계		108	171	128	93	221

<표 3.7> 정년보장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0	2001	2002	2003	'02-'03계
	정년보장 현황	45	92	13	15	28

2002년 6월 개정된 서울대학교전임교수및조교임용기준'에서는 정년보장대상교원을 교수로 상향조정하고, 부교수는 교육 및 학술 분야 등 업적이 현저하게 우수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정년을 보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였다. 따라서 2002년과 2003년에는 정년을 보장받은 교수의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종전과 같이 부교수로 승진할 때 정년보장을 받은 교수는 2002년에는 7명, 2003년에는 9명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2000년 45명과 2001년 92명에 비하면 현저하게 강화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승진임용은 단과대학 또는 학과(부)에 따라 본교의 규정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두뇌한국 21」 사업의 도입으로 교수의 업적 심사기준은 더욱 강화되었다.

## 6) 정년퇴임 및 명예교수 보임

2002년과 2003년에 정년퇴임한 교수와 명예교수 선정의 현황은 <표 3.8>과 같다. 명예교수에 관한 세칙은 2001년 4월 21일에 개정된 바 있다. 개정된 세칙에서는 명예교수의 자격을 완화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서울대학교명예교수에관한세칙 ◇

제2조 (자격) ①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자는 퇴직 당시 총장 또는 교수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연령은 정년퇴임에 해당하는 연령이상으로 한다.

1. 본교에 전임강사 이상으로 25년 이상 재직한 자.
2. 본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그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하거나 본교 발전에 공헌한 자.
3. 본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할 경력과 타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할 경력이 통산 25년 이상인 자로서, 그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하거나 본교 발전에 공헌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사회적, 윤리적 물의를 일으켜 학교나 교수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명예교수 추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2년에는 정년퇴임교수 40명보다 많은 44명의 명예교수가 추대되었는데 그 이유는 현행 규정상 정년 전에 조기 퇴임하더라도 20년 이상 재직하면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고, 그래서 과거에 명예교수에서 누락된 사람들을 위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3년에는 정년퇴임교수 39명이었으나 위촉된 명예교수가 38명이었다. 그것은 현행 규정이 다소 완화되었음에도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 명예교수의 선정은 형식적이며 명예교수를 위한 신분관리와 처우가 미비하다. 따라서 재직기간에 관한 일정요건만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추대되는 관행에서 탈피하고, 학문적 기여도, 학문발전에의 기여도, 사회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추대할 필요가 있다. 본교 명예교수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연구 활동이 가능하도록 처우의 개선도 필요하다.

<표 3.8> 정년퇴임교수 및 명예교수 선정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0	2001	2002	2003	'02-'03 계
정년퇴임교수 현황	44	38	40	39	79
명예교수 선정 현황	43	48	44	38	82

7) 보직임용

우리대학의 보직교수는 법령과 규정에 의해 정해진 직위를 가진 교수를 말한다. 2003년 현재 보직교수임용 현황은 <표 3.9>와 같으며, 전체 교수 중 보직자의 비율은 22.7%이다.

전체 교수 중 보직교수의 비율이 높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대부분 보직이 순환보직으로 한 교수가 교수직에 있는 동안 장기간 맡는 것이 아니므로 보직과 관련된 업무에 시간을 부분적으로만 할애하고 있다. 둘째,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나 보조 인력이 부족하여 교수가 행정적인 업무를 많이 하고 있다. 셋째, 교수의 수에 비해서는 학과, 행정체계, 연구소들이 과도하게 세분화되거나 복잡하게 되어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직의 겸직을 권장하고 있으나 보다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교수·직원의 전문화, 행정의 합리화, 연구시설과 부속시설의 통·폐합이 필요하다.

<표 3.9> 전임교수의 보직현황

본 부	대학 (원)	연구 시설	지원·부속시설	지원기관	대학병원
부 총 장: 1 대학원장: 1 처·실장: 4 부처·실장: 4 본부(원)장: 3	대학(원)장: 20 부학(원)장: 30 학과장(전공주임) : 187	기관장 : 61	기관장 : 31	대학신문사 주간: 1 대학신문사 부주간: 1 출판부장: 1	원장: 1 진료부원장: 1 치과진료부원장: 1 서울시립보라매 병원장: 1 교육연구부장: 1 기획조정실장: 1 소아진료부원장: 1 부설임상의학연구 소장: 1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장: 1 홍보실장: 1
13	237	61	31	3	10

### 3.3 처우

#### 1) 보수

본교 교수의 수당, 연구비 등을 포함한 직급별 연봉 수준을 평균호봉에 따라 살펴 보면 <표 3.10>과 같다.

<표 3.10> 직급별 교수 평균월급 및 연봉 수준(2003년 기준)

직 급	평균호봉	월급(원)	연봉(원)
교 수	35	6,325,760	75,909,120
부 교 수	23	4,989,460	59,873,520
조 교 수	18	4,400,510	52,806,120
전임강사	14	3,706,260	44,475,210

주 : 월급에 포함된 명세 : 본봉,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가계지원비, 교통비, 효도휴가비, 교재연구비, 국고보조연구비

‘서울대학교교수협의회’의 연구자료 [서울대학교의 현실: 무엇이 문제인가?(2003년 자료 참고)]에 의하면 본교 교수들의 급여수준은 사립대학교수들에 비하여 매우 열악하다. 경력이 증가할수록 급여수준의 격차도 확대되어, 정교수는 사립대학교수보다 30%에서 최대 65%까지 낮은 급여를 받고 있으며, 타 국립대학교수에 비하여도 5~15%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열악한 급여수준은 일부 교수의 이직 현상으로 이어져 교수사회에 적지 않은 파문을 야기하였으며, 우수인력의 확보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시대적 추세에 따라 향후 도입될 연봉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도 처우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2) 성과급 지급

1995년 이후 연구보조비의 일부를 성과급의 형태로 지급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결정에 따라, 본교도 각 단과대학(원)별로 본부지침 범위 내에서 성과급 연구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각 직급별로 정해진 연간 연구보조비의 250%까지 차등 지급할 수 있게 되었는데, 대학당국에서는 지급액의 표준편차가 큰 학과(부)에 대해서 전체지급액

을 늘려줌으로써 성과급 차등지급을 확대 유도하였다. 1996년에 실시된 교수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성과급 차등 지급에 대해 찬성 44%, 반대 54%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평가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탁월한 업적이 명백한 소수에게 상금형태의 성과급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이 제시되었다.

또 성과급과는 별도로 「두뇌한국 21」 사업 지원금으로 특별연구장려금을 지급하였다. 전체 전임교수의 약 1/3을 업적우수교수로 선정하여 5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였고, 2002년에는 576명이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2003년에는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하여 지원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취소되고 말았다. 앞으로도 업적이 우수한 교수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발전적인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3) 후생복지

현재 교수를 위한 후생복지 제도로는 교수아파트, 교직원식당, 호암교수회관, 서적 및 생활용품 매점, 체육시설, 수련장, 교수전용 주차장 등의 시설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후생복지비와 차량보조비가 있다. 교수아파트는 신입교수들에게 임용 초기의 주거로서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으나, 교수아파트와 호암교수아파트 건립 이후 전체 면적의 증가가 없는 상태이다. 교수아파트는 무주택 신입교수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거주기간은 3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교수들이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급여수준의 향상은 물론 복리후생제도의 개선도 시급하다고 하겠다.

## 3.4 교수확보

### 1) 전임교수

2003년 4월 1일 현재 본교의 전임 교수 수는 1,565명이며, 지난 2000년 이후 전임교수 1인당 학생수의 변화는 <표 3.11>과 같다. 이 표에 의하면 지난 4년 간 교수 1인당 학생 수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원 학생에게 학사과정 학생의 1.5배의 가중치를 두고 있는 현행 제도 하에서도 전임교수 확보율이 법정 정원 기준 84.4%에 그치고 있으므로 앞으로 전임교수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

다. 또한 전임교수의 배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교수정원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교수 대 학생 비율은 특히 근년에 들어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학원생이 증가하면서 논문지도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전임 교원의 증원이라는 필요가 제기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본교가 현재 요구하는 정도로 전임 교원이 증원되었을 때에도 문제점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가장 심각한 현실적 문제는 새로 증원된 교실들이 활동할 공간의 부족이다. 연구실과 그에 따른 실험실을 배정해야 하는 문제는 현재도 심각한 공간 문제에 대해 더 큰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3.11> 전임교수 1인당 재학생수

구 분		2000	2001	2002	2003
전 임 교 수 수		1,483	1,474	1,474	1,565
학 사	학생수	22,213	22,953	22,581	22,237
	교수1인당 학생수	14.9	15.5	15.3	14.2
대학원	학생수	9,601	9,331	9,477	10,139
	교수1인당 학생수	6.4	6.3	6.4	6.5
전 체	학생수	31,814	32,284	32,058	32,376
	교수1인당 학생수	21.4	21.9	21.7	20.7

주 : 현원기준임.

## 2) 교수 학위소지 현황

2003년 4월 1일 현재 본교 전임교수의 학위소지 현황을 보면 전체 교원 중 박사학위 소지비율은 94.7%로 전년도의 94.6%와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신규 총원되는 교원의 대부분이 박사학위 소지자이기 때문이다.

## 3) 교수보조인력

교수보조인력은 유급조교와 조수(T.A.)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임교수 1인당 조교 및 조수의 비율, 교수보조인력 1인당 학생수 비율은 <표 3.12>와 같다.

<표 3.12> 교수 보조인력

구 분	조 교	조수(T.A.)	조교·조수계	전임교수	전임교수 1인당 조교수	전임교수 1인당 조교 및 조수수
2000	410	1,360	1,770	1,483	1,770	1,770
2001	417	1,360	1,777	1,474	1,777	1,777
2002	397	1,360	1,757	1,474	1,757	1,757
2003	416	1,360	1,776	1,566	1,776	1,776

직원 수가 적은 학과에서는 조교가 학과의 사무를 거의 전담하고 있어 실제 교수 보조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조수에게는 미미한 보수로 인해 실질적인 보조인력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들이 실질적인 연구 및 교육보조인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과 보수의 개선이 시급하며, 아울러 연구보조인력의 연차적 증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3.5 교수의 대내외적 위상

#### 1) 교수윤리위원회

1998년 2월 19일 발족한 「교수윤리위원회」(위원장 : 노승탁 교수)는 서울대학교 전임교수의 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게 되었다.

- 교수윤리규범의 제정·개정 및 해석에 관한 사항
- 전임교수의 윤리성 및 품위 제고 방안에 관한 사항
- 전임교수의 교수윤리규범 또는 교수로서의 본분을 위반하는 기타 품위손상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친 사항 등

위원회는 심의결과에 따라 권고, 시정요구, 경고 또는 중재를 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에 따라 총장에게 후속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이 위원회를 통해 교수윤리규범 등

을 구체화하는 등 교수들의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수징계권이 총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교수윤리위원회의 활동범위는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 2) 교수협의회 활동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는 교수의 친목도모 및 권익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1) 서울대학교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보고서 :서울대학교의 운영과 발전방향(자율성, 민주성 그리고 정체성)에 관한 교수들의 의견을 모아 향후 대학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보고서 작성
- (2) '국립대학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검토 및 대체법안 제출 : 황우여의원이 입법 발의(2002.11.13)한 국립대학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더 나아가서 대학 발전을 위한 대체법안을 만들어서 제출
- (3) 대토론회 개최 :
  - ① 서울대학교 운영체제 개선 대토론회 : 총장선출제도, 교수의회, 대학회계, 이사회 및 재정위원회 등 교육인적자원부가 시도하고 있는 국립대학 개혁방안에 대한 중요한 안건들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
  - ② 한국사회에서 서울대학교는 무엇인가? : 한국 사회에서 서울대학교가 어떤 존재인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역할 점검
- (4) 교수처우현실화 방안 : 다른 대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서울대학교 교수들의 급여수준 및 기타 열악한 교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정리하여, 교수들이 안정적으로 학문연구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본부에 요청
- (5) '학칙 및 총장후보추천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교수협의회 의견 제시
- (6) 교수 사진명부 제작 : 교수협의회의 구성원(기금교수 포함) 상호간의 학문적 정보 교환과 친목도모를 위해 인적 사항, 세부전공 분야, 사진 등을 실은 명부를 제작하여 발간 배포

## 3) 사회봉사활동

본교 교수의 2002~2003년에 걸친 사회봉사활동은 학내 전산망에 입력된 각각 1,223명, 651명의 자료를 근거로 정리하면 <표 3.13>과 같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교수들의 봉사활동도 있었을 것이므로 실제는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 4) 교내 행정참여 활동

교내 봉사활동의 대표적인 것은 대학을 구성하는 행정조직에 참여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표 3.16>을 보면 보직 및 위원회활동의 경우 2002년(1,092명)에 비해 2003년(506명)에는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 소속별로는 간호대학(86%), 약학대학(77%), 치과대학(72%), 국제대학원(67%) 순으로 보직 및 위원회활동 교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각종 보직에서 활동한 실제의 교수 수는 중복 보직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표에 나타난 수보다 적을 수 있지만, 각종 교내 위원회에 참여한 교수 수까지를 고려한다면, 교수들이 교내 행정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3> 교수 봉사활동 현황(2002~2003년)

(단위 : 명)

대 학	총교수 (명)	제출교수 (명)	교내보직 및 위원회활동 (명)	학술·예술 ·체육활동 (건)	교외 봉사 활동		
					정부기관 (건)	공공기관 (건)	민간단체 (건)
인문대학	152/168	133/131	98/45	36/30	37/20	21/14	8/6
사회과학대학	108/113	92/81	65/27	18/13	17/24	19/17	3/5
자연과학대학	174/189	163/166	89/48	28/20	49/31	20/22	0/1
간호대학	19/20	19/16	17/13	6/2	10/8	14/2	0/0
경영대학	36/39	28/27	19/12	10/6	7/5	11/7	3/3
공과대학	262/291	257/264	183/65	37/34	79/51	60/42	4/1
농업생명과학대학	102/108	100/94	58/33	33/22	105/77	40/7	11/4
미술대학	32/31	29/25	20/14	14/9	27/2	19/1	6/5
법과대학	32/40	31/30	18/13	16/8	39/46	6/4	2/1
사범대학	98/108	92/91	59/35	40/31	85/51	26/17	2/1
생활과학대학	24/27	24/22	15/10	11/9	14/10	12/2	0/0
수의과대학	35/38	35/37	21/8	7/4	14/20	13/6	1/3
약학대학	39/41	35/40	38/20	8/13	12/12	1/3	0/1
음악대학	39/40	36/33	23/13	11/9	5/7	28/12	1/5
의과대학	363/368	312/298	267/95	42/30	104/60	68/51	13/11
치과대학	76/92	74/78	65/44	28/25	22/12	18/7	3/4
보건대학원	19/20	18/16	12/5	12/7	12/12	19/6	0/0
행정대학원	20/23	16/15	10/4	4/3	21/12	1/3	1/1
환경대학원	15/17	13/14	8/1	5/3	5/13	2/3	0/0
국제대학원	11/13	6/6	7/1	4/4	5/0	5/0	0/0
계	1,656/ 1,786	1,513/ 1,484	1,092/506	370/282	669/473	403/226	58/52

1) 교수현원(기금교수 포함)은 4월 1일 기준, 연구업적 발표기간은 매년 1월1일~12월31일까지

### 5) 정부기관에서의 봉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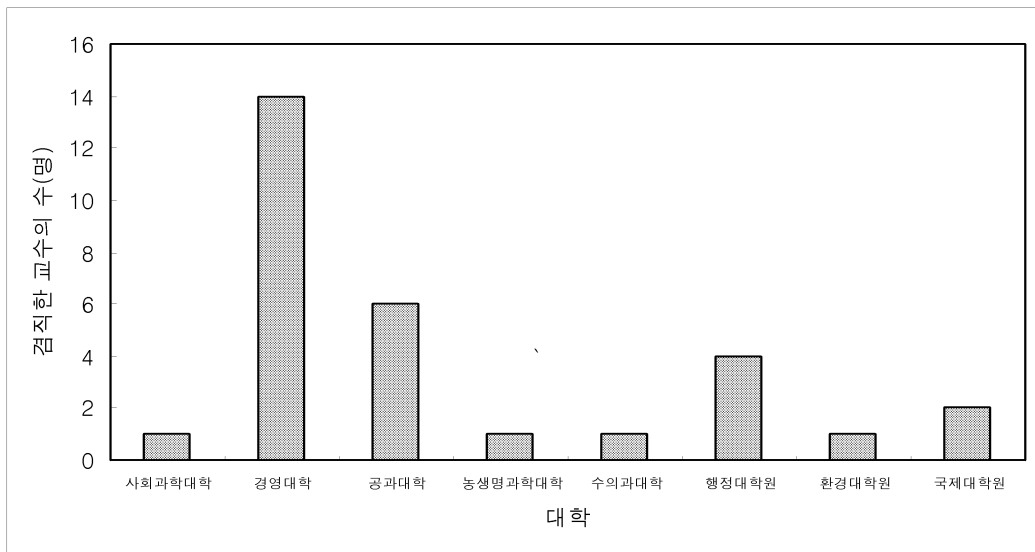
2002~2003년에 본교 교수는 정부기관(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각각 연 인원 669명, 473명이 활동하였다. 정부기관에서의 활동은 각 부처에 설치되어 있는 전공 분야 관련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정부나 자치단체의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동일한 교수가 여러 위원회에서 동시에 활동한 경우도 많이 있다.

## 6)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서의 봉사활동

공공기관에서의 봉사활동은 주로 정부출연기관, 학원재단, 그리고 공익단체의 단체장, 이사 혹은 위원으로 활동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2002년과 2003년의 활동 비율은 변동이 거의 없었다. 또한 일부 교수들이 기업체, 협회, 협의회, 각종 재단 법인체, 장학단체 및 동창회 등의 민간단체의 단체장이나 이사 등으로 활동하였다.

## 7) 기타 봉사활동

기타 교수들의 봉사활동에는 학생단체의 지도교수와 자문교수, 그리고 기타 단체에서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많은 교수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였으리라 생각되나 교수업적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누락된 경우가 많고, 더욱이 개인적으로 봉사단체에 활동하였거나 자원봉사를 한 경우 등, 보고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당수의 경우를 고려한다면 봉사활동은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민간기업의 사외이사(감사)로 겸직한 교수의 수는 <그림 3.1>과 같다. 또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12명, 22명의 교수가 벤처기업의 이사로 활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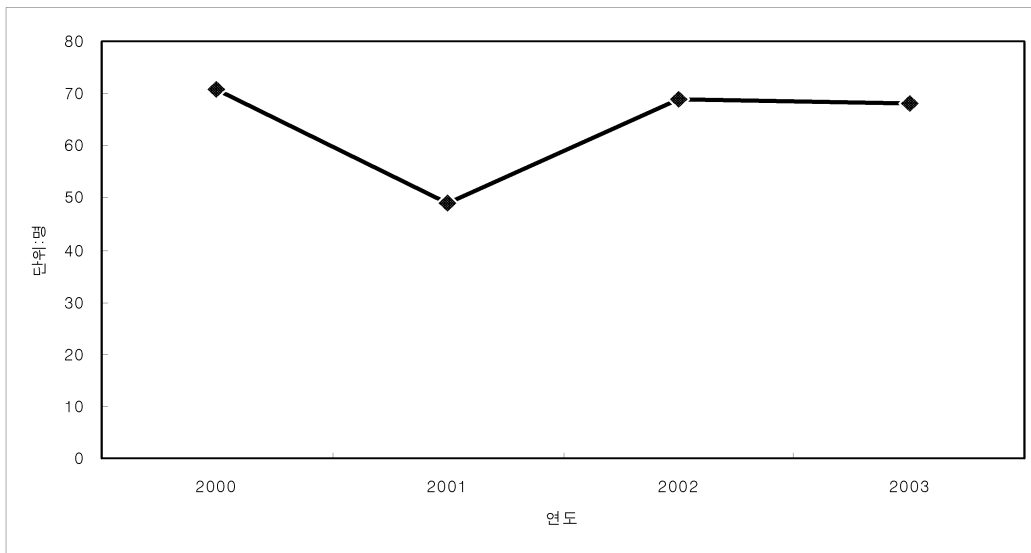


<그림 3.1> 단과대학별 민간기관 임원 겸직 교수

### 3.6 국제교류 및 학술행사

#### 1) 해외파견교수

2002~2003년에 137명의 교수가 장기 해외파견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림 3.2> 참조) 장기 해외파견 연구를 수행하는 교수가 매년 전체 교수 수의 약 9%정도에 불과한 실정인데, 학문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수의 장기 해외파견 연구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연구년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림 3.2> 교수 교류 현황(해외파견 등)

#### 2) 국제 학술행사 교내 개최

2002~2003년에 본교에서는 다양한 국제학술행사가 개최되었다. 2002년에는 823건, 2003년에는 680건의 행사가 개최되었는데, 단과대학별로 보면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의과대학에서 가장 많은 국제학술행사가 개최되었다. (<표 3.14> 참조)

### 3) 국제 학술행사 참가

2002~2003년에는 교외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국제 학술행사에 본교 교수들이 참여하였다. 국내와 국외에서 개최되는 학술행사에 참석한 횟수는 연간 6,000~7,000회에 달한다. 이 중에서 50% 내외가 국내에서 개최된 행사이며 나머지는 해외에서 개최된 행사였다. (<표 3.15> 참조)

한편 대학 본부의 국제행사 참여도 근년에 들어 비교적 활발해지고 있다. 주로 대학 총장들의 모임의 성격을 갖는 대학간 국제행사 참여 실적은 <표 3.16>과 같다.

<표 3.14> 국제 학술행사 교내 개최 현황

(단위 : 건(2002/2003))

구 분	세미나	심포지움	워크샵	학술회의	기타	계
인문대학	0/3	2/0	5/2	12/13	1/7	20/22
사회과학대학	9/1	6/2	1/0	26/4	1/0	43/7
자연과학대학	18/11	10/22	6/22	62/64	11/16	107/135
간호대학	0/1	0/1	0/0	5/0	0/1	5/3
경영대학	2/0	2/0	2/0	4/6	0/0	8/6
공과대학	21/14	18/61	15/13	63/65	4/3	121/101
농업생명과학대학	8/5	14/18	6/6	58/21	3/6	89/56
미술대학	1/1	2/1	0/0	0/0	0/2	3/4
법과대학	1/2	4/1	1/5	13/12	2/1	21/21
사범대학	9/5	7/0	3/4	16/16	9/11	44/36
생활과학대학	3/2	1/2	1/0	8/3	0/0	13/7
수의과대학	6/3	0/3	1/1	12/12	1/4	20/23
약학대학	1/1	3/4	0/1	18/14	0/1	22/21
음악대학	1/2	0/0	0/1	5/0	2/11	8/14
의과대학	24/15	25/22	23/14	124/90	22/25	218/166
치과대학	2/1	3/3	2/1	48/33	12/1	67/39
보건대학원	1/1	1/0	1/0	0/1	0/2	3/4
행정대학원	1/4	1/2	0/0	5/3	0/1	7/10
환경대학원	1/1	0/0	0/0	3/1	0/0	4/2
계	109/73	97/87	67/70	482/358	68/92	823/680

<표 3.15> 국제 학술행사 참가 현황

(단위 : 건, 2002/2003)

구 분	세미나	심포지움	워크숍	학술회의	기타	계
국내학회	60/44	149/119	50/48	3,264/2,993	11/41	3,534/3,245
국내기타기관	233/210	181/161	106/110	279/247	121/195	920/923
북미소재기관	35/38	36/29	11/9	1,032/952	1/15	1,115/1,043
아시아권소재기관	53/42	100/69	49/26	579/464	24/12	805/613
유럽소재기관	27/21	19/28	17/9	433/312	2/22	498/392
오세아니아소재기관	0/0	4/0	1/0	27/6	0/0	32/6
남미소재기관	0/0	1/0	1/1	16/30	0/4	18/35
아프리카소재기관	0/0	1/1	0/2	4/29	0/0	5/32
기타소재기관	1/4	3/6	2/0	120/67	0/9	126/86
계	409/359	494/413	237/205	5,754/5,100	159/298	7,053/6,375

<표 3.16> 국제 학술 행사(2002~2003년)

행사명	기간 / 일시	장 소	참가 인원
1) BESETOHA 학생캠프 개최	2002. 8. 5- 8.14	서울대학교	4개 대 학생 58명
2) 제5차 서울대-훗카이도대 공동학술심포지움	2003.10.16-10.18	서울대학교	부총장 외 16명
3) APRU Fellows Program 개최	2002. 8.18- 8.25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참석인원 40명
4) AEARU 제8차 정기총회	2002. 9.29-10. 2	KAIST	총장 외 1명
5) 2002 동아시아 4개 주요대학 학술회의(BESETOHA)	2002.10.12-10.13	서울대학교	4개대학 총장 등 80명
6) APRU 제7차 정기총회 (화상회의)	2003. 6. 19	서울대학교	총장 외 1명
7) Oxford Round Table	2003. 7. 6- 7. 11	St. Antonio College, University of Oxford	총장 외 2명
8) AEARU 제9차 정기총회	2003. 9.19- 9.21	중국과학기술대 (USTC)	총장 외 2명
9) 제6차 서울대-훗카이도대 공동학술심포지움	2003.10.16-10.18	서울대학교	양교 총장 외 120여명 예상
10) 2003 동아시아 4개 주요대학 학술회의 (BESETOHA)	2003.11. 7-11. 8	동경대학	4개 대학 총장 등 50여명
11) 대만 국립대학 75주년 기념행사	2003.11.14-11.16	대만국립대학	총장 외 1명

## 4. 대학생활과 학생활동

### 4.1 학생활동

#### 1) 학생자치 활동

1993년 이후 학생회 활동의 중심이 사회 정치적 관심사로부터 교내 학사행정·환경·복지 문제 등으로 바뀌었으며 2002~2003년에도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었다. 학생회 등에서 주요 쟁점으로 제기한 사항은 대학운영에 대한 학생참여, 교통, 식당 문제, 기숙사, 등록금 및 장애학생 지원에 관련된 문제 등에 국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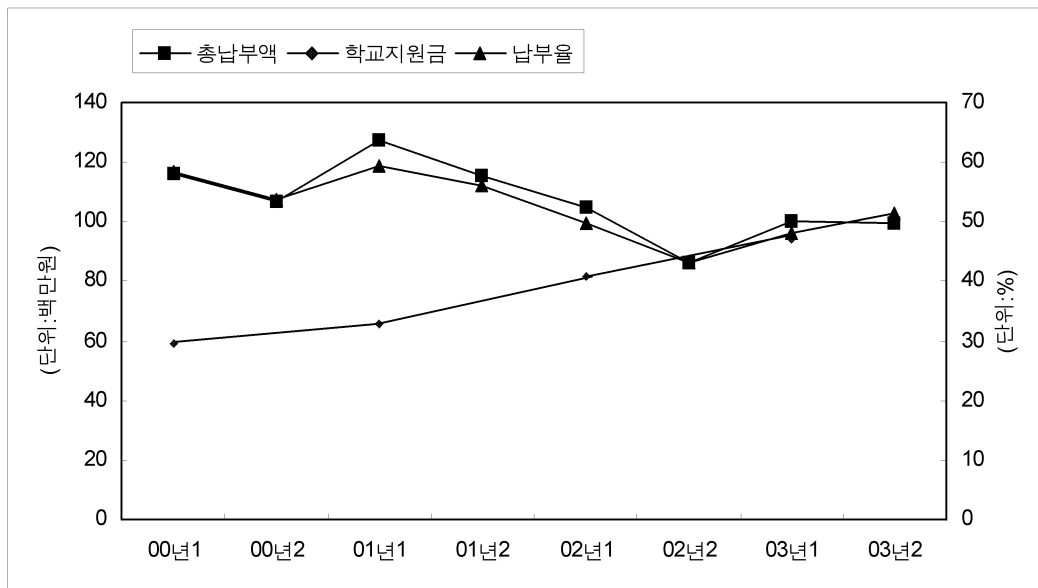
#### (1) 총학생회

2002년과 2003년에는 각각 제45대, 제46대 총학생회가 구성되었다. 2002년 총학생회는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사무국장, 교육개혁국장, 정책국장, 사무차장 및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단·동아리연합회 학생회로 구성되었으며, 2003년 총학생회는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사무국장, 정책국장, 문화국장, 국제교류국장, 대학개혁국장, 대학개혁위원장 및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단·동아리연합회 학생회로 구성되었다.

#### (2) 학생회 재정

학생회 재정 수입은 크게 학생회비와 학교지원금으로 구성되며, 학생회비는 총학생회장 명의로 고지하여 수령하고 있다. 본교 행정부서에서는 수납에 대한 행정적 지원(학생회비 고지서 인쇄, 은행의 학생회비 수납, 학생회비 수납현황 파악)만 제공하고 있다. 학생회비의 관리는 예전에는 학생처에서 담당해 왔으나, 총학생회로부터 자치적으로 학생회비를 관리하겠다는 요구가 있어 1998년부터 총학생회로 관리업무가 이관되었다. 학생회비의 책정, 수납 및 지출은 총학생회의 자율에 맡겨져 있지만 학생

처에서는 매 학년도 초 운영위원회 및 전체 대표자회의에서 학생회비 지출에 관한 전반적인 예산안을 편성하여 가급적 각 단과대학에 보다 많은 예산이 지원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학생회 간부들의 임의 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회 스스로 소정의 결재 과정 및 지출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는 동시에 집행 내역에 대해 반드시 공개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납부된 학생회비 중 10%는 교지편집비로 지출되고 있으며, 1998년부터 총학생회 분담금 중 15%를 학내 각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예산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다. 학생회비 납부액 및 학교지원금 현황은 <그림 4.1>과 같다. 등록 인원 대비 납부인원인 학생회비 납부율은 50%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학생회비 납부율과 납부액이 저조한 상태에서 정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학교지원금은 2002년에 24.2%, 2003년에 15.6% 증가하여 2003년에는 학생들의 학생회비 납부액에 근접하였다.



**<그림 4.1> 학생회비 납부액 및 학교지원금 현황**  
(학교지원금은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지원금의 계)

단과대학별 지원금은 기성회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총학생회 주관의 춘추대동



제, 하계농촌봉사활동, 4.19기념행진 등의 사업에서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행사종료 후 총학생회에서 각 단과대학에 정산 통보하고 있다.

### (3) 학생회 행사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큰 행사로는 매년 5월과 10월에 두 차례 개최되는 대동제와 신입생 환영제, 4·19 마라톤대회 등이 있다. 2003년 총학생회는 '2003 MBC 대학가요제'를 교내 대운동장에서 개최하여 학생들의 문화적인 욕구 충족에 기여하였다. 대체로 학생들의 학내행사가 공연·예술·문화 중심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 (4) 대학과의 대화 및 건의

학교의 정책결정 및 발전 등 현안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건의사항 및 여론 전달을 위하여 총장과 총학생간에 대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의 주요 의제는 대학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학생참여, 등록금 인상, 장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었다. 또한 학교 정책결정 및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를 위하여 1999년부터 「교육환경개선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2~2003에 6회의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등록금 책정(안)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다.

## 2) 학생 과외활동

### (1) 문화활동

미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대학생은 전공학습 이외에 정서를 함양하고 인격을 도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음악, 미술 등 학내 문화활동은 이러한 정서 함양과 인격 도야를 위한 기회의 장이 되고 있다.

음악 활동은 관련 동아리별로 문화관, 두레문예관, 학생회관 라운지 등에서 정기발표회 형식의 공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미술 활동은 전시공간의 부족으로 도서관 로비 또는 학생회관 등의 공간을 활용하고 있어 잔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활발하지 못했으나, 2003년 1월 1일 대학 부속시설로 미술관이 개설되었으며, 삼성문화재단의 출연금으로 연면적 4,486㎡, 지상 3층, 지하 3층 규모의 미술관 건물이 2003년 8월에 착공되어 2005년 상반기 완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 (2) 체육활동

학생들의 체육 활동에 있어서는 학생처에 등록된 30개 체육동아리를 중심으로 체력을 연마하고 교양인으로서 인격 도야에 힘쓰고 있다. 해마다 개최되는 교내 행사로는 서울대학교 종합체육대회를 비롯하여 총장배 축구대회, 백학기쟁탈 야구대회, 총장배 농구대회, 총장배 테니스대회, 총장배 탁구대회, 총동창회장배 야구대회 등이 있다. 2002년 종합체육대회는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8일간 개최되어 9개 종목에 약 1,500명이 참가하였다. 2003년 종합체육대회는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5일간 개최되어 9개 종목에 약 2,500명이 참가하였다. 참가 인원의 차이는 개최 시기의 선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 대학과의 정기 교류전으로는 일본의 쓰쿠바대학과의 축구 교류전, 히도스바시대학과의 하키 교류전, 나고야대학과의 핸드볼 교류전, 동경대학과의 농구 교류전 등이 있다. 국내대학과의 정기 교류전으로는 축구부와 럭비부가 육군사관학교와 각각 축구 및 럭비 교류전을, 하키부가 강원대학교와 하키 교류전을 갖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축구부, 야구부, 배구부, 하키부, 요트부, 조정부, 스키부, 핸드볼부, 사격부 등이 아마추어 정신에 입각하여 전국 규모의 각종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본교는 1978년 8월 「서울대학교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997년부터 체육기금을 조성해 왔으며, 서울대학교 체육부를 발족시켜 30개 운동부의 대외출전비와 격려비, 운동상해보상비 및 우수운동부를 지원비로 사용하고 있다. 2002~2003년에 조성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지원 실적은 <표 4.1>과 같다.

<표 4.1> 체육진흥기금 지원 및 기금 조성 실적

(단위 : 천원)

연도	지 원 실 적		기금조성 금액	기금조성 금액 누계	조성금액 내역
	건수	금액			
2002	2	36,720	130,000	630,000	· 기 조성 체육기금 : 500,000천원 · 미식축구 기금 : 10,000천원 · 탁구발전 기금 : 120,000천원
2003	3	39,000	-	630,000	

(3) 동아리[서클] 활동

동아리는 소속에 따라 본부에 등록된 동아리, 단과대학에 등록된 동아리, 미등록 동아리 등으로 구분되며, 그 활동 성격에 따라 학술, 매체, 사회, 취미교양, 공연예술, 종교, 무예, 체육 등으로 분류된다.

동아리는 활동을 위한 공간과 예산지원 등을 학교에 요구하고 있으나, 현실적 제약으로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2002년에 학생처에 등록된 동아리는 체육동아리를 제외한 약 60개의 동아리가 학생회관 내 공간을 사용하였는데, 1개 동아리에 할당된 방을 여러 동아리가 나누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연습실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공연과 관련된 동아리들은 1999년 두레문예관의 개관으로 어려움을 부분적으로 해소하게 되었다.

학생처에 등록된 학생동아리 수는 <표 4.2>와 같은데,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99개, 98개로 큰 변동이 없었으나 참여 인원수는 4,175명에서 3,794명으로 9% 정도 감소하였다. 또한 <표 4.2>에서 2003년에는 학생처 등록 동아리의 유형별 회원 수가 공연예술과 취미교양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 있어서 2002년에 비해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다.

<표 4.2> 본부등록 학생동아리 현황

(단위 : 개(명))

연도	학술	공연예술	매체	사회	종교	취미교양	무예	체육	계
2000	10(268)	11(464)	6(170)	7(221)	19(918)	12(831)	5(142)	27(681)	97(3,695)
2001	10(298)	11(474)	6(199)	8(260)	18(1,016)	13(993)	4(144)	27(687)	97(4,071)
2002	10(214)	11(561)	6(190)	8(275)	17(828)	13(1,102)	4(155)	30(850)	99(4,175)
2003	8(156)	12(500)	5(138)	9(81)	17(798)	13(1,225)	4(88)	30(808)	98(3,794)

각 단과대학에 등록된 학생동아리 수는 <표 4.3>과 같은데,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210개, 212개로 큰 변동이 없으나 참여 인원수는 5,670명에서 6,390명으로 13% 정도 증가하였다. 특히 경영대학 및 의과대학에 등록된 동아리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경영대학, 법과대학 및 의과대학의 참여인원 수 증가가 두드러짐을 볼 수 있다. 단과대학 등록 동아리에 대한 예산 및 공간 등의 지원 정도는 단과대학에 따라 다르다.

<표 4.3> 2002~2003년 단과대학별 학생동아리 등록 현황

(단위 : 개(명), 2002/2003)

구분	학술	연행예술	매체	사회	종교	취미교양	체육	계
인문대	8(108)/ 3(42)	2(44)/ 2(32)	1(12)/	/ 1(30)	1(30)/ 1(60)		1(18)/ 1(15)	13(212)/ 8(179)
사회대	3(106)/ 4(114)	4(82)/			1(35)/	1(11)/	1(86)/ 3(130)	10(320)/ 7(244)
자연대	1(50)/ 1(11)			1(35)/	1(35)/ 1(21)	5(217) /3(65)	/ 1(22)	8(337)/ 6(119)
간호대					1(29)/			1(29)/
경영대	8(217)/ 8(256)	3(96)/ 6(247)	1(15)/ 2(37)	1(44)/ 4(146)	1(54)/ 1(75)	2(79)/	4(153)/ 6(247)	20(658)/ 27(1,008)
공 대	2(110)/ 1(60)	1(9)/		3(43)/ 3(48)	/ 1(12)	2(45)/ 3(119)	4(110)/ 4(120)	12(317)/ 12(359)
농생대	3(80)/ 4(125)	6(104)/ 7(94)	1(8)/		3(16)/ 1(4)	3(58)/ 2(32)	5(121)/ 5(102)	21(387)/ 19(357)
미 대	/ 1(17)	3(184)/ 1(35)			1(30)/	5(69)/	2(58)/ 1(30)	11(341)/ 3(82)
법 대	14(513)/ 15(653)	4(88)/ 4(134)			2(100)/ 3(208)		6(178)/ 4(150)	26(879)/ 26(1,145)
사 대	2(29)/ 3(45)	1(12)/ 3(50)			2(85)/ 3(103)		2(38)/ 2(31)	7(164)/ 11(229)
생활대	/ 1(15)	/ 1(27)						/ 2(42)
수의대	1(100)/ 1(11)	3(51)/ 3(60)		/ 1(21)		2(32)/ 2(38)	3(36)/ 2(31)	9(219)/ 9(161)
약 대	3(89)/ 3(75)	3(102)/ 3(113)	1(40)/ 1(40)		1(20)/ 1(20)	2(39)/ 3(60)	3(85)/ 3(85)	13(375)/ 14(393)
음 대								
의 대	5(65)/ 8(198)	7(386)/ 8(401)		3(82)/ 5(537)	3(121)/ 3(66)	2(50)/ 7(122)	10(209)/ 10(229)	30(913)/ 41(1,553)
치 대	5(57)/ 5(61)	9(234)/ 9(215)		3(26)/ 1(11)	3(61)/ 3(73)		9(141)/ 9(159)	29(519)/ 27(519)
계	55(1,524)/ 58(1,683)	46(1,392)/ 47(1,408)	4(75)/ 3(77)	11(230)/ 15(793)	20(616)/ 18(642)	24(600)/ 20(436)	50(1,233)/ 51(1,351)	210(5,670)/ 212(6,390)

#### (4) 봉사활동

농촌의 일손돕기 및 의료봉사는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봉사동아리 등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의료봉사는 대학의 승인과 지원 하에 수행되며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일부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단순 근로봉사는 대개 총학생회 주관으로 수행되며 대학본부에서는 1995년부터 차량 등을 지원하고 있다.

봉사활동은 주로 하계방학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근로봉사는 봄철 모내기철과 가을철 추수기 일손돕기도 수행하고 있다. 의료봉사는 무의촌및 도시근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2~2003년의 봉사활동 현황은 <표 4.4>와 같은데, 실시 지역은 의료봉사가 12개에서 13개 지역으로, 단순근로봉사가 61개에서 62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참가인원 수는 의료봉사의 경우 398명에서 340명으로 14.5% 감소하였으며, 단순근로봉사의 경우 1,332명에서 1,110명으로 16.7%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다. 국내 봉사활동 외에 학생의 해외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교는 한국사랑의집짓기연합회(Habitat), 태평양아시아협회(PAS), 한국해외봉사단, 국제협력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2002년에 5명, 2003년에 11명에게 해외 봉사활동 참가비를 지원하였다.

한편 학생들의 선행·효행·봉사정신을 함양하고,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학생·학부모·후원자를 발굴하여 수상자에게 자긍심과 애교심을 고취시키고 타 학생의 귀감으로 삼아 교육효과를 높이며, 사회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2년에 '관악봉사상'을 제정하고, 2002년에 학생 5명, 2003년에 학생 4명 및 후원자 1명을 각각 선정·시상하였다.

<표 4.4> 2002~2003년 봉사활동 현황

(인원 단위 : 명. 2002/2003)

구분	봉사 반수	실시대상		참가인원			경비부담			비고
		진수	지역 수	교직원	학생	계	대학본부	단과 대학	학생	
의료	12/ 13	2/2	12/ 13	46/ 45	352/ 295	398/ 340	570만원(한국대 학사회봉사협의 회지원)/160만원 (한국대학봉사협 의회 지원)	차량, 약품/ 차량, 약품	1인당 2~6만원 /1인당 2~5만원	간호대 의 대 치 대
단 순 근 로	11/ 11	1/1	61/ 62	32/ 30	1,300/ 1,080	1,332/ 1,110	1,500만원/ 1,5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인당 3~5만원 / 1인당 3~5만원	단과대 동아리 연합회 환경농 활팀
계	23/ 34	3/3	73/ 75	78/ 75	1,652/ 1,375	1,730/ 1,450	2,070만원/ 1,660만원	200만원, 차량, 약품/ 200만원, 차량, 약품	1인당1.5 ~6만원/ 1인당 1~6만원	

### 3) 학생 생활지도 및 지원

#### (1) 대학문화 육성과 학생활동 지원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대부분의 학생활동이 집단적인 형태의 정치적 이념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운동 일변도로 이루어졌으나, 이후 학생들의 주된 관심 대상이 학술, 연구, 후생복지, 취업 등의 사적인 문제로 차츰 바뀌어왔다. 본교에서는 학칙의 테두리 내에서 학생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규 교과과정 이외의 과외 활동을 최대한 장려 지원하고 있다. 학생처는 대학문화 육성을 위하여 야외음악회, 서울대-부산대 합창단 합동공연, 재미 서울대동창회 방문연주회 등 문화활동을 지원하였는데 그 주요 실적은 <표 4.5>와 같은데, 지원금액이 2002년 2,900만원에서 2003년 4,600만원으로 59% 증가하였다.

<표 4.5> 문화활동 지원 실적

(단위 : 천원)

구분	지원금액		비고
	2002	2003	
야외음악회	15,500	17,000	재원: 기성회
서울대-부산대합창단 합동공연	3,500	5,000	재원: 기성회
재미 서울대동창회 방문연주회	10,000	6,041	재원: 기성회, 발전기금
대학문화예술공모전	-	18,120	재원: 기성회
계	29,000	46,161	

또한 학생회관 시설을 현대화·정보화하여 편리하고 안락한 공간에서 학생들이 학생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생회관 환경개선사업을 <표 4.6>과 같이 지원하였다.

<표 4.6> 학생회관 환경개선사업 지원 실적

연도	장 소	지 원 실 적
2002	음악감상실	· 시설 개수(148㎡) : 천정/바닥, 음악감상 환경조성 · 음향기기 교체 : 노후 기기를 고급 기기로 교체 · 비품 교체 : 의자 50각, 책상 외 10점
2003	동아리방	· LAN 설치(중앙전산원 지원)
	학생회관 문화인큐 베이터	· 학생문화 공간 조성(33㎡) : 대화방, 소규모 연 극·연주회 등 가능
	여학생 휴게실	· 환경 개선(약195㎡) : 실내 인테리어, 냉난방 기 구, PC, 도서자료, 휴게실, 토론방, 수면실, 화장대, 샤워실 등 설치
	총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 사무실	· 환경개선 : 칸막이 설치, 에어컨 설치, 사무용가구 교체, 도장 등

(2) 두레문예관

1999년 완공된 두레문예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연건평 1,359평)의 건물로 노래패, 연극, 연주 등 동아리 연습실과 200여석의 공연장 시설, 최신 컴퓨터 30여대를 갖춘 정보검색실, 세미나실, 비디오 상영실 등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시설은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지원센터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3) 대학생활문화원

학생생활연구소가 2001년 9월 「대학생활문화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활동영역을 확대하였다. 대학생활문화원은 서울대인의 고민을 이해해 주고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학생활문화원에는 상담부, 리더쉽 개발부, 문화사업부, 연구조사부 및 진로·취업센터가 있다.

상담부에서는 전문상담가가 심리, 학업, 대인관계 등의 문제를 상담하며, 성격 및 진로 관련 심리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원격 상담을 위한 사이버화상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리더쉽 개발부는 잠재적 대인관계 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위한 대인관계능력개발 집단상담을 학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대학생활과 사회에서 필요한 리더로서의 역량 배양을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문화사업부에서는 경험의 축적 및 인격적 성장을 위한 자원봉사, 교양교육, 문화활동을 기획하여 수행하고 있다. 자원봉사 지원센터인 「이웃사랑실천본부」를 통해 활동을 알선하고 있으며, 학기당 3회, 연간 6회에 걸쳐 문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유명인사의 초청강연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조사부에서는 본교 학생들의 심리적, 사회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며, '학생연구', '대학생활의 길잡이', '서울대학교신입생 특성조사 보고서' 등의 출판을 통해 서울대인의 생활에 대한 이해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대학생활문화원의 2002~2003년의 개인상담 현황은 <표 4.7>과 같은데, 학사과정의 신규신청자 수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함을 볼 수 있다.

<표 4.7> 대학생활문화원의 개인상담 현황

(단위 : 명)

연도	상담 횟수	신규 신청자수							
		계	학 년					성별	
			1	2	3	4	대학원	남	여
2002	2,436	208	16	37	58	63	34	94	114
2003	2,315	196	23	24	48	56	45	85	111

한편 대학생활문화원의 2002~2003년의 주요 사업 현황은 <표 4.8>과 같다.



<표 4.8> 2002~2003년 대학생활문화원 주요 사업

구 분	2002	2003
심리적 특성검사 (성격, 적성, 흥미, 지능검사 등)	1,703건	1,256건
대인관계능력개발 프로그램	280명 (17개 집단, 연 170회)	485명 (38개 집단, 연 380회)
소집단 훈련	186명 (9개 집단, 연 59회)	116명 (11개 집단, 연 101회)
이메일 상담	89건	63건
자원봉사활동 알선	188명	229명

#### (4) 성희롱·성폭력상담소

성희롱·성폭력상담소는 2000년 6월 ‘서울대학교성희롱·성폭력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의 제정에 따라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대학 내 구성원들의 보호와 성적으로 올바른 교육·근무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2000년 12월에 설립되었다. 성희롱·성폭력상담소에는 운영위원회, 조사위원회 등이 있으며, 성폭력 사건의 상담, 조사, 중재 업무와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성희롱·성폭력상담소의 2002~2003년 개인 상담 횟수 및 사건 조사처리 실적은 <표 4.9>와 같다. 또한 학내구성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성평등 의식 고취를 위하여 ‘함께 가는 성,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는 성문화 캠페인을 수행하고 있다.

<표 4.9> 성희롱·성폭력상담소의 개인 상담횟수 및 사건처리

연도	상담 사례	상담 횟수	사건 조사 및 처리
2002	29건	49회	3건
2003	21건	31회	2건

또한 ‘대학생을 위한 성희롱 예방지침서’ ‘함께 가는 성, 더불어 사는 세상’을 발간·배포하고 있으며, 강연회·집담회 및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2003년에는 ‘대

학생 성의식 및 성폭력 실태조사', '국내외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정책' 등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4) 학생의 국제교류

##### (1) 교환학생 프로그램

정보화·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지식기반사회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21세기에 대학의 국제화 목표는 본교 교수와 학생들이 세계 우수대학의 교육과 연구 활동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고 동시에 외국대학의 교수와 학생들도 본교의 교육과 연구 활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와 시설 및 수단을 갖추는 것이다. 이러한 균형 잡힌 대학 국제화를 달성하고, 해외 대학 학생들과의 학문적, 문화적 교류를 통해 국제화 경험을 증진시키고, 외국 대학과의 관계를 발전 및 강화시키기 위하여 본교에서는 재학생의 국외수학 허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외국대학에서 취득된 학점을 인정하고 있다.

국외수학 허가 희망자는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된 외국대학은 물론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외국대학 모두에 지원할 수 있다. 단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대학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추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된 외국대학 중 학생교환협약에 의하여 상호 수강료를 면제하는 외국대학에 수학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수학기간 동안 본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학기당 취득학점은 학사과정은 17학점, 대학원과정은 12학점 이내로 인정되며, 계절학기에는 양자 모두 9학점 이내로 인정된다. 외국대학 수학허가 현황은 <표 4.10>과 같으며, 참여 학생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교환학생의 해외과견 및 해외로부터의 입학 실적은 각각 <표 4.11>, <표 4.12>과 같다.

<표 4.10> 외국대학 수확허가 현황

(인원 단위 : 명)

구 분		학사			석사			박사			계		
		인원 수	대학 수	국가 수	인원 수	대학 수	국가 수	인원 수	대학 수	국가 수	인원 수	대학 수	국가 수
2000	1학기	31	17	9	11	8	7	2	2	2	44	27	18
	2학기	12	9	4	27	13	7	4	2	2	43	24	13
2001	1학기	65	29	12	23	16	7	5	4	1	93	49	20
	2학기	4	5	3	11	9	5	2	2	2	17	16	10
2002	1학기	71	34	14	31	15	12	1	1	1	103	50	27
	2학기	16	10	5	20	12	6	3	3	3	39	25	14
2003	1학기	90	37	13	18	14	9	5	5	2	113	56	24
	2학기	17	13	7	24	17	10	2	2	1	43	32	18
계	1학기	257			83			13			353		
	2학기	306			82			11			142		

<표 4.11> 교환학생의 해외파견 실적

(인원 단위 : 명)

구분	학생 수																	계		
	아시아				미 주				유 럽					대양주						
	일본	중국	싱가포르	태국	소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소계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소계	호주	뉴질랜드	소계	국가수	대학수	학생수 계
2000	11				11	2	3	3	8	1		2	2	5	7	6	13	9	18	37
2001	15	3	2	2	22	2	7	6	15	5	2	2	5	14	10	2	12	13	28	63
2002	9		2		11	2	3		5	1			4	5	12	2	14	8	15	35
2003	15		3		18	5	4	2	11	7	3	2	2	14	5	2	7	11	23	50
계	50	3	7	2	62	11	17	11	39	14	5	6	13	38	34	12	46			185

<표 4.12> 교환학생의 본교 입학 실적

(인원 단위 : 명)

구분	아시아				미 주				유럽				대양주		계				
	일본	중국	싱가포르	태국	소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소계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소계	호주	뉴질랜드	소계	국가수	대학수
2000					1	3		4	3	1		2	6	3	6	9	7	9	19
2001	12	2			14	4	3	7	3		1	2	6	9	8	17	9	18	44
2002	14				14	6	1	7		1		1	2	6	3	9	7	16	32
2003	12	1			13	7	9	16	1			1	2	7	4	11	8	18	42
계	38	3			41	18	16	34	7	2	1	6	16	25	21	46			137

(2) 학생 해외연수 지원

본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국제적 안목과 세계화에의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선진국 문화와 제도에 대한 견문을 넓힘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학생 해외연수를 지원하고 있다. 해외연수는 방학 중 4주 이상의 단기 해외연수와 1~2개 학기의 대학원생 장기해외연수로 구분된다. 2002년부터 발전기금의 지원으로 대학원생 장기 해외연수 지원을 시작하였다. 학생 해외연수 지원 실적은 <표 4.13>과 같으며, 참여 학생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4.13> 학생 해외연수 지원 실적

(인원 단위 : 명, 금액 단위 : 천원)

연 도	단기 해외연수						대학원생 장기 해외연수		계	
	학사		대학원		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01	48	61,900	38	50,000	86	111,900			86	111,900
2002	84	124,600	39	71,500	123	196,100	30	434,625	153	630,725
2003	101	168,800	72	116,200	173	285,000	35	525,000	208	810,000

**(3) BESETOHA 교류 프로그램**

북경대학, 서울대학교, 동경대학 및 하노이국가대학 간의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시작된 BESETOHA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BESETOHA Student Summer Camp와 BESETOHA Joint Concert가 개최되었다.

BESETOHA Student Summer Camp는 일본, 중국, 월남에서 온 학생들에게 본교에서 학사 및 대학원 과목을 이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개최되었다. BESETOHA Student Summer Camp는 2001년과 2002년에 본교에서 개최되었다. BESETOHA Student Summer Camp의 개최 현황은 <표 4.14>와 같다.

**<표 4.14> BESETOHA Student Summer Camp 개최 현황**

개최 기간	개최 장소	주제	참가인원
2001. 7. 30- 8.18	서울대학교	Understanding Korean culture	서울대 22명, 북경대 11명, 하노이대 11명, 계 44명
2002. 8. 5-8. 14	서울대학교	Harmonization in Asia, building a bright future	서울대 15명, 동경대 10명, 북경대 10명, 하노이대 10명, 계 45명

또한 제 1회 BESETOHA Joint Concert가 2002년 10월 12~13일 본교 및 KBS 연주홀에서 개최되었는데 서울대학교 합창단 57명, 동경대학 합창단 27명, 북경대학 합창단 41명, 하노이국가대학 합창단 4명 등 모두 129명이 참여하였다.

한편 2002년 1월에는 서울대학교 혼성합창단과 동경대학 Choir Academy와의 합동연주회가 본교와 동경대학에서 각각 개최되었는데 서울대학교 합창단 약 50명, 동경대학 합창단 약 30명 등 약 80명이 참여하였다.

**4.2 대학의 개방화**

**1) 대학정보의 일반 제공**

**(1) 대학신문**

1952년 창간된 대학신문은 50여년의 역사 속에서 대학의 지성을 대표하는 언론으로서 국가와 사회의 시대정신을 대변해 왔다. 대학신문의 조직과 편집체제는 학내외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해 왔으며, 10여 년 전부터 학생기자들이 취재, 편집 및 제작을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대학신문의 독자는 본교 학생, 교직원 등 학내구성원과 교외 동창들을 포함하는 비교적 소수의 일반 독자로 구성되는데, 가장 큰 독자층을 형성하는 학생들의 관심사에 기사의 비중이 두어져 왔다. 이러한 제작 관행으로 인하여 교수, 교직원, 동창 등 비학생 독자의 관심사가 기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되어, 대학신문의 고유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한계를 보여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학신문은 2002년 창간 50주년을 계기로 대학과 사회의 새로운 환경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편집 및 기사의 내실화, '인터넷 대학신문'의 강화 및 디지털 데이터의 구축, 자문위원의 확대 등 체제 및 내용의 보완 개편을 통하여 서울대학교 공식 언론으로서의 위상 및 한국 대학지성인을 대표하는 신문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1년 8월부터 인터넷 서비스(www.snupi.com)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온라인 구독 및 투고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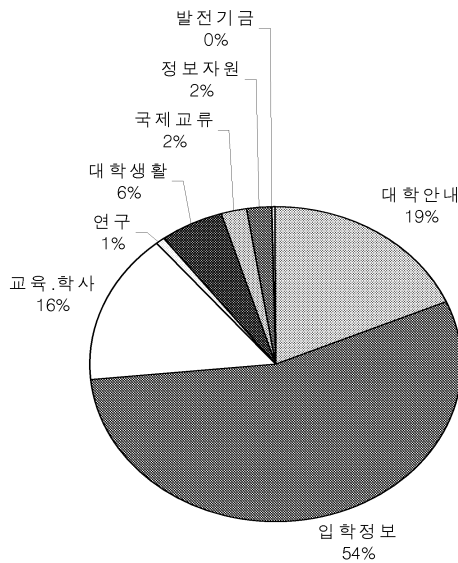
현재 대학신문 편집진은 교수 6명(주간, 부주간, 자문위원 4명), 대학원 간사 3명 및 30여명의 학생기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 학생은 누구나 소정의 선발시험과 수습과정을 거쳐 대학신문 기자가 될 수 있다. 대학신문은 주간 발행으로 매년 25회 이상, 매호 약 20,000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교외 구독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2) 서울대학교 홈페이지(www.snu.ac.kr)의 운영

중앙전산원에서 관장하는 서울대학교 홈페이지는 1997년 4월 한글 홈페이지 서비스를 정식으로 시작한데 이어 1999년 영문 홈페이지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2002년에는 홈페이지 방문자의 성향 분석과 국내·외 대학 홈페이지의 벤치마킹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를 고려하여 콘텐츠를 구성·배치하고, 정보제공 방식 및 검색기능을 강화하는 등 한글 홈페이지를 대폭 개선하였다. 또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단위기관별 웹 모니터링 요원을 지정하여 콘텐츠의 현시성 유지에 노력하고 있다.

한글 홈페이지는 주 메뉴 8개와 기능 메뉴 5개, 기타 4개 항목, 그리고 이용자별로

3개 군으로 분류된 맞춤정보 및 멀티미디어 기능을 추가한 홍보 메뉴 2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효율적인 답변과 자료제공을 위하여 게시판 서비스를 일반게시판, Q/A게시판, 자료실게시판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신속·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해당 업무담당자를 게시판 관리자로 등록하였다. 한글홈페이지의 월평균 이용 현황은 <그림 4.2>와 같다. 한글홈페이지 접속횟수는 월 평균 3,354,178회, 1일 평균 111,805회이며, 학내 구성원보다 외부인이 더 많이 접속하고 있다. 1일 평균 접속횟수는 2002년 12월 현재 2만여 회로 계속 증가되고 있다.



<그림 4.2> 한글홈페이지 주요메뉴 월평균 접속 현황  
(기간 : 2002. 8월 - 2003. 1월. 페이지 뷰 수 기준)

### (3) 정보화포털사이트(it4u.snu.ac.kr)의 구축 및 운영

정보서비스의 수요 증대와 시스템 다양화로 인한 학내 정보화 서비스 창구의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 제기에 부응하여 정보화포털사이트를 구축함으로써 하나의 홈페이지 주소를 통해 모든 정보화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2002년 7~8월 기준 학술정

보원 홈페이지(<http://cio.snu.ac.kr>), 중앙전산원 홈페이지(<http://ercweb.snu.ac.kr>, 실별 홈페이지 9개 포함), 정보광장(<http://sis.anu.ac.kr>)의 이용창구를 통합하여 정보화포털사이트(<http://it4u.snu.ac.kr>)를 구축하였다. 또한 사이버상의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하고, 대표 홈페이지 내 통합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내 주요기관명을 입력하면 원하는 웹사이트가 접속되도록 하였다. 정보화포털사이트에 수록된 정보 중 충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며, 새로운 정보의 충실하고도 신속한 입력이 요구된다.

#### **(4) 학내 단위기관 홈페이지 운영**

정보인프라 발달에 따른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성장, 홍보 및 정보교류의 필요성, 학내 단위기관의 웹에 대한 인식 변화 등과 대학본부의 '단위기관 홈페이지 구축 지원사업'이 결합되어 학내 기관 홈페이지 구축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단위기관 홈페이지 수가 1995년 11월에 17개에서 2003년 10월에는 224여개로 10배 이상 증가되어 본교 대표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다. 2003년 10월 현재 학내 단위기관 홈페이지 운영 현황은 <표 4.15>와 같다.

#### **(5) 대학 홍보**

본교는 대학의 발전상을 홍보하고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홍보영화, 대학백서, 국문요람, 통계연보, 기타 홍보 책자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다. 언론관련 홍보업무 수행을 위하여 1999년 8월 대학본부 기획실에 홍보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홍보영화는 2002년 6월에 고교생용, 일반용, 외국인용 등 세 가지를 CD 및 비디오로 제작하여 활용하였으며, 특히 고교생용 홍보영화는 전국 703개 고등학교에 배포하여 대학의 홍보와 이미지 개선에 활용하였다.



<표 4.15> 학내 단위기관 홈페이지 운영 현황 (2003년 10월 기준)

구 분	전체 기관수	홈페이지 운영 기관수				
		한글		영문		
		기관수	비율(%)	기관수	비율(%)	
교육기구	161	107	66.5	34	21.1	
학사행정 기구	13	2	15.4	-	-	
지원시설	11	9	81.8	3	27.3	
연구시설	61	48	78.6	12	19.7	
부속시설	본부 직할	14	10	71.4	1	7.1
	대학 부속	17	9	52.9	1	5.9
부속학교	4	4	100	-	-	
과학/공학연구센터	25	14	56.0	6	24.0	
「두뇌한국 21」 사업단	15	14	93.3	7	46.7	
법인 및 기타 기관	7	7	100	3	42.9	
계	328	224	68.3	67	20.4	

주: 교육기구 : 단과대학, 학과/학부, 협동과정 포함

비율은 전체 기관수 대비 홈페이지 운영 기관수 비율

2002년에 대학백서 1,000부, 국문 요람 3,100부, 통계연보 800부, 2003년에 국·영문 홍보책자(국문 1,000부, 영문 3,000부), 국·영문 안내리플렛(국문 45,000부, 영문 5,000부) 및 통계연보 800부를 제작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하였다. 또 서울대소식지를 격주로 6,000부 발간하여 학내·외 및 발전기금 기탁자에게 배포하고 있다. 또한 대학신문 인터넷 서비스(www.snupi.com)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03년부터는 학교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요사항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하여 학장회의 및 간부회의 주요 내용을 교수 등 대학구성원에게 '서울대학교 주요정책을 알려드립니다'로 이메일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다.

## 2) 공개강좌 및 사회교육과정 운영 등

본교는 대학의 사회봉사와 전문성의 사회로의 확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학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외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대학본부 및 단과대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 (1) 대학본부 운영 공개강좌

대학본부에서는 학생 및 교직원,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공개강좌를 개최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 ① 서남 초청강좌

서남 초청강좌는 해외 석학과의 학술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동양그룹이 출연한 '서남초청강좌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1991년부터 노벨상 수상자 또는 그에 준하는 학문적 업적이 있는 해외 석학을 초청하여 해당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강좌와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으로 구분하여 개최되며 학기 당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개최 실적은 <표 4.16>과 같다. 서남 초청강좌는 세계적 석학과의 학술교류를 통하여 학문연구를 진작시키고 사회 전반에 학술교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데 기여하고 있다.

### ② 문화관 기획프로그램

문화관 기획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소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1985년 개관된 문화관의 대강당과 중강당을 이용해 무료 개방을 원칙으로, 학기 중 매월 1회 이상 개최되고 있다. 시행 초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으나, 이후 운영실적은 <표 4.17>과 같이 영화 위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당초의 기획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2~2003년에는 강연, 연극 등의 개최가 증가되었다. 향후 연극, 음악, 무용, 강연 및 학생동아리 활동 발표회 유치 등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표 4.16> 서남 초청강좌 개최 실적

연도	분 야	초청 연사	주요 경력
1991	물리학	Leon M. Lederman	시카고대 교수, 노벨물리학상 수상
1992	생물학	Har Gobind Khorana	MIT대 교수, 노벨생리·의학상 수상
1993	경제학	Gary S. Becker	시카고대 교수, 노벨경제학상 수상
	화 학	Ronald Hoffman	코넬대 교수, 노벨화학상 수상
1994	수 학	Stephen Smale	버클리대 교수, Fields상 수상
1995	문 학	Edward W. Said	콜롬비아대 교수, 르네웰렉스상 수상
	물리학	Leo Esaki	쓰쿠바대 총장, 노벨물리학상 수상
1996	철 학	Jijgen Harbermas	프랑크푸르트대 교수, 헤겔, 프로이트상 수상
1997	경영학	Michael E. Porter	Harvard대 교수, David A. Wells상, McKinsey상 수상
1998	생물학	Robert Huber	문헌대 교수, 막스플랑크생화학연구소 소장
1999	물리학	J. R. Schrieffer	미 국립소자기장연구소 수석과학자, 노벨물리학상 수상
2001	화 학	Jean-Marie Lehn	University of Strasbourg 및 College de France 교수, 노벨화학상 수상
2002	지구환경과학	Paul J. Crutzen	Director of Max-Planck-Institute for Chemistry, 노벨화학상 수상
2003	물리학	Claude Cohen-Tannoudji	College de France 교수, 노벨물리학상 수상

<표 4.17> 문화관 기획프로그램 운영 실적

(단위 :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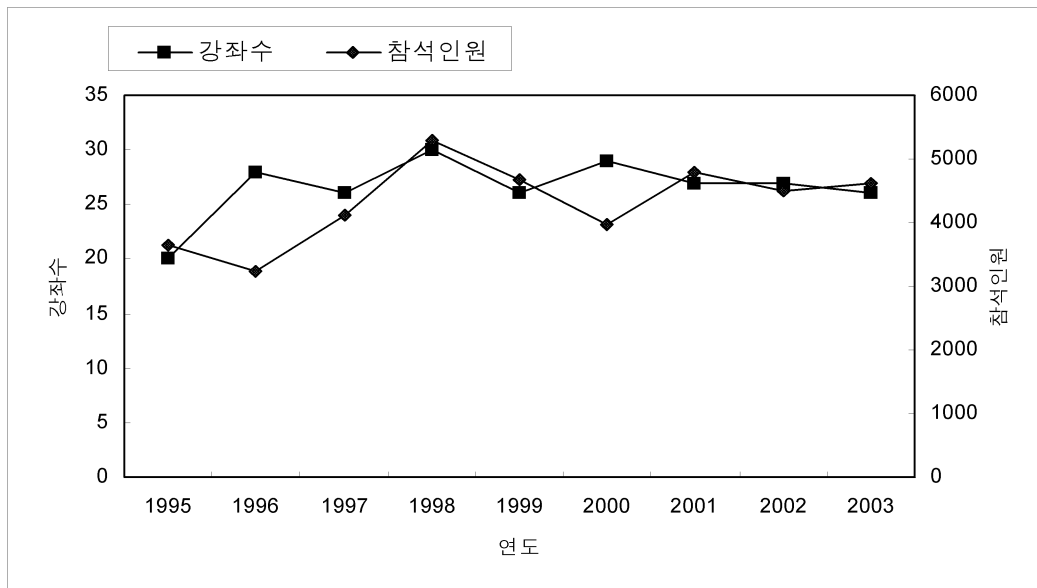
구 분	영화	연극	창극	음악	발레	무용	강연	기타	계
1991	9	2	1	2					14
1992	13								13
1993	13								13
1994	12	1							13
1995	13			2			1		16
1996	12			1			1		14
1997	13	1					1		15
1998	10								10
1999	10								10
2000	10	2		1					13
2001	10	2		1				1	14
2002	17	3		1		1	5	2	29
2003	15	3		2			2	2	24
합계	157	14	1	10	0	1	10	5	198

**(2) 단과대학(원) 및 기관 운영 공개강좌**

본교의 단과대학, 지원기관 및 부속기관에서는 학생 및 교직원,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공개강좌를 개최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① 박물관 수요교양강좌**

박물관에서는 우리 문화전반에 대한 관심과 이해 증진을 위하여 1995년부터 학기 중 매주 수요일에 수요교양강좌를 무료로 개설하고 있다. 대상은 학생, 교직원, 일반인 등 제한이 없는데, 박물관 수요교양강좌 운영 실적은 <그림 4.3>과 같은데 청중의 관심과 참여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1995년 개설 이래 2003년까지 누적 개설 강좌 수는 239개, 누적 참석인원은 38,865명이다.



**<그림 4.3> 박물관 수요교양강좌 운영 실적**

**② 자연과학대학의 자연과학 공개강연**

자연과학대학에서는 과학의 대중화를 위하여 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과 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자연과학 공개강연'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 강연은 1994년 시작된 이래 매년 1회 개최되고 있다. 이 강연은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과 일반인에게 21세기 자연과학의 발전 방향을 알려줌으로써 과학정신을 고취하고 나아가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으로 하여금 인류의 과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게 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자연과학 공개강연의 개최 현황은 <표 4.18>과 같다.

**<표 4.18> 자연과학 공개강연 개최 현황**

(인원 단위 : 명)

구분	기간	대주제	연사수	참석인원				비고
				고등학생		일반인	인원계	
				학교수	학생			
제9회	2002년 2월 (2일간)	스포츠와 자연과학	7	43	700	300	1,000	실험실 탐방
제10회	2003년 2월 (2일간)	과학자의 삶과 꿈	7	65	1,000	300	1,300	과학퀴즈대회

**(3) 단과대학(원) 및 기관 운영 사회교육과정**

본교의 각 단과대학, 대학원, 연구소, 지원기관 및 부속기관은 각각의 성격에 맞는 사회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무원, 기업체 관리자, 군인,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03년 현재 35개의 각종 사회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연인원 20,971명과 24,754명이 등록하여 2003년에는 전년 대비 19% 증가하였다. 모든 사회교육과정은 각 단과대학, 대학원, 연구소, 지원기관 및 부속기관이 운영을 전담하여 수강자에게 적정 수준의 수강료를 부담시키며,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수강자를 지원자 중에서 선발하여 교육하는 경우도 있다. 단과대학 및 기관별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부록의 <표 A.16>과 같다.

**3) 서울대 견학(Campus Tour) 사업**

본교는 캠퍼스를 견학하고자 하는 중·고등학생, 학부모, 졸업생 및 일반인을 위하

여 캠퍼스 견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99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캠퍼스 견학 프로그램은 우수한 신입생의 유치와 본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캠퍼스 견학 프로그램은 서울대 홍보영화 상영, 서울대 견학 안내자료 제공(리플렛 및 기념품), 규장각, 박물관 등 학교시설 전반에 대한 견학 및 신청자의 질의에 대한 설명 등으로 구성된다. 견학 프로그램은 학부, 대학원 봉사장학생 중에서 선발된 15명의 도우미에 의해 집단방문객을 위한 기본 과정(홍보영화 상영, 규장각, 박물관 관람) 위주로 주 6일(월~토), 1일 2회(각 2시간 소요) 실시되고 있다.

캠퍼스 견학 프로그램에 2002년에 25,113명, 2003년에 21,015명이 참가하여 상당한 호응을 보이고 있다.

### 4.3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본교는 행정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대상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대학에 대한 요구를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학사, 후생 복지 및 학교생활에 관련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대학 정책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생들은 지도교수 및 학생 관련 교내부서 등을 통해 대학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고충은 대학생활문화원의 상담(카운셀링)을 통해 해결하고, 취업과 병사에 관련된 요청과 문의는 취업정보실을 통해 안내·지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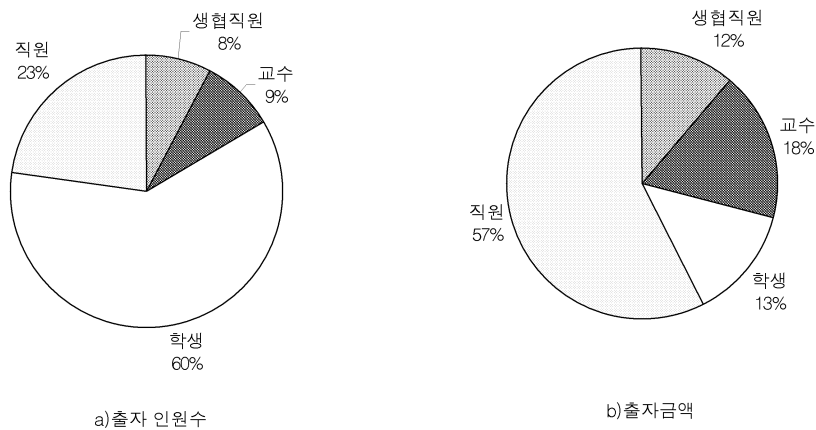
학생들의 학업, 과외 활동 및 생활 여건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기구와 제도, 그리고 본교 입학 희망자들을 돕기 위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1) 생활협동조합

대학 내 후생복지 업무를 위하여 임의 조직된 비법정기구로서 구내식당, 휴게실 및 각종 편의시설을 운영해오던 「생활복지조합」이 1999년 8월 6일 공포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2001년에 교직원과 학생이 운영주체로 참여하는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으로 개편 설치되어 2002년 4월부터 사업을 개시하였다. 주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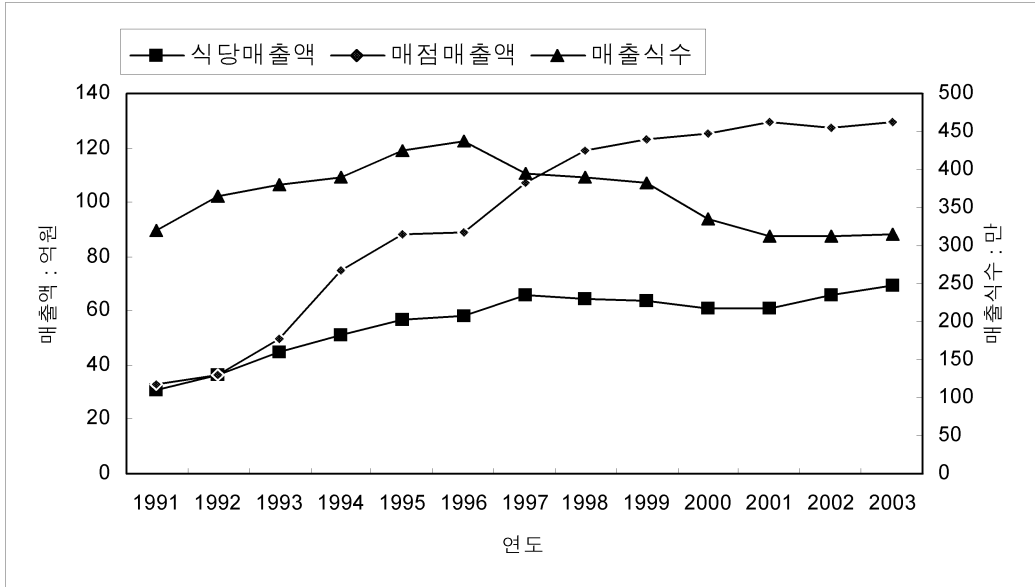
실적으로는 2002년에 홈페이지 쇼핑몰의 개시, 제2공학관 식당 개점, 제1식당과 제2식당 주방시설 등의 환경 개선, 2003년에 대학원기숙사 식당·매점과 수의과대학 휴게실 및 도서관 휴게실 테이크아웃코너의 개점을 들 수 있다. 또 서점에 할인제도를 도입하였고, 식당의 서비스 개선·고객 만족도 증진을 위한 구내식당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03년 12월말 현재 생활협동조합의 출자 인원수는 583명이며 출자금액은 3,853만원이다. 생활협동조합의 출자 구성 현황은 <그림 4.4>와 같다. 출자 인원수는 학생, 직원, 교수 순이며, 출자 금액은 직원, 교수, 학생 순임을 볼 수 있다.



<그림 4.4> 생활협동조합의 출자 구성 현황(2003. 12. 31 현재)

생활협동조합의 직영식당 및 매점의 사업 현황은 <그림 4.5>와 같은데, 2002~2003년의 2년간 직영식당의 매출식수는 거의 변동이 없는 반면 매출액은 다소 증가되었으며, 매점의 매출액은 거의 변동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5> 생활협동조합의 직영식당 및 매점의 사업 현황  
(1991년 ~ 2001년은 생활복지조합, 2002년 ~ 2003년은 생활협동조합을 표시함)

## 2) 학생의료공제회

학생의료공제제도는 학생들로부터 받은 공제회비로 진료비를 보조해 주는 복지제도로써 학생의료공제회가 담당하고 있다. 2003년 공제회비는 학부 신입생이 12,000원 (단, 의과대학, 치과대학, 수의과대학 예과 18,000원), 대학원 신입생이 6,000원이며 입학당시 한번 납부하면 재학중에 공제혜택을 계속 받게 된다.

학생의료공제의 급여기준은 <표 4.19>와 같고, 회비수입 및 지원 현황은 <표 4.20>과 같다.

<표 4.19> 학생의료공제 급여기준

구 분	일 반 진 료	치 과 진 료
최고 급여액	20만원(치료비 : 45만원 이상)	10만원(치료비 : 22만 5천원 이상)
급여 지급기준	진료비 중 10만원까지는 60% (학교보건진료소 진료비는 70%), 10만원을 초과 금액은 40%	진료비 중 5만원까지는 60% (학교보건진료소 진료비는 70%), 5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40%



<표 4.20> 학생의료공제 회비수입 및 지원

(단위 : 원)

연 도	공제회비 수입	지 원					
		일반 진료		치과 진료		계	
		건수	지원금액	건수	지원금액	건수	지원금액
2000	78,115,500	770	65,226,300	340	13,005,900	1,110	78,232,200
2001	79,779,000	639	55,344,400	259	10,269,600	898	65,614,000
2002	69,742,500	830	61,137,500	333	12,592,200	1,163	73,729,700
2003	68,952,500	706	53,716,600	324	13,636,600	1,030	67,353,200

### 3)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수·학습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장애학생이 보다 나은 대학생활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2003년 6월 10일 개소하여 행정관 1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로 인한 장벽의 제거와 동등한 교육환경의 제공을 위하여 교수·학습지원 조정안내문의 발송, 학습보조요원의 제공 등 교수·학습을 지원하고,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학생 전용 지원차량을 운행한다. 또한 장애학생의 수평·수직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의 증진을 촉진하고 면담 및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장애학생지원센터에는 장애학생의 정보접근 및 학습활동 지원을 위하여 화면 확대 및 음성지원 기능이 있는 컴퓨터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서확대기를 비치하고 있으며, 지체장애 학생 및 장애학생 보호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현황은 <표 4.21>과 같다.

<표 4.21> 장애학생 재학 현황 (2003. 3. 20. 현재)

(단위 : 명)

구분	계	장애 유형						장애 등급					
		지체	시각	청각	언어	뇌성	신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학부	33	15	8	6	1	2	1	7	12	2		4	8
석사	16	12	4						4	4	3	2	3
박사	5	5						1		4			
계	54	32	12	6	1	2	1	8	16	10	3	6	1

#### 4) 진로·취업센터

진로·취업센터는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체계적인 진로계획 수립과 계획된 진로의 실현을 돕기 위하여 2003년 10월에 학생처 산하의 취업정보실이 확대 개편되어 설립되었으며 두레문예관 내에 위치하고 있다. 진로취업센터는 진로 결정을 하지 못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계획 수립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진로결정을 한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결정된 진로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술, 정보 및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진로·취업센터는 취업 외에도 진학·유학 및 시험 준비 등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여학생 및 장애학생들을 위한 진로계획 수립 및 취업도 지원하고 있다.

진로·취업센터는 2003년에 부직 알선 1,380명, 취업관련 상담·공지 및 취업설명회 1,439건, 취업준비·진로계획 워크숍 13회(참석 연인원 584명) 등을 제공하였다.

#### 5) 입학관련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

본교의 신입생 입학전형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계 종사자들의 관심 대상이므로 홈페이지(<http://www.snu.ac.kr>)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변경된 입학전형에 관련된 내용은 홈페이지 입학정보란의 공지사항으로 신속히 전달하고 있다.

본교는 2001년에 이어 2002년에도 입학정보박람회에 참여하여 본교의 입학전형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상담을 수행하였다. 또한 입학전형에 관련된 맞춤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2002년에 시작한 인터넷 사이버 입시설명회를 2003년에도 실시하였으며, 홈페이지의 질의응답을 통한 개별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온-오프라인의 서비스 외에 관련 홍보책자도 제작 배포하고 있다.

지방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2003년 수시모집부터 방문 접수와 병행하여 인터넷 접수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향후 이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학생의 지원을 기다리기만 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열린 대학으로서의 대학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5. 지원기구

본교의 주요시설은 교육기본시설과 연구시설, 지원시설, 부속시설로 구분된다. 지원 시설로는 입학관리본부, 대외협력본부, 정보화본부, 중앙도서관 및 기초교육원을 들 수 있으며, 부속시설로는 박물관, 규장각, 보건진료소, 교수학습센터 등을 포함한 28개가 있다. 이외에도 부설고등학교를 포함한 4개의 부설학교와 대학신문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등의 법인이 있다. 여기에서는 교육 연구의 지원을 위한 2002년과 2003년의 지원시설, 부속 시설 및 기타 법인 등의 기능 및 현황에 대해 기술한다. 연구시설에 대한 내용은 제2장 1절 연구 분야에서, 학생과 관련된 각종 후생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제2장 4절의 대학생활 및 학생생활에서 기술된 바 있다.

### 5.1 지원시설

#### 1) 도서관

도서관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학술정보를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여 교수, 학생, 교내 연구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교육과 연구 활동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부족한 도서관 소장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통신 기술 환경 속에서 다양한 학술정보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고문헌자료로부터 디지털자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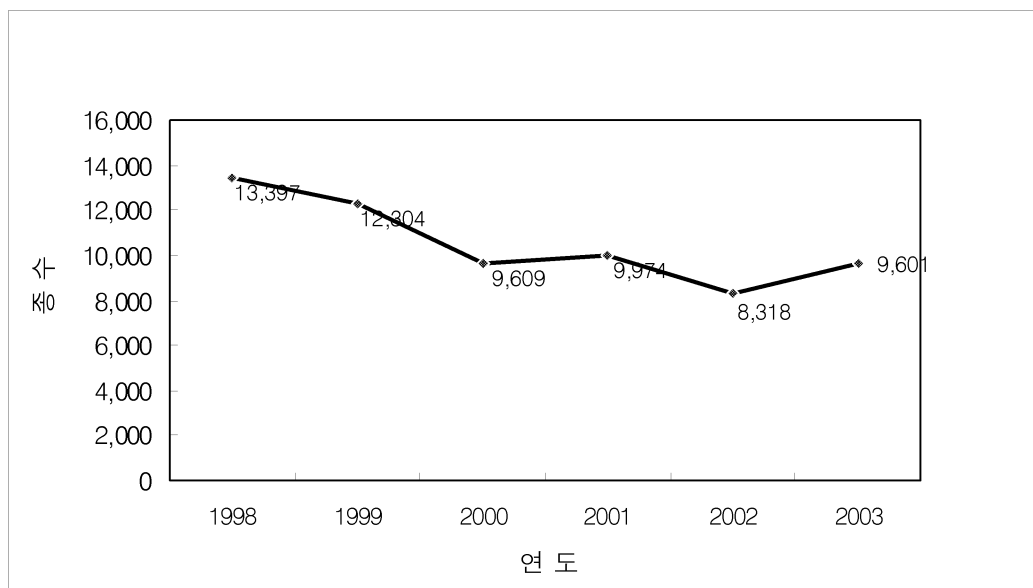
본교 도서관은 중앙도서관과 사회과학, 경영, 농학, 법학, 의학, 치의학 분관을 합하여 총장서 2,369,635책을 보유하고 있다. (<표 5.1> 참조) 그러나 자료구입 예산의 부족으로 연간도서 증가 수와 연속간행물 구독 종수가 1999년 이후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다. (<그림 5.1>, <그림 5.2> 참조) 기증 자료의 확충과 전자저널의 컨소시엄 구독으로 외국 학술지의 구독효과를 높이고는 있으나, 학술지의 기증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상승하는 외국학술지 구독료의 인상률에 못 미치는 예산으로 전자저널 구독 종수도 줄어들어야 하는 형편이다. 대다수 전자저널이 과학기술분야에 편중되어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대한 상대적인 확충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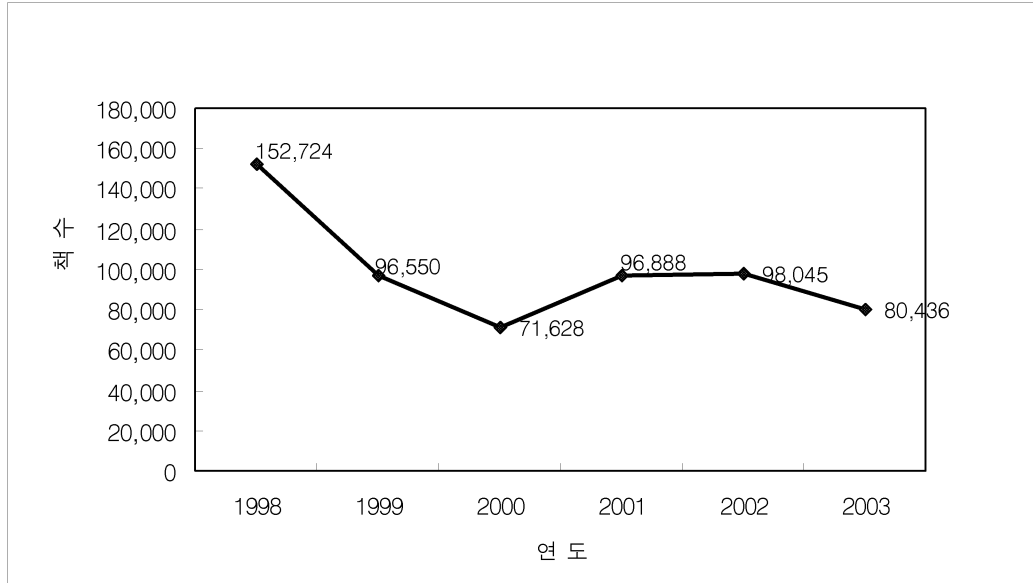
<표 5.1> 도서관 장서 현황(2003년말 기준)

구분		중앙 도서관	사회과학 도서관	경영 도서관	농학 도서관	법학 도서관	의학 도서관	치의학 도서관	계
장서수	중앙서	1,138,047	16,241	14,302	72,233	44,375	41,422	7,059	1,333,679
	서양서	744,034	36,277	13,301	71,143	41,920	118,505	10,776	1,035,956
	계(책)	1,882,081	52,518	27,603	143,376	86,295	159,927	17,835	2,369,635
학술지 종수	중앙서	3,015	71	112	710	242	280	59	4,489
	서양서	3,008	328	175	242	354	794	211	5,112
	계(종)	6,023	399	287	952	596	1,074	270	9,601
전자 자료 1)	E-Journal	17(4,323)			2(679)		2(62)	1(1)	22(5,065)
	E-Reference	30(7,592)		7(7)			1(32)		38(7,631)
	E-BOOK	1(7,573)					1(1)		2(7,574)
	CD-Net	8		20					28
비도서 자료수	마이크로필름(롤)	8,639					138		8,777
	마이크로피시(배)	63,838			1,582		22		65,442
	CD-ROM(종)	512	36	19	100	1	7	43	718

1) 전자자료( )는 전문제공 저널/도서의 종수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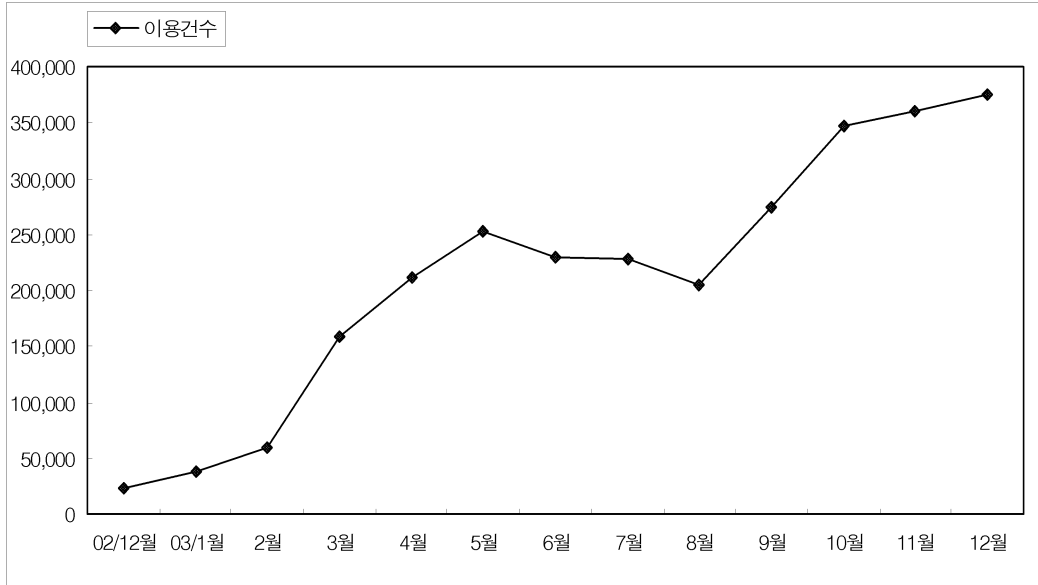


<그림 5.1> 연도별 학술지 종수



<그림 5.2> 연도별 장서 증가 책수

도서관은 교육·학술·연구의 중심기관으로서 이용 환경과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정보기술과 인터넷의 발달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약받고 있던 도서관 서비스에서 이용자에게 좀더 능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으며,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과 더불어 새로운 서비스를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도서관에서는 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원문DB를 구축한 전자도서관과 6개 분관 및 60 여 개의 학과 및 연구소의 자료까지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연구 정보를 지원하는 연구지원서비스, 타 도서관에 자료를 의뢰하여 서비스하는 상호대차서비스, E-mail 알림서비스, Proxy 서버를 통한 Web Database의 외부 이용 등 웹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서관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Proxy 서버의 경우는 2002년 12월부터 학내 이용으로 제한된 Web Database, 전자저널 및 전자도서관의 주요 학술 콘텐츠를 본교 이용자 신분이면 학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Web Database의 이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5.3>. 또한 2003년 9월부터 학술 목적에 필요한 대용량 파일의 이동, 전송에 편의성을 제공하고 커뮤니티를 통해 중요 학술자원인 파일을 다수의 사람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드디스크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5.3> Web Database - Proxy 서버 이용 현황 (2002-2003년)

서울대학교 전자도서관 시스템은 2003년 5월부터 정식 가동되고 있으며, 도서관 소장자료를 포함하여 본교 각 단위 기관에서 생산, 배포,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학술정보 자원을 디지털화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전자도서관의 콘텐츠는 전체 통합적으로도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형별 또는 다양한 주제별로 단위검색이 가능하며,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여 자료의 원문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나아가 학술자료 보존에도 기여하고 있다.

전자도서관의 다양한 원문 구축과 각종 Web Database의 제공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자료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 상호대차/원문복사 서비스 이용은 줄어들고 있으나, 국외 상호대차 의뢰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 (<표 5.2> 참조) 앞으로 더 전문적인 이용자 서비스의 요구가 증가할 것이므로 연구지원서비스 등을 통해서 교육과 연구를 확대 지원하기 위한 도서관의 노력이 기대된다.

〈표 5.2〉 상호대차/원문복사 서비스 이용현황(2001~2003년)

구분 연도	국내기관			외국기관			총계
	계	의뢰*	제공**	계	의뢰	제공	
2001	47,995	9,741	38,254	1,446	1,411	35	49,441
2002	44,986	9,159	35,827	1,491	1,433	58	46,477
2003	40,784	9,151	31,633	2,000	1,931	69	42,784

\* 의뢰 : 우리도서관에 없는 자료를 국내외 타 도서관에 복사·대출 의뢰

\*\*제공 : 국내외 타 도서관에서 우리도서관이 소장한 자료를 요구함에 따라 복사·대출서비스 제공

## 2) 정보화본부

정보화본부는 21세기 지식정보기반사회를 선도하는 세계일류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본교의 연구 활동과 학사 행정에 정보화 기술 및 정책을 반영하고, 정보화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정보화본부는 1999년 11월 학술정보원으로 발족(학칙 제 14조)하여 중앙교육연구전산원과 중앙도서관, 교육매체제작소의 업무를 통합하였으며, 2001년 9월, 2003년 1월과 6월의 학칙개정에 의해 정보화본부로 명칭과 조직이 변경되어 대학정보화를 총괄하게 되었다.

현재 정보화본부는 정보화기획팀과 중앙전산원으로 운영된다. 정보화기획팀에서는 정보화기반구축, 정보화 서비스, 교육 및 학술연구 정보화 지원, 행정정보화 지원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 관련 산학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전산원은 캠퍼스전산망 등 학내 정보인프라를 직접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검색실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정보화 능력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초고속 슈퍼컴퓨터를 도입 운영함으로써 첨단 학술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정보화를 통해 대학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국내 300여 대학 및 유관기관들의 인터넷 사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교육전산망 운영본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중앙전산원은 1988년 Bitnet을 통해 외국과의 전자우편을 개통한 후 1990년에 캠퍼스전산망(SNUNET)을 100Mbps FDDI 백본망으로 구축하여 NIU(Network Interface Unit)를 통해 네트워크를 지원하다가 1995년에는 단위 네트워크를 동축케이블로 포설하여 캠퍼스망을 개선하였으며, 1996년 중반부터는 155Mbps~622Mbps의 고대역폭을

지원하는 ATM 백본망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네트워크 기술은 급속히 발전하여 2000년부터는 네트워크 장비의 성능이 기술발전을 뒷받침하지 못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캠퍼스망 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근간으로 2001년 9월에는 주 백본망을 ATM망에서 Gigabit 백본망으로 전이하기 시작하여 2002년 하반기에는 캠퍼스 전체를 Gigabit백본망으로 완전 전이하였다. Gigabit 백본망은 Core백본망(10Gbps)과 권역 백본망(2Gbps) 및 건물백본(1Gbps)으로 연결되는 계층 구조로 이루어진 서울대학교 캠퍼스전산망(SUNET) 이다. 2002년에 수의과대학, 자연과학대학 강의 및 실험연구동 등의 건물, 2003년에 대학원기숙사, 멀티미디어강의동 등의 건물에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현재 활용되고 있는 멀티미디어, 화상회의, 인터넷 생방송 등 높은 대역폭을 요구하는 Application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네트워크 기술 변화에도 수용 및 대비 할 수 있는 캠퍼스전산망을 설계하고 있고 2003년 4월 현재 35,360명의 사용자가 연결되어 서비스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전산망에서 국내 및 국외의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외부인터넷은 원활한 국내외 정보수집 및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2000년 9월부터 100Mbps에서 155Mbps의 증속하였으며 2001년 12월 310Mbps, 2002년 12월 510Mbps, 2003년 4월 현재 3,465Mbps로 서비스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2003년4월 현재 캠퍼스 간 전용회선은 관악과 연건은 200Mbps, 관악과 수원은 100Mbps로 연결되어 연건캠퍼스와 수원캠퍼스도 인터넷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부 인터넷은 2004년에 이중화를 구성하여 보다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이다.

2003년 4월 현재 중앙전산원의 연간예산은 110억원 정도로서, 20명의 일반직과 6명의 조교가 근무하고 있으며 9대의 대형, 17대의 중형 컴퓨터 및 5대의 Workstation을 보유하고 있다. 중앙전산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습실로는 PC실 5실, 스캐너실 1실 및 강의실 2실에 총 314대의 펜티엄급 PC와 5대의 프린터를 보유·운영하고 있다.



## 5.2 부속시설

### 1) 규장각

규장각은 조선의 22대 국왕인 정조가 즉위한 1776년에 창설되었다. 창덕궁 영화당 옆의 언덕에 주합루(宙舍樓)라는 2층 누각을 지어 규장각의 중심 건물로 삼고 주변에 봉모당, 열고관, 개유와, 서고 등의 부속건물을 지어 왕실자료와 서적 등을 보관하였다. 규장각은 왕실자료의 보관 및 서적 수집, 출판 등 도서관의 기능과 더불어 문화정책기구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1782년에는 강화도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 '외규장각'이라 하고, 역대 선왕의 어제, 선보(璿譜) 등을 관리하였다. 규장각은 1910년 일제의 강점과 함께 폐지되고 규장각도서는 조선총독부로 넘어갔다가 1928년 경성제국대학으로 이관되고 광복 후 1946년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으로 이관되었다. 본교에서도 오랫동안 도서관 소속으로 존재하다가 1992년에 현재의 독립 건물을 짓고 규장각으로 독립하였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은 국보 및 보물을 포함한 27만 여점의 고도서, 고문서, 고지도, 정부기록류, 책판 등을 소장하고 있는 한국학 자료의 중심지이자 전적류 문화유산의 보고이다. 규장각은 자료를 보존·관리함은 물론이고 한국학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는 한편 자료의 D/B화, 전시·홍보, 교육, 열람과 복사 등의 업무를 아울러 수행하는 등 연구소, 도서관, 박물관으로서의 종합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다. 최근 국내외에서 고조되고 있는 한국학에 대한 관심과 사회 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민족문화의 보존·계승에 대한 열의는 이런 규장각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

규장각에 소장된 자료는 수집된 시기에 따라 규장각 도서, 일반 고도서, 문고본 고도서로 나뉜다. 규장각 도서는 1776년 정조가 규장각을 설립한 직후부터 대한제국까지 규장각이나 사고에 보관되어 있던 도서들로서 규장각 소장 자료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일반 고도서는 일제시기에 조선총독부, 경성제국대학 및 해방 이후 본교에서 수집한 자료들이다. 문고본 고도서는 본교에 재직된 교수들이 기증했거나 구 경제연구소에 소장된 도서 중에서 고도서를 분리한 것으로, 기증자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표 5.3> 참조)

<표 5.3> 규장각 장서 현황 (2003년 12월 기준)

자료 구분		수량	합 계
한국학도서	한국본	81,034책	148,819책
	중국본	67,785책	
일반고도서	1945년 이전 수집	14,257책	19,633책
	1945년 이후 수집	5,376책	
문고본고도서	일사문고	2,502책	6,382책
	가람문고	1,612책	
	상백문고	1,669책	
	경제문고	599책	
고문서		50,690장	68,587점
책판		17,821장	
현판 및 기타		76점	
소 계			243,421
기타자료	한국학참고자료	11,007책	31,166점
	마이크로 필름	20,159롤	
합 계			274,587

규장각 소장 자료 중 국보 및 보물로 지정된 자료는 7,000여 점이며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는 국보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UNESCO에서 지정한 세계기록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다. (<표 5.4>, <표 5.5> 참조)

규장각은 2000년부터 소장 자료의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정보화 비전인 ‘Cyber Korea 21’ 계획의 일환으로 정보통신부, 한국전산원의 지원 아래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규장각 소장 자료를 D/B화하고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과 연계하여 한국역사정보의 전 세계적 보급을 위한 기반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차년도 25,000여 점의 이미지, 텍스트화 및 18,000여 건에 대한 목록, 해제, 영문해제, 표점 작업등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계속하여 5차년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구축된 자료의 수량은 고도서 12,000책, 고문서 17,000장, 고지도 700여종, 책판 17,821장, 읍지류 170종, 근대정부기록류 120종이며 이들 자료는 [www.koreanhistory.or.kr](http://www.koreanhistory.or.kr) 및 [e-kyujanggak.snu.ac.kr](http://e-kyujanggak.snu.ac.kr)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규장각 소장 자료를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

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게 함은 물론 그것의 계승 ·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전시회 및 학술강좌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4회에 걸쳐 특별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5회에 걸쳐 학술강좌 및 발표회를 가졌다. 또한 학술 연구서적 및 고도서 영인본 간행 등 규장각 소장 자료의 출판 간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일성록' 등 120여종, 320여 책의 자료를 출판 간행하였다. 규장각에서는 앞으로도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고, 학생, 일반인 등에 대한 사회 교육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고자 한다.

<표 5.4> 국보 지정 현황 (2003년 12월 기준)

지정 일	지정 번호	자료 명	책 수
1973. 7.10	국보 제148호	십칠사찬고금통요	1책
"	국보 제150호	송조표전총류	1책
1973.12.31	국보 제151-1,3호	조선왕조실록 정족산본 1,181책 오대산본 27책 기타산엽본 21책	1,229책
"	국보 제 152호	비변사등록 250책 부 의정부등록 23책	273책
"	국보 제 153호	일성록	2,329책
1999. 4. 9	국보 제 303호	승정원일기 승정원일기 3,045책 승선원일기 4책 궁내부일기 5책 전 비서감일기 8책 비서원일기 115책 후 비서감일기 33책 규장각일기 33책	3,243책
2003.4.14	국보 제 306-2호	삼국유사	2책

<표 5.5> 보물 지정 현황(2003년 12월 기준)

지정일	지정번호	자료명	책수
1984. 5.30	보물 제 761호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 보살만행수능엄경(권2,5)	2책
"	보물 제 765호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 보살만행수능엄경	11책
"	보물 제 770호	목우자수심결	1책
"	보물 제 771호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	1책
"	보물 제 773호	금강반야바라밀경	4책
1986.11.29	보물 제 882호	곤여전도(목판)	3점
1991. 9.30	보물 제 1086호	벽역신방	3책
"	보물 제 1087호	신찬벽온방	3책

규장각이 중앙도서관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그 기능도 과거와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어 연구 기능은 물론이거니와 자료 관리 및 대외 홍보·교육 등 실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1,200여 평 규모의 규장각 시설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매우 미흡한 상태이며, 고도서를 영구히 보존, 관리하는데 필수적인 과학적 설비를 갖춘 수장고 및 전시실, 강당 등 이용 공간의 확충이 불가피하다. 규장각에서는 이를 개선하고자 2002년부터 규장각 증축공사를 시행하여 2004년 12월 말에 완공할 예정이며, 기존 건물은 2005년부터 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2) 박물관

박물관은 1941년 경성제국대학의 진열관으로 시작되어 1946년 국립 서울대학교의 설치와 더불어 부설 박물관으로 설립되었다. 국내외의 고고, 역사, 미술, 민속과 인류학 분야의 자료를 수집·보관·연구·전시하여 학생, 교직원 및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우리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1993년 이후 현재의 건물로 이전하면서 4개 상설전시실과 각종 특별전으로 더욱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고 있다.

박물관은 개관 이래로 각종 발굴조사를 포함하여 도합 70여 회의 야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한국고고학, 고대사 및 관련분야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 특히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의 구석기시대 유적과 서울시 암사동, 강원도 양양 오산리의 신석기시대 유적, 그리고 경기도 여주 혼암리 유적, 경기도 양주군 수석리 유적 등의 발굴조사를 통하여 한반도 선사시대의 문화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또한, 서울시 강동구 일대의 석촌동, 방이동, 가락동, 구의동 및 몽촌토성, 풍납토성, 아차산 보루성 등 백제와 고구려시대 유적을 발굴함으로써 삼국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밝히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박물관에서는 사회교육 활동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199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수요교양 강좌는 교직원, 학생은 물론 일반시민들에게까지 교양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본교가 사회교육에 크게 기여한 강좌로서, 1993년 이전 개관 이후 전에 비해 많은 관람객들이 내방하였다. 즉, 1995년에는 34,541명이던 것이 2000년에는 75,377명에 이르렀다. 박물관에서는 상설전시 이외에도 많은 특별전시회를 개최하여 학생, 교직원 및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발굴유물 2만 여 점을 제외한 박물관의 현재 소장품 현황은 <표 5.6>과 같다.

<표 5.6> 박물관 소장품 현황(2003년 기준)

재질	역사품		민속품		합계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금속	434	1,238	300	450	734	1,688
옥석	245	483	102	113	347	596
토도	1,136	1,738	115	198	1,251	1,936
골각	50	75	75	106	125	181
목죽	38	81	898	1,269	936	1,350
모피	-	-	116	147	116	147
편직	2	5	114	143	116	148
서화	474	856	34	68	508	924
의상	-	-	37	40	37	40
기타	-	-	15	18	15	18
합계	2,379	4,476	1,806	2,552	4,185	7,028

### 3)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CTL)는 본교의 비전에 부합하는 교수법과 학습법을 연구 개발하고,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한 내실있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2001년 3월에 설립되었다. 2002년 12월 대학생에게 필요한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함양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글쓰기교실(Academy Writing Lab)을 신설했다. CTL의 내부 조직은 교육지원부, 학습지원부, 교육매체지원부, 글쓰기교실, 행정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다양한 교수법 소개, 강의법 과정, 신입교수 오리엔테이션, 대학원생을 위한 강의법 및 논문작성법 워크숍 등 교육 개선을 위한 다양한 워크숍 운영
- 강의촬영 및 분석, 웹보조수업 운영, 교육매체제작 지원 및 자문을 통한 강의 지원
- 수업 개선을 위한 교수·학생 공개 토론회, 좌담회 개최 등을 통한 교수 상호간 및 교수·학생간의 의견 교환의 장 마련
- 교수학습법 관련 자료 제작 및 계간지 「가르침과 배움」 발행. 서울대학교우수강의시리즈(동영상 CD) 제작 및 관련 도서 출판
- 학습양식 및 온라인 교육에 관한 연구, 새로운 교수법개발 연구수행
- 학부생의 창의적 사고 및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과 글쓰기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글쓰기 교실(Academy writing Lab) 운영
- 멀티미디어동(83동, 43-1동) 운영 및 관리, 시청각 자료 및 기자재 지원, 교육매체 제작 지원

교수학습개발센터(CTL)의 2002년과 2003년의 사업추진실적은 <표 5.7>과 같으며, 비디오 및 사진, 슬라이드 제작, 편집 및 시청각 기자재 및 비디오테이프 등의 대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표 5.7> 교수학습개발센터 사업 추진 실적

사 업 명	2002		2003	
	횟 수	인 원	횟 수	인 원
워크숍·코스워크 개최	20	1,199	23	1,605
좌담회·심포지움 개최	11	352	24	405
Web Class·리터러시등 강좌개발운영	6	4,303	21	4,667
강의촬영 분석 및 우수강의제작	15	15	12	14
글쓰기·리포트상담			365	620
리포트 작성법 특강			12	1,270
화 상 회 의	1	9	3	55
설 문 조 사	1	1,380	4	1,040
연구개발사업	5	27	22	159

#### 4) 기초과학교육연구공동기기원

「기초과학교육연구공동기기원」(이하 공동기기원)은 1988년 교육부에서 대학의 첨단 연구시설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고가장비의 중복 분산 투자를 방지하려는 외국 차관 사업의 효율적 시행 방안으로 기기공동활용기구의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본 교에 OECF(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차관 자금 중 600만불을 지원함에 따라 본교는 첨단 연구에 필수적인 공동연구용 기기를 선정 구입하고 이를 전담할 기구로 「기초과학전국공동기기센터」를 내부 부설기관으로 설립하게 되었다.

1992년 3월 1일자 서울대학교 설치령 개정으로 법정기관이 되었으며, 명칭이 「기초과학교육연구공동기기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조직은 효율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관리부, 연구지원부, 교육지원부, 기기지원부 및 행정실로 구성되었다. 1993년 6월 16일 건물이 신축되었으며, 부속 건물인 정전기가속질량분석기기동이 1997년 12월 5일 준공되었다.

공동기기원은 국내 유일의 최첨단 기기인 AMS(Accelerator Mass Spectrometer : 입자가속질량분석기)를 비롯한 66여종의 분석 및 합성 기기들을 보유하고 있으나, 60%이상(42종)이 5년~10년 사용한 기기로서 연구자들의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5.8> 참조)

<표 5.8> 연도별 기기 구입건수 및 구입금액

년 도	1991-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총 합
기기구입건수	70	2	5	5	5	5	92
구입금액(달러)	11,450,596	1,000,000	934,705	891,121	1,046,686	1,041,667	16,364,775
백분율	70%	6%	5%	5%	7%	7%	100%

공동기기원의 목표와 지원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초과학 연구의 기반구축을 위한 전국의 국·사립대학(원) 교육 내실화의 지원 및 창조적 연구역량 배양과 첨단연구의 지원
- 선진국 수준의 기초자연과학 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고가 정밀기기의 중복구입 방지, 집중관리, 보수유지를 통한 국가예산의 절약 및 관리요원 양성
- 기기 공동활용을 통한 연구자간, 연구기관 간, 학제간의 협동 연구체계의 기반확립 및 과제의 도출과 연구비의 지원
- 기기 사용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한 기기 이용자의 확대
- 동이용을 위한 고가 정밀기기의 선정 구입 및 효과적인 유지·관리
- 새로운 첨단 연구 기기의 개발 연구 및 제품화 지원 등

이와 같은 목표와 지원업무를 통하여 첨단 과학분야의 연구 활성화, 대학연구의 내실화, 그동안 기기 미비로 해외에서 행해지던 첨단 과학실험도 국내에서 가능케 되었으며 1992년 대·내외 지원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이용자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5.9> 참조) 새로운 연구 분야가 나타나고 있으며 최첨단 장비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공동기기원에서는 제한된 예산으로 기기시설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표 5.9> 공동기기원 활용실적**

년도	사용자소속기관수				사용자수			활용건수		
	서울대	전국국공 사립대	연구소	합계	서울대	전국국공 사립대	합계	서울대	전국국공 사립대	합계
2000	12	50	50	112	212	321	533	5,231	3,691	8,922
2001	21	50	113	184	214	323	537	7,932	5,940	13,827
2002	21	55	134	210	218	327	545	4,497	2,034	6,351
2003	21	55	132	208	222	331	553	4,821	2,122	6,943

**5)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는 연면적 약 500㎡의 규모로 캠퍼스의 중심부인 학생회관에 위치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와 질병의 예방·조기발견·치료 및 환자진료, 교내 전반에 대한 환경 위생, 기타 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건강관리부, 환경위생부, 진료부, 검사부, 약국, 행정실로 구성되어 있고, 소속직원으로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파견된 의사 10명, 촉탁의사 1명, 그리고 간호사 등 보건의료직 11명, 일반행정직 3명이 있다.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정형외과, 치과, 이비인후과, 신경정신과, 안과, 피부과, 부인과 등 총 9개 진료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이용실적을 보면 내과가 월등하게 많고, 그 다음으로 치과, 외과의 순으로 이용이 많은 편이다. (<표 5.10> 참조)

**<표 5.10> 보건진료소 이용 실적**

(단위 : 건)

연도	내과	외과	정형외과	치과	이비인후과	신경정신과	안과	피부과	부인과	원격진료실	계	학생검진
2000	14,950	1,783	869	4,251	582	142	578	785	112	230	24,282	4,207
2001	18,303	3,243	1,350	4,767	1,380	312	1,047	1,394	198	644	32,638	5,062
2002	15,720	2,176	1,203	4,152	986	300	979	1,467	170	637	27,790	5,347
2003	13,021	2,285	879	3,972	816	238	971	1,430	189	586	24,387	5,7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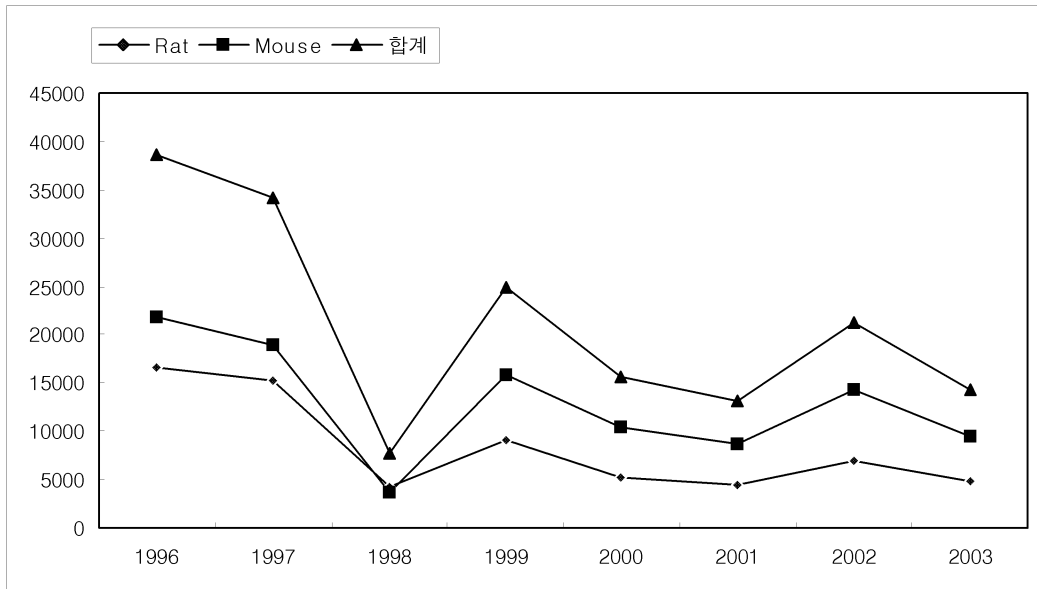
## 6) 실험동물사육장

실험동물사육장은 서울대학교 종합화계획의 일환으로 실험동물사육의 전문화를 위해 1975년에 설립되었다. 생명과학 전반에 걸쳐 이용되는 실험동물을 원활하게 공급하여 관련 연구 분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사육장은 1998년 시설보수공사를 마치고 새로운 장비와 번식용 동물을 도입하여 학내에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생산용 시설과 연구용 시설로 분류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공급용 동물종으로는 ICR, BALB/c, C57BL/6, C3H/He(마우스) SD, Wistar(랫드)가 있다. 공급용 실험동물은 유전적으로 순수하고 특정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험동물사육장은 년 2억 8백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행정직 1명, 조교 1명, 기성회직 1명, 사육사 3명, 자체직원 3명, TA 3명 등 모두 12명이 일하고 있다. 행정실장은 보건직 7급 자격의 수의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동물의 사육관리 및 동물 실험에 관련된 조언 및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2003년부터는 년 4회의 정기적인 동물실험 기법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는 바, 조교와 TA들이 투여, 채혈, 마취, 안락사 등에 관한 전문적인 기법을 지도함으로써 동물실험 중 동물에 가해지는 고통을 경감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실험동물을 인도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실험동물사육장이 중심이 되어 학내의 동물실험에 관한 승인제도의 도입을 목표로 사육장의 체계를 개선중이다.

본교에는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곳으로 실험동물사육장, 약학대학, 수의과대학, 유전공학연구소, 농업생명과학대학, 의과대학 기초의학관, 의과대학 특수생명연구동, 치과대학 실험동물시설이 있다. 교내의 많은 연구자가 동물실험결과를 외국의 저널에 투고 할 때나 특허출원 할 때 윤리적인 동물실험방법과 사양에 관한 질문을 받은 경험이 많이 있으나 실험동물에 관한 국가의 법적 규제가 전무하기 때문에 대학이나 연구소등이 자체적으로 규정을 제정 할 의무도 없으며 또한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힘든 것이 현실이다. 실험동물사육장은 2003년 12월부터 3개월에 걸쳐 '서울대학교 실험동물 통합관리체제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 단기적 개선방안과 중장기적 개선방안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는바, 단기적

방안으로는 통합부서관리 및 동물실험위원회의 신설 필요성, 실험동물 사육장 관리에 대한 지침 및 통일된 서류 양식의 제정의 필요성 등이 제안되었으며, 중장기적 개선 방안으로는 실험동물 시설의 통합관리부서 및 동물실험위원회의 실질적인 통합의 필요성 및 중앙실험동물시설 (central facility) 신설의 필요성 등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인 체제를 정비하여야 할 필요성 때문에 실험동물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서울대학교 BT분야의 발전을 위한 동물실험의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의 반영을 추진 중이다.



<그림 5.4> 년도별 실험동물의 공급 현황

### 7) 언어교육원

언어교육원은 어학 및 언어교육에 관한 연구와 그 결과의 보급, 언어교육 및 언어 능력측정을 목적으로 1963년 국립학교 설치령에 의거하여 설치되었다. 1963년 제일교포 모국 유학생의 국어교육을 시작으로 현재 한국어교육센터, 외국어교육센터, 언어교육연구센터, 언어능력측정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언어의 교육·연구·측정분야에서 다양한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한국어교육센터는 1969년에 처음 개설된 이래 본교에서 수학을 희망하는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이나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실제적인 한국어 교육과 함께 한국 문화 소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동안 세계 70여 개국 출신 10,000여명의 학생을 배출하였으며, 수료생들은 세계 각 국에서 한국어나 한국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연구 활동을 계속하면서 세계 속에 한국을 심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매년 세계 각 국에서 온 1,300여명의 외국인들이 한국어 의사소통능력 향상과 한국문화를 알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외국어교육센터에서는 본교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영어회화와 외국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6,000여명의 학생들에게 외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영어회화는 등급별 영어회화와 발표 연습, 개인 지도 영작문의 프로그램을 1년에 6회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어 강좌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강좌를 1년에 4회 개설하고 있다. 영어 관련 강좌로는 TOEFL, TEPS, 청취, 작문, GRE 등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어와 중국어 관련 강좌는 문법, 회화, 시험 준비반 등을 개설하고 있다.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는 시험 준비반을 운영하고 있다. 2003년부터는 제주대학교와 연합하여 영어 심화 프로그램인 하계 영어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1999년부터 언어교육원에서 실시한 주요 어학 훈련과 실적은 <표 5.11>에 나타나 있다.

언어교육연구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언어교육원 기관지 ‘語學研究, LANGUAGE RESEARCH’는 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전문 학술지로서, 일반 언어학 이론 및 응용언어학 연구와 그 보급을 위해 발간되었으며, 65년부터 현재까지 통권 40권 3호에 이르렀다. ‘語學研究’는 1983년 국내 인문사회분야 학술지로는 처음으로 국제표준간행물번호(ISSN 0254-4474)를 획득하였으며, 1984년부터는 연 2회 영문판을 펴냄으로써 국제적인 학술지로 발돋움을 하였다. 2002년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선정한 등재학술지가 되었다. 또한 국내외의 저명한 언어학자들이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중요한 학문적 문제점을 토론하는 ‘어학연구회’를 매해 12월 초에 개최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매달 ‘월례어학세미나’를 개최하여 쟁점이 되는 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이론을 함께 토론하고 있다. 2003년부터는 파리 13대학 등 해외 대학과의 학문 교류를 추진하여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표 5.11> 언어교육원의 사업 내용과 실적

(단위 : 명)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영어회화	1,806	1,741	1,990	1,663	1,765	2,035	2,691
TOEFL	478	483	601	546	672	505	554
TEPS	-	-	219	962	1,048	1,364	1,589
초급청취	664	780	833	282	277	193	134
중급청취	40	131	110	104	58	-	-
뉴스청취	167	219	241	226	220	295	248
시네마영어	100	97	200	-	50	18	-
영작문	340	345	411	320	277	252	322
GRE	226	187	200	93	101	74	57
어휘	159	197	133	90	67	11	-
일본어 문법 및 기타	409	632	633	649	547	448	633
일본어회화	75	78	112	68	40	46	53
중국어	-	31	86	66	145	241	356
독일어	-	-	12	36	40	24	30
프랑스어	-	-	24	38	50	42	65
스페인어	-	-	6	13	12	10	8
러시아어	-	-	-	-	3	3	13

언어능력측정센터는 지난 30여 년 간 정부가 공인한 어학능력 측정기관으로서, 학생, 공무원, 공공 단체와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여러 언어능력을 측정해 왔다. 특히 영어의 경우 7년간의 집중적인 연구 결과, 1997년 SNUCREPT(Seoul National University Criterion Reference English Proficiency Test)를 개발하였고, 1999년에는 이 시험을 TEPS(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로 전환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99년 첫 정기시험에 5,073명이 응시한 이래 2004년 7월 현재 47회 약 50만 명이 응시하였다. 실생활에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적인 의사소통 능력의 측정을 목표로 하는 TEPS의 개발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시행된 시험 결과는 TEPS의 높은 타당성과 신뢰성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영어 능력을 보다 과학적으로 평가해 한국인에게 취약한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학습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

다. 2002년 5월 컴퓨터용 시험장 등 언어능력측정과 관련된 시설을 모두 수용하는 언어교육원 내 독립건물을 마련하였으며, TEPS는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체제로 구축된 문제은행을 바탕으로 CAT(컴퓨터반응시험)도 개발 완료하였다. 2003년까지 측정현황은 <표 5.12>와 같다.

<표 5.12> 개인별 외국어능력 측정 현황

(단위: 명)

년	TEPS	영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계
1997	-	5,648	2,703	146	122	97	37	372	9,125
1998	-	4,753	2,524	128	115	82	34	385	8,021
1999	50,688	3,885	1,937	137	89	27	15	366	57,144
2000	78,028	3,624	2,065	144	96	32	24	392	84,405
2001	110,828	3,812	2,116	123	84	24	47	436	117,470
2002	147,280	6,785	3,215	146	123	40	60	650	158,299
2003	186,502	9,274	3,516	204	254	55	82	1,273	200,702

## 8) 환경안전원

환경안전원은 교직원, 학생 및 교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한 종합적 관리를 담당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안전원은 방사선종합관리업무와 환경오염방지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요한 특징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종합안전관리를 통하여 실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함.
- 우리나라 최초로 대학 내에 방사성 폐기물의 보관·폐기시설을 갖추고 있음.
- 실험실 종사자들이 실험안전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습득하도록 환경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하여 실험실습실 안전을 확보함.
- 국제환경안전심포지움 개최와 각종 연구 및 국제교류활동을 통하여 환경과 안전분야 교육과 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함.

환경안전원에서는 교내의 각 실험실 및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실험유해폐액 및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2003년에는 실험유해폐액(유기

계 65,920 ℓ, 무기계 30,880 ℓ)과 방사성폐기물( 7,100 ℓ)을 수거하여 처리 및 보관하였다. 또 환경보전과 실험실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직원,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년 2회씩 실시하였는데 2003년에는 연인원 1,404명이 교육을 받았다. 동시에 실험실안전관리 및 환경교육 강화를 위하여 환경안전교육 교재를 발간하여 각 실험실에 배포하였으며, 교육의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년 1회 국내·외 환경전문가를 초청하여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있다. 2003년에는 ‘방사선안전관리’라는 주제로 본교 강창모 교수 외 7명의 발표자와 학계, 산업계 등 120명의 참석자가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2002년에는 ‘대학에서의 환경안전관리’라는 주제로 호주 Phillip T. Crisp교수 외 8명의 발표자와 학계, 산업계 등에서 70명이 참석하여 진지한 토론을 하였다.

수질, 대기, 폐기물 등 환경오염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부처 및 민간기업으로부터 2002년 8건, 2003년 9건의 연구를 의뢰받아 수행하였으며, 또한 현재의 환경양태를 파악하고 환경감시의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최신 연구기자재를 이용하여 월 2회 학내 방류수의 수질을 분석하며(PH 외 12개 항목), 실험유해폐액 배출기관의 배출지점수질오염도 조사(PH외 13개 항목)를 2개월에 1회씩 시행하고 있다. 실험실 안전을 위하여 2년째 실험실(1,500 여개) 실험실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여, 잘못된 부분을 점검 및 지도하고 있다.

### 5.3 부설학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는 구한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립된 부속학교인 한성사범학교 부설학교(1895년 4월말 설립)를 모체로 하여 초·중등교육의 연구, 실험, 실습학교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교사양성 교육 및 교육실천 연구의 장으로서 우리나라의 교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1946년 서울대학교 부속중학교가 창설되었고, 부설초등학교는 1947년 국립서울대학교 사범대학부속국민학교로 개칭하여 1948년에 1회 졸업생을 배출하기 시작하였다. 1951년 학제변경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분리 개편되었고 1969년 부속중학교에서 부속여자 중학교가 분리되었다. 2001년 부속학교에서 부설학교로 명칭 변경되어 부설

초등학교, 부설중학교, 부설여자중학교, 부설고등학교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 1) 부설초등학교

초등 보통교육을 담당하는 의무교육 기관임과 동시에 21세기 이 나라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지도하는 기관이며 효율적인 학습방법을 연구 개선하는 연구·시범 기관으로, <바르고 굳세게> 라는 교훈 아래 튼튼하고 착하며 즐거운 어린이를 기르기 위해 교사, 학부모, 지역 주민과 함께 삼위일체의 협동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주5일 수업제 우선 시행학교로 선정되어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다 귀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귀국학생 특별 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 2) 부설중등학교

세 개의 부설중등학교는 <올바른 사람이 되자, 튼튼한 사람이 되자, 쓸모 있는 사람이 되자, 따뜻한 사람이 되자, 끝을 맺는 사람이 되자>라는 교훈 아래 중등 보통교육, 교육 실습 지도 교육, 연구/실험 및 실습의 사명을 가지고 한국 중등교육의 일선에 있다.

#### (1) 부설중학교

교육부 지정 상설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매년 일정한 주제 하에 현장 연구를 실시하고 그 연구보고서를 작성·발간한다. 그 동안 발간된 연구 보고서는 서울대학교, 교육인적자원부, 서울시교육청 및 국립 사범대학 부설학교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하여 우수한 연구 결과를 일선 학교에 보급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실험 연구의 추진 및 보급을 통해 중등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선진적인 교수 및 학습 환경과 체제를 구현하고, 다른 일반 학교의 모범이 되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매주 금요일에 다양한 주제로 교사 직무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주5일 수업제 우선 시행학교로 선정되어 이를 실시하고 있다.



## (2) 부설여자중학교

교육 정보화 계획의 일환으로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멀티미디어실(2개실)을 연중 개방(점심시간, 방과 후)하고 모든 교실에 멀티미디어 시설 구축 및 도서관 등을 활용하여 지식 정보화 능력을 함양하고 있다. 교육부 지정 상설연구학교로서, 교육 연구 실험 및 시범을 사명으로 하며, 교육 이론의 현장 적용을 위하여, 전교사가 참여하는 교육 연구를 생활화하고 있다. 또한,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내실화와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영어교육과 국제이해 교육을 계획하여 세계 문화 이해 교육에 앞장서며,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공동체 구성해 나가고 있다.

## (3) 부설고등학교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학부모가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학습지도 내용을 정선하여 알차게 지도함으로써 기초 학력을 신장하며,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전통예절교육, 선배와의 대화, 역사관 견학, 주제토의 등의 생활관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참여 의식을 진작하여 특별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고, 능동적인 연구 실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함으로써 교육 기자재를 충실히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며, 실습학교로서 교육실습생들의 실무적 경험 체득에 힘써 교사로서의 기본 자질과 전문 능력을 함양하며, 기초 체력을 배양하고 보건위생 생활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보건·체육 교육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각 부속학교의 현재 현황은 <표 5.13>과 같으며, 각 학교별로 교무실, 보통교실, 특별활동실, 컴퓨터 실습실, 도서관, 생활관, 시청각실, 방송실, 강당 등의 교육기본설을 갖추고 있다.

**<표 5.13> 부설학교 현황**

	부설초등학교	부설중학교	부설여자중학교	부설고등학교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99-1	서울시 성북구 종암2동 19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99	서울시 성북구 종암2동 19
설립년	1947년 9월	1947년 9월	1947년 9월	1951년 9월
학급수	30	24	24	24
학생수	822	851	781	858
학급당인원	30(1학년) 33(5~6학년)	35~37	33	35
교원수	39	48	48	58
직원수	8	8	7	8
부지(m <sup>2</sup> )	13,884	68,793	13,702	36,340
건물(m <sup>2</sup> )	6,545	9,593	7,197	10,274
홈페이지	<a href="http://seosabucho.es.kr">http://seosabucho.es.kr</a>	<a href="http://www.snu.ms.kr">http://www.snu.ms.kr</a>	<a href="http://210.97.141.11">http://210.97.141.11</a>	<a href="http://www.snu.bs.kr">http://www.snu.bs.kr</a>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능과 함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과 긴밀한 관계 하에서 교육실습 지도와 초·중등 교육에 관한 연구와 실험, 교육개선을 위한 학교교육의 시범역할을 해야 하는 부설학교는 현재 노후된 건물과 시설, 교육실습을 위한 재정 및 기타 지원 부족, 본 대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점 등으로 인해 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연구와 실습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 있다. 이런 문제들을 타계하기 위해 최근 부설학교의 관악 캠퍼스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5.4 법인 및 기타기구

### 1) 출판부

서울대학교 출판부(이하 출판부)는 ICA 자금과 경제부흥특별회계의 원조를 받아 본교에 인쇄 공장을 설치하는 것을 계기로, 교수의 학술 연구 및 대학 교육의 지원, 그리고 출판문화의 향상, 발전을 목적으로 1961년 설립되었다. 설립 초기에는 교내 인쇄소의 역할을 하였으나 1975년부터 인쇄 업무와 출판 업무를 병행하기 시작하였

다. 1981년부터는 기구 개편으로 본격적인 학술도서 출판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인쇄소는 부대시설로 두게 되었다. 1990년대에는 전산편집, 전산조판 시스템을 도입하여 편집, 조판, 인쇄 등 각 분야에 전문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보다 수준 높은 출판이 가능하게 되었다. 2003년 현재 2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2003년 12월 현재 출판부는 국어·외국어의 학술전문 도서를 포함하여 한국의 탐구 시리즈, 한국문화연구총서, 사회과학총서, 교육학총서, 법학전서, 한국학총서, 지역연구총서, 인문학교전총서, 인문학연구총서, 교수산문집, 대학교양총서, 대학생활총서, 국어연구총서, 중국조선민족학술총서 등 각종 기획도서 및 대학교재 약 1,427여 종을 발간하였다. 또한 교양도서의 기획출판은 더 넓은 층의 독자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5.14> 참조)

출판부는 학술도서의 출판을 주된 영역으로 삼아 활동하고 있다. 더 나아가 1996년 문화 인구의 저변 확대에 기여한다는 원대한 취지를 앞세워 기획을 시작, 심혈을 기울여 출간 중에 있는 교양기획도서 '한국의 탐구'는 1998년 첫 출간을 필두로 지속적으로 주제를 확장하여 현재 스물여섯 번째 주제를 발간하였다. 최근 들어 출판부는 변화하는 출판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의 서적 발간 형태와 병행하여 다양한 출판매체 활용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전자도서관을 겨냥하여 디지털컨텐츠 도서의 종수를 늘리고 있다. 또한 2003년부터 서울대학교 '한국학 장기 기초 연구사업'의 연구결과물 출간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1차분 12권을 발간하였다.

도서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2003년 상반기부터 과감하게 교체한 도서의 표지 디자인은 가히 혁신적이라 할 수 있다. 신간도서 및 일부 중쇄 도서의 표지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또한 본문 편집 디자인을 개선의 대상으로 함과 더불어 지질을 다양화하여 도서의 질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학술원, 문화관광부 등 우수 기관 주최의 선정 사업에서 현재 182종의 도서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는 등 뛰어난 실적을 거두고 있다. 또한 우수한 연구업적 결과물의 세계화에 대한 관심의 일환으로 홋카이도 대학, 베를린대학, 중국 중앙민족대학 등 해외 대학의 한국학 관련 연구소 및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하였으며, 현재 하와이대학 East-West Center와 공동출판을 추진 중에 있다.

<표 5.14> 서울대학교출판부 도서관행 실적(2002~2003년)

(단위 : 권)

연도	단행본		학술잡지 및 기타		계	
	종수	부수	종수	부수	종수	부수
2002	243	178,550	99	260,060	342	438,610
2003	237	175,900	101	284,750	338	460,650

## 2) 생활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은 교수, 직원, 학생 등 대학 구성원들의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학문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75년 「서울대학교소비조합」으로 시작하여 학내 후생시설을 직영 관리하여 오다가 1990년에 「생활복지조합」으로 체제를 개편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회관 서적부 직영과 식당 및 매장의 개조로 후생시설을 확충하였으며, 2000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한 독립법인인 「생활협동조합」으로 창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조합은 후생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교수, 학생, 직원으로 구성된 대의원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학내 구성원은 누구든지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였다. 조합은 현재 직영식당(학생회관 식당, 2,3,4,5 식당)을 비롯하여 문구점, 기념품점, 서적부, 다과매점, 전통찻집, 여행사, 복사실, 이·미용실, 장신구부, 꽃집 등 다양한 형태의 후생시설을 완비하여 학내생활을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조합은 시설과 제공 상품의 수준향상으로 구성원들의 문화적, 경제적 기대에 부응하고 대학 후생복지수준 향상에 그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현재 생활협동조합의 직원으로는 관리직 8명, 정규직 130명, 일용직 75명 등 모두 213명이 근무하고 있다.

## 6. 공간 및 시설

이 장에서는 2002~2003년 본교의 공간 및 시설 관련 사항을 개관한다. 공간에 대해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간과 공간의 변화상을 먼저 서술하고, 이어서 그 실태를 교육환경이라는 기준에서 간략히 평가 분석한다. 시설에서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변화 현황을 서술한 다음, 그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 6.1 공간

#### 1) 보유 공간

##### (1) 공간의 전체 규모

공간은 토지와 교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 토지는 본교 소유의 측량된 공간 전체를 말하며, 교지는 토지 가운데서 학교 시설에 직접, 그리고 적극 활용되고 있는 부분을 말한다.

2003년 4월 1일 현재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총면적은 관악, 연건, 수원 캠퍼스와 동승동 및 종암동의 부설학교, 그리고 전국 각지의 연습림, 수목원, 약초원 등을 총괄하여 약 192km<sup>2</sup>에 달한다. 그러나 보유토지의 대부분인 96.9%가 연습림이고, 교지와 체육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면적은 약 1.5km<sup>2</sup>로서 전체 보유면적의 0.81%에 불과하다.

##### (2) 공간의 활용 현황

관악캠퍼스의 경우 전체 면적은 4,638,816m<sup>2</sup>이나 시설용지로 사용할 수 없는 기타용지를 제외하면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은 교지 982,015m<sup>2</sup>와 체육장 72,751m<sup>2</sup>를 합친 1,054,766m<sup>2</sup>에 불과하며, 여기에는 급경사지역과 버들골을 비롯한 녹지가 포함되어 있다.

<표 6.1> 토지 보유 현황 (2003년 4월 1일 기준)

(단위 : m<sup>2</sup>)

캠퍼스별	교지 및 체육장	실습장 및 부속농장	연습림	기 타 *	계
관악캠퍼스	1,054,766			3,584,050	4,638,816
연건캠퍼스	98,785				98,785
수원캠퍼스	282,677	541,625			824,302
철보연습림			1,096,544		1,096,544
안양수목원			15,014,034		15,014,034
남부연습림			162,169,809		162,169,809
태화산연습림			7,970,904		7,970,904
부설학교	82,806				82,806
약초원		57,936	40,724	645	99,305
기타		12,235		3,580	15,815
계	1,519,035	611,796	186,292,015	3,588,275	192,011,122
(%)	(0.81)	(0.30)	(96.94)	(1.95)	(100)

\* 기타는 학교부지로 사용하지 않는 공공용(임야, 하천, 도로 등) 부지임

관악캠퍼스에 속한 토지의 지목별 구성을 보면, 학교용지가 199,015m<sup>2</sup>, 대지가 50,626m<sup>2</sup>, 논이 15,044m<sup>2</sup>, 밭이 25,112m<sup>2</sup>, 잡종지가 17,774m<sup>2</sup>, 그리고 임야가 4,451,686m<sup>2</sup>로서 대부분이(93.58%) 임야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관악캠퍼스 내의 소통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는 전반적인 공간 활용의 효율성 문제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교내 교통 및 주차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각 캠퍼스로 연결되는 대중교통수단 이외에 본교가 운행하는 무료 학교버스 26대(대형 20대와 중형 6대)가 전년도에 비해 운행간격을 단축하여 운행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에 부응하고 있다. 수원캠퍼스의 셔틀은 하루 평균 이용인원이 2002년의 400명에서 농업생명과학대학 이전이 완료된 2003년에는 40명으로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관악캠퍼스에는 출입차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비하여 확보된 주차장 공간은 3,451면에 불과하며, 이 수치는 정기권발급 차량 9,360대만을 가지고 생각하더라도 주차장 확보율이 37%에 그치고 있다. 교직원용 주차공간은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편이나, 인문대학과 사범대학 주변의 경우 대단히 열악하다. 그리고 순환도로변의 대학원생(연구생 포함) 주차공간 역시 전 구역에 걸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대책으로는 주차공간의 절대적 확충과 아울러 주차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2004년 2학기부터 석사과정 신입생을 필두로 정기권(Tag) 발급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표 6.2> 참조)

<표 6.2> 주차면수 및 관제시스템 현황(2003년 4월 1일 기준)

차량등록수	주 차 면 수		주차관제시스템	
	일반인용	장애인용	정산소	Gate
9,360	3,403	48	3	11

현재 신분별 정기주차권(Tag) 이용 현황은 <표 6.3>과 같다. 캠퍼스 내 주차공간의 부족 때문에 교직원, 대학원생, 연구생, 연구원 등에게는 교내교통질서유지비 명목으로 학기 또는 월별로 일정 금액의 주차료를 징수하고 정기주차권을 발급하고 있다.

<표 6.3> 신분별 정기주차권 이용 현황 (2003년 4월 1일 기준)

구분	대상	등록수	이용주차장	비고
1군	교수, 시간강사, 계약교수 등	2,481	Gate 1-11	
2군	직원, 조교, 자체직원 등	1,171	"	
3군	지체장애학생, 학교공용차량 등	417	"	
4군	대학원생, 연구생, 연구원, 연수생	4,433	순환도로	
5군	상시출입업자, 상시근무자 등	858	Gate 내부 및 순환도로	선택
	계	9,360		

### (3) 공간 소요

관악캠퍼스의 사용 가능한 토지면적(1,054,766㎡)을 2003년 1학기의 관악캠퍼스 등록 학생수(29,410명: 농업생명과학대학, 수의과대학 포함)와 대비할 경우 학생 1인당 교지면적은 35.9㎡이며, 이 수치는 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적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생 정원 1인당 시설기준면적 31.6㎡에 비해서는 양호하지만, '서울대학교 2000년대 미래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생 정원 1인당 시설소요면적인 120㎡에 비해서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학생 1인당 교지면적이 131㎡에 달하며, 미국 위스콘신대학교(UW-Madison)도 그 수치가 110㎡에 이르고 있다. '서울대학교 발전위

원회 2차보고서'에서 제2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학생 정원(35,000명)과 '서울대학교 2000년대 미래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생정원 1인당 시설기준면적 120㎡를 곱하면 2020년 기준으로 본교가 향후 확보해야 할 최소 교지면적은 약 4.2km<sup>2</sup> 정도이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 3.1km<sup>2</sup>의 교지면적 추가 소요가 있는 셈이다. (<표 6.4>, <표 6.5> 참조)

<표 6.4>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관악캠퍼스 교지기준

(단위 : m<sup>2</sup>)

계열	해당대학	1인당 시설면적	학생정원	시설기준 면적	교지 기준면적	1인당 교지면적
인문사회	인문대, 사회대, 경영대, 법대, 사대, 생활대 등	12	11,016	132,192	264,384	31.6
자연과학	자연대, 약대, 농생대 등	17	5,877	99,909	199,818	
공학	공대	20	6,807	136,140	272,280	
예체능	음대, 미대	19	1,426	27,094	54,188	
의학	의대, 수의대	20	446	8,920	17,840	
계			25,572	404,255	808,510	

<표 6.5> 관악캠퍼스의 교지면적 소요

구분	교지면적(m <sup>2</sup> )	비고
2003년 현재 가용교지면적	1,054,766	기 시설부지 및 공대 확장지역
미래(2020년)의 최소교지면적	4,200,000	'서울대학교 발전위원회 2차보고서'에서 2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학생정원(35,000명)을 '서울대학교 2000년대 미래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생정원 1인당 시설기준면적에 곱한 면적
미래(2020년)까지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할 교지면적	3,145,234	현재 시설부지 내 가용교지면적의 3배에 달함.

#### (4) 공간 규모 및 활용상의 문제점

관악캠퍼스의 수용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시설 연면적 요구량과 실제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관악캠퍼스의 가용교지는 그



증가추세를 수용하기에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교지면적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교육·연구지원시설의 외곽 배치나 소속 단과대학과의 연계성이 결여된 연구시설의 건립 등과 같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 확장은 전체 토지이용의 체계성을 훼손시키고, 녹지공간 축소, 교통 및 주차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순환도로 내부의 가용지 고갈로 인하여 공학관 신축과 같이 순환도로의 주변까지 시설이 확장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관악캠퍼스의 교지 확장과 동시에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악캠퍼스 교지 확장의 경우에는 정문 앞과 낙성대 지역이 검토 또는 추진되고 있다.

## 2) 공간의 변화

### (1) 부설학교의 이전 추진

본교의 부설학교는 서울대학교종합화계획에 의거하여 1975년에 사범대학이 관악캠퍼스로 이전함에 따라서 그 기능이 크게 약화되어 왔다. 부설학교들이 사범대학과 함께 관악으로 이전하지 못하고 초등학교와 여자중학교는 종로구 동숭동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성북구 종암동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본교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1972년 서울대학교종합화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부설학교의 관악캠퍼스 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 부설학교를 관악구 낙성대 인근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2001년 11월에 교육부의 승인을 받게 되었다. 또한 2002년에는 부설학교 이전계획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연구를 한국교육개발원에 위촉하였다. 이와 같이 현재 부설 초등학교를 제외한 3개교(부설중학교, 부설여자중학교, 부설고등학교)를 낙성대 인근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은 구체적인 추진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이전에정부지의 추가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 위치에서의 부설학교 건물은 총 10,386평, 부지는 총 28,911평이다. (<표 6.6> 참조) 그 가운데 이전 대상인 부설여자중학교, 부설중학교, 부설고등학교는 건물 8,410평, 부

지 24,900평이다. 현재 부설초등학교와 부설여자중학교, 그리고 부설중학교와 부설고등학교는 각기 별개의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교지의 경계가 없이 공유하고 있다.

<표 6.6> 현 부설학교의 건물과 부지 규모

(단위 : 평)

학교	건물	운동장	부지
초등학교	1,976	7,226	8,156
여자중학교	2,180		
중학교	3,150	2,590	20,755
고등학교	3,080	7,000	
계	10,386	16,816	28,911

이전하여 신축할 부설학교의 공간 규모는 <표 6.7>과 같으며, 이전할 부지가 자연 녹지지역이고 그 용적률이 50%로 제한됨을 고려할 때 최소한 85,686㎡ 이상의 부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전하여 신축하게 될 부설학교는 교육의 질을 극대화하기 위해 규모를 줄이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설중학교와 부설여자중학교를 남녀공학 중학교로 통합할 계획이다. 또한 학급당 학생수를 정규학급은 25명, 특수학급은 15명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다. (<표 6.8> 참조)

<표 6.7> 이전 신축할 부설학교의 공간 규모

(단위 : ㎡)

학교	위치	건물 순면적 (A)	건물 총면적 (B=A×1.65)	기타시설 면적	최소 소요 부지 면적
중학교	관악구	7,537	12,436		
고등학교		7,174	11,835		
공유시설	봉천동	11,256	18,572	17,190	
계		25,967	42,843	17,190	85,686

\*기타 시설 면적 : 운동장 13,884㎡, 주차장 2,314㎡, 자연학습장 992㎡

\*최소 소요부지 면적 산정 : 건물총면적(42,843) × 자연녹지지역 용적률(50%)

<표 6.8> 이전 신축할 부설학교의 학급수 및 학생수

학교	급 별	수업연한	학년당 학급수	총 학급수	학급당 학생수	총 학생수
중학교	정규학급	3년	8	24	25	600
	특수학급 (귀국자녀)			1	15	15
	계			25학급		615명
고등학교	정규학급	3년	8	24	25	600
	특수학급 (귀국자녀)			1	15	15
	계			25학급		615명

## (2) 농업생명과학대학 및 수의과대학 이전

본교 농업생명과학대학과 수의과대학의 관악캠퍼스 이전은 지리적 고립으로 인한 기초학문 및 첨단과학 분야와의 학문적 교류 부족, 인접 수원비행장의 극심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강의 피해, 교육·연구기자재 공동사용의 불가능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캠퍼스 종합화 계획에 따른 이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농업생명과학대학 및 수의과대학과 연계가 깊은 기초과학, 공학, 사회과학 등 유관학문과의 원활한 교류 및 공동연구가 크게 촉진되게 되었고, 연구지원시설의 공동이용과 시설기자재 등의 현대화를 통해 교육·연구 환경을 개선하는 좋은 전기를 마련하였다.

농업생명과학대학 및 수의과대학 이전사업은 1997년에 착수하여 2004년에 완성될 사업으로서, 이전사업의 전·후 비교와 이전 후의 공간 및 시설 규모는 각각 <표 6.9>, <6.10>과 같다. 농업생명과학대학과 수의과대학의 건물은 모두 2000년에 착공하였으며, 수의과대학은 2002년 말에 농업생명과학대학은 2003년에 준공되었다.

농업생명과학대학·수의과대학 이전을 위한 예산은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정부시설계정에 의거하여 1996년 당시 재정경제원이 수원캠퍼스의 교지 일부(71,534평)를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차용하는 방식으로 승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전이 거의 완료된 현 시점에서 이전재원의 상환을 위한 수원캠퍼스의 부지매각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원캠퍼스 교지면적 85,509평 가운데 71,534평을 조만간에 매각할 예정이며, 행정본관 주변의 13,975평은 보존 유지할 계획이다. 행정본관 주변의 잔류면적 내의 건축물은

농업사 박물관, 실습장 관리본부, 동물병원 등을 설치하여 현장교육 및 연구지원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표 6.9> 농업생명과학대학·수의과대학 이전사업 전·후 비교

구분			이전 전	이전 후
위 치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농생대	규모	부지	282,677㎡	관악캠퍼스 내
		건물	65,908㎡	64,181㎡
	학사 계획	학과수	14개학과	4개학부, 5개학과
		입학정원	575명	430명
수의대	규모	부지	농생대에 포함	관악캠퍼스 내
		건물	11,573㎡	16,568㎡
	학사 계획	학과수	1개학과	1개 학과
		입학정원	60명(4년)	50명(6년)
총괄	규모	부지	282,677㎡	관악캠퍼스 내
		건물	77,481㎡	80,794㎡
	학사 계획	학과수	15개학과	4개학부, 6개학과
		입학정원	635명	480명

<표 6.10> 농업생명과학대학·수의과대학 이전사업의 세부 시설규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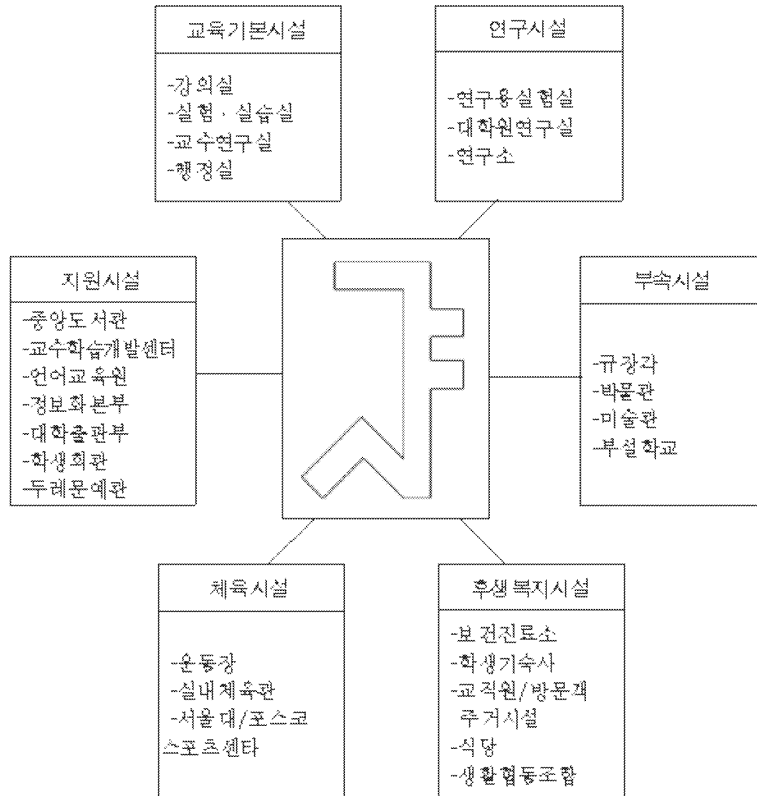
구분	사업명	건물규모	층수
농생대 이전	본동공사	47,796	9
	제3식당 재개발	10,178	5
	NICEM 개·보수	4,511	4
	기존 3식당 리모델링	1,696	2
	소계	64,181	
수의대 이전	수의대 공사	16,568	10
계		80,794	

## 6.2 시설

### 1) 보유 시설

본교의 시설은 교육기본시설, 연구시설, 지원시설, 부속시설, 후생복지시설, 체육시

설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림 6.1> 참조)



<그림 6.1> 본교의 주요시설

교육기본시설은 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행정실로 세분할 수 있다. 연구시설은 연구용 실험실, 대학원 연구실, 연구소 등을 포함한다. 지원시설은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설로서 중앙도서관, 교수학습개발센터, 언어교육원, 정보화본부, 대학출판부, 학생회관, 두레문예관 등이 포함된다. 부속시설은 대학의 확장적, 사회교육적 기능을 담당하는 별개 기관으로서 본교에는 규장각, 박물관, 미술관, 부설학교 등이 있다. 후생복지시설은 학내 구성원들의 건강하고 안락한 캠퍼스 생활을 위한 각종 시설을 말하며 보건진료소, 학생기숙사, 교직원 및 방문객 주거시설, 식당, 생활협동조합, 기타 편의시설이 여기에 포함된다. 체육시설에는 운동장, 실내체육관,

서울대/포스코스포츠센터 등이 있다.

이 장에서는 교육기본시설, 연구시설, 후생복지시설, 체육시설을 중점적으로 기술한다. 나머지 지원시설과 부속시설은 제2장 5절 지원기구에서 다룬 바 있다. 특히 이 장에서는 시설 측면만을 기술할 것이며 관련 기구의 예산, 프로그램, 행정 등은 다른 제2장 7절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1) 시설의 전체 규모**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의 전체 규모를 건물과 그 면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 6.11>과 같다.

**<표 6.11> 캠퍼스별 건물현황(2003년 4월 1일 기준)**

구 분	동 수	건 물		등록학생수	학생1인당 면적(m <sup>2</sup> )
		건축면적(m <sup>2</sup> )	연면적(m <sup>2</sup> )		
관 약	195	199,970	713,319	27,131	26.29
연 건	31	24,303	107,733	2,967	36.31
수 원	109	44,233	78,702	2,342	33.60
연 습 립	45	4,079	6,052		
부설학교	17	11,913	34,001	3,410	9.97
계	391	284,498	939,807	35,850	

**(2) 시설의 용도별 현황**

본교 보유시설을 주요 용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는 교육, 연구, 생활, 복지, 기타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표 6.12> 참조)

**<표 6.12> 용도별 시설 보유 현황(2003년 4월 1일 기준)**

(단위:m<sup>2</sup>)

교사시설		연구 시설	특수시설	기숙시설	계열별 부속시설	기 타	계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323,386	145,716	252,143	70,142	92,606	41,907	13,907	939,807

### ① 교육기본시설

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행정실을 포함하는 본교 교육기본시설의 총 면적은 <표 6.12>에서 볼 수 있듯이 약 323,386㎡이다. 이 수치는 수원캠퍼스에 있던 35,626㎡의 교육기본시설이 2003년 2학기에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면서 발생한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캠퍼스별로 살펴본 교육기본시설의 세부 활용 현황은 <표 6.13>과 같다.

<표 6.13> 용도별 시설 보유 세부내역(2003년 4월 1일 기준)

		(단위 : ㎡)			
구	분	관 악	연 건	수 원	총 계
교육기본 시 설	강의실	68,710	8,023	5,166	81,899
	실험실	71,902	11,858	20,229	103,989
	교수연구실	47,701	6,367	4,524	58,592
	행정실	60,359	12,840	5,707	78,906
	소계	248,672	39,088	35,626	323,386
지원시설	도서관	37,139	4,621	3,043	44,803
	학생회관	38,391	928	3,503	42,822
	대학본부	15,773	0	0	15,773
	체육관	16,409	1,164	1,760	19,333
	강당	14,305	1,396	1,924	17,625
	전자계산소	4,974	0	386	5,360
	소계	126,991	8,109	10,616	145,716
연 구 시 설		191,336	43,954	16,853	252,143
특수시설	부속시설	30,820	1,939	2,672	35,431
	학군단	1,582	0	522	2,104
	법인 및 기타기관	29,186	3,421	0	32,607
	소계	61,588	5,360	3,194	70,142
기숙시설	학생기숙사	54,447	11,026	7,775	73,248
	교수아파트	18,722	0	0	18,722
	총(학)장공관	636	0	0	636
	소계	73,805	11,026	7,775	92,606
계열별 부속시설		34,375	0	7,532	41,907
기 타 시 설		10,553	196	3,158	13,907
합 계		747,320 <sup>1)</sup>	107,733 <sup>2)</sup>	84,754	939,807

1) 부속시설 34,001㎡포함

2) 연습탑 건물 6,052㎡포함

## 가. 강의실

현재 강의실은 교무처 학사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으며, 교수와 학생의 편의를 위해 개설학과 인근의 강의실을 해당 학과에 우선 배정하고 있다. 한 강의실을 주당 최대 40시간 활용한다고 할 때, 강의실의 매 학기당 이용률은 2003년 1학기 67.3%, 2003년 2학기 62.3%로서 전년과 비슷한 활용현황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강의실 정원과 학생들의 수업준비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는 아직도 강의실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물론 강의실의 추가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아침시간이나 저녁시간을 활용하여 전일제 강의를 유도함으로써 강의 준비 공간을 시간적으로 적절히 공급해 주고 강의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추구하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기본시설에서 특기할 사항은 강의실 환경개선사업이다. 그 핵심사업의 일환으로, 노후한 수강용 책걸상 교체를 2003년부터 시작하여 2003년에 2,565각을 교체하였고, 2004년에 2,200각을 교체할 예정이다. 2005년에 2,600각을 교체하면 강의실 수강용 책걸상 환경 개선율은 100% 완료된다.

한편 강의에 각종 시청각,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컴퓨터, VTR, 실물화상기, 빔 프로젝트, 동시통역설비, LCD 등 최신 설비를 갖춘 강의실이 요구되고 있으며, 교수-학습 방식의 변화에 따른 세미나실의 수요도 현저히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두뇌한국 21」 사업 재원으로 인문사회계 멀티미디어 강의동(83동)을 건립하여 2003년 여름 계절학기부터 수업공간을 배당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칠판 중심의 전통적 교수법에서 벗어나서 각종 첨단장비를 활용한 다양한 교수법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멀티미디어 강의동의 이용률을 살펴보면, 2003년 여름 계절학기에 64%이던 것이 2003년 2학기에는 80%에 달하고 있다.

## 나. 행정실

교육기본시설에는 단과대학 및 학(부)과 행정실이 포함되며, 단순한 사무 공간 이외에도 회의실, 도서·자료실, 복사실 등이 포함된다.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간편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행정서비스 시설의 면적 확보에 그치지 않고, 각종 첨단 부대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 ② 연구시설

본교가 종합연구대학(Comprehensive Research University)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구시설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그 기본을 이루는 연구용실험실, 대학원연구실, 각종 연구소 등에 대한 시설지원이 시급히 확충되어야 한다.

2003년 4월 1일 현재 연구용실험실, 대학원연구실, 대학부설연구소의 면적은 <표 6.14>에 나타나 있듯이 관악캠퍼스 191,336㎡, 연건캠퍼스 43,954㎡, 수원캠퍼스 16,853㎡로 전체면적은 252,143㎡ 정도이며, 그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03년 2학기를 기준으로 볼 때 수원캠퍼스 내 대학원연구실과 대학부설연구소 전체, 그리고 연구용실험실의 일부가 관악캠퍼스로 이전 완료됨으로써 관악캠퍼스의 연구시설면적 증가분에 그 수치가 반영되었다. 교수 1인당 연구시설 면적의 경우도 <표 6.15>에서 볼 수 있듯이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표 6.14> 캠퍼스별 연구시설 세부 현황 (2003년 4월 1일 기준)

(단위 : ㎡)

구 분 \ 캠퍼스별	관악	연건	수원	계(2003년)	2002년	2001년
연구용실험실	74,793	14,961	13,660	103,414	88,389	64,928
대학원연구실	45,895	3,157	1,587	50,639	46,542	43,849
대학부설연구소	70,648	25,836	1,606	98,090	101,890	81,721
계	191,336	43,954	16,853	252,143	236,821	190,498

<표 6.15> 교수 1인당 연구시설 면적(2003년 4월 1일 기준)

구 분	교수수 (기금교수 포함)	연구시설면적	1인당 연구시설면적
2001	1,626명	190,498㎡	117.1㎡/명
2002	1,614명	236,821㎡	146.7㎡/명
2003	1,684명	252,143㎡	149.7㎡/명

### 가. 대학원연구실

'서울대학교 캠퍼스부문장기계획 2002~2006'에서는 대학원연구실의 기준면적을 대학원생 1인당 5㎡씩 모든 단과대학에 걸쳐 균등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거

하여 볼 때, 대학원연구실 면적의 현재 평균은 5.3㎡로서 시설기준 5㎡를 상회하지만 대학별 편차로 인해 공간 부족을 호소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다.

## 나. 연구소

2003년 4월 1일 현재 본교 내 연구소는 61개로서, 각 연구소별 연구인력과 1인당 시설면적은 <표 6.16>과 같다. 본교가 지향하는 종합연구대학에서 연구소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는 점을 감안할 때 연구소에 대한 시설지원은 시급히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 ③ 기숙시설

### 가. 학생기숙사

학생기숙사는 좁게는 학생에게 저렴한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의 의미를 갖지만, 넓게는 24시간 교내에 거주하면서 학업과 생활의 연계 속에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는 시설이라는 의미가 있다. 현재 관악캠퍼스에 관악사가 있고, 연건캠퍼스에 연건기숙사, 합춘사, 국제회관 등 3개 기숙사가 있다. 이들 기숙사의 총 수용능력은 3,655명으로서 2003년 1학기 등록학생수(32,376명)의 11.3%에 해당되며, 대학원생의 경우 시설 부족으로 입사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6.17> 참조)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2003년에 「두뇌한국 21」 사업의 제 1단계 사업으로 관악캠퍼스에 대학원기숙사 1개동 18,538㎡와 BK국제관 숙소 17,509㎡를 건립하여 약 1,400명을 1차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연건 캠퍼스에도 162명을 수용하는 기숙사를 지상 9층 규모로 신축하였다. (<표 6.18> 참조)

<표 6.16> 서울대학교 연구소 시설 현황(2003년 4월 1일 기준)

연구소명	연구인력	시설면적(m <sup>2</sup> )	1인당면적(m <sup>2</sup> )	연구소명	연구인력	시설면적(m <sup>2</sup> )	1인당면적(m <sup>2</sup> )
인문학연구원	64	510	8.0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127	4,027	31.7
한국문화연구소	76	225	3.0	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소	135	3,371	25.0
미국학연구소	-	188	-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114	2,297	20.1
인지과학연구소	6	79	13.2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	17	760	44.7
철학사상연구소	54	74	1.4	초미세소재기술연구소	-	24	-
역사연구소	1	-	-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	5	1,649	329.8
사회과학연구원	50	284	5.7	항공우주신기술연구소	6	72	12.0
경제연구소	4	297	74.3	농업생명과학연구원	37	0	0.0
언론정보연구소	1	132	132.0	농업생물신소재연구소	16	155	9.7
국제문제연구소	30	66	2.2	조형연구소	5	207	41.4
심리과학연구소	9	36	4.0	법학연구소	13	293	22.5
사회발전연구소	14	132	9.4	교육종합연구원	18	260	14.4
국토문제연구소	22	126	5.7	교육연구소	15	78	5.2
여성연구소	8	33	4.1	스포츠과학연구소	17	113	6.6
기초과학연구원	38	202	5.3	국어교육연구소	55	58	1.1
유전공학연구소	30	2,388	79.6	생활과학연구소	14	59	4.2
해양연구소	25	231	9.2	수의과학연구소	5	-	-
이론물리학연구소	4	-	-	천연물화학연구소	24	2,593	108.0
미생물연구소	20	108	5.4	종합약학연구소	89	39	0.4
수학연구소	1	95	95.0	동양음악연구소	3	39	13.0
생명공학공동연구원	3		0.0	서양음악연구소	-	28	-
간호과학연구소	19	55	2.9	오페라연구소	33	104	3.2
경영연구소	3	358	119.3	의학연구원	113	1,200	10.6
노사관계연구소	1	213	213.0	암연구소	52	6,468	124.4
경영정보연구소	1	141	141.0	간연구소	6	1,230	205.0
증권·금융연구소	1	291	291.0	치학연구소	67	845	12.6
반도체공동연구소	32	4,010	125.3	보건환경연구소	23	-	-
공학연구소	80	766	9.6	한국행정연구소	4	79	19.8
신소재공동연구소	36	444	12.3	정보통신행정연구소	-	10	-
자동화시스템공동연구소	14	2,608	186.3	환경계획연구소	36	315	8.8
컴퓨터연구소	116	2,215	19.1	계	1,812	42,680	23.6

<표 6.17> 미혼자 기숙사 시설 및 입사인원 현황(2003년 4월 1일 기준)

캠퍼스	기숙사명	건물동수	실수	수용 인원	입사인원			대 상
					남	여	계	
관악	관악사	14	1,494	2,685	1,787	897	2,684	학부 및 대학원생
연건	연건기숙사	3	307	582	376	189	565	의·치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함춘사	1	58	120	4	110	114	간호대 3, 4학년 학부생
	국제회관	1	35	51	15	25	40	외국인 학생
계		19	1,894	3,438	2,182	1,221	3,403	

<표 6.18> 기혼자 기숙사 시설 현황(2003년 4월 1일 기준)

구분	용도	층수	세대수	세대별면적 (평)	동별면적 (평)	비고
A-1	숙소	지상5층	40	15	600	(관리인 1 세대)
A-2	숙소	지상5층	40	15	600	내국인 166 세대
B-1	숙소	지상5층	40	14	560	외국인 33 세대
B-2	숙소	지상5층	40	14	560	
C-1	숙소	지상5층	40	15	600	
연건	숙소	지상9층	17	17	708	연건캠퍼스 교류교수 및 대학원생
계			217		3,628	

나. 교직원주거시설

<표 6.19> 교직원 주거시설(2003년 4월 1일 기준)

구분	대상	주 거 명	실수/세대수	평형
교직원아파트	교직원	교수아파트	60	32
		교직원아파트	60	18
		반포한신아파트	1	25
초빙교수숙소	외국인교수 등	초빙교수아파트	40	9평-10실 18평-30실

현재 교직원들이 주거하고 있는 관악 캠퍼스 후문의 교수아파트 60세대는 교직원 주거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2005년까지 철거할 예정이며, 그 대신 그 부지에 제 1단

계 88세대, 제 2단계 166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건설을 2004년에 착수하였다. 이 2단계 사업은 2006년에 완성될 계획이다. (<표 6.19> 참조)

#### ④ 후생복지시설

##### 가. 식당

본교 내 식당은 운영주체에 따라서 생활협동조합운영과 학교직영으로 구분되며, 그 현황은 <표 6.20>과 같다. 학생정원의 지속적인 증가와 학내시설 이용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식당에 대한 수요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점심시간에 식사를 위해 장시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캠퍼스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생활협동조합은 학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해진 생활요구를 직접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식당의 경우 영양가 높은 식단과 에어컨 설치와 같은 시설 개선을 통해서 복지 기능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회관은 학생생활의 중심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시설이 노후하고 불편하여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2001년 하계방학 기간 중에 전반적인 개보수 공사를 한 바 있지만, 아직도 불충분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 나. 편의시설

관악캠퍼스는 종합화 이주 이후 줄곧 지리적으로 주변지역과 격리되어 있는 탓에 학교 외곽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어 왔다. 그로 인해 일상적으로 필요한 편의시설을 캠퍼스 구내에 갖추는 필요가 다른 어느 대학보다 절실하다고 하겠다. 현재는 생활협동조합을 통해서 문구, 서적, 컴퓨터와 같은 학업 필수품과 의류, 신발, 양품, 안경, 전자제품, 운동구, 시계 등의 생활필수품, 그리고 기념품과 미술재료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복사, 사진, 이발, 미용, 수선, 여행안내, 도장, 약국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표 6.21> 참조) 또한 은행, 우체국과 같은 공공서비스 시설도 갖추고 있어,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충족시키는 데 큰 무리는 없는 실정이다.

### 다. 방문객 주거시설

대학 캠퍼스에는 학생과 교직원뿐만 아니라 각종 업무와 연구 활동을 위해서 장·단 기간 일시 주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방문객들을 위한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표 6.22>와 같다.

<표 6.20> 교내식당 현황 (2003년 4월 1일 기준)

구분	식당명	위치	층별	좌석수	대상	
생활 협동 조합 운영	제 1 식당	학생회관내	지하	320	학 생	
			1층	380	학 생	
			스택	92	학 생	
	제 2 식당	예능관 옆	1층	168	교직원·학생	
			2층	540	학 생	
	제 3 식당	공학관 옆	1층우	236	학 생	
			1층좌	280	학 생	
			2층우	352	학 생	
			2층좌	224	교직원	
	제 4 식당	교육관 옆	1층	230	교직원	
			2층	300	학 생	
	제 5 식당	후생관 내	1층	524	학 생	
	자 하 연	자하연 옆	2층	180	교직원	
			3층	108	교직원	
	간이식당	공학관 옆	1층	120	학 생	
			제1공학관식당	1층	98	학 생
			제2공학관식당	2층	0	학 생
제1공학관식당	제1공학관내	1층	373	학 생		
		2층	124	교직원		
제2공학관식당	제2공학관내	1층	154	학 생		
교수회관	관악캠퍼스	1층	140	교직원		
관악식당	관악캠퍼스	2층	50	교직원, 학생		
함춘당	연건캠퍼스	1층	200	학 생		
상아회관	연건캠퍼스	2층	100	교직원, 학생		
직영	동원관	관악캠퍼스	2층	320	교직원·학생	
			3층	192	교직원	
	호 암 교수회관	관악구 봉천7 239-1	지하1층	210	교직원	
			1-2층	252	교직원	
	금릉	관악캠퍼스	1층	100	교직원	
2층			40	교직원		

<표 6.21> 편의시설 현황(2003년 4월 1일 기준)

구분		면적(m <sup>2</sup> )		
		계	관악캠퍼스	연건캠퍼스
비영리 문화/ 편의시설	휴게실	814.3	657.9	156.4
	탁구장	339.7	339.7	
	음악감상실	248.7	248.7	
	비디오감상실	236.8	236.8	
	바둑실	93.6	93.6	
공공시설	은행	1488.17	1273.66	214.51
	우체국	241.4	96.8	45.5
판매 및 서비스 시설	매점	1102.36	1012.36	90.00
	장신구부	24.55	24.55	
	생화판매소	9.20	9.20	
	사물함보관소	22.08	22.08	
	기념품부	75.60	75.60	
	안경부	24.55	24.55	
	복장부	82.95	82.95	
	가방 및 화장품 부	39.27	39.27	
	전자부	219.61	219.61	
	서적부	637.09	599.44	37.65
	사진부	87.51	87.51	
	운동구부	44.29	44.29	
	운동구부	39.27	39.27	
	양품부	34.40	34.40	
	양화부	69.45	69.45	
	컴퓨터부	76.39	76.39	
	화방	344.63	344.63	
	문방구	99.17	99.17	
	이발소	10.35	10.35	
	도장포	80.51	80.51	
	여행안내소	8.17	8.17	
	양화수선소	41.98	41.98	
	미용실	198.66	170.60	28.06
복사실	73.03	73.03		
세탁소	20.18	20.18		
약국	5.06	5.06		
자동차보험				
계		6932.98	6360.86	572.12

<표 6.22> 방문객주거시설 현황(2003년 4월 1일 기준)

구분	대상	주 거 명	실수/세대수	평형
방문객주거 (호암교수회관)	본교내방객	특실(Royal Sweet Room)	2	35
		특실(Sweet Room)	2	30
		고급객실(Deluxe Room)	30	9
		일반객실(Standard Room)	70	9

### ⑤ 체육시설

#### 가. 운동장

관악캠퍼스는 종합운동장을 비롯하여 6개의 운동장을 갖추고 있으며, 수원캠퍼스와 연건캠퍼스에 각 1개의 운동장이 있다. (<표 6.23> 참조) 운동장들의 총면적은 89,477㎡로서 2004년 1학기 등록생(32,284명)을 기준으로 할 때 학생 1인당 2.77㎡에 해당한다. 이 면적 자체가 그리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축, 증축, 개축되는 건물들로 인해 그나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표 6.23> 운동장 현황(2003년 4월 1일 기준)

구분	명칭	면적(㎡)	주 용 도	부대시설
운동장	종합운동장	26,268	축구, 육상, 농구	화장실, 음수전
	기숙사운동장	7,878	축구, 야구, 육상	
	4식당 뒤 운동장	2,887	농구, 배구	
	종합체육관 앞 운동장	5,430	야구, 축구, 하키	
	R.O.T.C운동장	2,774	R.O.T.C연병장	
	양궁, 골프수업용운동장	1,300	궁도, 골프수업	
	수원캠퍼스 운동장	22,020	축구, 야구, 육상	
	연건캠퍼스 운동장	6,972		
테니스장	파워플랜트 근처	7,037	교직원용 : 8면 학 생 용 : 12면	
	음·미대 후면	4,717		
	공대식당 뒤	2,194		
계		89,477		

#### 나. 실내체육관

관악캠퍼스의 대형 체육관은 1986년 아시안게임 당시 탁구경기장으로 건립되었던



것을 전면 보수하여 1992년 준공되었다. 지상3층, 지하 1층의 연면적 6,175㎡인 이 체육관은 1,800㎡의 경기장에서 탁구, 배드민턴, 배구, 농구, 핸드볼 등 실내경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샤워실, 탈의실, 휴게실 등의 관련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보조 체육관은 체조, 유도, 태권도, 검도 등 실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다.

#### 다. 서울대/포스코스포츠센터

본교 구성원의 스포츠 생활화와 함께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속적인 연구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포항제철에서 건설한 서울대/포스코 스포츠센터는 1999년 7월 착공하여 2001년 2월 준공하였으며, 2001년 7-8월 시범사용기간을 거쳐 9월 1일에 정식으로 개장하였다.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면적 6,179㎡로 체력단련장, 수영장, 스쿼시/라켓볼장, 골프연습장, 다목적 체련장, 탈의실, 샤워장을 갖추고 있다. 각 종목별 전문강사들로부터 강습을 수강할 수 있다. 시설 및 프로그램은 <표 6.24>와 같다.

<표 6.24> 서울대/포스코스포츠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현황(2003년 4월 1일 기준)

구 분	위치	시 설	프로그램
수영장	3층	25m 8개 레인	강습, 자유이용, 수업
체력단련장	2층	조깅트랙 175m, 스트레칭장, 웨이트트레이닝장	전일제, 시간제
	4층	웨이트트레이닝장	
다목적 체련장	1층		재즈댄스, 스텝에어로빅, 댄스스포츠
골프장	1층	타석 7개, 퍼팅장	강습, 자유이용
스쿼시장	지하1층	2코트	강습, 일자유이용
라켓볼장	지하1층	2코트	강습, 일자유이용

### (3) 시설관련 주요 추진사업

#### ① 연구공원 건립

서울대연구공원 조성사업은 본교 부지 내에 기업체 연구소를 비롯한 각종 연구기

관을 집단적으로 입주시켜 대학의 우수한 인적 자원을 기업연구소와 상호 협동 연구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기초과학 및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1991년 최초로 거론되어, 1994년 조성계획이 확정된 이래, 산업체입주연구동, 인큐베이터 및 공동지원시설, 국제백신연구소 등이 호암교수회관 동남쪽 부지 27,357평 일대에 건립되었으며, 현재 SK텔레콤, LG전자 등이 입주해 있다.

<표 6.25> 연구공원 건립현황(2003년말 기준)

구 분	시설규모(평)		층수	입주시설
산업체입주연구동	3,050		지하1층, 지상6층	SK 텔레콤
	2,558.2		지하1층, 지상5층	LG 전자
인큐베이터 및 공동 지원시설	인큐베이터	631.2		
	공동지원시설	5,147.6	지하2층, 지상5층	
국제 백신연구소	4,768.2		지하1층, 지상5층	
파일럿 플랜트	368.8		지하2층, 지상2층	
계	16,524			

## ② 「두뇌한국 21」 대학원전용시설 구축사업

1999년 이후 「두뇌한국 21」 사업의 일환으로 캠퍼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 확충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인 대학원전용시설 구축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원 기숙사 및 주거시설, 대학원교육연구동, 정보화사업, 학·산 공동연구시설, 멀티미디어강의동 등의 시설이 3단계에 걸쳐 캠퍼스 여러 곳에 건립 추진 중이며, 앞으로 창조적 학문연구와 고급 연구인력의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3년 현재 대학원생기숙사(I) 및 외국인·연구원 숙소, 대학원생기숙사(II), 멀티미디어 강의동(I,II)이 완료되었으며, 대학원교육연구동(I, II)건축과 정보화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두뇌한국 21」 대학원전용시설 구축사업의 진행사항은 <표 6.26>과 같다.

<표 6.26> 「두뇌한국 21」 대학원전용시설 구축사업 추진현황(2003년말 기준)

사 업 명	연면적 (㎡)	위치확정	착 공	완 공	비 고	
1단계 (1999~ 2000)	대학원생기숙사(Ⅰ) 및 외국인·연구원 숙소	36,047	'00. 4.	'00.11.	'03.12.	완 료
	대학원생기숙사(Ⅱ)	6,823	'00. 4.	'01. 9.	'02.12.	완 료
	정보화사업	1식	'00. 4.	'00. 5.	'01. 2.	완 료
	멀티미디어 강의동(Ⅰ,Ⅱ)	10,590	'00. 4.	'01. 7.	Ⅰ:'03.4. Ⅱ:'03.8.	완 료
	대학원교육연구동(Ⅰ)	26,430	'00. 4.	'03. 8.	'05. 10. (예정)	공사중
2단계 (2001~ 2003)	대학원생기숙사(Ⅲ)	43,630	'01.12.	'05. 7. (예정)	'06. 2. (예정)	-건축협의 완료예정 : '05년중
	대학원교육연구동(Ⅱ)	52,890	'01.12.	'03.12.	'06. 12. (예정)	공사중
	Pos-Doc. 및 대학원생 가족생활동(Ⅰ)	13,220	'01.12.	'05. 12. (예정)	'06. 2. (예정)	-건축협의 완료예정 : '05년중
	정보화 사업	1식	'01. 8.	'01. 3.	'04. 12 (예정)	- 건축협의 불필요 - 1단계 사업과 연계 정상추진
3단계 (2004~ 2005)	멀티미디어 강의동(Ⅲ)	6,610	'03. 9.	'05. 2. (예정)	'06. 2. (예정)	- 세부조성계획 협의완료 - 건축협의 완료예정 : '04년중
	대학원교육연구동(Ⅲ)	26,440	'03. 9.	'04.8. (예정)	'07. 12. (예정)	- 세부조성계획 협의완료 - 건축협의완료예정:'03.12.
	정보화 사업	1식	'03. 9.	'04. 3. (예정)	'06. 2. (예정)	- 건축협의 불요 - 2단계 사업과 연계 추진예정
	Pos-Doc. 및 대학원생 가족생활동(Ⅱ)	6,610	'03. 9.	'05. 2. (예정)	'06. 2. (예정)	-건축협의 완료예정 : '04년중
	학·산공동연구시설	19,830	'03. 9.	'05. 2. (예정)	'06. 2. (예정)	-건축협의 완료예정 : '04년중
	학·산연구단지중심지원	13,220	'03. 9.	'05. 2. (예정)	'06. 2. (예정)	-건축협의 완료예정 : '04년중
계	262,340					

### ③ 교직원숙소 건립

본교 교직원의 주거안정화를 통한 교육·연구 및 행정 발전 여건 마련을 위해 종전의 교수아파트와 총장공관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교수 및 직원을 위한 교직원숙소(총장공관 포함)의 건립이 진행 중이다. 사업은 총장공관 부지와 교수아파트 부지를 각각 1단계(2004~2005)와 2단계(2005~2006)로 나누어 추진 중에 있으며, 1단계 공사로 2003년 말 총장공관을 철거하였다. 교직원숙소는 공동주택(숙소) 254세대(1단계 88세대, 2단계 166세대), 연면적 32,640㎡(9,874평)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평형별 세대수는 <표 6.27>과 같다.

<표 6.27> 교직원 숙소 평형별 세대수

구 분	전용면적(㎡)	실구성	세대수		
			1단계	2단계	계
전용12평형	39	1LDK	0	60	60
전용18평형	61	2LDK	19	66	85
전용24평형	83	3LDK	69	35	104
전용30평형	99	4LDK	0	5	5
계			88	166	254

\* 공용시설 별도 : 탁아소, 빨래방, 소매점, 공공서재, 라운지

\*\* 1·2·3·4 : 방개수, L : 거실, D : 식당, K : 주방

### (4) 시설 소요

‘서울대학교 캠퍼스부문 장기계획 2002~2006’을 기준으로 각 단과대학(원)별 교육연구시설 소요를 추정하고 2003년 9월 1일 현재 기준으로 달성율을 <표 6.28>에 정리하였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경영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미술대학, 법과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은 100% 달성율을 보이는 반면에, 사범대학과 환경대학원은 지극히 저조한 달성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6.28> 단과대학별 교육연구시설 수요

구분	교육연구시설 현황 (2003.9.1기준)	2006년수요 (전용면적기준)	2006년수요 (공용면적 포함)	추가수요 (공용면적포함)	달성률
<b>관악캠퍼스</b>					
인문대	28,337	22,129	34,045	5,708	83%
사회대	13,751	12,248	18,843	5,092	73%
자연대	69,273	57,104	87,852	18,579	79%
경영대	16,837	6,717	10,334	0	100%
공 대	127,202	85,904	132,160	4,958	96%
농생대	43,563	23,535	36,208	0	100%
미 대	13,036	6,780	10,431	0	100%
법 대	12,593	6,307	9,703	0	100%
사 대	17,231	20,842	32,065	14,834	54%
생활대	6,576	5,585	8,592	2,016	77%
수의대	16,305	6,403	9,851	0	100%
약 대	14,802	7,456	11,471	0	100%
음 대	9,376	7,055	10,854	1,478	86%
행정대학원	5,139	3,753	5,774	635	89%
환경대학원	5,041	5,339	8,214	3,173	61%
국제대학원	6,072	-	-	-	-
<b>연건캠퍼스</b>					
의 대	29,737	39,881	61,355	31,618	48%
치 대	10,931	13,730	21,123	10,192	52%
간호대	7,858	5,147	7,918	60	99%
보건대학원	4,995	5,491	8,448	3,453	59%

\* 연구소의 경우 교육연구시설현황과 2006년 수요산정에서 제외함  
 \*\* 의과대학, 치과대학의 병원면적은 교육연구시설 현황에서 제외함  
 \*\*\* 공용면적은 35%로 설정함

## 2) 시설의 변화

### (1) 신설, 증설된 시설

2002~2003년 사이에 관악캠퍼스와 연건캠퍼스에 새로 준공된 건물은 건수로 16건, 연면적으로 약 128,306㎡, 건축면적으로 약 24,628㎡ 규모이다. (<표 6.29> 참조) 관악 캠퍼스에서는 캠퍼스 내 기존 건물 연면적 713,319㎡의 약16%에 달하는 115,000㎡가 2002~2003년에 건축되었으며, 연건캠퍼스의 기존 건물 연면적 107,733㎡의 약12%에 달하는 13,305㎡ 규모 건물이 개발되었다.

<표 6.29> 2002~2003년 준공된 관악캠퍼스의 신축건물 및 시설 (2003년말 기준)

구분	동수 및 도입건물(시설)명	연면적(m <sup>2</sup> )	건축면적(m <sup>2</sup> )	층수	
관악 캠퍼스	25-1	자연대 강의 및 실험연구동	8,407	1,459	지하1층, 지상6층
	45-1	전파천문대	411	415	지상1층
	943	SK텔레콤연구동	10,074	1,791	지하1층, 지상6층
	942	LG연구동	8,457	1,621	지하1층, 지상5층
	85	수의대	16,568	3,399	지상10층
	200	농생대	47,256	6,088	지하2층, 지상9층
	43-1	이공계 멀티미디어강의동	4,136	1,185	지상4층
	30-2	공대 간이식당	258	258	지상1층
		치대 생체재료연구동	5,333	842	지하1층, 지상6층
		대학원기숙사	18,538	4,009	지하1층, 지상9층
		BK국제관	17,508	2,078	지하1층, 지상12층
		국제 백신연구소	16,982	3,848	지하1층, 지상5층
	83	멀티미디어강의동	6,453	1,723	지상6층
	17	법학연구동	1,870	-	지하1층, 지상6층
		소계	162,251	28,716	
연건 캠퍼스		합춘회관	3,374	487	지하1층, 지상7층
		의대 동물사육장	3,109	576	지하1층, 지상4층
		대학원기숙사(2)	6,822	932	지하1층, 지상9층
		소계	13,305	1,995	
계		175,556	30,711		

## (2) 시설 규모의 변화

농업생명과학대학 및 수의과대학이 관악캠퍼스로 이전한 이후인 2003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관악캠퍼스의 시설 면적 변화를 2년 단위로 살펴보면 <표 6.30>과 같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 2년 사이에 교육기본시설과 연구시설의 증가는 괄목할 만하다. 특히 연구실험실과 연구소의 전체 시설면적은 크게 나아졌다. 반면에 일부 지원시설과 체육시설은 오히려 줄어든 실정이다.

<표 6.30>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시설 면적의 변화(2003년 9월 1일 기준)

(단위 : m<sup>2</sup>)

구분	교육기본 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연면적
	강의실 연구실 행정실	도서관	학생 회관	대학 본부	체육관	강당	전자 계산소	연구 실험실	대학원 연구실	연구소	
1997	290,165	48,014	42,574	9,387	12,519	15,161	7,388	39,868	34,538	69,134	568,748
1999	296,963	48,379	46,494	11,931	13,791	15,323	7,624	62,058	42,492	75,854	620,909
2001	301,614	48,546	55,687	16,454	21,953	18,290	10,935	64,928	43,869	81,721	663,997
2003	322,514	44,381	44,698	15,778	20,886	14,737	5,559	114,342	52,474	95,170	739,539

### (3) 시설 규모 및 활용상의 문제점

녹지공간이 부족한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관악캠퍼스는 풍부한 자연환경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런 만큼 환경보호 및 친환경적 시설 유지라는 사회적 책임감도 가져야 한다. 이와 동시에 학생, 교수, 방문객 등 날로 증가하는 캠퍼스 이용인구의 필요에 충실한 적정 시설을 확보한다는 다소 대립적인 두 원칙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제2, 제3의 새로운 캠퍼스를 확충해 나가지 않는 이상 이 부담은 향후에도 본교 공간 및 시설의 심각한 문제로 계속 남게 될 것이다.

제한된 여건 속에서나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적정 규모와 효율적인 배치 방안을 마련하여 원칙과 비전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공간을 확보하고 시설을 건립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하여 실제 이용도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특히 학생 및 교수의 공간 이동/이용 패턴을 분석하여 활용도를 높여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 7. 행정 및 재정

### 7.1 행정

#### 1) 세계수준의 종합연구대학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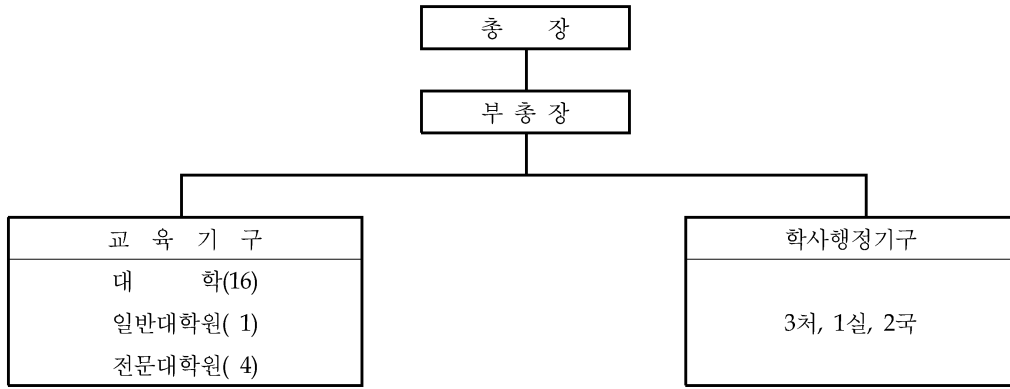
##### (1) 제23대 정운찬 총장 취임과 대학 조직

21세기를 맞이하여 본교는 국내외 여건과 상황의 변화로 인해 사회로부터 더 많은 과제를 부여받고 있으며, 명실 공히 세계적인 대학으로 거듭날 것을 요청 받고 있다. 이에 2002년 7월 20일 제23대 총장으로 취임한 정운찬 총장은 지식기반사회의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본교의 구체적 목표로 '세계수준의 종합연구대학'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세계 수준의 교육과 사회봉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인적, 물적 그리고 제도적 확충 및 쇄신이 필요하다.

2003년 말 현재 본교는 교육조직으로 1개 일반대학원, 16개 단과대학, 4개 전문대학원을 두고 있으며, 행정조직으로 3처 1실 2국과, 지원기관으로 입학관리본부, 대외협력본부, 정보화본부, 중앙도서관 및 기초교육원 등을 두고 있다. <표 7.1>은 본교의 행정 체계를, 그리고 <표 7.2>는 보직자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표 7.1> 본교의 행정 조직



- 인문대학
- 사회과학대학
- 자연과학대학
- 간호대학
- 경영대학
- 공과대학
- 농업생명과학대학
- 미술대학
- 법과대학
- 사범대학
- 생활과학대학
- 수의과대학
- 약학대학
- 음악대학
- 의과대학
- 치과대학
- 대학원
- 보건대학원
- 행정대학원
- 환경대학원
- 국제대학원

- 교 무 처 : 교무과, 학사과
- 학 생 처 : 학생과, 복지과
- 연 구 처 : 연구진흥과, 연구지원과
- 기 획 실 : 기획담당관
- 사 무 국 : 총무과, 재무과, 예산담당관
- 시 설 관 리 국 : 관리과, 시설과, 기술과

<표 7.2> 보직자 현황(2002~2003년)

보 직 명	소 속	성 명	임 기	비 고
총 장		정 운 찬	'02. 7.20 ~ '06. 7.19	직무대리
		이 현 구	'02. 5.10 ~ '02. 7.19	
		이 기 준	'98.11.11 ~ '02. 5. 9	
부총장		정 명 희	'02. 7.23 ~ '04. 7.22	
		이 현 구	'00.11.27 ~ '02. 7.22	
교무처장	통계학과	김 우 철	'02. 7.23 ~ '04. 7.22	
	지리학과	유 우 익	'00.12.29 ~ '02. 7.22	
교무부처장	영어영문학과	변 창 구	'02. 8. 6 ~ '04. 8. 5	
	의 학 과	이 왕 재	'01. 2. 5 ~ '02. 8. 5	
학생처장	국악과	황 준 연	'02. 8. 1 ~ '04. 7.31	
	교육학과	김 기 석	'00.12.29 ~ '02. 7.31	
학생부처장	사회교육과	이 미 나	'02. 8.13 ~ '04. 8.12	
	식물생산과학부	김 기 선	'01. 2. 5 ~ '02. 8.12	
연구처장	전기·컴퓨터공학부	박 종 근	'02. 8. 1 ~ '04. 7.31	
	전기·컴퓨터공학부	이 병 기	'00.12.29 ~ '02. 7.31	
연구부처장	소비자아동학부	여 정 성	'03. 3.25 ~ '05. 3.24	
기획실장	지리학과	유 근 배	'02. 8. 1 ~ '04. 7.31	
	경영학과	박 오 수	'01. 1. 1 ~ '02. 7.31	
기획부실장	건축학과	최 재 필	'03. 3.25 ~ '05. 3.24	
입학관리본부장	경제학부	김 완 진	'02.12. 6 ~ '04.12. 5	
	응용화학부	유 영 제	'01. 9. 1 ~ '02.12. 5	
대외협력본부장	행정학과	노 경 수	'03. 1 1 ~ '04.12.31	
	국제학과	박 태 호	'01. 1. 1 ~ '02.12.31	
학술정보원장	전기·컴퓨터공학부	김 형 주	'03. 6.11 ~ '04.12.31	
	전기·컴퓨터공학부	김 형 주	'03. 1 1 ~ '03. 6.10	
	전기·컴퓨터공학부	고 건	'01.11.24 ~ '02.12.31	
사무국장	사무국	서 남 수	'02. 9.12 ~ '04. 1.29	
	사무국	이 종 서	'01. 1.29 ~ '02. 9.11	
시설관리국장	시설관리국	황 지 현	'99. 9.21 ~ 현재	

직 위	성 명	입 기	비 고
교무과장	김춘기	'02. 7.26 ~ 현재	
	허현욱	'01. 7.23 ~ '02. 7.25	
학사과장	한성우	'01. 9. 1 ~ 현재	
학생과장	강완수	'02. 2. 1 ~ 현재	
	소형석	'00. 9. 8 ~ '02. 1.31	
복지과장	소형석	'02. 2. 1 ~ 현재	
	강완수	'01. 9. 1 ~ '02. 1.31	
연구진흥과장	승용배	'03. 1. 1 ~ 현재	
연구지원과장	정병걸	'03.12.15 ~ 현재	
	김영준	'03. 6.24 ~ '03.12. 3	
	공병영	'02. 2. 1 ~ '03. 6.23	
	주남창	'00. 9. 8 ~ '02. 1.20	
기획담당관	성삼제	'03.12.15 ~ 현재	
	최진명	'03. 3. 1 ~ '03.12. 3	
	김찬기	'00. 7.11 ~ '03. 1.13	
총무과장	조신행	'03. 5.28 ~ '04. 6.30	
	류상번	'01. 1.29 ~ '03. 5. 5	
재무과장	전용환	'01. 9. 1 ~ '04. 6.30	
예산담당관	허현욱	'02. 7.26 ~ 현재	
	이재희	'98. 1. 1 ~ '02. 7.23	
관리과장	정병술	'02. 7.26 ~ 현재	직무대리
	손윤락	'02. 6.26 ~ '02. 7.25	
	전권수	'01. 3.19 ~ '02. 6.20	
시설과장	정재성	'02.11.19 ~ 현재	
	김기남	'01. 1.31 ~ '02.11.17	
기술과장	마영일	'02.11.19 ~ 현재	
	허신경	'01. 1.31 ~ '02.11.15	

## (2) 제3차 서울대학교장기발전계획 수립

본교는 그간 '서울대학교 종합화 10개년 계획(1968-1977)', '제1차 장기발전계획(1977-1986)', '제2차 장기발전계획(1987-2001)'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장기발전계획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2002년부터 적용될 새 장기발전계획이 2001년말 까지 공표되어야

했었다. 그러나 장기발전계획을 준비하기 위하여 다양한 여론수렴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던 중, 2002년 5월 전임 이기준 총장이 사임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새 발전계획의 공표는 부득이 표류하게 되었다. 결국 '제3차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2002~2011)'은 전임 집행부 안에 대한 최소한의 수정을 거쳐 공표되었다.

제3차 계획에는 한국 사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인재들을 양성·배출하고 세계적 학문공동체를 이끌어갈 학자들을 지원하는 각종 정책들이 기획·망라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본교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 개의 장이 할애되었다. 즉 정부와의 관계설정에서 국립대학인 본교가 추구해야 할 자율과 지지의 규범적 의미를 강조하고 또 확실히 하였다. 또한 21세기의 열린 정보를 기반으로 지식강국이 되기 위한 경쟁 속에서 본교가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월성 저해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경쟁 수행역량을 꾸준히 강화하며, 학문공동체적 교육적 논리가 어우러진 실천 가능한 전략들을 제시하였다. 제3차 계획은 전체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대학의 체제

- 대학의 법적 지위로서 헌법 제22조 제1항과 제31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와 대학 제도 및 대학의 자율성 보장에 비추어 볼 때, 본교는 대학인사의 자율화, 학생선발의 자율화, 대학재정의 자율화와 같은 기본원리에 의해 미래지향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국립대학과 국가의 관계에서 국가는 국가의 비용으로 대학을 설립하고, 국립대학이 대학의 본질과 원래의 기능에 합당하게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운영체제(Governance Structure)의 개선방안으로 총장의 대학운영 자율권 고양, 서울대학교정책심의회(가칭) 설치, 명실상부한 교수의회(가칭) 설치와 운영, 총장과 학(원)장의 선임방식 개선과 학장회 개편, 행정 권한과 사무의 분권화 및 분산 등을 제시하였다.
- 행정조직과 관련하여 학사업무를 하위 기관으로 이양 또는 위임하고, 단위기관의 의사결정권을 지금 보다 대폭 강화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 총장, 부총장 및 처·실·국장으로 구성된 조직은 일종의 집행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며 그 명칭은 "학사운영부"라 부르고, 학사운영부 구성원의 사무실 건물은 "대학행정센터"라고 하며, 정책회의의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크로 된 연구팀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교수의회에는 의회 사무처와 의장 비서실, 각 분과위원회의 지원실, 연구·분석실 등이 설치되어야 하고, 대학의 업무를 학사운영 및 내부관리 업무와 대외사업 업무로 2분하여 2명의 부총장을 두는 것을 검토하여야 하며, 연구처를 강화하여 그 산하에 앞으로 설립될 기술이전전담법인 등

을 두는 등 연구대학(research university)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 2. 교수의 임용 및 활동보장

- 전임교수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재임용제도의 강화, 교내 겸임교수의 확대, 교수의 신분관리 강화, 조기 자원퇴임 제도의 부활, 여성교수 할당제 등을 제시하였다.
- 초빙교수제도의 개선방안과 석좌교수제도의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 교수신규임용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으로 대학(원)별 상시 채용제도의 실시, 특별채용제도의 활용, 종합 평가적 심사의 강화, 동일대학 동일학과 출신자의 임용 제한의 완화 등을, 그리고 재임용, 승진 및 정년보장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으로 재임용은 계약제로 전환, 재계약 탈락자에 대한 다양한 현실적 배려, 승진 및 정년보장제도의 운용에 유연성 부여, 임용관련 이의제기 담당기구의 설치 등을, 교수정원 배정방식의 개선방안으로 교수정원 산출기준의 다양화, 최소정원 확보율의 설정, 교수정원배정의 기본단위를 학과 등의 하위단위로 변경 등을 제시하였다.
- 교수평가제도와 관련하여 교수 평가의 관리 체계 확립, 업적 평가에서 업무 평가로 전환하며, 계량화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업무평가를 도모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며, 대학의 특성, 교수 개인 업무의 특성, 사용목적(예; 승진, 재임용, 성과급 지급 등)에 따라 평가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함을 강조하였다.

## 3. 교수의 복지

- 교수 처우 개선방안으로 기본급 인상을 위한 장기 계획 수립, 교수처우개선기금의 설치, 연구비에서 연구책임자의 연구수당 지급 제도 마련,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금 제도의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 주거복지를 위한 단기대책으로 주거보조기금을 설립하며, 장기대책으로는 교수아파트의 매입, 건설 및 증축 등을, 그리고 교직원 진료권 개선방안으로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보강하기 위한 별도의 의료보장제도 실시 및 보조금 지급, 서울대학교병원 진료 시 혜택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 여성 교수 및 인력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관악·연건 캠퍼스에 어린이집 확장 및 신설, 여성전용 복지·후생 및 편의시설의 확충 등을 제시하였다.

## 4. 연구활동 및 지원체계

- 연구정책 개선방안으로 연구행정업무의 분권화, 기초·응용 학제간 산학연구의 적극적 지원, 연구안식년 제도의 개선, 국제 공동연구의 활성화, 연구자의 의무규정 보완, 연구결과에 대한 공표 의무의 부과, 연구결과에 대한 권리를 대학이 적극 관리·보호, 대학연구관리재단의 설립 등을 제시하였다.
- 연구자원 개선방안으로는 교수정원 증원과 권위 있는 연구자 유치, 연구교수제도의 개선, 교수의 연구방향 전환 및 재충전을 적극 지원, 연구원과 대학원생의 연구 및 생활 조건의 개선, 공공기

관 지원 연구비, 산학연구비와 서울대학교 자체 연구비의 발굴 조성 등을 제시하였다.

- 연구시설 및 정보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도서관은 기본장서와 최신정보를 동시에 갖추도록 하며, 연구소 및 연구지원센터를 적극 지원하고, 대학은 2개 이상의 대학(원)이 요구하는 공동연구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며, 정보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표준화된 정보교류 방식을 채택할 것을 강조하였다.
- 연구업적 개선방안으로 연구의 수월성 추구, 연구결과의 응용 및 적극적 홍보 등을 제시하였다.

#### 5. 학사의 구조 및 운영

- 대학편제 개선방안으로 치과대학의 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 법과대학 및 의과대학을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여건 조성, 경영대학은 당분간 경영학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되 MBA 교육과정의 개설 추진, 그리고 사회적 요구와 제반 교육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원의 신설 및 개편이 보다 유연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학사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교양교육의 개선방안으로 새로운 교과목의 개발, 이수체계의 개선, 상이한 층위에 따른 교양과목 운영, 1학년 학사지도 내실화 등을 들었고, 전공교육의 개선방안으로 모집단위 광역화는 각 분과 학문의 특성을 살리고 학생관리와 학사지도의 측면에서 관리 가능한 크기로 한정하며, 전공탐색과목의 다양화, 전공이수모형의 제시, 학생이 설계하는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 전공선택 시기 및 방식의 다양화, 학문의 균형적 발전 도모 등을 제시하였다.
- 대학원과정 운영 개선방안으로 전공 정원 및 박사 배출 인원의 유동적 조절, 사회적 지원이 적은 학문 분야에 대한 대학 차원의 지원, 대학원의 개방화 및 세계화, 대학원 학사제도 유연성 확보, 학문 후속 세대의 양성을 위한 지원 확대, 대학원생의 복지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 6. 학사과정 학생선발 및 자치활동

- 학생선발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정부는 학생선발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학생선발 권한을 대학에 위임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 학생의 자치활동 개선방안으로 전시용, 공연용 기자재의 구입, 관리는 대학이 담당하고, 학생은 대여하여 사용하는 체계의 구축, 대학신문의 취재기능 강화와 속도성 보완, 포털 사이트의 구축, 교내 인터넷 방송국 설립, 종합체육대회 등 비중이 큰 행사에서의 출석 인정과 인력 보강, 캠퍼스 인접구역에 본교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가칭 '서울대학교 문화센터' 건립 등을 제시하였다.
- 학생의 복지 개선방안으로 취업 및 진로 상담소 개설, 기숙사 건축 및 설비 개선, 장학금확충 및 생활형편 곤란자 위주의 장학금 지급제도 실시, 24시간 편의점 유치와 배식 현황 중계 모니터 설치, 학생 수련시설 증설 등을 제시하였다.

#### 7. 대학자원의 활용

- 대학재정 개선방안으로 장기적인 전략 하에 정부의 재정지원을 추구하고, 정부기관 및 민간 부문으로

부터의 지원확보를 통한 연구비 확충, 기존 수익사업의 운영개선, 새로운 수익사업의 개발, 자산 관리를 외부 전문가에게 책임경영제로 위탁, 발전기금의 수익사업을 생활협동조합, 호암생활관 등 여타 수익사업과 통합, 사회적 수요가 많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등록금 차별적 인상, 무이자 대학채권의 발행과 등록금 예치제의 실시 검토 등을 제시하였다.

- 재정운용시스템의 개선방안으로는 예산회계법의 적용에서 독립되는 회계제도 개선,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장기적 재원지원 계획을 정부로부터 확보, 총액예산제 시행 및 총장의 자율적인 예산편성권과 예산전용권을 확보, 교육사업 등의 각종 수익사업으로부터 창출되는 이익이 본교의 연구 및 교육활동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수익사업의 운영을 위한 독립법인 설립 등을 제시하였다.
- 대학시설 개선방안으로는 장기적인 학사계획에 기반을 둔 캠퍼스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의 건립부터 유지, 관리체계를 과학화하며, 2011년까지 교지면적을 학생 1인당 70㎡ 수준으로 확충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향후 50ha 정도의 교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기존 교육·연구 시설의 단계적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정보화와 멀티미디어의 기능을 가진 강의실 확충, e-캠퍼스 조성, 쾌적한 캠퍼스를 위하여 보행 및 주차제도 개선, 시설, 토지 등을 D/B화하여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도입, 본교 캠퍼스와 주변지역을 문화적, 공간적으로 통합한 대학촌 조성, 부설 초·중·고등학교를 관악캠퍼스 주위로 이전, 외국인인을 위한 주거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합리적인 공간 배정 및 관리체제 확립 등을 제시하였다.
-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통일 한국을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신 캠퍼스 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행정인력 및 기술인력 자원의 개선방안으로 다양한 보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수교육이수 평점 부과, 직원 처우개선 발전기금 설립, 포상제와 성과급(인센티브)제도의 강화, 직능별 인사배치와 업무량 평가제에 따른 인사 배치, 겸무제도 개발과 보직관리 예고제 실시, 자원봉사자 활용, 관할 지역 행정기관과의 원활한 관계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 8. 국제화

- 국제화 개선방안으로 국제화와 대외교류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며, 전문직원 충원 등 대외협력본부의 지속적 확대, 세계 우수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 체결 확대, 영어로 하는 강좌의 수를 대폭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 연구처는 기존의 지원활동 확대와 동시에 교수업적의 영어번역 지원,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을 추진, 국제지역원, 미국학연구소 등 지역학 관련 연구소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학제간 협력연구와 정보의 교류를 적극 추진, 외국인 교수를 점차 확대하여 채용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점차 증가시키도록 추진한다.
- 외국인 숙소의 조속한 완공과 탁아소, 통신시설, 매점, 식당 등 부대 편의시설의 확충, 각종 웹사이트 개선, 외국대학 도서관과의 교류업무 강화, 캠퍼스 전산망의 국제연결 능력 확대, 원격화상

회의 및 강의 시설 확충 등으로 정보의 전 세계적 교환이 용이한 환경 구축, 교수의 6개월 이상 해외파견을 획기적으로 확대, 학생교환 프로그램을 대폭 증강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 (3) 운영체제 개선에 따른 학칙 및 총장후보 추천에 관한 규정 등 개정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구성원들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며, 총장의 지도력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학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2003년 8월 23일에 공표하였다. 학칙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평의회를 심의기구에서 심의·의결기구로 그 기능을 강화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 평의회 기능을 아래와 같이 강화함(제42조)

- 평의회를 심의기구에서 의결기구로 그 기능을 강화함(제1항)
- 아래 사항을 평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함(제9항)
  - 교육 및 학사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대학(원) 또는 부속시설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 학부, 학과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 교원인사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 아래 사항을 평의회의 심의사항으로 함(제10항)
  - 학칙 및 기타 중요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예산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총장후보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항
  - 기타 총장, 의장, 또는 평의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대학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평의원 수를 40인 이내에서 50인 이상 100인 이내로 늘림(제2항)
- 학외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평의원 수를 1/2이내에서 1/4 이내로 축소함(제2항)
- 주요 보직교수는 평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함(제2항)
- 평의회의 정기회를 매학기 1회에서 매학기 2회 집회되는 것으로 함(제6항)
- 평의회가 의결한 안건에 대한 총장의 재의요구와 재의요구한 안건에 대한 평의회의 재의결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8항)
-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함(제12항)



- 제1장 총칙에 규정된 총장 및 부총장에 대한 내용을 제2장 조직으로 옮김(제11조의 2, 제11조의 3)
- 당연직 기획위원에 기획부실장을 추가하고, 당연직 재정위원에 연구처장과 기획부실장을 추가함(제34조, 제35조)

한편 총장후보추천에관한규정을 개정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총장후보추천에관한규정 개정(안)
  - 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평의위원회가 선임하도록 함(제4조)
  - 총장후보대상자에 대한 기표방법을 단기명으로 함(제12조 제2항)
- 총장후보추천에관한규정시행세칙 개정(안)
  - 총장후보추천에관한규정시행세칙에서 “연구소 등의 위원선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2조)

#### (4) 평의위원회 운영

평의위원회를 심의기구에서 심의·의결기구로 그 기능을 강화한 학칙 개정에 따라 제8기 평의위원회를 2003년 11월 3일에 학내인사 52명, 학외인사 13명 등 전체 65명으로 구성하였다.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평의위원회 산하에 학내위원 20명, 학외위원 2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행정관 2층에 의장실과 사무실을 두고 사무직원(기능직 1명)을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 2) 대학행정 제도개선

본교는 이제 세계적인 종합연구대학이라는 발전방향에 걸 맞는 합리적 대학행정을 실시해야 한다. 2003년 12월 현재, 행정조직으로 6개의 처·실·국이 있으며, 지원시설로는 입학관리본부, 대외협력본부, 정보화본부(03. 6. 11 “학술정보원”에서 명칭변경), 중앙도서관, 기초교육원 등이 있다.

또한 심의기구였던 평의위원회를 국내 최초로 심의·의결기구로 그 권한 및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심의기구로는 학장회, 기획위원회, 재정위원회, 대학원위원회, 대학인사위원회, 기초교육위원회, 학사운영위원회, 연구위원회, 정보화위원회 등을 두었다.

그리고 과(담당관)가 16개, 대학행정실이 15개가 있으며, 과중한 업무의 효율적 처

리를 위하여 '03. 3. 25 처·실에 연구부처장 및 기획부실장 직위를 다시 설치하였다.

이러한 개편은 21세기의 대학이 갖는 교육 및 연구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며, 앞으로도 교육 및 연구지원 업무조직의 활성화를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이 계속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1) 부속시설 평가

서울대학교 학칙에 매 2년마다 부속시설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부속시설에 대한 평가는 2001년에 교무처 주관으로 처음 실시되었다. 그 후 2차로 2003년에는 기획실 주관으로 실시되었는데, 이는 각 기관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효율적 운영을 진작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부속시설의 기능과 역할정립 및 학칙등재 여부를 결정하고 행·재정 지원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03년 부속시설 평가대상은 30개 부속시설이었으며, 평가기간은 2003년 7월부터 8월까지이며 11명의 본교 교수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해 이루어졌다. 평가결과를 보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언어교육원, 교육행정연수원, 동물병원, 농업과학공공기기센터, 기초과학교육연구공동기기원, 어린이집 등 6개 기관에 총 1억5천만원이 지원되었다. 그러나 C 등급을 받은 다음 4개 기관의 경우, 국제지역원은 학칙등재 삭제,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은 학칙 등재 삭제 검토 중, 그리고 실험동물사육장과, 기록관의 경우 실험실습에 필요한 필수시설 및 관계법령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므로 존치하되 앞으로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였다.

### (2) 단순업무의 민간위탁

건물의 청소, 방호 등 단순 업무를 민간용역으로 전환하면 인력관리에 따르는 부담을 경감하고, 정규직원의 노령화, 퇴직금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외부용역의 활용은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수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닌다.

민간용역은 단계적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전화·통신 분야, 전기·기계·설비분야

를 시초로 청소업무로 확대되었고, 1998년 이후로는 경비(방호)까지 전면 확대되었으며, 향후 보다 전문화된 영역까지 용역화하여 고가 기기의 유지관리도 이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2~2003년에 추진된 민간위탁은 주로 청소 및 경비업무로서 실적은 <표 7.3>과 같다.

<표 7.3> 용역 실적(2002~2003년)

용역대상	기간
관악캠퍼스(인문대의 20개 기관)	2002. 1. 1
연건캠퍼스(의대의 5개 기관)	~
수원캠퍼스(농생대의 1개 기관)	2002.12.31
관악캠퍼스(인문대의 22개 기관)	2003. 1. 1
연건캠퍼스(의대의 5개 기관)	~
※ 수원캠퍼스 관악 이전으로 삭제	2003.12.31

### (3) 행정인력의 자질향상 및 사기 진작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하고 연구 및 교육지원을 위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직원의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표 7.4>와 같이 국내 민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전체 직원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표 7.5>와 같은 다양한 직무별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표 7.6>과 같이 장단기 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대학원 교육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아울러 직원들의 사기를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개인별 다면평가제와 조직단위별 평가를 통해서 우수 직원 및 부서를 선발 포상하였다.

<표 7.4> 교직원 국내 위탁교육 실시 현황(2003년)

구분	위탁실시기관	기간	인원
친절교육(상반기)	아시아나항공	1박2일	940명
조직활성화교육(하반기)	현대인재개발원	1박2일	948명
계			1,888명

<표 7.5> 직렬별 연수기관 위탁 전문교육 현황

구 분	2002	2003
직무분야	141	180
외국어분야	276	292
계	417	472

<표 7.6> 직원의 해외연수 실적

구 분	단기연수 (10일이하)	장기연수 (2-6개월과정)	연수 참여인원
2002	32	2	34
2003	33	4	37

### 3) 대학행정의 정보화 추진

#### (1) 정보화 비전과 목표

서울대학교 정보화의 궁극적 목표는 유능한 인재양성 및 세계 선진 수준의 학술연구를 지원하는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본교가 세계 수준의 종합연구대학으로 발전하는데 견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첫째는 캠퍼스 내 언제 어디서나 정보접근이 가능한 e-Campus 기반 구현이다. 캠퍼스 내의 모든 강의실, 연구실 및 사무실을 캠퍼스망에 접속하고, 실외지역의 경우도 무선랜을 활용하여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는 세계 수준의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연구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도서관이 원문(full-text) 콘텐츠를 확보하여야 한다. 전자도서관, 강의지원시스템 및 학사행정시스템이 상호 연계되어 언제 어디서나 강의와 학습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대학의 전자행정 구현이다. 이미 운영 중인 전자결재와 전자문서 유통을 보편화시키고 이어 행정정보시스템을 e-business 개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 (2) 정보화 현황

### ① 정보기반 구축

#### 가. 차세대 슈퍼컴퓨터 도입

2000년 11월에 설치된 기존의 슈퍼컴퓨터가 학내 및 전국 대학 연구진들에게 초기에는 고성능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나, 기초과학 및 사회과학분야 등에서 빠른 계산능력, 충분한 정보처리와 저장용량을 가진 고성능컴퓨터 서비스 요구가 증대하고 기존 슈퍼컴퓨터 성능이 저하됨에 따라 학내 연구자들이 비싼 요금을 지불하면서 KISTI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전환하고 있어 지원책이 제기됨에 따라 2004년 3월부터 차세대 슈퍼컴퓨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나. 초고속 캠퍼스전산망

2001년 9월부터는 기존 ATM망에서 초고속의 Gigabit 백본망으로 전환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이는 멀티미디어, 화상회의 등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며, 향후 5~10년간 의 네트워크 기술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으로 설계되었다. 또한 50여개의 주요 회의실 및 강의실에 무선 랜(자체망 : AP 150개)설치와 함께 유동 인구가 많은 실외지역 8개소에 안테나를 설치하여 도서관 등 주요 건물 외부에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고 있다.

### ② 행정 정보화

#### 가. 포털시스템

본교는 1998년 12월에 학내 모든 구성원간의 정보공유 및 정보유통을 지원하고, 행정업무와도 통합되어 학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광장이라는 종합정보화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하였으며, IT 신기술 반영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서울대학교 포털 시스템으로 새롭게 개발되어 2003년 11월에 학내 구성원에게 서비스하게 되었다. 이것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웹 기반 인터페이스로 학내 정보유통 문화를 한 차원 높게 선도하고 있으며, 주요 구성 항목은 웹 메일, 게시판, 전자결제, 학사행정, 개인일정, 조직도, 계정관리, 도서관 등으로 되어 있다.

## 나. 통합행정정보시스템

학사행정관리, 일반행정관리, 교육·연구지원관리 업무 중 본부 행정부서와 교육기관, 연구시설, 부속시설 등에서 행해지는 행정업무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적으로는 관악캠퍼스와 수원캠퍼스, 연건캠퍼스를 포함한다. 1999년 초기 구축 이후 사용자 요구 사항 및 제도개선에 따른 통합행정정보시스템 수정 보완이 매년 반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각 부서별 행정정보화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 <표 7.7>과 같다.

<표 7.7> 각 부서별 행정정보화 현황

부 서 명	주 요 업 무
교 무 과	논문제출자격시험관리, 교원인사관리, 교과목관리, 학사일정관리, 학위관리, 교수업적관리, 시간강사관리 등
학 사 과	학적관리, 졸업, 증명관리, 성적관리, 수업관리, 수강관리, 수강관리, 수업통계관리, 성적분석, 통계관리, 계절수업관리, 강의평가관리, 대외학사관리, 공개강좌관리, 부/복수전공관리, 통합과정생관리, 학사행정공통관리 등
학 생 과	학생병사관리, 학생증발급, 학사안내, 학생지도관리, 학생회비관리, 기숙사생관리
복 지 과	학생의료비관리, 장학금관리, 부직알선관리
연구지원과	연구사업별관리, 대학발전기금연구비, 연구비통계, 센터관리 학술연구용품수입대행, 연구/실험실습기자재관리
기획담당관실	국내·외국대학간의 교류, 관계기관 연락망 구축
총 무 과	인사관리, 예비군업무관리, 민방위관리, 전문요원관리
재 무 과	급여관리, 수입대체경비관리, 등록금수납관리, 퇴직금관리, 강사료관리, 물품관리
예산담당관실	예산관리
관 리 과	주차관리, 소방관리
보건진료소	재학생집단검진, 신입생건강진단
입학관리본부	입학관리

## 다. 전자문서시스템

본교는 1999년부터 전자결재시스템을 서비스하여 2001년에는 문서편집기를 '흔글 97'로 바꾸어 이용 편의를 개선하였다. 2004년 1월 사무관리규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표준의 전자문서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새로 구축된 전자문서시스템은 문서의 생성, 유통, 보존, 폐기의 전 과정을 전자화하여 사무를 간소화, 표준화, 과학화, 정보화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웹 메일과 연계하여 원활한 학내 유통을 지원하게 되었고 전자문서 유통센터와 연계를 추진하여 학외 문서 유통 역시 온라인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향후 방대하고 다양한 형식의 문서를 보관,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료관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명실 공히 전 공문서 전 과정을 전자화해야 할 것이다.

## 라. 대학 홈페이지 운영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대표 홈페이지는 국내·외적으로 학교 홍보 및 소개의 관문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좀 더 편리하고 쉬운 사용 및 많은 이용자를 처리하기 위한 성능 향상을 위하여 2002년 3월 재개발하여 현 시스템으로 개편 운영하고 있다. 추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계획 추진 중이다.

## 마. 인터넷 검색대 운영

기존의 키오스크 형태의 단말기로 이용한 것을 새 시스템방식인 CNS(Campus Network Solution)의 인터넷 검색용 일체형 PC를 운영하고자 대학과 기업 간의 상호 교류를 위한 산학협동차원에서 2003년 2월부터 무료로 장비를 제공받아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PC를 8개 기관에 총 16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장애학생들을 위한 인터넷 검색대도 전산원 1층 로비에 6대를 설치하여 이용자들에게 편리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4) 서울대학교기록관 운영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대학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1년 5월 서울대학교기록관이 설립되었다. 이는 종래의 대학기록관리실에 행정자료실 기능을 통합하여 확대 개편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주요기능은 영구 보존 문서의 관리, 비영구 보존 문서의 이관 및 보존, 소장 기록물의 열람, 연구 및 감행과 개인기록의 수증, 대학기록물관리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교육, 그리고 행정자료관리 및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등이다. 2002년에 제2회 대학역사전, 2003년에 제3회 대학역사전 개최 등을 실시했지만 아직 활동이 왕성하지 못한 실정이다.

### 5)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선정

개교기념일(10월 15일) 행사의 일환으로, 후진과 동문의 귀감이 되는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을 선정하여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한 사업으로 1991년부터 2003년까지 13회에 걸쳐 28명을 선정하였다. 선정분야는 학문적 업적과 사회봉사 분야로서 2002년은 대한민국학술원회장 이호왕,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 총동창회장 박맹호, BOAO포럼이사회 이사 손길승씨가, 그리고 2003년은 경원대학교총장 이길여, 호암미술관장 홍라희씨가 각각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선정되었다.

### 6)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관련 대책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첫째, 정문 앞 고속도로 I.C와 고가 설치가 될 경우 본교의 이미지 저해와 정문일대 교통정체가 심각해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둘째, 관악산과 우면산을 6차선 터널로 10.3km 관통하게 되며, 전체 신설도로 구간 27km중 I.C 부분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구간이 터널 또는 지하도로로 계획되어 있어 시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셋째, 정문 앞 학교부지 및 낙성대 인근 부설학교 이전부지 통과로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학내·외 대책위원회 활동 강화가 필요하며, 건설반대 캠페인 등 행동을 통한 적극적 운동이 전개되어야 하고, 언론보도 등을 통한 지속



적인 여론 환기가 필요하며, 공사중지 가치분 소송 및 국회청원 등을 통한 도로건설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 7.2 재정

### 1) 대학재정의 개관

본교의 재정은 크게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로 나뉜다. 일반회계에서 대학이 징수한 세입은 국고로 귀속되며, 세출은 국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별도로 결정된다. 이런 이유로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그 차액은 국고보조금의 성격을 갖게 된다. 한편 기성회회계는 대학이 징수한 세입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회계이며, 따라서 세입액과 세출액은 서로 일치한다. 대학재정의 현황 및 운영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이들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의 세입과 세출을 검토해야 한다.

#### (1) 세입예산 현황

본교의 총예산은 2001년에 처음으로 3,000억원을 넘어선 이후 2003년에는 3,711억원이었다. 이 중에서 국고지원액은 약 1,908억원으로 전체의 51.4%를 차지하였는데, 2001년부터 2002년, 2003년에 전체 예산 중 국고지원 비율이 각각 55.2%, 53.3%, 51.4%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2003년 일반회계의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과 기성회회계의 회비수입을 합한 총 등록금 수입은 1,196억원 정도로 전체의 32.2%였으며, 그 외에 기타수입, 이월금 등이 있다. 이처럼 전체 세입예산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3.1%에서 2001년 32.0%로 약간 감소하였고 그 후 2002년에는 33.1%, 2003년에는 32.2%에 달했다. 그러나 기성회비의 비율을 보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각각 27.7%, 26.9%, 28.4%, 28.0%로 학생들이 납부하는 기성회비가 조금씩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세입예산 구조를 보면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의 구성비가 2002년 59.3 : 40.7, 2003년 56.8 : 43.2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0년 61.8 : 38.2나 2001년 61.4 : 38.6

에 비해 최근 들면서 일반회계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기성회회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8> 참조)

<표 7.8> 본교 세입예산 현황(2000~2003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총 계	266,767(100.0)	301,543(100.0)	327,075(100.0)	371,090(100.0)
일반회계	164,867(61.8)	185,062(61.4)	193,966(59.3)	210,869(56.8)
국고부담	147,179(55.2)	166,361(55.2)	174,234(53.3)	190,829(51.4)
입학금 및 수업료	14,358(5.4)	15,280(5.1)	15,532(4.7)	15,716(4.2)
기타수입	3,330(1.2)	3,421(1.1)	4,200(1.3)	4,324(1.2)
기성회회계	101,900(38.2)	116,481(38.6)	133,109(40.7)	160,221(43.2)
회비	73,981(27.7)	80,995(26.9)	92,861(28.4)	103,888(28.0)
이월금	6,493(2.4)	12,498(4.1)	11,510(3.5)	21,139(5.7)
국고보조금	7,418(2.8)	6,393(2.1)	7,288(2.2)	7,490(2.0)
잠수입	14,008(5.3)	16,595(5.5)	21,450(6.6)	27,704(7.5)

주 : 결산액 기준임

## (2) 세출예산 현황

최근 4년 간 본교 총세출 규모를 보면 2000년 2,538억원, 2001년 2,897억원, 2002년 3,060억원, 2003년 3,479억원으로 그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표 7.9> 참조) 총세출 규모를 전년 대비로 보면, 2002년은 6%증가, 2003년은 14%증가로 나타난다. 또 총세출에 대한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의 구성비율은 일반회계의 구성비가 2000년 65.0%, 2001년 63.9%, 2002년 63.4%, 2003년 60.6%로 나타났다. 그리고 총세출액 가운데 기성회 회계의 비중은 2002년에는 36.6%, 2003년에는 39.4%로 약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학생납입금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2년과 2003년 총세출에서 학생납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5.4%, 34.4%에 이르고 있다. (<표 7.10> 참조)

<표 7.9> 본교 총세출 규모(2000~2003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총 계	253,770(100.0)	289,674(100.0)	306,047(100.0)	347,904(100.0)
일반회계	164,867(65.0)	185,062(63.9)	193,966(63.4)	210,869(60.6)
기성회 회계	88,903(35.0)	104,612(36.1)	112,081(36.6)	137,035(39.4)

주 : 결산액 기준임

<표 7.10> 학생납입금의 의존도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총세출액 (A)	253,770	289,674	306,047	347,904
학생납입금 (B)	88,339	96,275	108,393	119,604
일반회계	14,358	15,280	15,532	15,716
기성회 회계	73,981	80,995	92,861	103,888
B/A (%)	34.8	33.2	35.4	34.4

주 : 결산액 기준임

## 2) 일반회계

### (1) 세입결산 현황

2002년의 일반회계 세입실적(수입액)은 197억 원 정도로 당초 예산보다 12억 원 정도 증가하였다. 과목별 구성비는 입학금 및 수수료가 78.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2001년의 일반회계 세입실적(수입액)도 200억 원 정도에 달했다. 이 해에도 입학금 및 수수료 수입이 전체의 7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2002년과 2003년 일반회계 세입을 비교해 보면, 총수입액 규모는 2003년이 2002년에 비해 약 3억원 증가하였다. 이는 과목별 구성에서 2003년이 전년에 비해 입학금 및 수수료 수입이 약 2억 더 증가했기 때문이다. (<표 7.11>, <표 7.12> 참조)

<표 7.11> 2002년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과 목	세입예산액	수입액	구성비 (%)
합 계	18,504,966	19,731,732	100.0
재산수입	288,750	306,897	1.6
경상이전수입	110	26,955	0.1
입학금 및 수수료	15,426,211	15,531,950	78.7
실습수입	295,591	233,244	1.2
수입대체경비	2,041,250	2,027,103	10.3
기 타	453,084	1,605,583	8.1

<표 7.12> 2003년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과 목	세입예산액	수입액	구성비 (%)
합 계	19,040,514	20,040,058	100.0
재산수입	329,572	312,274	1.5
경상이전수입	71,495	41,706	0.2
입학금 및 수업료	15,449,813	15,715,995	78.4
실습수입	306,677	253,306	1.3
수입대체경비	2,020,951	2,176,801	10.9
기타	862,006	1,539,976	7.7

## (2)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

2002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지출액)은 총 1,940억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12억원 정도 감소하였다. 세출결산 규모와 세입결산 규모의 차이는 국고보조금에 기인한다. 세출 결산액(지출액)의 구성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58.3%, 운영비 등이 31.4%, 학교시설비가 9.4%를 차지하고 있다. 2002년 일반회계에서는 불용액이 11억 원 정도 발생하였다. (<표 7.13> 참조)

2003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지출액)은 2002년에 비해 169억원 정도 증가한 2,109억원으로서 당초 예산과는 28억원 정도 감소하였다. 세출 결산액(지출액)의 구성비는 예년과 비슷해서, 인건비가 59.6%, 운영비 등이 31.9%, 학교시설비가 7.5%를 차지하

였다. 한편 2003년의 불용액은 1억 9천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표 7.14> 참조)

<표 7.13> 2002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 천원, %)

과 목	세출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구성비)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195,169,343	202,752,412	193,965,930(100.0)	7,639,941	1,146,541
인건비	113,326,643	113,284,435	113,108,339(58.3)	-	133,201
운영비	55,603,103	61,447,609	60,862,568(31.4)	35,158	592,778
대학입시및논문심사	2,041,250	2,041,250	1,800,609(0.9)	-	240,641
학교시설비	24,198,347	25,979,118	18,194,414(9.4)	7,604,783	179,921

<표 7.14> 2003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 천원, %)

과 목	세출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구성비)	다음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213,723,599	223,467,856	210,868,939(100.0)	12,407,050	191,867
인건비	128,043,099	125,835,756	125,771,101(59.6)	-	64,655
운영비	63,173,992	67,423,993	67,229,917(31.9)	91,000	103,076
대학입시및논문심사	2,020,951	2,020,951	2,008,397(1.0)	-	12,554
학교시설비	20,485,557	28,187,156	15,859,524(7.5)	12,316,050	11,582

### 3) 기성회 회계

기성회회계 예산은 별도로 책정, 운영되고 있다. 본교의 총예산에서 기성회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과 2003년의 세출예산의 36.6%, 39.4%로서 대학재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표 7.9>, <표 7.10> 참조) 2002년 기성회회계 수입액은 1,331억원으로 세입예산액보다 11억원 정도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는 회비 수입이 46억원 정도 증가한 대신 보조금 13억, 잡수입 44억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2002년 기성회회계 구성내역을 보면,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조달되는 회비수입이 69.8%로 가장 많고, 다음은 잡수입(17.1%)이다. (<표 7.15> 참조)

2003년 기성회회계 수입액은 2002년보다 271억원 증가한 1,602억원으로 세입예산액보다 49억원 정도 증가하였다. 예산과의 차이는 주로 이월금에 기인한다. 구성내역을 보면, 2002년과 마찬가지로 회비수입이 64.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조달되는 회비수입이 전체 기성회회계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69.8%에 비해서 5%나 감소하였다. 또한 2003년 기성회회계에서는 2002년에 비하여 보조금이 14억원, 또한 잡수입은 약 50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기업 및 기타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지원 증가를 의미한다. (<표 7.16> 참조)

<표 7.15> 2002년 기성회회계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과 목	세입예산액	수입액	구성비 (%)
합 계	134,203,986	133,109,254	100.0
회 비	88,278,270	92,861,308	69.8
이월금	11,509,940	11,509,940	8.6
보조금	7,288,360	6,007,960	4.5
잡수입	27,127,416	22,730,046	17.1

<표 7.16> 2003년 기성회회계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과 목	세입예산액	수입액	구성비 (%)
합 계	155,333,477	160,221,861	100.0
회 비	99,444,343	103,887,775	64.8
이월금	17,062,330	21,138,613	13.2
보조금	8,483,356	7,490,029	4.7
잡수입	30,343,448	27,705,444	17.3

한편 기성회회계 세출내역을 보면 여전히 국고로는 충분히 부담하지 못하는 인건비가 기성회회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인건비 지출이 2002년에는 391억원, 2003년에는 482억원으로, 이는 각각 전체 집행 액의 34.9%와 35.2%를 차지하고 있다. 기성회회계 세출결산의 지출내역을 보면 인건비 외에 경상이전비, 자본적 경비, 운영비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17>, <표 7.18> 참조)

<표 7.17> 2002년 기성회회계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세출예산액	지출(집행액)	구 성 비 (%)
합 계	134,203,986	112,081,029	100.0
인 건 비	43,567,660	39,067,408	34.9
운 영 비	19,430,007	15,081,572	13.4
경상이전비	28,852,673	27,646,647	24.7
자본적경비	18,776,010	17,635,392	15.7
예 비 비	1,662,329	-	-
수입대체경비	21,915,307	12,650,010	11.3

<표 7.18> 2003년 기성회회계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세출예산액	지출(집행액)	구 성 비 (%)
합 계	155,333,477	137,035,405	100.0
인 건 비	52,499,016	48,182,578	35.2
운 영 비	20,298,053	17,660,074	12.9
경상이전비	33,065,348	31,946,763	23.3
자본적경비	24,090,954	23,021,825	16.8
예 비 비	1,000,000	-	-
수입대체경비	24,380,106	16,224,165	11.8

#### 4) 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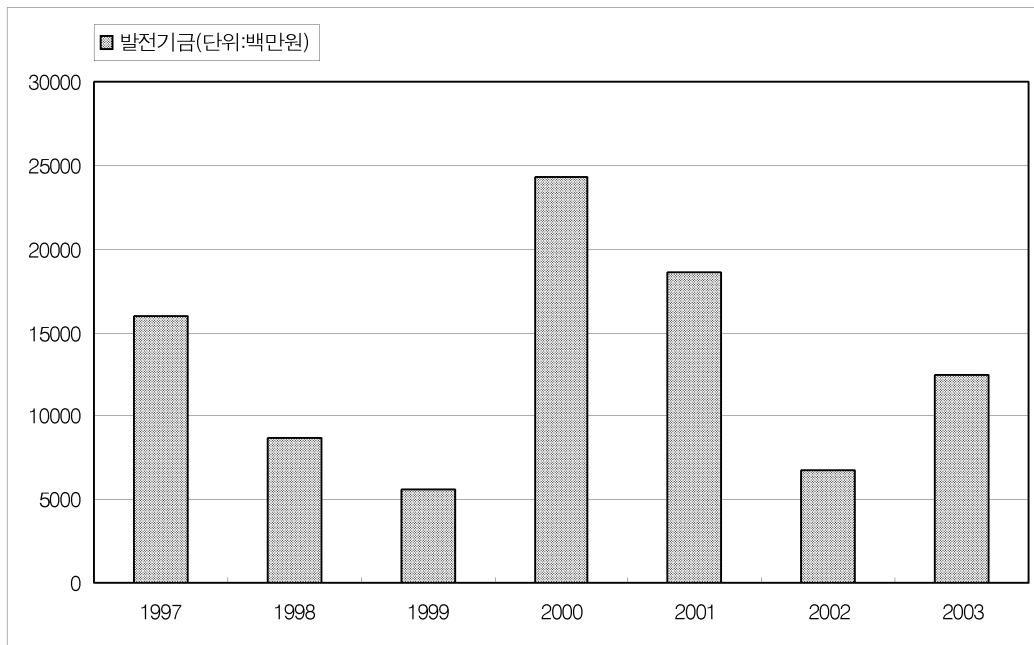
국고회계와 기성회회계로 구성된 본교의 재원은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매년 일정 수준 이상 증액되기 어렵고, 세계적 수준의 종합연구대학이라는 본교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교는 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1) 발전기금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은 1990년 5월 25일 창립한 이래 꾸준히 모금 및 대학지원의 활동을 전개해 왔다. 발전기금으로 국고나 기성회회계 예산 지원이 미치

지 못하는 부문을 지원하고 있다. 출연자는 동문, 학부모, 교직원, 주요 기업체, 기관, 단체, 기타 등이다. 발전기금 조성실적을 보면 <그림 7.1>과 같다. 1998년, 1999년에는 경제사정의 악화 등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였으나, 2002년에는 67억원, 2003년에는 124억원의 조성 실적을 이루었다.

발전기금은 기금출연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학술활동보조, 장학금, 교수연구 및 장서확충 등에 사용되고 있다. 당해연도에 들어오는 기부금은 기금(기본재산)에 축적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입(재산수입)을 가지고 당해연도의 목적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다. 최근의 발전기금 세입과 세출의 결산 현황을 보면 <표 7.19>와 같다. 발전기금 세입액은 2000년 672억원, 2001년 689억원, 2002년 632억원, 2003년 624억원 이었다. 기부원조금수입, 재산수입 외에 세입에서 이월금이 많은 것은 시설공사 진척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그림 7.1> 발전기금 조성 실적



<표 7.19> 발전기금 세입·세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세입	67,197	(100.0)	68,858	(100.0)	63,155	(100.0)	62,430	(100.0)
재산수입	14,260	( 21.2)	11,194	( 16.3)	13,113	( 20.8)	9,386	( 15.1)
이 월 금	41,479	( 61.7)	24,985	( 36.3)	27,901	( 44.2)	37,841	( 60.6)
기 부 금	7,971	( 11.9)	30,359	( 44.1)	19,058	( 30.2)	6,828	( 10.9)
잡 수 입	3,487	( 5.2)	2,320	( 3.3)	3,083	( 4.8)	8,375	( 13.4)
세출	42,212	(100.0)	40,957	(100.0)	25,315	(100.0)	20,913	(100.0)
재산조성비	2,828	( 6.7)	20,214	( 49.3)	8,023	( 31.7)	4,561	( 21.8)
목적사업비	38,048	( 90.2)	19,973	( 48.8)	15,956	( 63.0)	15,610	( 74.6)
발전기금조성비					297	( 1.2)	272	( 1.3)
평가손충당금	418	( 1.0)	127	( 0.3)	340	( 1.3)		
공 과 금	478	( 1.1)	68	( 0.2)	46	( 0.2)	56	( 0.3)
인 건 비	134	( 0.3)	210	( 0.5)	216	( 0.9)	162	( 0.8)
업 무 비	306	( 0.7)	365	( 0.9)	437	( 1.7)	252	( 1.2)

주 : 결산액 기준임

## (2) 대학발전기금

교육 및 학술·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학교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단과대학(원)별로 기금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조성한 기금의 이식금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교수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학술회의 논문 발표를 위한 여비, 학술모임의 주최 비용 등 각종 학술활동에 대한 비용을 보조하고 있다.

단과대학(원)별로 보면, 사회과학대학의 사회과학정보화 교육연구재단, 경영대학의 교육연구재단, 공과대학의 교육연구재단 및 전자통신연구후원재단, 농업생명과학대학의 교육연구재단, 법과대학의 법학발전재단, 사범대학의 교육연구재단, 수의과대학의 장학재단, 약학대학의 교육연구재단, 의과대학의 교육연구재단 및 장학재단, 치과대학의 교육연구재단, 보건대학원의 보건연구재단, 국제대학원의 소천교육연구재단 등이 있다. 2003년 현재 총 12개 대학 14개 재단(학교발전기금 제외)의 기본재산은 총 411억원의 규모에 달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약 53억원, 2003년에는 약 78억원을 독립적인 교육 및 연구 활동비로 지원했다. 본교의 재단별 기본재산 및 2002~2003년 세출액은 <표 7.20>과 같다.

### (3) 기부금에 의한 시설확충

기타 기부금에 의한 시설확충으로는 2002년에 제일제당에서 20억원 상당의 CJ어학관(2,154㎡) 건물기부의 채납이 있었고, 의과대학 동창회가 기부한 40억원으로 함춘회관(3,378㎡) 준공, 삼성전자 기부금 및 자체자금 33억원으로 반도체교육관 준공 등이 있었다.

2003년에는 태성고무화학에서 기부한 30억원 상당의 신양학술정보관(2,878㎡)과 현대 및 기아자동차에서 기부한 100억원 상당의 차세대자동차신기술연구센터(6,600㎡) 설립공사가 진행 중이다.

<표 7.20> 재단별 현황

(단위 : 천원)

기관별	재단명	기본재산	2002 세출액	2003 세출액
학 교	발전기금	147,254,739	25,315,237	20,913,307
사회대	사회과학정보화교육연구재단	2,042,352	121,735	135,197
경영대	교육연구재단	2,780,715	249,356	239,286
공 대	교육연구재단	8,549,581	2,541,265	2,720,759
"	전자통신연구후원재단	1,000,000	298,632	106,835
농생대	교육연구재단	3,343,000	280,295	240,261
법 대	법학발전재단	250,000	-	2,445,236
사 대	교육연구재단	1,000,000	41,743	60,014
수의대	장학재단	250,000	16,893	34,489
약 대	교육연구재단	820,695	62,824	78,451
의 대	교육연구재단	15,400,432	1,152,263	1,142,369
"	장학재단	407,100	59,961	103,068
치 대	교육연구재단	3,708,437	173,611	164,193
보건대학원	보건연구재단	802,500	91,175	76,277
국제대학원	소천교육연구재단	733,716	181,130	223,708
계	10개	188,343,267	30,586,120	28,683,450

주 : 결산액 기준임

### (4) 연구비 간접경비 정수

대학으로 지원되는 학술진흥재단과 과학재단의 연구비, 정부 및 기업체로부터의 연구비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연구비 수주 현황을 보면,

1998년에 1,020억원, 1999년에 1,285억원, 2000년에 1,485억원, 2001년에 1,762억원, 2002년에 2,043억원, 2003년에 2,409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간접연구경비 징수기관수와 징수금액도 2000년 81개 기관 87억원, 2001년 80개 기관 115억원, 2002년 82개 기관 161억원, 2003년 82개 기관 171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 5) 예산운용

### (1) 재정위원회

1992년 재정위원회가 발족한 후, 위원회가 제시한 편성원칙에 따라 예산담당관실에서 작성한 예산안을 재정위원회, 간부회의, 평의원회 및 학장회의 협의를 거쳐 총장이 예산요구서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또한 관련분야 교수에게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과 책정 및 배분기준의 적합성을 검토하게 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게 하여 연구결과를 예산 운용에 활용하고 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표 7.21>과 같다.

<표 7.21> 재정위원회 운영 실적

연도별	횟 수	심 의 내 역
200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학년 기성회비 책정(안) 심의</li> <li>- 2002학년 기성회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li> <li>- 2003학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요구(안) 및 시설사업비 예산요구(안) 심의</li> <li>- 2002학년 기성회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li> </ul>
2003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3학년 기성회비 책정(안) 심의</li> <li>- 2003학년 기성회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li> <li>- 2003년 국고 세입세출예산요구(안) 심의</li> <li>- 2004학년 등록금 책정(안) 심의</li> </ul>

## (2) 특정비목에 대한 계통감사의 수시 실시

감사원과 교육인적자원부 등 본교의 감독기관은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교 사무국 예산담당관은 정기적으로, 혹은 필요한 경우에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관해 각 기관에 대한 심사평가 또는 감사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차기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전체 감사실적을 보면 <표 7.22>와 같다.

<표 7.22> 감사실적(2002~2003년)

연도별	대상기관	감사기간	지적건수	감사인원(연인원)
2002	9	'02. 7. 3~10.31	26	36
2003	14	'03. 4.21~11.28	40	58

주 : 감사원 감사 '03. 8. 26 ~ 9. 30

## (3) 투자계획 수립과 예산의 반영

### ① 장단기 투자계획 수립 절차

총장 자문기구로 구성된 각종위원회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각 분야별 세부실천계획이 수립되어 집행되었는데, 이 같은 계획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투자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기획실 기획담당관실과 사무국 예산담당관실은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중장기계획을 연차예산에 반영시키며, 기획위원회와 학장회의를 거쳐 투자계획이 예산에 반영·확정된다.

### ② 중장기투자계획

중장기투자계획은 본교를 21세기 국가 발전을 선도할 종합연구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차적 계획으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교수 및 연구보조인력 증원

대학의 연구기능을 확대하고 대학원 과정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수를 비롯한

연수연구원, 조교, 연구 및 실험조무원, 강의·실습조수 등의 인력을 충원 할 계획이다. 교수 대 학생비율을 2005년까지 1 : 11로 개선하고 연구지원 인력을 증원할 목표를 갖고 있다.

#### **나. 교육 및 연구시설 확충**

대학원생 전용교육 및 연구시설, 대학원기숙사를 신축하고, 교육, 연구용 기자재를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노후기자재를 대체함으로써 연구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그리고 도서관의 장서를 300만권으로 확충하고 전산능력을 확장(400GFlops, 200GB, 4TG) 하며 교지확충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다. 연구여건 개선**

연구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수 기본연구비를 지급하고, 대학원생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대폭 지급하는 한편 대학원생 교육비 기준단가를 상향조정하여 교육과 연구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투자계획을 수립, 검토하고 있다.

#### **라. 국제학술교류 지원**

국제학술교류 촉진을 통한 연구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수의 해외파견과 특수분야 전공 대학원생 외국 현지수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외국대학 우수교수의 강의, 세미나 및 공동연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인 교수초빙 및 외국인 대학원생 유치를 적극 검토하며 국제학술교류 지원에 투자할 계획이다.

### III. 종합 · 평가

1. 교육
2. 연구
3. 교수
4. 대학생활과 학생활동
5. 공간 및 시설
6. 행정 및 재정

# 1. 교육

본교 학사과정의 입학정원은 1999년에 정점인 4,910명에 이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다. 이것은 두뇌한국21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학사과정의 입학생을 2000년에 4,735명으로, 2001년에 4,526명으로 감축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 학교 당국에서 학사과정의 정원을 감축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기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김에 따라 2002년에는 3,990명, 2003년에는 3,900명으로 입학 정원이 줄어들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학사과정의 정원을 줄이는 문제에 대해 학내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정원감축을 통해서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통의 인식이 자리잡은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입학정원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등록인원은 2000~2001년에 이어서 계속 발생하였다. 비록 2003년에는 2002년에 비해 미등록 학생의 숫자가 소폭 감소하였지만 아직 이것을 희망적인 조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 보인다. 여학생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02~2003년에도 이 추세는 계속되었다. 그러나 서울 출신 학생의 입학 비율은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본교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역균형선발제가 실시되면 서울 출신 학생의 비율은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재수생 및 검정고시 출신자의 비율은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서 아직 뚜렷한 추세를 보여주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내신성적을 중시하는 수시모집이 실시됨에 따라 재수생의 비율이 소폭 감소한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수학능력시험의 성적반영 비율이 줄어들게 되면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또 정원의 입학생 중에서는 학사편입생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전형방법에 있어서 2002년부터 종래의 고교장추천 입학제를 폐지하는 대신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이 시행되었다. 수시모집은 고등학교 학교생활부에 기재된 성적에 비중을 두면서 구술 및 면접고사를 병행하는 반면에 정시모집은 수학능력시험 성적에 비중을 두면서 구술 및 면접고사를 병행하였다. 대학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

으로 볼 때에 수시모집을 통해 입학정원의 30%를, 정시모집을 통해 70%내외의 인원을 선발하였다. 수시모집의 과정에서 2002년에는 90개 모집단위가, 2003년에는 92개 모집단위가 전공예약제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였다. 전공예약제로 입학한 학생은 수시모집 인원의 30%에 해당된다.

한편 모집단위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두뇌한국 21」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광역화모집이 시행되어 오던 공과대학 등 일부 대학이 소수의 학부로 나누어 학생을 선발하게 된 반면에 학과별로 학생을 모집하던 인문대학과 사회과학대학은 2002년부터 광역화모집을 시작했다.

2002~2003년의 등록생 숫자는 2000~2001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특기할만한 사항으로는 외국인 등록생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본교가 국제화되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인 학생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또 휴학 및 자퇴, 제적생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것은 날로 심해지는 취업난을 피하기 위해 상당수의 학생들이 재학 중에 군복무를 지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인해 휴학과 자퇴가 늘어나는 현상을 간과할 수 없다. 이 점은 특히 공과대학의 자퇴생이 2002년의 54명에서 2003년에는 배가 넘는 128명으로 늘어났다는 점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장학금 수혜 현황을 보면 이 기간에 수혜 비율과 총액이 전년에 비해 늘어났다. 특히 「두뇌한국 21」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2003년에는 이공계 학생의 장학금이 대폭 늘어났고, 이에 따라 교내장학금의 비율이 줄어드는 대신 교외장학금의 비율이 대폭 늘어났다.

2002~2003년의 개설강좌의 수는 2000~2001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2001년에 6.6%까지 상승하던 대형 강좌의 비율은 2002년에 3.4%, 2003년에 3.3%로 대폭 줄어들었다. 전임교수의 담당강의 시간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일부 대학에서 비전임교원의 담당 비율이 대폭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 이 문제는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여겨진다.

2002년에는 4,240명, 2003년에는 4,334명의 학사가 배출되었다. 이 중에서 110명과 130명이 수업연한단축에 관한 규정에 따라 8학기를 등록하지 않고 졸업하였는데 이 숫자는 2000~2001년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이다. 동시에 9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졸업하는 학생의 숫자도 대폭 늘어났다. 2002~2003년 졸업생의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



이 9학기 이상 등록하여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날로 심해지는 취업난에 기인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또 졸업생의 취업률도 지속적인 하향 추세를 보여서, 2000~2001년의 순수취업률이 50%대를 유지한 반면에 2002~2003년의 순수취업률은 45%대로 가라앉았다. 이와 동시에 대학원 진학률도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여서 2001년에는 27.5%이던 것이 2002~2003년에는 각각 26.5%, 24.8%로 떨어졌다.

202~2003년에는 2001년에 기초교육의 강화를 위해 설립된 기초교육원의 역할이 커지기 시작했다. 종래에 각 대학에서 개설해 온 교양과목을 기초교육원에서 관할하게 되었으며, 국어교육과 영어교육, 수학교육의 강화를 위해 원어민을 포함한 대우전 임강사제도를 시행하였다. 동시에 교양과목을 학문의 기초, 핵심교양, 일반교양으로 분류하고 핵심교양과목의 개발에 주력하여 80여 과목이 개설되었다.

2002~2003년에는 대학원의 입학정원이 2001년의 4,622명에서 5,332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입학생은 이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해서 2002년에는 5,022명이, 2003년에는 4,997명의 학생이 입학했다. 이에 따라 전체 입학생 중에서 대학원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서게 되었다. 대학원 신입생 중에서 타 대학 출신의 비율은 전년도에 이어 계속 높아졌다. 2001년에 46.4%였던 타 대학 출신 입학생의 비율이 2002년에는 51.6%, 2003년에는 54%로 늘어났다. 박사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은 마찬가지로 나타나서 2001년에 13%였던 타 대학 출신 입학생의 비율이 2002년에 21.5%, 2003년에는 30.1%로 늘어났다.

2002년에는 석박사 연계과정인 뇌과학전공과 임상약리학전공의 협동과정이 신설되었으며, 석사과정에서도 기록관리학전공이, 박사과정에서는 도시설계학전공, 음악교육전공, 미술교육전공이 협동과정으로 신설되었다. 2003년에는 석사과정에서 공연예술학전공이 협동과정으로 신설되었고, 협동과정으로 운영되어 오던 천연과학물전공은 약학대학 제약학과로 흡수되었다. 또 2003년에는 국제지역원이 국제대학원으로 개편됨에 따라 국제학에 관련된 협동과정이 모두 국제대학원에 신설된 국제학과로 흡수되어 운영되었다.

2003년에는 대학원 과정의 등록학생이 처음으로 10,000명을 돌파하였다. 대학 별로 보면 공과대학에 가장 등록학생이 많았다. 이 해에는 국제대학원에 처음으로 학생이 등록하였다. 반면에 협동과정 등록학생 수는 대폭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또 200

2~2003년에는 전체 학생의 50% 이상이 장학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금의 구성비를 보면 교내장학금이 80%를 웃돌았으나, 2003년에는 교외장학금이 약간 늘어났다. 반면에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에서 수여하는 장학금은 전년도에 비해 1/4 수준으로 줄었다.

2002~2003년 대학원 과정의 강의 시간은 2000~2001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전임교수의 담당 비율은 소폭 줄어든 반면 비전임교원의 담당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 주었다.

2003년에는 2,405명의 석사와 800명의 박사가 배출되었다. 이들에게 수여된 학위의 종류는 32종이며, 사회과학대학에서 가장 다양한 학위를 수여하였다. 특이한 점으로는 인문대학에서 이학석사와 공학박사 및 의학박사가 배출되고 공과대학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가, 음악대학에서 문학석사가 배출되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학위취득자의 전반적인 취업률은 2000~2001년에 비해 약간 낮아졌다. 세부적으로 관찰하면 석사학위 취득자의 군입대를 제외한 순수취업률은 약간 높아진 반면 진학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2. 연구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반, 연구인력, 연구비가 그 대학의 연구역량을 결정하는 3대 요소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이 3대 요소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연구지원행정이 이루어질 때 우수한 연구성과를 이룩할 수 있다. 따라서 2002~2003년 동안 일어난 변화 가운데 연구기반, 연구인력, 연구비, 연구지원행정의 질적·양적 변화와 연구성과의 지표라 할 수 있는 연구업적에 대하여 고찰하여 본교의 연구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대학의 연구기반은 크게 연구조직과 보유 시설 및 장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교는 연구조직으로서 2002~2003년에 신설된 2개 본부직할 연구소(원)와 11개 국가지원 연구센터를 포함하여 2003년 말 현재 총 61개의 본부직할 연구소(원)와 24개 국가지원연구센터를 갖고 있다. 이들은 각각 해당분야별로 교수들의 학제간 또는 산·학·연·관간의 공동 연구와 학술활동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연구시설(연구실험실, 대학원연구실, 연구소)의 연면적이 2001년에 약 664천㎡에서 2003년에 약 740천㎡으로 증가 되었으며, 연구장비는 국고 및 기성회 실험실습기자재확충사업비 203억원이 2002~2003년 동안 추가되었다. 특히 기초과학교육연구공동기기원과 농업과학공동기기센터가 2000년 이후 국고 실험실습기자재확충사업비를 별도로 지원받기 시작함으로써 고가 첨단연구기자재의 안정적인 확충과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져서 연구의 첨단화에 필요한 연구기반이 강화되었다. 2002~2003년 동안에 일어난 이와 같은 변화를 고려할 때 본교의 연구기반으로서 연구조직과 보유 시설 및 장비는 양적·질적으로 크게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일부 본부직할 연구소의 경우 연간 운영예산 및 행정인력과 전임연구원 확보 상태 등이 매우 부실하다. 이러한 연구소를 실질적인 연구활동과 학술활동을 활발히 수행하는 연구소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련 교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본부 연구처는 객관적인 연구소평가를 통하여 재정적 자생력이 튼튼하고 운영상태가 좋은 연구소와 그렇지 못한 연구소를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학의 연구인력 중 가장 중요한 인력은 교수이다. 2003년 2학기 현재 총 1,603명의 전임교수를 중심으로 334명의 박사후연구원, 9,908명의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40명의 기타 연구원이 있다. 따라서 교수 1인당 평균 약 7명의 연구원들이 한 팀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선진국의 우수한 대학과 비교할 때 본교의 연구인력을 효과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신규교수 정원을 대폭 확보하여 우수한 연구 인력을 교수로 초빙해야 한다. 또한 신임 교수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하여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본부 및 소속 단과대학(원) 차원의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대학의 주요 연구 인력인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의 수적 증가와 질적 향상을 위해서 장학금, 인건비, 기숙사, 주거시설 등의 경제적 여건과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고 있으나 우수한 대학원생을 유치하고, 연구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규모를 대폭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한편 2002년은 본교의 연구인력에 관한 제도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된 해였다. 2002년 4월에 제정된 '서울대학교연구원임용규정'에 준하여 전임교원이 아닌 석·박사급 연구자들을 연구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장이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으로 임용하고, 개인 신분증을 발급함으로써 전임연구원의 신분을 정립시켰다. 대부분 젊은 신진 연구인력인 전임연구원들의 연구능력을 최대한 발휘시키기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연봉계약제 인력이지만 대외적인 신분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전임연구원들을 본교 급료지불부(payroll)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책임연구원과 선임연구원이 독립적인 연구자로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시켜야 한다. 본교를 '세계수준의 종합연구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동안 교수-학생-직원으로 간주하던 대학의 인력구조에서 교수-학생-직원-연구원으로 구성되는 인력구조로 발전시켜, 전임교원은 아니지만 우수한 박사급 연구인력이 본교의 연구역량 강화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의 연구역량 결정요소 중 연구비 규모는 교수를 비롯한 연구원들의 연구능력과 연구업적의 우수성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 본교의 연구비는 1997년에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한 후 꾸준히 증가추세를 유지하여 2003년에는 2,410억원 규모에 이르렀다. 특히 2001년 이후 약 600억원 정도가 증가된 것은 우리나라의 R&D 예산규모가 커진 이유도 있겠으나 본교 교수들의 연구경쟁력이 강화된 증거로 볼 수도

있다. 특히 전체 연구비의 90%에 달하는 외부연구비 중 86.3%가 정부부처의 공개경쟁 연구지원사업으로부터 확보된 것으로 보아 본교 교수들 연구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교수 1인당 연구비는 2001년에 약 1억원이었으나, 2003년에는 약 1.3억원으로 약 30% 증가하였다. 학문분야별로 볼 때 공학 분야를 비롯한 자연계열 분야의 연구비가 많았으나 2002~2003년 동안 인문사회분야와 예술분야의 연구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반적인 연구비 증가 추세는 본교가 종합연구대학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연구지원행정은 대학의 연구역량을 결정하는 3대 요소(연구기반, 연구인력, 연구비)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즉 효율적인 연구지원행정을 통하여 학내 연구소 등의 연구기반을 확대하고 내실화하며, 연구 인력의 연구 활동과 학술활동을 촉진시키고,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적극적인 연구지원행정은 대규모 외부연구지원사업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연구비의 확대재생산에 기여할 수 있다. 간접연구경비는 연구지원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중요한 자원이다. 본교는 그 동안 연구비중앙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비관리용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을 크게 높였다. 2003년에는 319억원 규모의 간접연구경비가 확보되었으며, 그 중 약 253억원 정도가 교내 교수들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2003년에 집행된 간접연구경비의 56% 정도는 교수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교내연구비와 학술활동지원비로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대규모 외부지원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대응자금, 연구소(센터) 운영비지원, 공공요금, 행정보조직 인건비 지원 등과 같은 학내 연구기반 확대와 관리 및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연구비의 확대재생산을 위한 간접연구경비 투자로서 대표적인 것이 새로운 국가지정연구센터나 국가지정연구실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대응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동안 교수들이 정부기관이 공모하는 우수과학연구센터(SRC), 우수공학연구센터(ERC), 중점연구소, 국가지정연구실 등의 비교적 큰 연구지원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본교는 학교측의 대응자금을 약속하는데 일부 사립대학이나 지방대학에 비하여 매우 소극적이었다. 향후 학내 연구기반과 연구비를 확대하고, 국가적으로 우수 연구 집단을 결집시킬 수 있는 사업을 유치하는데 요구되는 대응자금을 위하여 간접연구경비를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본부 연구처는 간접

연구경비를 이용한 연구 활동과 학술활동 지원사업 이외에 부속 연구소(원) 평가와 학내 연구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기획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3년에는 학칙에 따라 61개 본부직할 연구소(원)에 대한 평가가 있었으며, 평가결과를 처음으로 활용하여 운영 실적이 우수한 36개 연구소(원)에 대하여 평가 성적에 따라 운영예산을 차등 지원하였고, 매우 저조한 1개 연구소를 폐지시킨 바 있다. 주요 기획사업으로는 추진된 서울대학교연구공원 조성과 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 설립은 산학협동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특허 출원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교수들의 연구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3년 현재 교수 1인당 연구업적 발표실적은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보았을 때 교수 1인당 10.66건이며, 자료 제출 교수 1인당 12.83건이다. 한편 SCI(E) 등재 정기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수가 증가된 것으로 보아 연구업적의 질적인 수준은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교는 2003년에 총 3,189편의 SCI(E) 논문을 발표하여 세계의 대학 중에서 35위를 차지하였다. 자연계열 학문분야에 비하여 인문·사회계열과 예술계열 학문분야는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간행물이나 발표방법이 훨씬 더 다양하여 연구업적을 일관되게 집계하고,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백서에서도 인문·사회계열과 예술계열의 연구업적을 제대로 제시를 못하고 간과한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1년 이후 인문·사회계열과 예술계열 학문분야의 연구비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 분야의 연구업적을 객관적으로 집계하여 양적·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끝으로 본교가 이룩한 크고 작은 연구 성과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연구 성과에 대한 홍보업무를 연구지원 행정업무에 포함시켜 효과적인 연구 성과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교수

본교가 추구하고 있는 교육목표인 '세계적인 종합연구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수인력의 확보, 교육과 연구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여건의 조성이 중요하다. 지난 2년 간 전임교수는 1999년의 1,484명에서 2001년에는 1,474명으로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교수1인당 학생 수는 20명을 초과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 전임교수의 순증가는 없었으며 대부분 정년퇴임 등 결원 보충이었다. 교수의 교육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교, 조수(T.A.) 등의 교수 보조인력 예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전임교수의 대부분은 책임시간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강의중 시간강사의 담당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1999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두뇌한국 21」 사업으로 교수의 연구업적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른 연구부담도 동시에 가중되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대학교원에 계약임용제가 도입되었으며, 외국인도 전임교수로 임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사회에 선의의 경쟁풍토를 조성하여 교수의 역량을 최대화할 목적으로 도입된 교수성과금의 차등화 지급, 특별연구장려금의 지급 등의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정한 교수업적 관리와 평가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교 교수의 평균 급여가 사립대학교수의 60~70%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할 때 교수의 복지후생제도에 대한 개선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열악한 교육·연구 환경에서도 이공계 교수들의 연구업적이 세계 40위에 오른 것은 매우 경이로운 일이며 교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것으로 평가된다.

교수가 학문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도덕적 측면에서도 사회지도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교수윤리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여 자체 정화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필요하다 하겠다.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들의 봉사활동은 교내 활동(학생지도, 행정참여 등), 정부기관 및 국제단체에서의 활동,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서의 활동, 신문·방송 등에

대한 조인, 기타 활동 등 다양할 뿐만 아니라 수적으로도 많다. 하지만 봉사활동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은 법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교내 활동의 대표적인 것은 대학을 구성하는 행정조직에의 참여활동이라 할 수 있는데, 보직 교수들이나 또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이 자주 바뀌는 정책과 제도로 인하여 교내 행정업무에 끝없이 시간을 빼앗기고 있으므로 행정구조의 안정성과 함께 참여 구조의 다양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4. 대학생활 및 학생활동

학생자치회활동의 경우, 이념적·정치적인 활동이 감소하고, 교내 학사행정·환경·복지 등이 주 관심사가 되어 대학운영에 대한 학생참여, 교통·식당·기숙사, 등록금 및 장애학생 지원 문제 등이 현안이 되고 있다.

현재 학생회비는, 총학생회장 명의로 고지하고 학교에서는 수납에 대한 행정적 지원만 제공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적절한 지도가 요구된다. 학생회비의 납부율은 등록 학생의 절반 수준으로 저조한 상태에서 정체되어 있는 반면 학교지원금은 꾸준히 증가하여 학생들의 학생회비 납부액에 근접하고 있다. 총학생회는 학내문제 및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행사를 기획·개최하고 있으나, 사회문제 관련 학생들의 행사 참여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학생들이 게시하는 대자보와 현수막 등은 게시 장소와 크기가 적절히 제한되고, 학생들의 교내방송과 집회에서의 확성기 사용은 교육 및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로 제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축제 기간 중에 교내에서 무제한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관행을 지양해 나가되 우선 판매 시간과 장소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내에서의 담배 자판기의 설치를 지양해 나가되 우선 설치 장소를 특정지역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표적인 학생 과외활동인 동아리 활동에의 참여 학생수는 본부소속 동아리의 경우 2년 전에 비하여 큰 변화가 없으나 단과대학 소속 동아리의 경우 증가하는 추세이다. 학생동아리의 활동을 위한 공간 지원은 학생회관 등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으로 질적인 수준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양적으로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동아리에 따라서는 활동에 따른 소음 발생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면학과 연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데, 한정된 캠퍼스 공간을 공유하면서 동아리 활동을 학업과 병행하여 추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봉사활동으로서 농촌의 일손돕기 및 의료봉사는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동아

리연합회 및 봉사동아리 등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데, 단순근로는 2년 전에 비하여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였으며 의료봉사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체육활동은 본부에 등록된 34개 체육 및 무예 동아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교가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1997년 시작한 체육기금 조성에서 2002년 증액하고 30개 운동부의 대외출전비와 격려비, 운동상해보상비 및 우수운동부를 지원하고 있음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한편,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2001년에 명칭 변경과 함께 확대 개편된 「대학생활문화원」은 개인상담과 대인관계능력개발 집단상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의 고민해소와 역량 배양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또한 2000년 설립된 「성희롱·성폭력상담소」는 개인상담, 사건의 조사처리 및 학내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교육·연구 환경을 저해하는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학생의 국제교류와 관련하여 외국대학에서의 취득 학점을 인정하는 국외수학 허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재학생 수가 증가되고 있다. 또한 대학이 지원하는 학생의 해외 연수에 있어서도 단기와 장기 연수 모두 참여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국제적 안목과 국제경쟁력 배양을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다. 또한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파견되는 재학생과 해외로부터 입학하는 교환학생의 수는 비슷하다.

앞으로도 대학은 학생들의 학술, 예술, 체육 및 국제교류 활동의 지원을 위해 재원 확보와 제도 보완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대학문화의 창달과 연구·공부하는 서울대학교 학생 상의 정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신문은 2002년 창간 50주년을 맞아 편집 및 기사의 내실화, 인터넷 '대학신문'의 강화 및 디지털 데이터의 구축, 자문위원의 확대 등 체제 및 내용의 보완 개편을 통하여 서울대학교 공식 언론으로서의 위상 및 한국 대학지성인을 대표하는 신문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노력해왔다. 그러나 교수, 교직원, 동창 등 비학생 독자의 관심사를 기사에 확대 반영하기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대학교 홈페이지는 2002년에는 방문자의 성향 분석을 바탕으로 이용자를 고려한 콘텐츠의 구성과 배치, 정보제공 방식 및 검색기능의 강화 등 한글 홈페이지를 대폭 개선하고 관리·운영을 위한 담당부서 지정과 단위기관별 웹 모니터링 요원의 지

정으로 콘텐츠의 현시성이 상당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영문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의 양적 질적인 개선 및 콘텐츠의 현시성의 개선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기관에 따라서는 여전히 미흡한 한글 콘텐츠의 현시성 개선에 많은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의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지난 2년 간 홍보영화, 대학백서, 국문요람, 통계연보, 기타 홍보 책자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활용하였는데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공개강좌로서 외국 석학을 초청하는 '서남 초청강좌'는 충실히 지속되고 있으며, 문화관 기획프로그램은 근년에 영화 위주로 진행되어 당초의 기획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강연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데 다양한 발표회를 유치하여 프로그램 다양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화관 기획프로그램은 시행 초창기부터 수년간은 다양성을 가지고 운영되었으나, 근년에 들어 단순히 영화 위주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당초의 기획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연극, 음악, 무용, 강연 그리고 학생동아리 활동 발표회 등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프로그램 다양화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박물관의 수요교양강좌는 청중에 제한이 없는데 개설 이후 청중의 관심과 참여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고 자연과학대학의 자연과학 공개강연도 매회 천명 이상의 일반인과 고등학생이 참여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현상이다. 단과대학(원) 및 기관이 교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회교육과정은 과정수와 수강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중·고등학생, 학부모 및 일반방문객들에게 캠퍼스를 직접 보여주는 '서울대 견학 프로그램'은 매일 2회, 주 6일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우수한 신입생의 유치와 관련하여 본교의 이미지 개선에도 일조하고 있다고 하겠다.

학교 당국은 복지서비스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학사 및 후생 복지, 그리고 학교생활과 관련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렴하여 대학 정책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1년에 개편 설치된 생활협동조합에는 학생들이 운영주체로 참여하고 있다. 생활협동조합은 최근 홈페이지 쇼핑몰을 개시하고 식당, 서점 등의 환경을 개선하고 식당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바람직한 현상으로 지속인 운영이 요구된다.

장애학생의 보다 나은 대학생활을 위하여 2003년 개소된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

학생 전용 지원차량을 운행하고 장애학생의 수평·수직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의 증진을 촉진하고 면담 및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현상이다.

학생들은 지도교수 및 학생 관련 부서 등을 통해 대학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고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생활문화원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고 있고, 취업이나 병사 등과 관련해서는 학생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대학 행정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학교가 이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신속하고 적절하게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학교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보다 능동적인 운영이 요구된다.

## 5. 공간 및 시설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면적 자체로만 보면 세계 어느 대학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큰 규모이다. 그러나 보유토지의 대부분이 연습림, 수목원, 약초원 등 교지로 활용하기 어렵고 활용되고 있지 않는 면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광활한 보유 토지를 실제 활용도가 높은 공간으로 전유하는 일이 향후 숙제라 할 수 있다.

학교 공간 내부의 연결 소통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교내 교통 및 주차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은 곧 공간 활용의 효율성 문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각 캠퍼스로 연결되는 대중교통망의 개선과 아울러 교내외를 운행하는 학교 자체 셔틀의 운영 규모와 체계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 캠퍼스 출입차량의 증가를 따라 잡지 못하는 주차공간의 한정 문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캠퍼스 수용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시설 연면적 요구량이 증가함을 감안할 때, 시설 규모의 확대는 물론이고 각 시설의 균형적 배치와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주요 교육·연구지원시설의 외곽 배치나 소속 단과대학과의 연계성이 결여된 연구시설의 건립 등과 같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 확장은 재고되어야 한다.

농업생명과학대학 및 수의과대학의 이전과 부설학교 이전 추진사업은 지난 2년 사이에 있었던 큰 변화 가운데 하나이다. 농업생명과학대학과 수의과대학의 관악캠퍼스 이전은 지리적 고립으로 인한 기초학문 및 첨단과학 분야와의 학문적 교류 부족, 인접 수원비행장의 극심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강의 피해, 교육·연구기자재 공동사용의 불가능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부설학교 이전 또한 사범대학은 물론 관련 대학들의 교육, 연구, 실험·실습 기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조속히, 그리고 충실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

대학의 시설에서 교육시설과 연구시설의 중요성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통계수치 상으로 볼 때 지난 2년 사이에 교육시설과 연구시설이 현저히 증가했다는 사

실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그러나 강의실 정원, 학생들의 수업준비 공간, 강의실 간 이동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는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물론 강의실의 추가 확보도 중요하지만 강의 준비 공간을 적절히 공급해 주고 강의 공간 이동 및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두뇌한국 21」 사업 재원으로 건립한 인문사회계 멀티미디어 강의동과 2003년에 시작한 강의실 환경개선사업은 그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본교가 '종합연구대학(comprehensive research university)'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구공간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그 기본을 이루는 연구용실험실, 대학원연구실, 각종 연구소 등에 대한 시설지원이 시급히 확충되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2년 간 각종 연구시설은 양적, 질적으로 크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관심집단별로나 단과대학별로 부족과 고충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

교육·연구의 질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 가운데 하나인 기숙시설의 경우, 그간 이루어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설 부족으로 입사 수요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그나마 2003년에 「두뇌한국 21」 사업의 제 1단계 사업으로 관악캠퍼스와 연건캠퍼스에 대학원기숙사 및 방문객 숙소를 신축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서울의 주거환경을 감안할 때 젊고 유능한 신입 교수·연구요원의 확보를 위한 교직원 숙소 증축은 본교가 해결해야 할 또 다른 시급한 과제이다. 총장 공관을 헐고 그 부지에 교직원 숙소를 증축하게 되어 다행이지만, 그것으로는 교직원 주거 수요를 충족하는 데 태부족이다.

후생복지시설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학생식당의 부족이다. 대학원생 정원의 지속적인 증가와 학내시설 이용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식당에 대한 수요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서 특히 점심시간에 식사를 위해 장시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캠퍼스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노후하고 불편한 학생회관의 시설 문제 또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각 캠퍼스 체육시설의 경우 실내 체육관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실외 운동장의 규모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학교 밖 사회에서 건강과 운동에 대한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현상과 대비해 볼 때 이는 결코 사소하게 다룰 문제가 아니다.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보건의 대학의 인적 자원 내지는 자본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하여 보다 실질적인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내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본교는(특히 관악캠퍼스는) 풍부한 교내외 자연환경의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그런 만큼 환경보호 및 친환경적 캠퍼스 유지라는 사회적 책임감도 가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 및 시설의 절대량 부족으로 인해서 각종 시설이 다분히 난립되는 경향이 있다. 제한된 여건 속에서나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적정 규모와 효율적인 배치 방안을 마련하여 원칙과 비전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공간을 확보하고 시설을 건립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하여 실제 이용도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특히 학생 및 교수의 공간 이동/이용 패턴을 분석하여 활용도를 높여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 6. 행정 및 재정

21세기를 맞이하여 본교는 국내외 여건과 상황의 변화로 인해 국립대학교로서의 위상에 걸 맞는 사회로부터 더 많은 과제를 부여받고 있으면서 명실 공히 세계적인 대학으로 거듭날 것을 요청 받고 있다. 이에 2002년 7월 20일 본교 제23대 총장으로 취임한 정운찬 총장은 지식기반사회의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본교의 구체적 목표로 '세계수준의 종합연구대학'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세계 수준의 교육과 사회봉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인적, 물적 그리고 제도적 확충 및 쇄신이 필요함은 분명하다. 물론 이러한 '세계수준의 종합연구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작성된 장기발전계획에다 새롭게 변화된 교내외 여건을 고려한 새로운 장기발전계획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임 집행부 계획안에 대한 최소한의 수정을 거쳐 '제3차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2002~2011)'을 공표하게 되었다.

제3차 계획에는 한국 사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인재들을 양성·배출하고 세계적 학문공동체를 이끌어갈 학자들을 지원하는 각종 정책들이 기획·망라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본교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정부와의 관계설정에서 국립대학인 본교가 추구해야 할 자율과 지지의 규범적 의미를 강조하고 또 확실히 하였다. 또한 21세기의 열린 정보를 기반으로 지식강국이 되기 위한 경쟁 속에서 본교가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월성 저해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경쟁 수행역량을 꾸준히 강화하며, 학문공동체적 교육적 논리가 어우러진 실천 가능한 전략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전략들은 사실상 그 이전의 여러 작업에서도 일관되게 제시된 것들이며,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논의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많다.

따라서 제3차 장기발전계획에 제시된 본교의 발전 방안들은 이제 실천만이 남아 있으며, 앞으로 계속 교내외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면서도 창조적인 일들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연구와 교육과 사회봉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비효율적인 운영구조와 행정체계는 개선되어야 하며, 세계수준의 종합연구대학이 되는데 필요한 정부



를 비롯한 기업 등 다양한 방식의 재정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학교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자율성 확보와 관련하여 학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며, 총장의 리더십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체제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였다. 우선 평의원회를 심의기구에서 심의·의결기구로 그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평의원회 산하에 학내위원 20명, 학외위원 2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행정관에 의장실과 사무실을 두고 사무직원을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평의원회가 선임하도록 하고, 총장후보대상자에 대한 기표방법을 단기명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였다. 앞으로 심의·의결기구로 된 평의원회의 역할과 활동이 기대되며, 총장 선거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세계수준의 종합연구대학을 위한 대학행정은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특히 과중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연구부처장 및 기획부실장 직위를 다시 설치하였다. 이러한 개편은 21세기의 대학이 갖는 연구와 교육 지원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며, 앞으로도 지원 업무조직의 활성화를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이 계속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및 교육지원을 위해서는 교직원의 능력 개발이 또한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 민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전체 직원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직렬별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장단기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대학원 교육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아울러 직원 개인별 다면평가제와 조직단위별 평가를 통해서 우수 직원 및 부서를 선발 포상하였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연구 및 교육지원을 위해서는 교직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의 확대와 사기의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화 추진의 목적은 고객만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IT 신기술 반영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서울대학교 포털 시스템으로 새롭게 개발되어 학내 구성원에게 서비스하게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고객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학교 이미지 저해와 정문일대 교통정체 문제뿐만 아니라 정문 앞 학교부지 및 낙성대 인근 부설학교 이전부지 통과로 서울대학교 장기 발전계획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답보상태에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학내·외 대책위원회 활동이 강화되어야 하며,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 및 국회청원 등을 통한 도로건설 반대운동 등 학교구성원 전체가 뜻을 모아 힘껏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교 재정을 보면, 총예산은 2001년에 처음으로 3,000억원을 넘어선 이후 2003년에는 3,711억원이었다. 이 중에서 국고지원액은 약 1,908억원으로 전체의 51.4%를 차지하였는데, 2001년부터 2002년, 2003년에 전체 예산 중 국고지원 비율이 각각 55.2%, 53.3%, 51.4%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세입예산 구조를 보면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의 구성비가 2002년 59.3 : 40.7, 2003년 56.8 : 43.2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0년 61.8 : 38.2나 2001년 61.4 : 38.6에 비해 최근 들면서 일반회계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기성회회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으로의 본교 재정이 국고지원 보다 학생들의 등록금 의존도가 높아짐을 암시한다.

기본적으로 본교의 재원은 국고회계와 기성회회계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재원은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매년 일정 수준이상으로 증액되기 어려우므로, 세계수준의 종합연구대학이라는 본교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미흡하다.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은 1990년 5월 25일 창립한 이래 꾸준히 모금 및 대학지원의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1998년, 1999년에는 경제사정의 악화 등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였으나, 2002년에는 67억원, 2003년에는 124억원의 조성 실적을 이루었다.

또한 학교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단과대학(원)별로 기금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2003년 현재 총 12개 대학 14개 재단(학교발전기금 제외)의 기본재산은 총 411억원의 규모에 달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약 53억원, 2003년에는 약 78억원을 독립적인 교육 및 연구 활동비로 지원했다.

기타 기부금에 의한 시설확충으로는 2002년에 제일제당의 CJ어학관 건물기부 채납이 있었고, 의과대학 동창회 기부의 함춘회관 준공, 삼성전자 기부금 및 자체자금에 의한 반도체교육관 준공 등이 있었다. 2003년에는 태성고무화학의 신양학술정보관 설립과 현대 및 기아자동차의 차세대자동차신기술연구센터 설립공사(진행 중)가 있었다.

그리고 매년 대학으로 지원되는 학술진흥재단과 과학재단의 연구비, 정부 및 기업체로부터의 연구비 규모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간접연구경비 징수기관수와 징수금액도 2002년 82개 기관 161억원, 2003년 82개 기관 171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 재정 확충을 위해 학교발전기금, 대학발전기금, 기부금에 의한 시설확충, 연구비 간접경비 징수, 체계적인 투자계획 등 다양한 자구노력을 하고 있지만, 세계수준의 종합연구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재정 수입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부 록

1. 부표
2. 2002년 주요일지
3. 2003년 주요일지
4. 서울대학교설치령
5. 서울대학교학칙

# 1. 부 표

<표 A.1> 2002년 수강인원별 강좌수

구분	개설강좌수			대형강좌수								B+C/A (%)
				1학기				2학기				
	계 (A)	1 학기	2 학기	계 (B)	121- 200명	201- 250명	251명 이상	계 (C)	121- 200명	201- 250명	251명 이상	
계	10503	5281	5222	178	130	33	15	177	132	33	12	3.4%
인문대	2099	1056	1043	19	14	3	2	14	13	1		1.6%
사회대	680	340	340	23	17	4	2	20	15	3	2	6.3%
자연대	1223	620	603	32	30	2		22	21		1	4.4%
간호대	129	61	68	0				0				0.0%
경영대	252	127	125	23	21	2		21	18	1	2	17.5%
공 대	1651	837	814	21	18	1	2	12	8	1	3	2.0%
농생대	722	362	360	3	2	1		1	1			0.6%
미 대	374	183	191	2	2			1	1			0.8%
법 대	243	116	127	25	14	4	7	20	13	6	1	18.5%
사 대	1181	609	572	2	1		1	3	2		1	0.4%
생활대	217	111	106	2	2			1	1			1.4%
수의대	108	53	55	0				0				0.0%
약 대	243	122	121	1		1		2		1	1	1.2%
음 대	449	226	223	10	7	3		9	6	3		4.2%
의 대	635	310	325	15	2	12	1	51	33	17	1	10.4%
치 대	297	148	149	0				0				0.0%

<표 A.2> 기초교과목의 수, 강좌 수, 수강인원(2002~2003년)

교양 영역	대학	편성 과목	개설현황											
			2002.1학기			2002.2학기			2003.1학기			2003.2학기		
			개설 과목수	개설 강좌수	수강생 수	개설 과목수	개설 강좌수	수강생 수	개설 과목수	개설 강좌수	수강생 수	개설 과목수	개설 강좌수	수강생 수
학문의 기초	인문대	59	53	320	7365	52	305	6438	48	312	7158	53	296	6176
	자연대	39	19	104	6878	19	106	6972	20	97	6956	18	102	6767
	공 대	1	2	9	572	1	6	274	1	10	562	1	6	243
	법 대	5				5	6	566				5	9	575
	사 대	2	1	2	65	1	2	130	1	2	73	1	3	176
	기초교육원	3												
계	109	75	435	14880	78	425	14380	70	421	14749	78	416	13937	
핵심 교양	인문대	40	27	27	1643	27	30	1206	24	25	2247	27	30	1683
	사회대	14	9	14	1206	8	11	802	8	12	1206	9	12	1170
	자연대	15	12	14	1019	12	13	853	12	14	954	11	14	1001
	경영대	1				1	1	141	1	1	67	1	1	45
	공 대	2	1	1	71				2	2	32	2	2	82
	농업생명과학대학	1	1	1	87				1	1	156			
	미 대	1	1	1	90	1	1	59	1	1	103	1	1	95
	법 대	3							1	1	59	1	1	32
	사 대	2	2	2	64	2	2	84	2	2	94	2	2	89
	음 대	1				1	1	148	1	1	194	1	1	120
	의 대	1	1	1	108	1	1	61	1	1	99			
행정대학원	1	1	1	76	1	1	124	1	1	68	1	1	192	
계	82	55	62	4364	54	61	3478	55	62	5279	56	65	4509	
일반 교양	인문대	123	103	232	14109	110	240	13144	112	227	13808	117	227	12417
	사회대	16	14	37	2996	13	32	3124	13	36	2968	13	35	3098
	자연대	16	6	12	652	8	11	655	10	13	870	8	11	701
	간호대	1				1	1	110				1	1	121
	경영대													
	공 대	2	2	2	85	1	1	25	1	1	52	1	1	43
	농업생명과학대학	2	2	2	267	1	1	197	2	2	338	1	1	184
	미 대	8	8	11	734	8	11	781	8	12	683	8	13	885
	법 대	4	2	7	569	2	6	478	3	8	463	2	5	402
	사 대	45	39	153	4584	39	129	3982	39	153	4750	39	128	3936
	생활대	7	3	3	302	5	5	497	3	3	328	4	4	443
	약 대	1				1	1	282				1	1	217
	음 대	2	2	8	1295	2	7	1331	2	8	1370	2	8	1213
	의 대	1	1	1	322				1	1	162	1	1	196
	수의대													
	치 대													
	행정대학원	3	1	1	321	1	1	188	1	1	466	1	1	196
	보건대학원	2	1	1	96				1	1	27			
	환경대학원	2	1	1	191	2	2	242	1	1	149	2	2	221
기초교육원	1													
계	236	183	471	26523	194	449	25036	197	467	26434	201	439	24273	

<표 A.3> 교원 강의담당 현황(2002년, 대학원 포함)

구분	주당강의시간			전임 교원수 (A)	비전임 교원수 (B)	담당강의 시간비 (A:B)	전임교원의 주당강의시간
	1학기	2학기	평균				
인문대	3150	3006	3078	151	499	37:63	7.7
사회대	1024	1015	1019.5	101	76	77:23	7.8
자연대	1886	1725	1805.5	174	103	81:19	8.8
간호대	314	298	306	18	9	76:24	13.3
경영대	369	378	373.5	32	28	68:32	7.8
공 대	2359	2332	2345.5	258	91	87:13	8.0
농생대	1004	998	1001	99	42	88:12	8.9
미 대	640	675	657.5	29	100	43:57	9.6
법 대	351	378	364.5	33	21	81:19	8.6
사 대	1603	1507	1555	90	219	47:53	8.4
생활대	310	303	306.5	23	34	65:35	8.8
수의대	313	353	333	32		100:0	9.8
약 대	317	362	339.5	30	11	91:9	9.7
음 대	1367	1404	1385.5	40	217	37:63	12.6
의 대	2967	2980	2973.5	234	126	69:31	8.8
치 대	588	650	619	63	5	92:8	8.6
계	18562	18364	18463	1407	1581	65:35	8.6

- 1) 주당강의시간 : 체육교육과, 음악대학, 미술대학의 경우 실험실습시간은 강의시간으로 100% 인정하며, 나머지대학의 경우는 50%만 인정함
- 2) 전임교원수 : 휴직교수, 교환교수, 보직교수 등이 포함된 수치임

<표 A.4> 교원의 강의 부담( 2003년 2학기 )

구 분	전 임 교 원				기 타 교 원				개 설 과목수
	교원수	주당담당시간			교원수	주당담당시간			
		교양	전공, 대학원	계		교양	전공, 대학원	계	
인문대학	152	238	981	1,219	402	1,360	258	1,618	548
사회과학대학	111	59	781	840	74	69	168	237	256
자연과학대학	180	390	1,024	1,414	92	175	114	289	288
간호대학	19	3	220	223	8	3	48	51	51
경영대학	37	3	273	276	39	0	98	98	70
공과대학	274	9	2,220	2,229	82	18	247	265	484
농업생명과학대학	107	2	912	914	27	0	80	80	274
미술대학	31	14	344	358	103	36	332	368	170
법과대학	36	15	264	279	35	30	78	108	87
사범대학	102	27	756	783	207	236	532	768	401
생활과학대학	25	8	186	194	35	3	107	110	89
수의과대학	36	0	459	459	0	0	0	0	63
약학대학	40	2	347	349	14	0	32	32	94
음악대학	40	6	427	433	214	21	865	886	185
의과대학	257	3	2,226	2,229	108	0	828	828	115
치과대학	85	0	714	714	5	0	45	45	93
보건대학원	21	0	184	184	2	0	6	6	36
행정대학원	21	3	145	148	8	0	35	35	40
환경대학원	17	6	134	140	10	0	30	30	45
국제대학원	12	0	122	122	18	0	52	52	48
대학전체	1,603	788	12,719	13,507	1,483	1,951	3,955	5,906	3,439

<표 A.5> 강의시간 총 시수 중 시간강사 담당비율

구 분	총시간	시간강사 담당시간	시간강사 담당시간/총시간
'00/1	18,543	4,006	21.6
'00/2	18,352	3,925	21.4
'01/1	18,943	4,421	23.3
'01/2	18,378	4,005	21.8
'02/1	19,249	4,869	25.3
'02/2	19,013	4,606	24.2
'03/1	19,748	4,651	23.6
'03/2	19,413	4,305	22.2



<표 A.6> 전임교원 및 시간강사 강의담당 현황

구 분	교양강의		전공강의		대학원 강의	
	전임	시간강사	전임	시간강사	전임	시간강사
'00/1	779	1,366	5,255	1,441	6,515	636
'00/2	726	1,488	5,363	1,409	6,636	620
'01/1	794	1,577	4,958	1,550	6,546	697
'01/2	768	1,503	5,142	1,457	6,471	640
'02/1	760	1,896	4,977	1,998	6,892	797
'02/2	794	1,646	5,291	2,075	6,638	828
'03/1	771	1,783	5,739	2,046	7,697	807
'03/2	788	1,644	5,692	1,924	7,815	720

<표 A.7> 국외대학 취득학점 인정 상황

대학	2002							2003						
	3학점	6학점	9학점	12학점	15학점	17학점	계	3학점	6학점	9학점	12학점	15학점	17학점	계
인문대	2	7	5	6	3	1	24	10	6	2	1	2	1	22
사회대	4	4	9	6	6	2	31	4	9	5	3			21
자연대	3	2			1	4	10	1	3	1		2	1	8
간호대						1	1							-
경영대	4	3	5	7	4	1	24	5	8	8	11	3	2	37
공 대	1	3	2	1	2	2	11		2	1	1	1	1	6
농생대		1			1		2		1					1
미 대					1		1		1					1
법 대	1					2	3	3	2				1	6
사 대	1	4			1		6	1	1			1		3
생활대				1	1	2	4	1			3	1		5
음 대				1			1			1				1
합계	16	24	21	22	20	15	118	25	33	18	19	10	6	111

<표 A.8> 학술교류 협정체결현황(국내)

연번	대학명	일반협정	학생교환협정(학점교류)
		체결일자	체결일자
1	인제대학교	1994. 10. 24	
2	군산대학교	1997. 01. 23	
3	전남대학교	1997. 02. 24	1997. 02. 24
4	전북대학교	1997. 02. 24	1997. 02. 24
5	제주대학교	1997. 02. 24	1997. 02. 24
6	충남대학교	1997. 02. 24	1997. 02. 24
7	충북대학교	1997. 02. 24	1997. 02. 24
8	강원대학교	1997. 02. 24	1997. 02. 24
9	경북대학교	1997. 02. 24	1997. 02. 24
10	경상대학교	1997. 02. 24	1997. 02. 24
11	부산대학교	1997. 02. 24	1997. 02. 24
12	홍익대학교	1997. 04. 10	
13	포항공과대학교	1999. 12. 01	
14	경희대학교	1999. 12. 20	
15	고려대학교	2000. 01. 20	
16	성균관대학교	2000. 01. 24	
17	한양대학교	2000. 01. 24	
18	국제백신연구소	2000. 01. 25	
19	연세대학교	2000. 02. 09	
20	육군사관학교	2000. 03. 28	2000. 03. 28
21	한국정신문화원	2000. 06. 09	2000. 06. 09
22	해군사관학교	2000. 08. 18	2000. 08. 18
23	육군(해, 공군포함)	2001. 09. 19	2001. 09. 19
24	한국외국어대학교	2002. 01. 16	2002. 01. 16
25	국방대학교	2003. 01. 08	2003. 01. 08
26	한국원자력연구소	2003. 07. 07	
27	고려대학교	2003. 08. 25	
28	숙명여자대학교	2004. 03. 11	
29	공군사관학교	2004. 04. 28	
30	경찰대학교	2004. 07. 14	

<표 A.9> 국제학술교류 협정 현황

구 분	대 학 명	협정 체결일	비 고
미 국	U. C. L. A.	86. 11. 10	
호 주	시드니대학	89. 9. 27	
헝가리	부다페스트공과대학	90. 1. 25	
러시아	쌍뺨깨브르크한립원	90. 8. 2	
스웨덴	스톡홀름대학	90. 8. 3	
일 본	동경대학	90. 8. 17	
일 본	경도대학	91. 5. 21	
프랑스	국립사회과학대학원	91. 5. 27	
캐나다	부리티시 콜롬비아대학	91. 6. 3	
미 국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학	91. 9. 1	
호 주	호주국립대학	97. 11. 27	
호 주	그리피스대학	91. 12. 6	
중 국	연변대학	97. 7. 25	
중 국	북경대학	93. 11. 1	
영 국	뉴카슬대학	93. 11. 9	
일 본	일교대학	94. 2. 25	
영 국	옥스퍼드대학	94. 7. 19	
뉴질랜드	오크랜드대학	94. 9. 14	
독 일	자유베르린대학	94. 10. 26	
핀란드	헬싱키대학	95. 6. 15	
미 국	워싱턴대학	96. 7. 31	
미 국	미네소타대학	96. 12. 2	
일 본	동경외국어대학	96. 12. 30	
일 본	입명관대학	97. 1. 24	
호 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	97. 2. 3	

국가명	대 학 명	협정 체결일	비 고
영 국	세필드대학	97. 10. 6	
일 본	북해도대학	97. 10. 1	
멕시코	과달라하라대학	97. 10. 27	
미 국	콜로라도주립대학	97. 11. 19	
독 일	본대학	97. 12. 4	
캐나다	사이몬프레이저대학교	98. 3. 24	
싱가폴	싱가폴국립대학교	98. 4. 8	
프랑스	소르본대학교(파리제4대학)	98. 6. 10	
대 만	국립대만대학교	98. 6. 24	
태 국	출라롱콘대학교	98. 6. 25	
일 본	와세다대학교	98. 6. 25	
일 본	동북대학	98. 7. 8	
미 국	워싱턴주립대학교	99. 12. 31	
이집트	카이로 대학교	99. 12. 30	
독 일	훔볼더대학교	00. 5. 12	
러시아	모스크바대학교	00. 5. 29	
미 국	미주리대학교	00. 5. 29	
일 본	경응대학	00. 9. 5	
일 본	대판대학	00. 10. 20	
미 국	피츠버그대학교	00. 12. 6	
프랑스	썩매치엔에폴데민 대학	01. 07. 12	
일 본	큐슈대학	01. 08. 21	
독 일	뮌헨대학	01. 09. 27	
일 본	쇼난공과대학	01. 11. 27	
미 국	조지워싱턴대학	02. 01. 05	
호 주	멜버른대학	02. 05. 17	
중 국	후단대학	02. 06. 10	
미 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	02. 06. 16	
중 국	상해교통대학	02. 06. 18	
몽 골	몽골국립대학	02. 10. 24	
캐나다	앨버타대학	03. 11. 07	

<표 A.10> 9학기 이상 등록자 및 졸업자

대학명	2002			2003		
	전기	후기	소계	전기	후기	소계
인문대	125	69	194	121	65	186
사회대	182	77	259	158	69	227
자연대	107	50	157	121	71	192
간호대	7		7	10		10
경영대	102	32	134	92	32	124
공 대	394	212	606	406	212	618
농생대	89	59	148	97	53	150
미 대	35	14	49	33	17	50
법 대	143	55	198	180	62	242
사 대	79	62	141	116	62	178
생활대	25	10	35	34	22	56
수의대	3	1	4	5	1	6
약 대	12		12	9	1	10
음 대	18	17	35	22	25	47
의 대	29		29	30	3	33
치 대	6		6	5		5
합 계	1,356	658	2,014	1,439	695	2,134

<표 A.11> 졸업생 평균 취득학점

대학명	2002		2003	
	전기	후기	전기	후기
인문대	134	134	135	133
사회대	132	131	132	132
자연대	133	133	134	134
간호대	142		144	
경영대	131	131	131	132
공 대	133	135	134	134
농생대	132	132	133	134
미 대	133	132	132	134
법 대	142	142	141	141
사 대	133	137	135	137
생활대	135	136	133	137
수의대	159	162	155	175
약 대	153		152	155
음 대	131	134	132	137
의 대	163		164	165
치 대	158		158	

<표 A.12> 「두뇌한국 21」 사업단 및 교육연구단 현황(2003년 기준)

사업단명	주관대학	연합대학
정보기술 사업단	공대	고려대
인간생명과학 연구단	의대	-
농생명공학 사업단	농생대	경희대
생명과학 인력양성 사업단	자연대	성균관대
기계분야 연구인력양성 사업단	공대	한양대
재료연구 인력양성 사업단	공대	한양대
화공분야 연구인력양성 사업단	공대	포항공대
물리연구단	자연대	성균관대
화학·분자공학 연구단	자연대	고려대
수리과학 사업단	자연대	연세대
지구환경과학부 연합사업단	자연대	고려대
사회기반 및 건설기술 인력양성사업단	공대	한양대
21C 세계속의 한국법 발전 교육연구단	법대	-

<표 A.13> 「두뇌한국 21」 사업 핵심분야 사업팀 현황(2002년 기준)

선정분야	학문분야	사업팀명	소속대학
인문·사회	경영학	국제투자 및 국제경쟁력에 관한 연구인력양성 사업팀	경영대
	경영학	금융서비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연구 사업팀	경영대
	가정학	이동가족학 사업팀	생활대
기초 과학	통계학	입상시험 자료분석팀	자연대
	통계학	비모수적, 준모수적 함수추정 연구팀	자연대
	가정학	만성질환예방을 위한 식품영양 연구팀	생활대
	가정학	의류제품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가능성 향상 연구팀	생활대
응용 과학	건축공학	주거연구 및 개발팀	공대
	건축공학	건물성능향상을 위한 건축기술 개발팀	공대
	산업공학	지식기반 산업정보시스템팀	공대
	산업공학	산업지식 네트워크의 분석 관리 시스템 개발팀	공대
	원자핵공학	플라즈마 및 방사선 공학 인력양성팀	공대
	조선공학	해양 특수선의 유체성능 핵심기술 개발팀	공대
	조선공학	선박해양구조물 설계자동화 시스템 개발팀	공대
	조선공학	중소조선 혁신기술 제품개발팀	공대
	간 호 학	뇌졸중 후 회복촉진방안 개발팀	간호대
	생물약학	천연물 생체기능성 사업팀	천연물연구소
예·체능	작 물 학	친환경 식물생산 첨단기술 개발연구팀	농생대
	체 육	운동과학팀	사대

<표 A.14> 「두뇌한국 21」 사업 신규분야 사업팀 현황(2003년 기준)

선정분야	학문분야	사업팀명	소속대학
인문·사회	언어학	국어	인문대
	경제학	기업연구: 이론 및 실증분석팀	사회대
	경제학	인구노령화와 한국경제 연구 사업팀	사회대
	가정학	아동가족학 사업팀	생활대
기초 과학	통계학	비모수적, 준모수적 함수추정 연구팀	자연대
응용 과학	임상공학	임상공학 연구인력 양성사업팀	농생대

<표A.15> 본부직할 연구시설별 인력 현황

연구소(원)	행정직원(명)				전임연구원(A)(명)				겸임 연구원(B)	객원 연구원(C)	연구원 총계 (A+B+C)
	일반직	기능직	기성회직	소계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			
인문학연구원	-	-	1	1	-	47	-	-	70	16	133
한국문화연구원	1	-	-	1	-	13	3	57	61	2	136
미국학연구원	-	-	-	-	-	-	-	-	18	-	18
인지과학연구원	-	-	-	-	-	1	-	4	7	1	13
철학사상연구원	-	-	-	-	-	26	1	24	70	3	124
역사연구원	-	-	-	-	-	-	-	-	27	1	28
사회과학연구원	1	-	-	1	-	15	16	16	33	2	82
경제연구원	-	1	-	1	-	-	-	1	54	2	57
언론정보연구원	-	1	-	1	-	-	-	-	2	-	2
국제문예연구원	-	-	-	-	2	9	-	17	31	2	61
심리과학연구원	-	-	-	-	2	-	6	-	8	1	17
사회발전연구원	-	-	-	-	1	4	-	4	13	5	27
국토문예연구원	-	-	-	-	-	3	1	16	17	2	39
여성연구원	-	-	-	-	-	5	3	-	8	-	16
경영연구원	-	-	-	-	-	-	-	-	36	3	39
노사관계연구원	-	-	-	-	-	-	-	1	6	-	7
경영정보연구원	-	-	-	-	-	-	-	-	34	1	35
증권금융연구원	-	-	-	-	-	1	-	-	36	-	37
법학연구원	-	1	-	1	2	5	2	1	34	2	46
교육종합연구원	-	1	-	1	-	1	-	-	2	16	19
교육연구원	-	-	-	-	-	1	1	4	13	9	28
스포츠과학연구원	-	-	-	-	1	16	-	-	26	-	43
국어교육연구원	-	-	-	-	-	15	32	-	29	8	84
한국행정연구원	-	-	-	-	-	-	4	-	2	-	6
정보통신행정연구원	-	-	-	-	-	-	-	-	10	-	10
국제학연구원	-	-	-	-	-	-	-	1	-	-	1
기초과학연구원	1	-	-	1	1	5	3	25	-	3	37
생명공학연구원	1	-	-	1	1	1	-	-	-	-	2
유전공학연구원	1	-	1	2	-	2	-	25	11	1	39
해양연구원	-	1	-	1	4	3	5	-	-	12	24
이론물리학연구원	-	-	-	-	-	-	1	-	13	3	17
미생물연구원	-	-	-	-	1	-	19	-	-	-	20
수학연구원	-	-	-	-	-	-	1	-	25	-	26
간호과학연구원	-	-	-	-	-	6	11	1	19	1	38
반도체공동연구원	6	4	3	13	-	-	1	7	12	11	31
공학연구원	1	-	-	1	-	-	1	53	44	25	123
신소재공동연구원	-	1	-	1	1	4	8	21	49	1	84
자동화시스템공동	1	-	-	1	-	-	-	9	18	-	27
컴퓨터연구원	-	-	-	-	-	-	-	109	25	7	141
정밀기계설계연구원	-	1	-	1	-	15	1	96	42	14	168
뉴미디어통신연구원	-	-	-	-	-	2	1	132	119	-	254
에너지자원신기술	-	-	-	-	-	-	-	113	71	1	185
해양시스템공학	-	-	-	-	5	6	4	2	24	-	41
초미세소자기술연구원	-	-	-	-	-	3	-	-	14	-	17
화학공정신기술	-	-	-	-	-	-	-	5	28	-	33
항공우주신기술	-	-	-	-	-	-	-	6	12	-	18
농업생명과학연구원	1	-	-	1	-	3	6	8	99	19	135
농업생물신소재	-	-	-	-	-	-	6	6	33	4	49
수의과학연구원	-	-	-	-	-	1	-	4	35	-	40
중합약학연구원	-	-	-	-	2	23	10	53	50	1	139
천연물과학연구원	1	2	3	6	-	9	-	8	-	1	18
의학연구원	1	-	-	1	2	27	65	-	71	18	183
암연구원	2	1	-	3	-	3	5	41	41	-	90
간염연구원	-	-	-	-	-	-	-	6	7	-	13
치학연구원	-	1	-	1	-	4	2	60	80	-	146
보건환경연구원	-	-	-	-	-	3	3	14	4	3	27
환경계획연구원	-	-	-	-	-	-	-	36	17	-	53
조형연구원	-	-	-	-	-	-	-	5	7	-	12
동양음악연구원	-	-	-	-	-	1	2	-	2	-	5
서양음악연구원	-	-	-	-	-	-	-	-	1	-	1
오페라연구원	-	-	-	-	-	-	-	33	10	-	43
생활과학연구원	-	-	-	-	-	2	-	11	54	1	68
합 계	18	15	8	41	25	285	224	1,035	1,684	202	3,455



<표 A.16> 단과대학(원) 및 기관 지원의 사회교육과정 운영 현황

(단위 : 명)

주관기관	과 정 명	수강대상	시작 년	수강인원(연간)	
				2002	2003
자연대	해양정책최고과정	정부 기관의 서기관급 이상, 국회의원, 변호사 등	2000	30	30
"	과학 및 정책 최고연구과정	정부기관, 공·사 기업의 고위직, 언론 및 주요기관의 고위간부 등	2002	59	41
간호대	가정간호사이수과정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1993	80	80
경영대	최고경영자과정	기업체 임원, 2급이상 공무원, 군장성, 국회의원, 기타 주요 기관장	1976	148	147
"	고급금융과정	금융권의 과장급, 기업체의 재무담당 부장·차장급	1992	108	103
"	KT-MBA과정	한국통신 2급 이상	1997	20	22
"	공기업고급경영자과정	정부투자기관 2급 이상	1997	136	143
공 대	최고산업전략과정	공기업 임원, 정부기관 2급 이상, 기타 동등 자격 소지자	1989	124	126
"	IT 벤처산업과정	중소·대기업의 CEO, CMO, CFO	2002	123	40
농생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경기도, 인천, 충남, 경북, 전남 등의 농업인	1993	61	53
법 대	전문분야법학연구과정	판사, 검사, 변호사, 5급 이상 공무원, 기업체 부서장급 이상	1996	129	128
사 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지도자과정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1개 외국어 구사 및 표준어 구사 가능자	1997	56	54
생활대	패션사업 최고경영자과정	패션·섬유 및 의류 관련기업 경영자 또는 고위 임원 등	2002	39	30
약 대	단기임상약학연수교육과정	약사, 관련분야 종사자	1995	139	118
음악대	음악지도자과정	음대 졸업자, 음악 관련 예술분야 전공자, 음악에 관심있는 자	1993	6	9
"	음악실기과정	악기 연주 개인레슨을 원하는 중급 이상 실력을 가진 성인 등	1993	20	32
"	국악지도자과정	음대 졸업자, 국악 관련 예술분야 전공자, 음악에 관심있는 자	2000	20	-
"	국악실기과정	국악기 연주 개인레슨을 원하는 중급 이상 실력을 가진 성인	2000	6	14

주관기관	과 정 명	수강대상	시작 년	수강인원(연간)	
				2002	2003
치 대	임상치의학연수과정	개원 치과의사	2000	24	23
보건 대학원	식품 및 외식산업보건 최고경영자과정	외식산업체 및 식품업체, 식품유 통업 최고경영자 등	1996	65	75
보건 대학원	보건의료정책 최고 관리자과정	보건의료 관련 공직자 중 정책수립 및 결정 과정의 최고책임자 등	1997	83	84
행정 대학원	국가정책과정	정부부처 3급 이상, 군장성, 국회의 원, 언론기관의 고위간부 등	1972	77	74
“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	정부 4급 이상 공무원, 정부부처 산하 출연기관의 고위관리자 등	1995	61	68
환경 대학원	CEO환경 경영포럼	국회의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고위공직자 등	2001	22	31
“	도시·환경 디자인 최고전문가과정	건축설계 사무소 대표자 또는 책 임입원 등	2001	25	33
국제 대학원	글로벌 리더쉽과정	기업체 최고경영자, 국회의원, 군 장성, 변호사, 의사 등	2000	90	90
중앙 전산원	IT교육과정	교수, 직원, 학생 등	1975	888	277
보건 진료소	건강강좌(무료)	교직원, 학생 등	1994	127	29
언어 교육원	외국어 교육	본교생 및 졸업생	1969	5,427	6,606
“	한국어 교육	외국인	1969	940	1,100
경제 연구소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국회의원급 정치인, 3급 이상 공 무원, 기관장급 간부 등	2001	80	80
기초과학 연구원	통계분석공개강좌	학생, 공무원, 일반인	1987	135	140
반도체 공동연구소	공정교육	산업체 직원, 대학원생, 학부생	1989	388	422
“	설계교육	산업체 직원, 대학원생, 학부생	1989	69	115
“	하계강좌	산업체 직원, 대학원생, 학부생	1990	166	137
계	35개			20,971	24,754

## 2. 2002년 주요 일지

- |                     |                             |
|---------------------|-----------------------------|
| 2002. 1. 2(수)       | • 시무식                       |
| 2. 18(월) ~ 2. 22(금) | • 2002학년도 제1학기 재학생 등록       |
| 2. 18(월) ~ 2. 23(토) | • 2002학년도 제1학기 복수전공 신청 및 취소 |
| 2. 26(화)            | • 2001학년도 학위 수여식            |
| 2. 28(목)            | • 동기휴가 종료                   |
|                     | • 교수정년퇴임식                   |
| 3. 2(토)             | • 제1학기 개강                   |
| 3. 4(월)             | • 입학식                       |
| 3. 4(월) ~ 3. 6(수)   | • 석·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 지원서 제출    |
| 3. 4(월) ~ 3. 9(토)   | • 제2학기 개설교과목 신청             |
| 3. 9(토)             | • 제1학기 수강신청 변경 마감           |
| 3. 16(토)            | • 석·박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          |
| 3. 18(월) ~ 3. 23(토) | • 하계계절수업 개설 교과목 신청          |
| 3. 27(수)            | • 수업주수 1/4선                 |
| 4. 6(토)             | • 제1학기 수강신청 취소 마감           |
| 4. 23(화)            | • 수업주수 2/4선                 |
| 4. 29(월) ~ 5. 4(토)  | • 하계계절수업 수강신청               |
| 5. 13(월) ~ 5. 18(토) | • 제2학기 수강신청                 |
| 5. 20(월)            | • 수업주수 3/4선                 |
| 6. 3(월) ~ 6. 14(금)  | • 제2학기 장학생 선정 신청서 제출        |
| 6. 15(토)            | • 제1학기 종강                   |
| 6. 17(월)            | • 하기휴가 개시                   |
| 6. 17(월)            | • 하계 계절수업 개강                |
| 6. 22(토)            | • 제1학기 성적제출 마감              |

- 6. 29(토) • 일반직 공무원 정년퇴임식
- 8. 1(목) • 제23대 정운찬 총장 취임식
- 8. 10(토) • 계절수업 종강
- 8. 12(월) ~ 8. 17(토) • 제2학기 복수전공 신청
- 8. 19(월) ~ 8. 24(토) • 제2학기 재학생 등록
- 8. 30(금) • 교수 정년퇴임식
- 8. 31(토) • 하기휴가 종료
- 9. 2(월) • 제2학기 개강
- 9. 2(월) ~ 9. 4(수) • 석·박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지원서 제출
- 9. 2(월) ~ 9. 7(토) • 2003학년도 제1학기 개설교과목 신청
- 9. 7(토) • 제2학기 수강신청 변경 마감
- 9. 14(토) • 석·박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
- 9. 28(토) • 수업주수 1/4선
- 10. 7(월) • 제2학기 수강신청 취소 마감
- 10. 14(월) • 개교 56주년 개교기념식 거행  
• 제12회 자랑스러운서울대인 선정·발표
- 10. 15(화) • 개교기념일
- 10. 24(목) • 수업주수 2/4선
- 11. 18(월) ~ 11. 23(토) • 2003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
- 11. 19(화) • 수업주수 3/4선
- 11. 18(월) ~ 11. 29(금) • 2001학년도 제1학기 장학생 선정 신청서 제출
- 12. 16(월) ~ 12. 18(수) • 2학기 보강기간
- 12. 18(수) • 제2학기 종강
- 12. 19(목) • 동기휴가 개시
- 12. 26(목) • 제2학기 성적제출 마감
- 12. 30(월) • 일반직 공무원 정년퇴임식
- 12. 31(화) • 종무식

### 3. 2003년 주요 일지

- |                     |                               |
|---------------------|-------------------------------|
| 2003. 1. 2(목)       | • 시무식                         |
| 2. 17(월) ~ 2. 22(토) | • 2003학년도 제1학기 복수전공 신청        |
| 2. 17(월) ~ 2. 22(금) | • 2003학년도 제1학기 재학생 등록         |
| 2. 26(수)            | • 2002학년도 학위 수여식              |
| 2. 28(금)            | • 동기휴가 종료                     |
|                     | • 교수 정년퇴임식                    |
| 3. 3(월)             | • 제1학기 개강 및 입학식               |
| 3. 3(월) ~ 3. 5(수)   | • 석·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 지원서 제출      |
| 3. 3(월) ~ 3. 8(토)   | • 제1학기 수강신청 변경, 제2학기 개설교과목 신청 |
| 3. 15(토)            | • 석·박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            |
| 3. 17(월) ~ 3. 22(토) | • 하계계절수업 개설교과목 신청             |
| 3. 28(금)            | • 수업주수 1/4선                   |
| 4. 5(토)             | • 제1학기 수강신청 취소 마감             |
| 4. 24(목)            | • 수업주수 2/4선                   |
| 4. 28(수) ~ 5. 3(토)  | • 하계계절수업 수강신청                 |
| 5. 21(수)            | • 수업주수 3/4선                   |
| 6. 2(월) ~ 6. 14(토)  | • 제2학기 장학생 선정 신청서 제출          |
| 6. 14(토)            | • 제1학기 종강                     |
| 6. 18(수)            | • 하기휴가 개시                     |
| 6. 18(수)            | • 하계계절수업 개강                   |
| 6. 24(화)            | • 제1학기 성적제출 마감                |
| 6. 30(월)            | • 일반직 공무원 정년퇴임식               |
| 7. 7(월)             | • 하계계절학기 수강신청 취소 1/3선         |
| 8. 2(토) ~ 8. 8(금)   | • 제2학기 수강신청                   |

- 8. 11(월) ~ 8. 16(토) • 제2학기 복수전공 신청
- 8. 12(화) • 하계계절학기 종강
- 8. 22(금) ~ 8. 28(목) • 제2학기 재학생 등록
- 8. 29(금) • 교수 정년퇴임식
- 8. 31(일) • 하기휴가 종료
- 9. 1(월) • 제2학기 개강
- 9. 1(월) ~ 9. 3(수) • 석·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 지원서 제출
- 9. 1(월) ~ 9. 6(토) • 제2학기 수강신청 변경, 2004학년도 제1학기 개설교과목 신청
- 9. 20(토) • 석·박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
- 9. 26(금) • 수업주수 1/4선
- 10. 7(화) • 제2학기 수강신청 취소 마감
- 10. 14(화) • 개교 57주년 개교기념식 거행
- 제13회 자랑스러운서울대인 선정·발표
- 10. 15(수) • 개교기념일
- 10. 23(목) • 수업주수 2/4선
- 11. 17(월) ~ 11. 29(토) • 2004학년도 제1학기 장학생 선정 신청서 제출
- 11. 19(수) • 수업주수 3/4선
- 12. 13(토) • 제2학기 종강
- 12. 18(목) • 동기휴가 개시
- 12. 24(수) • 제2학기 성적제출 마감
- 12. 30(화) • 일반직 공무원 정년퇴임식
- 12. 31(수) • 종무식

## 4. 서울대학교설치령

(일부개정 2003. 2. 24 대통령령제17912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학교인 서울대학교의 설치·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관할 아래 서울대학교를 둔다.

제3조 (소재지) 서울대학교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한다. 다만, 일부 단과대학의 경우에는 그 시설을 경기도에 둘 수 있다.

제4조 (운영의 원칙)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있어서는 고등교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공무원의 정원) 서울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학교의 장)

- ① 서울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제7조 (부총장)

- ① 서울대학교에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총장 1인을 두되, 교수로 겸보한다.
- ② 부총장은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단과대학 등)

- ① 서울대학교에 별표 1의 범위안에서 단과대학 및 대학원을,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학과 및 학부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과대학·대학원·학과 및 학부에 장을 각각 두되,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 ③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학과 및 학부의 장은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대학원·학과 및 학부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 제9조 (부속시설 등)

- ① 서울대학교에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연구시설·부속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이하 "부속시설"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② 부속시설에 장을 각각 두되, 부속시설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대학원·학과 또는 학부의 장으로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한다.
- ④ 총장은 부속시설중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시설 및 부속시설(공통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매 2년마다 해당 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 제10조 (부설학교)

- ① 서울대학교의 사범계 단과대학(이하 이 조에서 "사범대학"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부설한다.
  - 1. 부설초등학교
  - 2. 부설중학교
  - 3. 부설여자중학교
  - 4. 부설고등학교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학교에 장을 각각 두되, 부설학교의 장은 사범대학의 장의 명을 받아 당해 학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 제11조 (하부조직)

- ① 서울대학교에 사무국을 포함하여 6개의 범위안에서 처·실 및 국을 두되, 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



사관으로 보하고, 처장 및 실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 ② 사무국장은 별표 2의 사무를 분장하고, 처장·실장 및 국장의 분장사무는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③ 부속시설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처·실 및 국에 16개의 범위안에서 과 및 담당관을 둔다. 이 경우 과 및 담당관의 명칭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④ 과장 및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사서서기관·공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 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15개의 범위안에서 행정실을 두되, 실장은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단과대학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통합하여 둘 수 있다.

제12조 (월정직채급 지급 등) 제7조 내지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는 경우에는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의 봉급·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학비보조 등)

- ① 학사과정 간호계 학과 또는 학부의 제3학년 이상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들 학생에 대하여는 기숙사비·피복비 및 그 밖의 학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이 휴학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학을 당한 때에는 그 기간중 학비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14조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 ① 서울대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② 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단과대학·대학원·학과 및 학부의 설치
  2. 부설학교 및 부속시설의 설치
  3. 하부조직(단과대학·대학원 및 부속시설에 두는 하부조직을 포함한다)과 그 분장사무

4. 그 밖에 조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총장은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조직 및 인력배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하되,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7144호, 2001.3.2>

-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제11조(사무국장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부속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속학교는 이 영에 의한 부설학교로 본다.
-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912호, 2003.2.24>

이 영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설치범위(제8조제1항관련)**

구 분	단과대학	대 학 원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설치범위	16	1	4

**【별표 2】**

**사무국장의 분장사무(제11조제2항관련)**

명 칭	분 장 사 무
사무국장	보안, 관인관리, 직원인사, 급여, 문서관리, 법무, 자체감사,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회계 및 결산,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원 관리, 비상기획, 그 밖에 총장이 정하는 사항

## 5. 서울대학교학칙

개정	1986. 1. 25	규칙	제668호	1996. 4. 3	규칙	제1003호	
	1986. 4. 30	규칙	제673호	1996. 7. 16	규칙	제1014호	
	1986. 7. 5	규칙	제681호	1996. 12. 24	규칙	제1028호	
	1987. 4. 28	규칙	제696호	1997. 5. 30	규칙	제1049호	
	1987. 9. 1	규칙	제700호	1997. 6. 24	규칙	제1059호	
	1987. 11. 17	규칙	제709호	1997. 10. 18	규칙	제1072호	
전문개정	1988. 2. 22	규칙	제714호	1998. 3. 13	규칙	제1087호	
개정	1988. 12. 15	규칙	제738호	1998. 9. 10	규칙	제1104호	
	1989. 6. 14	규칙	제754호	1999. 1. 12	규칙	제1112호	
	1989. 11. 15	규칙	제771호	1999. 5. 25	규칙	제1126호	
	1990. 1. 29	규칙	제786호	1999. 7. 21	규칙	제1129호	
	1990. 1. 29	규칙	제787호	1999. 11. 24	규칙	제1139호	
	1990. 12. 4	규칙	제818호	2000. 2. 3	규칙	제1147호	
	1991. 4. 26	규칙	제829호	2001. 2. 1	규칙	제1169호	
	1991. 5. 15	규칙	제832호	전문개정	2001. 8. 31	규칙	제1197호
	1992. 4. 20	규칙	제866호	개정	2002. 2. 21	규칙	제1228호
	1992. 8. 27	규칙	제887호		2002. 6. 7	규칙	제1321호
	1993. 4. 21	규칙	제901호		2002. 10. 25	규칙	제1362호
	1993. 8. 2	규칙	제910호		2003. 1. 1	규칙	제1368호
	1993. 8. 31	규칙	제912호		2003. 2. 25	규칙	제1376호
	1993. 8. 31	규칙	제912호		2003. 6. 11	규칙	제1380호
	1993. 12. 22	규칙	제923호		2003. 8. 23	규칙	제1404호
	1993. 12. 27	규칙	제925호		2004. 1. 16	규칙	제1408호
	1994. 4. 25	규칙	제932호		2004. 2. 24	규칙	제1420호
	1995. 2. 16	규칙	제954호		2004. 5. 12	규칙	제1423호
	1995. 10. 10	규칙	제976호		2004. 8. 3	규칙	제 1455호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학칙은 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교육목표) 본교는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교수하며 사회의 각 부문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학술연구를 진작함으로써 자아의 실현과 국가의 발전 및 인류의 번영에 기여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 3 조 삭제 <2003. 8. 23>

제 4 조 삭제 <2003. 8. 23>

제 5 조 (교육조직의 설치) ①대학,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학부 및 학과(이하 “학과(부)”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학문의 분류상 전문적인 독립성이 인정되며, 그 학문의 성격, 교육조직의 일반관례, 사회적 수요 및 본교의 교육목표·장기계획 등에 비추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전임교수 및 학생의 수, 교육시설 등이 적정 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 ②학부 및 학과는 대학·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다.
- ③학사과정 또는 대학원과정 내에 동일 명칭의 학부 또는 학과를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
- ④학과(부)에는 전공 또는 교과과정상 전공을 둘 수 있다. 단, 학사과정 또는 대학원과정 내에 동일 명칭의 전공을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
- ⑤학과(부) 내에 전공을 따로 두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한다.

제 6 조 (학위과정의 설치 등) ①학부 또는 학과에 학위과정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학문의 성격, 본교의 교육목표 등에 비추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전임교수 및 학생의 수, 교육시설 등이 적정 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②대학원과정에 두는 학위과정으로 학과 또는 전공 외에 2개 이상의 학과(부)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연·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은 협동과정의 운영실적을 매 2년 마다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각급 학위과정에 외국의 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7 조 (전임교수의 소속 및 교수시간) ①전임교수는 대학 또는 대학원의 학과(부)에 소속된다. 다만, 필요에 따라 타 학과(부) 또는 부속시설에 겸임될 수 있다.

②총장은 교수의 소속을 변경하거나 겸임을 명할 수 있다.

③겸임교수의 인사관리와 교수활동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전임교수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기준으로 주당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8 조 (명예교수) 본교에 명예교수를 두며 추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9 조 (교과과정의 운영) ①교과과정은 각 학과(부) 단위에서 종적으로 각급 학위과정간에 일관성있게 조정 운영되어야 하며, 횡적으로 각 학과(부)와 각 대학·전문대학원 또는 기초교육원간에 상호 조정 운영되어야 한다.<개정 2004. 8. 3>

②학사과정의 기초교육양교육을 위한 교과과정은 통합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04. 8. 3>

③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4. 8. 3>

제 10 조 (교육 등의 위탁) ①학사과정 학생의 경우 기초교양교육 등을 위하여 입학 후 일정기간 동안 타 대학 또는 기초교육원에 교육을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04. 8. 3>

②대학원과정의 교육 및 대학원 소속 전임교수의 인사관리는 대학원장이 각 학장과 전문대학 원장에게 위탁하여 시행한다.

③학장은 대학원 소속 전임교수에게 학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 11 조 (대학(원)간·학과(부)간·부속시설간 협조) ①2개 이상의 학부·학과나 대학·전문대학원 또는 기초교육원간에 교과과정·인사·예산·시설 등에 관하여 상호 협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4. 8. 3>

②2개 이상의 부속시설간에 상호 협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2 장 조 직

### 제 1 절 총장·부총장

제11조의2 (총장)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본교를 대표한다.

[본조 신설 2003. 8. 23]

제11조의3 (부총장)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신설 2003. 8. 23]

### 제 2 절 교육조직

제 12 조 (대학·대학원 등) ①본교에 인문대학·사회과학대학·자연과학대학·간호대학·경영대학·공과대학·농업생명과학대학·미술대학·법과대학·사범대학·생활과학대학·수의과대학·약학대학·음악대학·의과대학·치과대학을 둔다.

②본교에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으로 보건대학원·행정대학원·환경대학원·국제대학원을 둔다.<개정 2003. 2. 25>

③대학에 별표1의 학부·학과·전공을 둔다.

제 13 조 (학생의 소속) 학사과정 학생은 규정에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2에서 정한 1개의 모집단위 또는 별표1의 대학별 설치 학과(부)·전공에 소속되며, 대학원과정 학생은 별표3에서 정한 1개의 학과(부)·전공 또는 협동과정에 소속된다.

제 14 조 (학사과정의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 ①학사과정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2와 같다.

②학사과정의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학생모집시에 정한다.

제 15 조 (대학원과정의 입학정원) ①대학원의 입학정원은 별표3과 같다.

②대학원과정의 학생모집단위별 구분과 모집인원은 학생모집시에 정한다. 다만, 모집인원에 여석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 16 조 (학장 등) ①대학에 학장, 대학원에 원장을 두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학장은 그 대학의 행정을 통할하고, 학사과정 학생의 교육과 부속시설·부설학교의 운영을 담당한다.

③대학원장 및 전문대학원장은 그 대학원의 행정을 통할하고, 대학원 학생의 교육과 부속시설 운영을 담당한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학원장이 대학원과정의 학생교육을 학장 및 전문대학원장에게 위탁할 때에는 당해 학장 및 전문대학원장이 담당한다.

④대학에 교무부학과장 학생부학과장(단, 간호·미술·생활과학·수의과·약학 및 음악대학에는 부학과장 1인)을, 전문대학원에 부원장을 두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⑤교무부학과장은 입학·졸업·학적·강좌·교과과정·학술연구·수업·학점 기타 교무에 관한 사항을, 학생부학과장은 학생의 보건·후생·상벌·장학·동원·집회·훈련·병사와 기타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학장을 보좌한다.

⑥학(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학(원)장(부학과장 2인인 대학은 교무부학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7 조 (학부장 및 학과장) ①대학과 대학원의 학부 또는 학과(전공)에 학부장 또는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을 두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학장 또는 전문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 ②대학과 대학원의 학부장 또는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은 상호 견보할 수 있다.
- ③학부장 및 학과장은 학부 및 학과의 운영을 통할하고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의 학생 교육과 지도에 관하여 학(원)장을 보좌한다.

제 18 조 (교수회) ①대학과 전문대학원에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 ②교수회는 전임교수로 구성하며 의장은 학(원)장이 된다.
- ③교수회는 의장이 소집하되, 재적교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하여야 한다.
- ④교수회는 재적교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교수회는 당해 학(원)장의 소관업무 중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칙·제규정의 제정과 변경 발의
  2. 입학, 수료 및 졸업
  3. 학생지도, 장학 및 후생
  4. 학생 포상 및 징계
  5. 교과과정
  6. 각 대학(원) 인사위원회 위원 선출
  7. 학부 또는 학과간의 업무 조정
  8. 학부 또는 학과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건의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⑥교수회 심의사항 중 일부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제 3 절 부속시설 및 부설학교

제 19 조 (부속시설) ①본교에 지원시설로 입학관리본부·대외협력본부·정보화본부·중앙도서관 및 기초교육원을 둔다.<개정 2002. 6. 7>

- ②본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산학협력단을 둔다.<신설 2004. 5. 12>
- ③본교에 별표4의 연구시설과 별표5의 부속시설을 둔다.
- ④지원시설·연구시설·부속시설(이하 “부속시설”이라 한다)에 각각 장을 두되, 부속시설의 장은 관련 대학·대학원·학과 또는 학부의 장으로 견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부속시설의 장은 총장 또는 학(원)장의 명을 받아 그 부속시설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 을 지휘·감독한다.
- ⑥부속시설의 내부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⑦총장은 부속시설 중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시설 및 부속시설(공통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매 2년마다 해당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 한다. 이 경우 평가와 존속 및 폐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20 조 (입학관리본부) ①입학관리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견보한다.

- ②입학관리본부에 입학관리과를 두며,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입학관리과장은 대학신입학전형·편입학전형· 대학원입학전형, 석·박사통합과정 선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④입학관리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21 조 (대외협력본부) ①대외협력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견보한다.

- ②대외협력본부에 대외협력팀을 두며, 팀장은 서기관·교육행정사무원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03. 1. 1>
- ③대외협력팀장은 국내외 학술교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협정체결, 대외협력업무 지원, 국외유학 및 교류, 외국인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④대외협력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22 조 (정보화본부) ①정보화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개정 2003. 6. 11>

- ②본부장은 대학정보화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03. 6. 11>
- ③정보화본부에 중앙전산원을 두며, 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개정 2003. 6. 11>
- ④중앙전산원 산하에 연건분원을 두며, 분원장은 조교수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겸보한다.<신설 2003. 6. 11>
- ⑤정보화본부에 정보화기획팀을 두며, 팀장은 서기관·전산서기관·교육행정사무원 또는 전산사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03. 1. 1, 2003. 6. 11>
- ⑥정보화기획팀장은 대학 종합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캠퍼스전산망 관리 지원, 정보자원 관리와 학술정보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개정 2003. 1. 1, 2003. 6. 11>
- ⑦정보화본부 및 중앙전산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3. 6. 11>

제 23 조 (중앙도서관 등) ①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도서관장을 두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 ②도서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③도서관의 전문분야별 분관으로 사회과학도서관·경영도서관·농학도서관·법학도서관·의학도서관·치의학도서관을 두며, 각 분관에는 분관장을 두되,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 ④각 분관장은 분관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⑤도서관에 수서정리과·정보관리과 및 행정지원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원으로 보한다.
- ⑥수서정리과장은 도서관 자료의 기본계획 수립, 자료의 선정·구입·등록·제작·폐기·분류·편목 및 통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⑦정보관리과장은 도서관 자료의 열람·대출·보관, 서고 및 자료실관리, 제본·참고봉사·정보지원·상호이용, 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전자도서관 구축 및 관리, 전산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⑧행정지원팀장은 보안·인사·관인관수·문서·회계 및 물품관리, 분관관리 및 지원과 기타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 ⑨도서관 및 분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23 조의2 (기초교육원) ①기초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 ②기초교육원장은 학사과정 기초교양교육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③기초교육원에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두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신설 2004. 8. 3>
- ④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4. 8. 3>
- ⑤기초교육원에 주임교수를 두며 주임교수는 원장을 보좌하여 기초교양교육과정의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개정 2004. 8. 3>
- ⑥기초교육원에 행정지원팀을 두며 팀장은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04. 8. 3>

⑦행정지원팀장은 기초교육예산운영, 학사관리, 서무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개정 2004. 8. 3>

⑧기초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4. 8. 3>

[본조 신설 2002. 6. 7]

제23조의3(산학협력단) ①산학협력단장은 연구처장으로 겸보하고, 산학협력계약의 체결과 그 이행, 산학협력 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②산학협력단에 부단장을 두고 부단장은 연구부처장으로 겸보한다.

③산학협력단 업무는 연구처 직원이 겸무할 수 있다.

④산학협력단의 세부조직 및 운영, 감사의 선임 및 감사 실시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4. 5. 12]

제 24 조 (부설학교) ①사범대학에 다음의 학교를 부설한다.

1. 부설초등학교

2. 부설중학교

3. 부설여자중학교

4. 부설고등학교

②부설학교의 학칙은 따로 정한다.

#### 제 4 절 행정조직

제 25 조 (처·실·국) ①본교에 교무처·학생처·연구처·기획실·사무국 및 시설관리국을 두며 각 처장과 기획실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고, 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각 처와 실에 처장 또는 실장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부처장과 부실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제 26 조 (교무처) ①교무처에 교무과와 학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교무과장은 대학·대학원·학과(부) 및 과정의 설치와 폐지, 교과과정의 작성, 학생정원의 관리, 교원 및 조교의 인사, 박물관·미술관·언어교육원 및 연수원에 관한 사항과 처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담당한다.<개정 2003. 1. 1, 2004. 2. 24>

③학사과장은 입학·등록·휴학·복학·전과(부)·전학·학적·제적·졸업·학위수여·수강신청·수업관리·교외교육·실습·공통시험관리·성적·교구·교육보조자료·교수학습개발센터 등 수업 및 실습 관련 부속시설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 27 조 (학생처) ①학생처에 학생과와 복지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학생과장은 학생활동의 지도 및 지원, 학생상벌 및 병무지원, 문화 및 체육활동, 문화관·학생회관·두레문예관·대학생활문화원·성희롱·성폭력상담소·대학신문사의 관리·지원과 기타 처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③복지과장은 장학, 학생취업지도, 기타 장학에 관한 사항과 보건 및 후생복지, 학생기숙사·보건진료소 및 기타 교내 후생복지시설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 28 조 (연구처) ①연구처에 연구진흥과와 연구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연구진흥과장은 연구진흥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연구비 유치 및 관리, 간접연구경비 관리, 산학



협력단 운영지원, 지적재산권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과 기타 처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담당한다.<개정 2004. 5. 12>

③연구지원과장은 학술교류활동 지원, 연구소(원)의 설치·지원 및 평가, 특별연구사업 수행, 연구교수제 운영, 연구성과의 보급·홍보에 관한 사항, 연구용 기자재 관리와 규장각·실험동물사육장·기초과학공동기기원·출판부 및 연구지원 관련 부속시설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개정 2004. 5. 12, 2004. 8. 3>

[전문개정 2003. 1. 1]

제 29 조 (기획실) ①기획실에 기획담당관을 두며,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기획담당관은 대학발전 및 학사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시설·재정 및 예산관련 기획, 대학운영의 평가 및 분석, 홍보, 각종 교육통계의 작성·관리 및 기록관 지원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 30 조 (사무국) ①사무국에 총무과·재무과 및 예산담당관을 두며, 과장 및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장은 보안·인사(교원의 인사를 제외한다)·관인관수·문서관리·법령·예규·비상계획 및 연금과 기타 다른 처·실·국·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③재무과장은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자금관리·급여에 관한 사항과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④예산담당관은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심사분석과 감사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 31 조 (시설관리국) ①시설관리국에 관리과·시설과 및 기술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관리과장은 건물의 관리·청소·조경·경비·차량관리 및 소방과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③시설과장은 건축·토목·전기·통신·기계설비·환경 등 시설물의 신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④기술과장은 건축·토목·전기·통신·기계, 기타 내부설비와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 32 조 (대학행정실) ①대학(원)에 15개의 범위내에서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행정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행정실장은 각 대학(원)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입학·졸업·학위 및 교과과정
2. 학적관리·수업·학점 및 성적
3. 학생지도 및 상벌
4. 장학·취업지도·보건 및 후생
5. 연구·학술활동 지원 및 연구비 관리
6. 발전계획 및 대외교류 지원
7. 보안·관인관수·문서관리·인사·회계와 시설관리
8. 부속시설의 운영 및 지원
9. 기타 대학(원)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 제 5 절 학장회 및 위원회

제 33 조 (학장회) ①본교의 중요사항을 종합심의하기 위하여 학장회를 둔다.

②학장회는 총장·부총장·학(원)장·기초교육원장·교무처장·학생처장·연구처장·기획실장·사무국장·시설관리국장 및 중앙도서관장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총장이 된다.<개정 2003. 1. 1, 2004. 8. 3>

③학장회는 총장이 소집한다.

④학장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학부·학과·전공 및 부속시설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2. 입학·수료 및 졸업에 관한 중요사항
3. 고사 및 시험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장학 및 후생에 관한 사항
5. 대학(원)간의 조정을 요하는 사항
6. 학칙·제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7. 연구비·장학금 등 재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학장회의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제 34 조 (기획위원회) ①본교의 발전계획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를 둔다.

②기획위원회는 부총장·교무처장·학생처장·연구처장·기획실장·사무국장·시설관리국장·기획부실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20인 이내의 교수 또는 부교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개정 2003. 1. 1, 2003. 8. 23>

③기획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장기교육 및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시설계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획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 ④기획위원회에 일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⑤기획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⑥기획위원회의 간사는 기획담당관이 된다.

제 35 조 (재정위원회) ①본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

②재정위원회는 부총장·연구처장·기획실장·사무국장·시설관리국장·기획부실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9인 이내의 교수 또는 부교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개정 2003. 8. 23>

③재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의 수립
  2. 재원확보를 위한 활동
  3. 재원별 재정운용에 관한 지침과 기준 작성
  4. 주요사업에 관한 우선순위 심의
  5. 재정운용에 관한 심사분석 및 평가
  6. 기타 재정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④재정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재정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재정위원회의 간사는 기획담당관과 예산담당관이 된다.

제 36 조 (대학원위원회) ①대학원과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학장·전문대학원장·교무처장·학생처장·연구처장·기획실장과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개정 2003. 1. 1>

③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석사·박사학위과정의 설치와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2. 학위심사의 제도와 절차에 관한 사항
3. 대학원과정의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의 제도에 관한 사항
4. 박사학위와 명예박사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5. 박사학위논문의 심사위원 선정과 심사에 관한 사항
6. 대학원과정의 운영에 관한 재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석사·박사학위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사항
8. 기타 대학원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④대학원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⑤대학원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대학원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조 제3항 제4호에 관한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⑦위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예비로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별로 대학원 학사위원회를 둔다.

제 37 조 (대학인사위원회) ①대학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인사위원회를 둔다.

②대학인사위원회는 학(원)장·기초교육원장·교무처장·학생처장·연구처장·기획실장과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선출한다.<개정 2003. 1. 1, 2004. 1. 16>

③대학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임교수의 임명 제청, 전보 제청 또는 임명의 동의에 관한 사항
2. 부총장·학(원)장의 임용 동의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대학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은 전체 위원 중 여성위원이 20% 이상이 되도록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04. 1. 16>

⑥대학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4. 1. 16>

⑦대학인사위원회의 간사는 교무과장이 된다.

⑧대학(원)에 인사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8 조 (기초교육위원회) ①학사과정의 기초교양교육 방침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초교육위원회를 둔다.<개정 2004. 8. 3>

②기초교육위원회는 부총장, 기초교육원장·기초교육원부원장·교무부처장·교수학습개발센터소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초교육원장이 된다.<개정 2004. 8. 3>

③기초교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초교양교육 정책과 관련된 발전계획<신설 2004. 8. 3>
  2. 교양교과과정의 제정·개편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04. 8. 3>
  3. 기타 학사과정의 기초교양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04. 8. 3>
- ④기초교육위원회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기초교육위원회의 간사는 기초교육원 행정지원팀장이 된다.<개정 2002. 6. 7, 2004. 8. 3>

제 39 조 (학사운영위원회) ①대학(원)의 교과과정과 학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연구·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학사운영위원회는 교무처장·교무부처장·입학관리본부장·기초교육원 부원장 및 각 대학(원) 교무부학(원)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무부처장이 된다.<개정 2004. 8. 3>
- ③학사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연구·심의한다.
1. 각급 학위과정의 교과과정 편성·개편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수료 및 학위수여 대상자 선정
  3. 기타 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 ④학사운영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학사운영위원회의 간사는 교무과장이 된다.
- ⑥전항의 사항을 사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별로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를 둔다.

제 40 조 (연구위원회) ①학술연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둔다.

- ②연구위원회는 교무처장·연구처장·기획실장·연구부처장과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처장이 된다.<개정 2004. 5. 12>
- ③연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술연구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사업비의 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3. 연구제목, 연구자의 선정과 연구비 배정에 관한 사항
  4. 연구결과의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5. 학술보고서·논문집 등에 관한 사항
  6. 연구소간의 협력 조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
- ④연구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특임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연구위원회의 간사는 연구진흥과장이 된다.<개정 2003. 1. 1>

제 41 조 (정보화위원회) ①본교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위원회를 둔다.

- ②정보화위원회는 부총장·교무처장·학생처장·연구처장·기획실장·사무국장·시설관리국장·정보화본부장·중앙도서관장 및 중앙교육연구전산소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8인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총장이 된다.
- ③정보화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종합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관별 장·단기 정보화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정보화사업의 기획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 ④정보화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⑤정보화위원회의 간사는 정보화기획팀장이 된다.<개정 2003. 1. 1>

## 제 6 절 평의회

제 42 조 (평의회) ①대학발전과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평의회를 둔다.

②평의회는 교수회에서 선출하는 전임교수 및 총장이 위촉하는 학외인사 등 50인 이상 100인 이내로 구성하되, 총장이 위촉하는 학외평의원의 수는 전체 평의원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다만, 총장, 부총장, 학(원)장, 처·실장, 도서관장, 부학(원)장, 부처·실장 및 본부장 (이하 "주요 보직교수"라 한다)은 평의원이 될 수 없다.

③주요 보직교수와 사무국장, 시설관리국장은 평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평의회는 주요 보직 교수와 사무국장, 시설관리국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대학운영의 현황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평의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두되 평의원 중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제4항과 같다.

⑥평의회의 정기회는 매학기 2회 집회되며, 평의회의 임시회는 총장, 의장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⑦평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총장은 평의회가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평의회는 총장이 재의를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안건은 평의회의 의결로서 확정된다.

⑨평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교육 및 학사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대학(원) 또는 부속시설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3. 학부·학과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4. 교원인사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5.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⑩평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 및 기타 중요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운영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4. 총장후보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장, 의장,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대학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⑪평의회에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평의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04. 1. 16>

⑫평의회에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에는 평의원이 아닌 교수, 직원, 학생, 동문, 학부모 및 학외인사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⑬평의회에 행정지원을 위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⑭평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의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3. 8. 23]

## 제 3 장 학 사 운 영

### 제 1 절 학사운영 일반

제 43 조 (학년·학기) ①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학기는 매학년도 학사력으로 정한다.

제 44 조 (수업주수) ①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의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②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학년 2주의 범위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 45 조 (휴업) ①정기 휴업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및 개교기념일로 한다.

②하기휴가·동기휴가 기간은 따로 정한다.

③임시휴업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

제 46 조 (수업연한·재학연한) ①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내지 6년으로 하되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건축학과 건축학전공은 5년, 의과대학·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은 그 교육과정을 예과2년, 전공학과 4년으로 한다.

②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하며, 석사·박사통합과정은 4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교내·외의 타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6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으며, 석사·박사 통합과정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02. 10. 25>

③재학연한은 학사과정은 8년(예과는 4년)을, 석사과정은 4년을, 박사과정은 6년을, 석사·박사 통합과정은 8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편입학자는 잔여수업연한의 2배로 한다. 다만, 유급규정을 적용하는 의과대학·치과대학·수의과대학·간호대학·약학대학의 학사과정 학생, 학사과정의 부전공·복수전공·연합전공이수자, 재외국민 및 외국인 학생 등은 재학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④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 2 절 입학과 등록

제 47 조 (입학시기) ①학사과정의 입학시기는 학년도초 4주(28일) 이내로 한다. 다만, 편입학시기는 매학기초 4주(28일) 이내로 한다.

②대학원과정의 입학시기는 매학기초 4주(28일) 이내로 한다.

제 48 조 (학사과정 입학자격) 학사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
2.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 49 조 (석사과정 입학자격) 석사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외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 50 조 (박사과정 입학자격) 박사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외에서 정규의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석사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한 자
3.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 51 조 (석사·박사 통합과정 입학자격 및 운영) ①석사·박사 통합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외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석사·박사 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52 조 (대학원과정 지원학부 또는 학과의 허용범위) ①대학원과정에는 지원자의 출신학부·학과 이외의 학부·학과에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박사과정에는 지원자격을 일정한 석사과정의 출신학부·학과 또는 전공으로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3. 6. 11>

②학부·학과별로 지원할 수 있는 출신학부·학과 또는 전공을 제한할 경우에는 모집시에 그 내용을 공고한다.<개정 2003. 6. 11>

③출신학부·학과의 범위는 부전공 학부·학과를 포함한다.

제 53 조 (입학전형) ①입학생 선발은 별도로 정하는 고사 또는 심사로 한다.

②입학전형의 절차와 방법은 모집시에 공고한다.

③입학고사의 관리·시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입학전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54 조 (편입학) ①학사과정의 편입학은 정원내편입학과 정원외편입학으로 구분한다.

②정원내편입학 학년은 3학년(의과대학 의학과, 치과대학 치의학과 및 수의과대학 수의학과는 1학년)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학년의 신입생 선발시 편입학을 목적으로 배정된 정원의 범위내에서 선발한다.

③정원외편입학 학년은 3학년(의과대학 의학과, 치과대학 치의학과 및 수의과대학 수의학과는 1학년)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인원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내, 3학년 입학총정원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단, 제85조의 위탁생의 경우에는 편입학 학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 편입학 자격은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전문개정 2003. 6. 11]

제 55 조 (정원의 입학)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재외국민, 외국인, 특수교육대상자, 농어촌학생 등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3. 6. 11>

제 56 조 (등록) ①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재학생은 매학기 소정기일내에 소정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 3 절 학적관리

제 57 조 (전과(부)) ①학사과정의 전과(부)는 매학년 말에 허가하며, 전출 및 전입 인원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②전과(부)를 허용하는 모집단위의 범위와 전과(부)자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58 조 (휴학 및 제적) ①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매학기 소정의 등록기간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휴학원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단, 등록

한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기 수업주수의 4분의 2 이내에 할 수 있다.

②당해학기 수업주수 4분의 2 이후에 군복무 및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군입영 증빙 서류 또는 종합병원장이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휴학기간은 학사과정 6학기(예과과정 3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 학기를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제적한다. 다만, 병역법상 복무 의무기간은 예외로 한다.

④휴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제적된다.

⑤재학연한을 초과한 자는 제적된다.

제 59 조 (복학 및 복적) ①휴학자의 복학은 소정의 등록 기간내에 허가할 수 있다.

②전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1년 이내에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복적할 수 있으며, 복적은 1회에 한한다.

제 60 조 (재입학) ①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하여 그 학기에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에는 원학년 이하에 한하여 매학기초 소정기일내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46조에 의한 재학년한 초과자, 제98조 제3항에 의한 징계 제명된 자, 제100조에 의한 학사제명·유급제명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③재입학은 1회에 한한다.

④재입학생이 이미 이수한 학점은 통산하여 줄 수 있다.

제 61 조 (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원)장에게 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62 조 (이중학적 금지) 본교 학생은 이중학적을 가질 수 없다.

#### 제 4 절 수강신청 및 학점취득

제 63 조 (수강신청) ①학생은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등의 수강지도를 받아 지정된 기일내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수강 승인을 얻은 교과목은 총장의 허가없이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64 조 (교과목 구분) 교과목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및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하고, 교양과목과 전공과목 중 필수와 선택의 구분은 교과과정에 따른다.

제 65 조 (학점) ①교과목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당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며, 실험·실습·실기 및 체육은 1학기당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제44조 제2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대학원과정의 “논문연구” 교과목에 대한 이수단위, 이수기간, 이수방법 등은 교과과정에 따로 정한다.

제 66 조 (학사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 ①학사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17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교과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2개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3 이상일 때 또는 교과과정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학별 학기당 취득학점을 초과하여 21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지도교수와 학과(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7 조 (대학원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 대학원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교과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68 조 (전공이수) ①학사과정에서 학생이 소속한 전공(주전공)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1.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 이외의 전공과정을 일정 학점수 이상 체계적으로 이수하는 부전공
2.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의 전공과정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전공과정을 이수하는 복수전공
3. 2개 이상의 학과(부)·전공이 연합하여 교과과정을 편성·제공하거나 학생이 교과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연합전공

②<삭제 2003. 6. 11>

③제1항의 전공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3. 6. 11>

제 69 조 (과정이수 학점) ①학사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하되 교양과목 36학점 이상, 전공과목 39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의학과·치의학과·수의학과의 학사과정은 전공과목을 주로 과하며 교양과목은 해당 예과에서 과하되 예과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68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학사과정의 연합전공 이수자는 연합전공에서 정한 소정의 학점을, 복수전공 이수자는 해당학부·학과에서 정한 전공교과목 학점을, 부전공 이수자는 주전공 학부·학과에서 정한 전공교과목과 부전공 학부·학과에서 정하는 교과목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석사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24학점 이상, 박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60학점(석사과정 취득학점 포함) 이상으로 한다.

④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의 이수학점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 70 조 (타 학부·학과 교과목의 이수) 타 대학(원) 또는 타 학과(부)의 교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 71 조 (과정간의 학점취득 인정) ①학사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으로서 석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학부장 또는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 졸업(수료)학점에 포함하거나 석사과정 입학후 석사과정 졸업(수료) 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②석사과정 또는 석·박사 통합과정의 학생으로서 학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학부장 또는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학기당 3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6학점 이내에서 과정수료 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제 72 조 (선수과목) 대학원과정에서 사전에 학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교과과정에 선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때 취득한 학점은 학위취득 소요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73 조 (타대학 이수 학점의 인정) 학생이 국내·외의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과정별 이수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이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생과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3분의 2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74 조 (취득학점의 인정) ①학사과정에서는 교과목별 성적이 "D"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며, 전 교과목 및 전공교과목(부전공·복수전공·연합전공교과목 포함)의 성적 평점평균이 각각 2.0 이상이어야 졸업할 수 있다.

②대학원과정에서는 교과목별 성적이 "D"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며, 각 과정에서 이수한 전 교과목 및 전공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각각 3.0 이상이어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개정 2003. 6. 11>

## 제 5 절 시험과 성적

제 75 조 (시험)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기말에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중간시험을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 76 조 (성적평가) ①학업성적은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석상황, 학습태도 등을 참작하여 부여하며,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평    점
A <sup>+</sup>	4.3
A <sup>0</sup>	4.0
A	3.7
B <sup>+</sup>	3.3
B <sup>0</sup>	3.0
B	2.7
C <sup>+</sup>	2.3
C <sup>0</sup>	2.0
C	1.7
D <sup>+</sup>	1.3
D <sup>0</sup>	1.0
D	0.7
F	0

②별도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급락만 구분하여 급제는 “S”로, 낙제는 “U”로 표시하며, 평점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성적평가 자료가 미비할 때에는 잠정적으로 “I”(미완)의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④수강승인을 받고 수강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은 “F”가 된다.

제 77 조 (추가시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할 때에는 사전에 추가시험원을 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성적이 확정 될 때까지는 “I”로 처리된다.

## 제 6 절 수료와 졸업

제 78 조 (학사과정의 학년수료) ①학사과정의 학년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1학년 수료에는 33학점 이상
2. 2학년 수료에는 66학점 이상
3. 3학년 수료에는 98학점 이상
4. 4학년 수료에는 130학점 이상

②학사과정에서 해당학년까지 소정의 등록을 필하고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학년 수료를 인정한다.

제 79 조 (학사과정의 졸업) ①재학생으로 제46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학사과정을 이수하고 대학별로 정한 졸업요건을 갖춘 경우 졸업 희망학기 수업주수 4분의1 이내에 졸업신청서를 제출하고 졸업논문심사 또는 그와 동등한 실적심사에 합격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②졸업증서에는 제5조 제4항에 의한 교과과정상의 전공을 표기할 수 있다.

제 80 조 (대학원 과정의 졸업) ①재학생 또는 수료생으로 제46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소정의 기일 내에 최종 인증된 논문을 제출한 자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②재학생 또는 수료생으로 제46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박사과정 또는 석사·박사 통합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소정의 기일 내에 최종 인증된 논문을 제출한 자에게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③석사·박사 통합과정을 중도에 퇴학하는 자로서 제1항의 석사학위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 81 조 (학위수여) ①학위는 학사·석사·박사 및 명예박사 4종으로 하고,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제12조 제2항의 전문대학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전문학위를 수여하되, 필요한 경우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3. 6. 11>

### 제 7 절 특별학점취득·계절학기·공개강좌

제 82 조 (특별학점 취득) ①특별학점 취득을 위하여 교양과목학점취득 특별시험을 실시하여, 최대 12학점까지 취득하게 할 수 있다.

②교양과목학점취득 특별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83 조 (계절학기 등) ①필요에 따라 계절학기를 운영할 수 있으며, 매 계절학기에서 9학점까지 취득하게 할 수 있다.

②필요에 따라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 수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학점을 취득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84 조 (공개강좌) 본교에 학생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으며, 강좌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 8 절 위탁생·특별수강생 등

제 85 조 (위탁생) ①법령이 정하는 위탁학생이 있을 때에는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에 정원의외로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위탁생에게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정의 전형을 거쳐 입학이 허가된 자에게는 이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03. 6. 11>

③위탁생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86 조 (특별수강생) ①각급 학위과정에 특별수강생의 수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특별수강생에게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 87 조 (교류수학생) 본교와 국내외 대학간 학생의 교류수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88 조 (연수연구원) ①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본교 전임교수가 아닌 자를 연수연구원으로 위촉하여 연

구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연수연구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 89 조 (대학원연구생) ①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소정의 등록을 필한 자에게 대학원연구생의 자격을 준다.

②대학원연구생의 자격·신분·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 4 장 학 생

### 제 1 절 학생활동

제 90 조 (학생회 등) ①학생은 학생회 등 학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위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91 조 (학생 생활지도) 학업 및 학생생활의 상담과 지도를 위하여 상담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 92 조 (학생의 의무) ①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②학생회 등 학생단체는 집회 및 행사를 주최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93 조 (간행물) 학생의 간행물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 2 절 장 학

제 94 조 (수업료 면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에게는 학생수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수업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제 95 조 (장학금) 학생에게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96 조 (학비보조 등) ①간호대학 간호학과 제3학년 이상의 학생은 재학 중 학생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들 학생에 대하여는 기숙사비·피복비 및 그 밖의 학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이 휴학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학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기간 중 학비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 제 3 절 규율과 상벌

제 97 조 (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는 포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98 조 (징계) ①총장은 학생이 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②총장은 징계에 관한 사항을 학(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징계는 근신, 정학 및 제명으로 한다.

④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구두진술·증거제출·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징계절차 및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99 조 (학사경고) ①학사과정 학생으로서 한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1.7에 미달되거나 3교과목 이상 또는 6학점 이상이 "F"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 다만, 유급을 적용하는 대학은 유급규정에 따른다.

②학(원)장은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 3학점, 연속하여 함께 2회 이상 받은 학생에 대하여 6학점을 다음 학기 수강신청 상한 학점에서 하향 제한하는 내규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03. 6. 11>

제99조의2 (유급) 학사과정에 있어서 의과대학, 치과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의 학생으로서 성적이 일정수준에 미달한 자에 대하여 유급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3. 6. 11]

제100조 (학사제명·유급제명) ①학사과정 학생으로서 제99조의 학사경고를 함께 4회를 받은 경우에는 학사제명한다. 다만, 학사지도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학사제명을 유보할 수 있으며, 학사제명을 유보 받은 학생이 다시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에는 학사제명한다.

②학사지도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제99조의2의 유급을 적용하는 대학의 학생으로서 유급 처분을 동일학년에서 함께 2회를 받은 경우이거나 재학년한내 함께 3회를 받은 경우에는 제명한다.<개정 2003. 6. 11>

## 제 5 장 납입금

제101조 (납입금 납부의무) ①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에 수업료 등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등록기간 종료 이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학기 납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102조 (복학자의 납입금) 복학이 허가된 자는 그 학기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3조 (결석 또는 정학시의 납입금) 납입금은 결석 또는 정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104조 (실험실습비 등) 실험·실습·실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따로 징수할 수 있다.

제105조 (납입금의 반환) ①이미 납입한 납입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그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1.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 전액
2.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사망·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4. 재학 중인 자가 퇴학원을 제출한 경우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된 경우

②전항의 반환금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다만, 당해학기 개시일 전에 반환 신청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을 경과하여 신청한 때에는 납부한 금액의 10분의 1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사 유 발 생 시 기	반 환 금 액
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 전	납입금 전액
당해학기 개시일로부터 총수업일수의 3분의 1 경과 전	입학금을 제외한 납입금의 3분의 2 해당액
총수업일수의 3분의 1을 경과한 날로부터 총수업일수의 2분의 1 경과 전	입학금을 제외한 납입금의 2분의 1 해당액
총수업일수의 2분의 1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 제 6 장 학 칙 개 정

제106조 (학칙개정) 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 또는 교수회가 발의하고, 5일 이상 공고한 후 학장회 및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확정 공포한다.

제107조 (규칙 제정 및 개정) 총장이 이 학칙 시행을 위한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5일 이상 공고한 후 학장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확정 공포한다.

부 칙 (제1455호, 2004. 8. 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학별 설치 학과(부) · 전공

단과대학	설치학과(부) · 전공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노어노문학과, 서어서문학과, 언어학과, 국사학과,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철학과, 종교학과, 미학과, 고고미술사학과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외교학과, 경제학부, 사회학과, 인류학과, 심리학과, 지리학과, 사회복지학과, 언론정보학과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통계학과, 물리학부, 화학부, 생명과학부, 지구환경과학부, 의예과, 「치의예과」, 수의예과
간호대학	간호학과
경영대학	경영학과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응용화학부, 재료공학부, 전기공학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컴퓨터공학부, 건축학과 건축학전공, 건축학과 건축공학전공, 산업공학과, 원자핵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 생물자원공학부, 응용생물화학부, 산림과학부, 동물자원과학과, 식품공학과, 조경학과, 농경제사회학부, 농산업교육과
미술대학	동양화과, 서양화과, 조소과, 디자인학부
법과대학	법학부
사범대학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불어교육과, 독어교육과, 사회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국민윤리교육과, 수학교육과,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체육교육과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이동학부,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수의과학대학	수의학과
약학대학	약학과, 제약학과
음악대학	성악과, 작곡과(작곡전공, 이론전공), 기악과(피아노전공, 현악전공, 관악전공) 국악과
의과대학	의학과
치과대학	치의학과

※ 「」 표의 치의예과는 예과생 수료시까지 존치

[별표 2]

학사과정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모 집 단 위		2004학년 입학정원
인문대학	인문계 1	191
	인문계 2	144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계열	375
	인류·지리학과군	55
자연과학대학	수학·통계학계열	69
	물리학부	50
	화학부	46
	생명과학부	60
	지구환경과학부	55
간 호 대 학		70
경 영 대 학		200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190
	응용화학부	110
	재료공학부	100
	전기공학·컴퓨터공학계열	256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100
	건축학과건축학전공	32
	공학계열	162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52
	농산업교육과	21
	농생명과학계열 1	129
	농생명과학계열 2	100
	생물자원공학부	68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120
	동양화과	
	서양화과	
	조소과	
법 과 대 학		205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31
	외국어교육계	61
	인문교육계	38
	사회교육계	66
	수학교육과	32
	과학교육계	104
	체육교육과	48
생활과학대학	인문계	125
	자연계	
약 학 대 학		70
음악대학	작곡과	170
	성악과	
	기악과	
	국악과	
의 예 과		135
수의예과		45
소 계		잘못된 계산식
의 학 과		150
치의학과		90
수의학과		45
소 계		285
합 계		4,170

※ 의학과, 치의학과, 수의학과 입학정원은 2002학년 의예과, 치의예과, 수의예과 입학정원임



[별표 3] 대학원과정의 학과(부) · 전공 및 2004학년 입학정원

구 분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	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
서 울 대 학 교	총 계	3,626	총 계	1,604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5개월 71학과(부) 27협동과정)	3,144	박사학위과정(5개월 71학과(부) 26협동과정)	1,604
	인문사회계 (35학과(부) 15전공)	932	인문사회계 (37학과(부) 10전공)	362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노어노문학과 서어서문학과 언어학과 국사학과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철학과 (동양철학전공) (서양철학전공) 고고미술사학과 (고고학전공) (미술사학전공) 종교학과 미학과 교육학과 (교육학전공) (교육공학전공) (교육상담전공) (교육행정전공) (평생교육전공) 국어교육과 외국어교육과 (영어전공) (독어전공) (불어전공) 사회교육과 (일반사회전공) (역사전공) (지리전공) 체육교육과 국민윤리교육과 법학과 정치학과 외교학과 경제학부 경영학과 농경제사회학부 사회학과 인류학과 심리학과 지리학과 사회복지학과 인문정보학과 소비자학과 아동가족학과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노어노문학과 서어서문학과 언어학과 국사학과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철학과 (동양철학전공) (서양철학전공) 고고미술사학과 (고고학전공) (미술사학전공) 종교학과 미학과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외국어교육과 (영어전공) (독어전공) (불어전공) 사회교육과 (일반사회전공) (역사전공) (지리전공) 체육교육과 국민윤리교육과 법학과 정치학과 외교학과 경제학부 경영학과 농경제사회학부 사회학과 인류학과 심리학과 지리학과 사회복지학과 인문정보학과 소비자학과 아동가족학과 행정학과 환경계획학과	

대학원(일반)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	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
	자연과학계 (19학과(부)11전공) 수리과학부 통계학과 물리학과 화학부 생명과학부 지구환경과학부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과 (물리전공) (화학전공) (생물전공) (지구과학전공) 식물생산과학부 (농학전공) (원예학전공) 산림과학부 (산림자원학전공) (임산공학전공) 농생명공학부 생물자원공학부 (농업토목전공) (농업기계전공) (천연섬유학전공) 농산업교육과 생태조경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간호학과 약학과 제약학과	796	자연과학계 (19학과(부) 11전공) 수리과학부 통계학과 물리학과 화학부 생명과학부 지구환경과학부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과 (물리전공) (화학전공) (생물전공) (지구과학전공) 식물생산과학부 (농학전공) (원예학전공) 산림과학부 (산림자원학전공) (임산공학전공) 농생명공학부 생물자원공학부 (농업토목전공) (농업기계전공) (천연섬유학전공) 농산업교육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간호학과 약학과 제약학과 보건학과	430
	공학계 (9학과(부)) 건축학과 응용화학부 산업공학과 원자핵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 재료공학부 기계항공공학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전기·컴퓨터공학부	802	공학계 (9학과(부)) 건축학과 응용화학부 산업공학과 원자핵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 재료공학부 기계항공공학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전기·컴퓨터공학부	391
	예·체능계 (5학과(부)) 음악과 동양화과 서양화과 조소과 디자인학부 의학계(3학과)	116	예·체능계 (3학과(부)) 음악과 미술학과 디자인학부	32
	의학과 치의학과 수의학과	292	의학과 치의학과 수의학과	264

「 」안의 학과는 학과(부) 전공수에 불포함, 입학정원은 없음.

대학원(일반)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	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
	협동과정(27전공)	206	협동과정(26전공)	125
	인지과학전공 서양고전학전공 비교문학전공 기록관리학전공 공연예술학전공 과학사 및 과학철학전공 유전공학전공 뇌과학전공 의용생체공학전공 생물정보학전공 나노과학·기술전공 계산과학전공 기술정책전공 기술경영전공 생물화학공학전공 도시설계학전공 농업생물공학전공 음악교육전공 미술교육전공 경영교육전공 가정교육전공 방사선응용생명과학전공 중앙생물학전공 임상약리학전공  여성학전공 특수교육전공 환경교육전공		인지과학전공 서양고전학전공 비교문학전공  공연예술학전공 과학사 및 과학철학전공 유전공학전공 뇌과학전공 의용생체공학전공 생물정보학전공 나노과학·기술전공 계산과학전공 기술정책전공 기술경영전공 생물화학공학전공 도시설계학전공 농업생물공학전공 음악교육전공 미술교육전공  방사선응용생명과학전공 중앙생물학전공 임상약리학전공 음악학전공 (서양음악학) (한국음악학) 조경학전공 여성학전공 특수교육전공 환경교육전공	
전문대학원	4개대학원 6개학과 8개전공	482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전공) (보건정책관리학전공) 환경보건학과	119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정책학전공)	167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환경조경학과	106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국제통상전공) (국제협력전공) (국제지역학전공) (한국학전공)	90		

※ 대학원 석사·박사과정의 수학과, 전산과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분자생물학과, 미생물학과, 천문학과, 대기과학과, 지질학과 지질학전공·지구물리학전공, 해양학과, 농화학과, 식품공학과, 동물자원과학과, 농생물학과 기초농생물학전공·식물병리학전공·곤충학전공, 농업교육과, 금속공학과, 섬유고분자공학과, 무기재료공학과, 기계공학부, 기계공학과, 기계설계학과, 항공우주공학과, 자원공학과, 토목공학과 토목공학전공·도시공학전공, 전기공학부, 컴퓨터공학과, 협동과정 천연물과학전공, 통상협상전공, 국제협력전공, 지역연구전공, 한국학전공 및 보건대학원의 보건학과 보건학전공·인구보건학전공은 입학정원이 없으며 재적생 졸업시까지만 학과 존치

[별표 4] <개정 2002. 10. 25, 2003. 1. 1, 2003. 2. 25, 2003. 6. 11, 2004. 2. 24>

연구 시설

주 관 대 학	연 구 시 설
인 문 대 학	인문학연구원, 한국문화연구소, 미국학연구소, 인지과학연구소, 철학사상연구소, 역사연구소. (6개)
사 회 과 학 대 학	사회과학연구원, 경제연구소, 언론정보연구소, 국제문제연구소, 심리과학연구소, 사회발전연구소, 국토문제연구소, 여성연구소. (8개)
자 연 과 학 대 학	기초과학연구원, 유전공학연구소, 해양연구소, 이론물리학연구소, 미생물연구소, 수학연구소, 생명공학공동연구원. (7개)
간 호 대 학	간호과학연구소. (1개)
경 영 대 학	경영연구소, 노사관계연구소, 경영정보연구소, 증권·금융연구소. (4개)
공 과 대 학	반도체공동연구소, 공학연구소, 신소재공동연구소, 자동화시스템공동연구소, 컴퓨터연구소,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소,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 항공우주신기술연구소. (11개)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연구원, 농업생물신소재연구소. (2개)
미 술 대 학	조형연구소. (1개)
법 과 대 학	법학연구소. (1개)
사 범 대 학	교육종합연구원, 교육연구소, 스포츠과학연구소, 국어교육연구소. (4개)
생 활 과 학 대 학	생활과학연구소. (1개)
수 의 과 대 학	수의과학연구소. (1개)
약 학 대 학	종합약학연구소, 천연물과학연구소. (2개)
음 악 대 학	동양음악연구소, 서양음악연구소, 오페라연구소. (3개)
의 과 대 학	의학연구원, 암연구소, 간연구소. (3개)
치 과 대 학	치학연구소. (1개)
보 건 대 학 원	보건환경연구소. (1개)
행 정 대 학 원	한국행정연구소, 정보통신행정연구소. (2개)
환 경 대 학 원	환경계획연구소. (1개)
국 제 대 학 원	국제학연구소. (1개)
계	61개

[별표 5]<개정 2002. 10. 25, 2003. 1. 1, 2003. 2. 25, 2004. 2. 24, 2004. 8. 3>

부 속 시 설

소 속	부 속 시 설
본 부 직 할	박물관, 규장각, 학생기숙사, 보건진료소, 교수학습개발센터, 실험 동물사육장, 기초과학공동기기원, 언어교육원, 대학생활문화원, 성회룡·성폭력상담소, 기록관, 환경안전원, 미술관. (13개)
공 과 대 학	연구지원소. (1개)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장, 연습림, 실험목장, 수목원, 농업과학공동기기센터, 부설중등교육연수원. (6개)
사 범 대 학	부설교육행정연수원, 부설중등교육연수원,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 (3개)
생 활 과 학 대 학	어린이집. (1개)
수 의 과 대 학	동물병원. (1개)
약 학 대 학	약초원, 약학교육연수원. (2개)
의 과 대 학	의학교육연수원. (1개)
치 과 대 학	치의학교육연수원. (1개)
보 건 대 학 원	보건사업소. (1개)
계	30개

제 호

졸 업 증 서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교 대학 학과( 전공  
부전공)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규정된 논문과  
시험에 합격하여 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서울대학교 대학장 학위 성명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서울대학교 총장 학위 성명 (인)

교육부학위등록번호 : 서울대○○(학)○○○○

제 호

졸업증서

성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교 ○ ○ 대학 ○ ○ 학부·학과( 전공)  
와 △ △ 대학 △ △ 학부·학과( 전공)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규정된 논문과 시험에 합격하여 ○ ○ 학사 및 △ △ 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서울대학교 ○ ○ 대학장 학위 성명 (인)

서울대학교 △ △ 대학장 학위 성명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서울대학교 총장 학위 성명 (인)

교육부 학위등록번호 : 서울대○○ (학) ○○○○

연구 실적증명서

현주소

(학위) 성명

서기    년    월    일생

이 이는 본교 대학(원)    학과(    연구소)의 연수연구원으로서  
서기    년    월    일부터 서기    년    월    일까지 연구분야  
에 종사하였음을 증명함.

서기    년    월    일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연구소)장

(학위)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본 증명서를 수여함.

서기    년    월    일

서울대학교 총장

(학위)

(인)



## 서울대학교백서 2002-2003

2004년 12월 일 인쇄

2004년 12월 일 발행

발행인 : 정운찬

편집인 : 오성환

발 행 : 서울대학교

인쇄처 : 가람문화사

02)873-2362